


The Enduring Journey of America's  
First Korean Immigrants

하루  에 일하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

김영관 지음

북산역



소명에  
부응했던 미주  
이민 선조들

역사는 기원과 유래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국권능탈의 비운과 치욕을 겪었던 우리 민족은 광복이 되기까지 중국 및 미주를 비롯한 내외 각지에서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년의 수난과 고통에 연이어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우리는 아직도 세계 속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았습니다.

광복 후 나라를 세운 지 올해로 60주년이 되는 동안 세계 도처에 흩어진 우리의 디아스포라는 7백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들에게 거는 기대와 과제 그리고 사명이 막중한 만큼, 시간적 공간적으로 흩어져 시련과 도전에 맞섰던 역사 속 이민 선조들을 조명하고 바로 이해하는 일 또한 매우 소중합니다.

1903년 하와이에 첫발을 디뎠던 미주 이민은 이제 백년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강인한 잠재력과 애국심으로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역경의 시대를 견딘 이민선조들은, 해방이 되기까지 나라사랑 겨레사랑 정신과 절개로 오로지 항일투쟁과 조국광복에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전역 초기 이민의 정신적 경제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자손도 없이 귀향조차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라도 소명과 책임의식으로 나라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이민 선조들의 공을 기리고 평가받도록 그들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살려내신 ‘복산책’ 김영란 대표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본토 이민의 관문으로 미주 이민의 주요 도시 샌프란시스코 이민사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정리 요약하여, 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권으로 압축한 실력과 정성이 놀랍습니다.

이민의 정착과정과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과 시대상, 미주에서 만든 단체 및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인종차별과 교육 및 그들의 생활토대이던 농업, 경제, 교회, 이민 문화까지도 자세히 보여 줍니다. 또한 장인환·전명운 두 의사의 애국적 스티븐스 저격사건과 그곳에 자리했던 한인 비행학교 등 당시 대사건들을 신문기사까지 보여주며 상세히 알려줍니다.

또한 인명, 지명, 초기 이민의 주요도시와 연표는 물론 유적지까지 안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 사진은, 한민족의 고난의 역사가 오롯이 새겨진 미주 이민의 특징과 그 시대의 맥을 잡고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쉽고 간결하고 재미도 있어 이민 역사의 전문을 넓히기에 더없이 좋은 교양서로 많은 이들의 필독을 권합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인류의 평화공존과 문화 복지를 실현하며 상생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불과 반세기에 높은 경제수준과 민주주의를 이뤄내며 세계화 대열에 당당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걸맞게 존경받는 나라로 세계 속의 위치를

다지려면 기록문화 면에서도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전통과 아름다운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려면 지나온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며 정체성 있는 훌륭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선조들이 겪어온 고난과 희생과 업적을 바로 알고 그 교훈을 새롭게 되살려 나가야 합니다.

미주 이민의 뿌리를 캐며 기록문화에 앞장서서 우리의 정체성 확인에 교량을 담당한 이 책이, 우리말과 글 그리고 거래의 얼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미주 교포들에게는 자긍심과 일체감을 주고 지나온 시간을 공정하게 인식하고 반성하는 이민사 연구에 주요자료가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한시도 고향과 민족과 나라를 잊지 못하고 미지의 땅에서 개척의 삶을 살았던 초기 이민의 고난의 삶은,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세대에 살더라도 시공을 초월한 한 핏줄 한 민족이며 숭고한 소명에 용기와 의지로 부응해야 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전 대한민국적십자사 총재

서 영훈



# 한인의 뿌리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길



나라의 역사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열과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1903년 1월13일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깰릭호를 타고 만 리길을 떠났던 102명은 한국 역사상 첫 공식 이민이었습니다. 그 배가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닿을 내린 이래 지난 한 세기 동안 200만이 넘는 미주 교포들이 그 드림을 쫓아왔습니다. 미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가 된 것도 정든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한미 교류시대를 열었던 개척자들의 고달프지만 성실한 행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주 이민역사 100년의 단초를 열고자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한인들’ 이민사 두 권이 출간되어 출판기념회를 하던 2003년,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때 책임과 소명을 다해 초기 이민사를 빈틈없이 정리해 낸 김영란 여사의 열정과 나라사랑 정신에서 받은 깊은 감동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 여사가 무거운 장서 대신 사진과 내용을 보충한 누구나 읽고 소장할 수 있는 이민사로 다시 만들겠다고 추천사를 부탁했을 때,

“무조건 합니다.”라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마다 않고 이 어려운 작업에 다시 진력하시는 김영란 여사에게 민족의 한 사람으로 감사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1905년,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하와이 초기 이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정착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미주 본토로 갔던 초기 이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바로 이곳에서 흥사단과 비행학교가 생겼고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장인환·전명운 두 의사의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임금의 많은 부분을 독립자금으로 헌납하여 독립의 초석을 다졌으며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재정을 상당부분 충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섰던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는 1600만 달러의 기부로 만들어진 ‘중문 리(Chongmoon Lee) 아시아예술문화센터’가 우뚝 서 있습니다. 대도시 박물관에 처음으로 사람 이름이 올랐다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한인이라는 사실은, 미주 한인의 역사만큼 코리아나 아메리칸의 훌륭한 이민 성취를 말해주는 자랑스러운 징표입니다.

먼 타국에서 나라 잃은 민족으로 태평양 넘어 애끓게 모국을 바라보던 이민선조들의 눈길과 발길을 따라가며 자취를 발굴해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의 일도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인의 뿌리를 찾아내는 길은 오직 교육뿐이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자는 역사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과거를 복원해 미국 초기 이민의 입문서를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초기 이민의 삶과 애환, 고뇌와 갈등, 신념과 희망, 투지와 집념이 진하게 녹아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순연한 애국심과 민족문화의 발자취를 만나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흘러주신 그분들의 피눈물 속

우리 모두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살든 누구에게든 조국과 민족은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해 온 우리 민족의 동력은 바로 민족의 본분을 다 하신 선조들의 정신이 바탕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애환에 젖으며 우리민족의 한량없는 자부심을 지켜가는 일은 후손들의 몫입니다.


역사가 아무리 찬란하고 유구해도 후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극단적 이기심과 물질만능, 권력다툼으로 정의와 도덕 사랑과 애국심을 잃은 민족이 되면 선조들과 후손들에게 무슨 낯으로 변명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역사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며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초기 이민사는 역동적으로 애국 애족에 매진하던 분들의 독립운동 현장보고서입니다. 고난 속에도 꿈을 잃지 않았던 용기 있는 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 책이, 역사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끊임없는 성찰 속에 자신을 재발견하며 정신을 가다듬는 필수교양 도서로 남기를 바랍니다. 역사란 무엇이고 왜 알아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2008년 9월 17일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 우 형



## 이민의 삶을 이해하는 도구

생활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통틀어 나에게 미주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일로 뛰었던 3년여 간은 단연 제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북 캘리포니아 일대는 미주 어느 곳보다 이민 선조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이민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민족을 비탄에서 구하려는 애국적 독립운동의 신호탄이 된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거사가 일어난 곳이며 일본을 제압하기 위한 공군양성 비행학교가 섰던 곳입니다. 정신적으로 민족정신 함양의 주역단체인 홍사단이 탄생한 곳이고 나라 없는 민족에게 울타리역할을 하던 애국적 단체인 국민회가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민 백년이 오도록 변변한 기록 하나 없어, 만일 이 시간을 넘기면 다시는 이민 백년사를 만들지 못 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민 백주년 기념 사업회 샌프란시스코 위원장을 맡으며 저는 이민사 발간을 우선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 때 김영란 대표는 산더미 같은 자료와 옛날 신문들과 씨름하며 책임과 사명감으로 초기 이민사를 훌륭하게 집필해 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한인들’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이민 백년사가 전반 후반 두 권으로 나왔을 때, 저는 회한과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 선조들과 대면할 수 있을까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란 대표께서 누구나 소장할 수 있는 책으로 다시 펴내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고뇌와 역경을 딛고 일어섰던 초기 이민들의 희생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민 후손들의 삶은 오늘처럼 탄탄히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야했던 초기 이민의 삶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사는 이민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줄 것입니다.

2008년 8월 15일

전 샌프란시스코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위원장 김 근 태



## 색깔로 행동하는 양심

1875 건축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팰리스 호텔은, 1883년 갓 을 쓴 조선인들이 일주일 간 머물며 미국과 친선외교를 벌였던 곳 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드문 만큼 1908년 3월 22일 유명한 페 어먼트 호텔 로비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관문인 샌프란시스코는 암울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인들이, 두려움은 뒤로 한 채 꿈과 희망으로 태평양 을 건너 뿌리내렸던 한인이민의 정착지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대지진 등 험난한 정착과정을 거치며 그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언어 장벽과 인종차별, 밤낮 없는 중노동에다 결혼상대는 물론 국적조차 없는 그야말로 위험수위를 넘는 환경이었지만, 비장하고도 단호하게 나라와 민족 사랑의 날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평선과 지평선을 바라보며 고향생각만으로도 위 로받던 분들의 눈길 발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분명한 색깔로 조국 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적극적인

공정적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분들의 아픔과 소외와 소통하는 동안, 오랜 세월 이어지는 민족의 얼과 녀은 기록을 통해서만 선명한 유산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실 된 최선의 삶을 살다갔다면 그것이 언제이든 위대한 완성이라는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일생을 바치신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님과, 교육과 문화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신 이수성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님의 격려는 제가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일에 매진하게 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주현 독립관장님의 추천은 무명의 독립유공자로 쓸쓸히 영면하신 모든 첫 이민께 공로패를 전달해 주신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연구에 근간을 마련하셨던 김근태 전 샌프란시스코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위원장님의 격려와 문헌으로 사진으로 자료를 제공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과 집념으로 인간의 한계와 시대에 도전했던 분들을 하룻밤에 다 읽기는 쉽지 않지만, 그 중 단 한 분의 이야기라도 그 분의 숨결로 느끼고 색다른 감동을 얻는다면 제 길었던 여정의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25일

‘북산책’ 대표 김 영 란

차

읽는  
미국 첫 이민 이야기



- •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 이수성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 김근태 전 샌프란시스코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위원장
- 발간사 • • 김영란 ‘북산책’ 대표

- 이민 그 시작의 배경 • 17
- 첫 이민 이끌었던 세 지도자 • 30
- 정신적 지주였던 도산 안창호 • 44
- 금문을 찾아서 • 66
-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났던 일 • 70
- 샌프란시스코에 올린 세 발의 총성 • 81
- 일본상공에 비행기를 날리자 • 116
-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간다 • 139
- 일본이 무엇이관데 • 143
- 선민사상과 황색 공포증 • 152



산다	• 162
흥사단의 활약과 업적	• 184
사진신부와 여성들	• 199
여자라고 못하랴?	• 206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	• 213
배워야 산다	• 231
믿어야 산다	• 250
알아야 산다	• 265
자유로 산 문학과 예술	• 276
돈을 벌어라	• 298
사업도 조국을 위해	• 311
땅을 터전삼아	• 322
지도자 33인의 치열했던 삶	• 332
최선의 삶	• 372
첫 이민이 남겨놓은 흔적	• 385
첫 이민 터 잡았던 곳	• 393
한 눈으로 보는 이민사	• 397
캘리포니아 중부 이민 이야기	• 407
도움 받은 서적 및 자료	• 431

# 이민 그 시작의 배경



1863 고종이 12세 어린 나이로 26대 조선의 임금이 되자,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섭정을 통해 쇄국정치를 실시했다. 1866년 대원군은 가톨릭 교인이었던 홍봉주와 남중삼 등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이고 8도에 영을 내려 많은 가톨릭 신자를 학살했다.

그해 8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강철, 유리제품 등을 신고 대동강 상류로 올라와서 통상을 제의했으나 조선의 봉건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미국인들은 작은 배를 타고 평양 상륙을 시도하자 충돌이 발생해 평양 관리들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3일간의 소규모 전쟁 후 결국 셔먼호가 불에 타서 침몰하자 1871년 미국 측은 사건조사를 목적으로 군함 5척을 파견했다. 그리고 강화도를 점령하려 했으나 조선의 완강하게 저지하는 바람에 물러가야 했다. 그것이 ‘신미양요’였다. 강화도에서 운양호사건을 일으킨 일본 또한 1876년 2월 26일에는 강압적으로 강화도에서 조선과 ‘병자수호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 하도록 했다.

차츰 한국문화가 개방되기 시작하자 열강들은 다투어 수교를 맺



황제

들었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 전권대신 신헌  
과 전권부관 김홍집이 미국 군함  
스와타라호를 타고 온 미국 전권  
대사 해군 제독 슈벨트와 중국  
이홍장의 도움으로 한미수호조약  
을 체결하였다. 그것은 서방 국가  
와 체결한 첫 조약으로 6월에 영  
국과 독일도 같은 장소에서 수호  
조약을 맺어 인천은 조선의 첫째  
가는 개항이 되었다. 조약 체결  
후 미국은 1883년 5월 초대 주한  
공사로 Lucius Foote를 파견하

고종은 그 기념으로 1883년 7월 16일 민영익을 단장으로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변수 등 보병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했다.

미국고문 프레드릭과 사절단 일행이 된 그들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그 해 9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들은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에 일주일 머물 후 기차로 워싱턴까지 갔는데, 각종 행사나 투숙지마다 태극기를 휴대하고 게양해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과시하는 자주외교를 펼쳤다. 그들은 미국을 견문하는 동안 미국에 호감을 갖고 조선도 근대적인 제도와 문물수용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유길준은 그들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최초의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귀국 길에 유럽까지 돌아보고 견문을 넓힌 후 돌아가 ‘서유견문’을 집필해 서방세계를 조선에 처음 소개했다. 그 책을 읽은 양반들은 서방세계를 동경하게 되었고 사절단으로 다녀온 사람들은 오히려 점진적인 조선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던 사람들과의 견해차이로



왼쪽부터 통역 Percival Lowell, 부사 홍영식, 정사 민영익, 서기관 서광범, 수행원 변수 후열 왼쪽에서 세 번째가 유길준 1883년 견미 친선사절단(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 투숙)

1884 10월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개화파의 실패로 서광범, 서재필, 박영효는 망명객이 되어 188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망명했다.

1887년 11월 12일에는 고종의 대미 자주외교와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전권공사를 설치하려고 초대 공사 박정양과 이완용, 이하영, 이상재 등을 미국으로 파견했다. 또한 외교 군사고문관의 초



1884년 10월 갑신정변의 주역들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빙이 추진되어 친 개화파가 형성됐다. 그러나 주미공사로 1888년 1월 박정양이 부임하자 청나라는 조선이 자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압력을 가해 공사는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에 돌아 온 그는 미국의 제도와 문물

상세히 소개한 ‘미속습유’를 저술해 고종과 정부 관리들이 대미 관계에 호의적이도록 분위기를 형성시켰다.



공사들

1894년에는 동학란 그리고 1895년에는 민비 암살사건으로 사회는 어수선했고 민심은 흥흥했다.

그 혼란하던 때 미국으로 간 사람은 1898년 이후 의주의 인삼장수 몇 사람이었다. 그 수요는 극

히 적었고 그들은 중국인 행세를 했기에 중국인으로 취급됐다.

하와이가 미국령이 되기 전인 1900년 1월 15일 양백인(31)과 김이유(34) 두 사람이 최초의 한인입국자로 미 이민국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양씨는 180달러를, 김씨는 400달러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중국인에게 비싼 값으로 인삼이 팔리던 시절이라 그들도 인삼장수로 추측된다. 1849년(49ers) 샌프란시스코 골드러시 붐으로 미국에 온 중국인들은 폐광 속에서 부스러기 금을 채취하며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조선 인삼을 매우 선호했기 때문이다.

1900년 6월 14일 하와이가 미국령으로 완전 합병한 뒤 실제로 미국에 입국한 최초의 민간 한국인은 1901년 1월 9일에 도착한 유두표라는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있던 근거는 ‘조선 백성은 미국 어느 곳이나 왕래하고 거류하며 토지와 가옥을 매매하고 건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적당한 영업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한미조약 6조 때문이었다. 하와이에 정식 이민이 열리기 이전까지 미국에 온 사람은 관사, 정치 망명객, 유학생, 상인들이었는데 총 숫자는 3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에는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던 세 사람은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이었다. 안창호는 1902년에, 이승만은 1904년에, 박용

1905년에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했다. 윤치호, 김규식, 이강 등 이민 지도자들도 이를 전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미국정부는 11월 30일 서울 주재 공사관을 폐쇄했고 12월 16일에는 워싱턴 주재 한국 주미 공사관도 폐쇄했다.



만국평화회의에 갔던 이준, 이상설, 이위중

한편 고종은 을사보호조약 후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중 이렇게 세 밀사를 파견해 조선의 사정을 만방에 알리고자 했다.

## 첫 노동이민

미국의 정식 이민은 하와이 사탕수수밭을 경작하기 위한 노동 이민이었다. 당시 조선 왕조는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적인 탄압과 수탈이 팽배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농민들의 농지를 사들여, 백성들은 경지를 잃고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에 시달렸다. 게다가 1901년 함경도 지역의 극심한 가뭄은 식량난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일거리를 찾아 멀리 시베리아나 만주, 또는 서울, 인천, 원산 등 대도시로 이주했다. 설상가상으로 1902년 여름에는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돌아 하루에 3~400명씩 죽어나갔다.

이에 고종황제는 1902년 돌아올 가을에도 흉작을 예상하고 7월 26일을 기해 쌀 수출 금지령을 내리고 급하지 않은 토목공사를 중지시켰다. 또한 중범죄수들을 석방하고 위생원으로 하여금 전염병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한편 1830년대부터 집약적으로 사탕수수농업을 시작한 하와이에서는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해 1864년부터 정식으로 아시아

노동이민 계약을 맺었다. 외국인 관리를 위해 이민국을 정식으로 발족시키기도 했는데 1882년 노동자의 숫자를 보면 거의 50% 정도가 중국인이었다.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1902년에는 일본인의 수가 전체의 73%나 이르게 됐다. 1900년에는 Organic Act라는 법이 제정되고 하와이 영토가 미국에 속하게 되어 행정체제가 바뀌었다. 하와이에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와이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것은 노동이민이 미주본토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기도 했다. 때마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옥한 농장지대를 대폭 개간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노동자들은 본토를 선망하며 너도나도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하와이는 노동력 부족 사태가 생겼고 일본계 노동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1900년에서 1905년 사이 34번이나 되는 동맹파업을 했다. 그러자 그들의 파업을 분쇄하고 견제할 필요를 느낀 하와이 사탕농장경작협회는 한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주한미국공사 알렌에게 청해 조선의 임금 고종에게 해외 이민을 건의하도록 했다.



알렌

1884년 9월 22일 미국 북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의료선교사 호레이스 알렌이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갑신정변으로 부상을 입었던 민영익을 치료한 공으로 황실 주치의가 되었던 사람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인 광혜원을 세우고 의술을 가르쳤다. 고종의 총애를 받아 그 후 주한미국 공사가 됐다.

한인들에게 미국이 문호를 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는 1901년 말 휴가차 미국으로 귀국했다. 돌아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경작자 협회(HSPA)의 이사인 어원을 만나

노동력 부족사태를 알게 됐다. 그때 그는 한국인의 이민 이민 추진을 계획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20만 정도였다.

고종과 친분이 두터웠던 알렌공사는 서울에 돌아와 고종황제를 알현한 자리에서 “지금 백성들은 개국진취를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하와이에 보내서 척식 사업과 신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어진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대한제국이 주위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고종은 미국행 이민을 승인했다. 고종의 윤허를 받은 알렌은 미국으로 이런 보고서를 보냈다.

“고종이 이민문제를 허락한 것은 중국인의 입국이 거부되는 때에 조선인의 입국이 허용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것 같다”

1902년 5월 9일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경작협회의 이름으로 한반도 곳곳에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가 붙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취업이민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데솔러라는 사람이 세운 ‘동서개발회사’가 실무를 담당했는데, 데솔러는 앨런의 정치적 발판이 되어준 친구였다. 앨런은 그에게 진 빚을 갚을 계기로 생각하고 노동을 주선하여 주었다. 대신 그는 농장 측에서 노동자 한 사람을 모집할 때마다 55달러를 받았다. 일본여자를 부인으로 두었던 그는 집이 일본에도 있었는데 배를 가지고 운송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 가는 노동자를 먼저 일본까지 실어 나르는 일을 하면 그야말로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조선인들은 인내심이 많고 부지런하며 유순한 인종이고 오랜 복종의 습성으로 다스리기 쉽다” 이민에 적극적이던 알렌은 하와이 주지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중국인이 대식가라서 식대가 많이 나간다는 농장 측의 비난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는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온순하며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나 중국인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쓰기도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빈곤하고 정부에서도 여비를 조달할



없으니 미리 경비를 빌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선박비조차 없던 가난한 이들에게도 이민의 길이 대폭 넓어졌다.

전도금이라 불린 이 돈은 선박비와 식비 등 이민수송비로 150달러였다. 농장주들이 유럽에서 이민을 고용하는 것보다 동양인을 선호한 것은 유럽인은 1인당 150달러가 드는 데 비해 동양인은 70달러 정도로 비용이 대폭 절감됐기 때문이다. 고종은 해외 사정에 밝은 민영환을 이민담당 총재에 임명하고 1902년 8월 20일 해외개발공사 기능을 갖춘 '수민원'을 발족시켰다. 수민원을 궁내부에 설치하고 황성신문에 이민모집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서울, 부산, 인천, 원산 등 대도시에 전국적으로 광고전단을 붙였다.



1902 하와이 이민농장 모집 광고

‘누구든 하와이로 가는 사람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와이는 기후가 좋고, 학교에서 학비를 받지 않으며,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고, 월급은 미국 돈으로 매달 15원(15불 - 약 67원 가량)씩 이

고, 매일 10시간 일하며 일요일에는 휴식 한다. 집과 식수가 제공되며 병이 나면 치료비는 고용주가 지급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조상이 물린 선산을 떠나는 것은 큰 죄로 알고 가족과 고향산천을 떠나는 일이라 모두들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개항한 지 10년이 채 안 돼 열강의 상권 쟁탈전이 한창 일고 있던 제물포(지금의 인천)에서 용동교회(현 내리 감리교회)를 맡고 있던 선교사 존스 목사가 나서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이민을 권장했다. 덕분에 최초의 이민 지원자 121명 중 절반이 존스 목사



목사 (1902년)

(Pastor G.H.Jones) 시무하던 교회 교인들이었다. 미주에 정착한 초기 이민은 교인이 많았으므로 미주한인사회는 당연히 훗날 교회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남녀신도 50명과 제물포항 노동자 20명,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여러 직업을 가진 51명 등 총 121명의 최초의 이민이 민영환 명의로 발급된 대한민국 집조(여권)

를 갖고 첫 이민선을 탔다.

이들 중에는 용동교회 교인들,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 시골선비, 군인, 농촌 머슴들, 막벌이 하던 역부, 건달도 끼어있었다. 그들의 교육정도는 65%가 문맹이었고 영어를 해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민을 결심한 그들의 동기는 대개 일본의 침략에서 오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 경제적 궁핍함에서 벗어나 보려는 의도였다. 첫 이민을 실은 배는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를 떠나 일본 고오베에 도착해 그곳에서 미국입국에 적합한지를 가리는 신체검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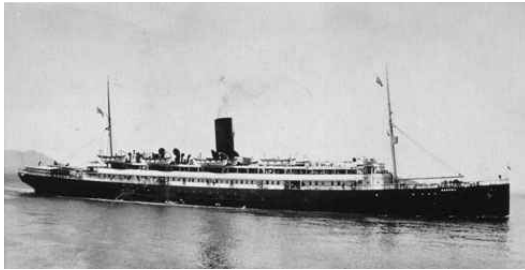
20명이 탈락하여 나머지 101명만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다. 남자 56명에 여자 22명, 그리고 아이들이 23명이었다. 이 중에 다시 8명은 눈에 이



첫 이민이 소지했던 대한민국 집조

상이 있다고 해서 입국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기막힌 일을 당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이민 배였던 갤리호를 타고 하와이에 들어온 한인 숫자는 93명이었다. 1903년부터 1905년 사이 남자 6,048명, 여자는 637명 그리고 어린이 541명이 들어왔는데, 총 7226명이 15번의

거처 미국에 들어왔다. 멀미 등 갖은 고생을 하며 한 달여 먼 뱃길을 달려왔지만 479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먼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에는 온 소수의 인삼상인 및 유학생 등이 있었으나, 대한제국이 수민원이라는 이민 담당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을 이민의 효시로 보



하와이 이민을 싣고 온 갤릭호

고 있다. 언젠가는 조국으로 금의환향을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낯선 섬에 정착한 그들이 바로 미주지역 이민의 첫 선구자였다.

## 이민들의 생활변화

하와이에 온 초기 이민들에게 맨 먼저 닥친 시련은 상투를 자르는 일이었다. 1895년 고종은 이미 전국적으로 단발령을 내렸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상투를 틀고 다녔다.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동서개발회사, 수민원 등의 권고로 상투를 자르기도 했지만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은 상투를 튼 채 하와이까지 왔다. 그런데 하와이에 도착해 보니 상투를 튼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농장에서 일하며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계속되는 단발 권유도 뿌리치기 힘들었으나, 그래도 수개월씩 버티면서 상투를 틀고 지냈던 것은 돈만 벌면 다시 귀국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초기 이민들은 의복에서도 변화를 경험했다. 제물포를 떠난 배가 경유지인 일본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이민회사 직원들이 신체

후 남자들에게 서양식 양복을 한 벌씩 나눠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의식의 변화도 겪었는데, 이민선에 올라탄 사람들의 대부분은 뿌리 깊은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를테면 너무도 당연한 ‘남녀 칠세부동석’이 배 안에서 당장 깨져버린 것이다. 넓지도 않은



1900 대 초 제물포의 모습

밀폐된 선실에서 오랜 날들을 남녀가 뒤섞여 지내야 하는 환경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한 달여를 같은 배로 타고 가야하는 생활여건은 결국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하와이에 도착할 즈음엔 낯설었던 남녀의 마주침이 친숙하게 변해 있었다.

이미 알렌 공사가 하와이 주지사에게 한국인들은 인내심이 많고 유순하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편지했듯이, 하와이에 도착한 초기 이민들은 그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맡겨진 일은 잘 가꾸어진 사탕수수 밭에서 경작을 하는 농사일이 아니라 사탕수수 농장을 만드는 거칠고 험한 일이었다.

한 손에 도끼를 든 그들은 한 발자국씩 원시림으로 가득한 밀림 속을 헤치며 나무들을 찍어나갔다. 섭씨 40도 가까운 맹렬 더위에 땀을 비 오듯 쏟으며 손발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탕수수밭을 개간하며 평평한 평지로 만드는 일을 했다.

그들은 새벽 5시까지 원시림에 도착해 오전 11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점심시간을 겸한 30분간 휴식이 허용됐다. 12시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해 오후 3시경에는 일이 끝난다. 오후 3시가 지나면 기온이 높아져 더 이상 농장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사탕수수 농장의 평균기온은 화씨 100도를 오르내렸다.

일하는 시간에는 외국인 십장들의 감시가 심했는데, 담배를 즐기던 한인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허리도 마음 놓고 펼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이름 대신 각자에게 주어진 번호로 불렸는데 그들을 관할하는 십장들은 가족채찍으로 땅을 내리치며 더욱 힘내 일할 것을 끊임없이 종용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땀벌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다 돌아와 간신히 잠자리에 누우면 사지가 결리고 아파 끄끖거리고 서로가 그 소리에 제대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한다.

하루 임금은 69센트였는데 당시 성인 남자가 받는 임금으로는 최저 수준이었다. 가끔 부인이나 미성년자가 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50센트를 지급했다. 한 달 월급이 18달러인 셈이었다. 이 중에서 식비 6~7달러를 제하고 의복과 잡비로 2~3달러를 썼다. 다른 곳에 일체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 한 달에 8달러 정도 저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데실러가 차용해준 선박비는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데, 어떤 이들은 그 돈을 물기 위해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다는 사람들도 있다.

기숙사에는 한 방에 4~5명이 동거했는데, 부인이나 아이들이 딸린 사람에게는 별도로 작은 방을 내주었다. 홀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따로 방을 가진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와이 농장에서 초기 이민 한인노동자들은 부당한 차별대우, 인격적 무시를 당하면서도 항의하지 못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는 데다 잘못했다간 직장을 잃고 미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통역관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월급은 노동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들은 직업상 자연히 농장주 편이 되어 일꾼들을 독려해야만 했다. 당시 한인들의 반일감정은 대단해서, 하와이 일본 영사관에서는 일본인에게 되도록이면 한인들을 피하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사탕수수 농장

문화적으로 일본인들을 못 견뎠는데, 즉 일본 남자들이 옷을 입지 않은 채 훈도시라는 속옷만 입고 있다든지, 남녀혼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한인들에겐 도무지 이해

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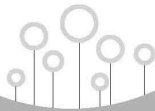
한인 노동자들 중엔 조국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처럼 힘든 노동을 해보지 않은 이들이 태반이었다. 고된 일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또한 사시사철이 뚜렷한 기후에 살던 그들에게 무덥기만 한 기후는 견디기 힘들었다. 마침내 하와이가 미국령이 되어 본토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그들은 대거 이주를 했다. 그 숫자가 천 명이 넘었다. 여성들의 노동도 남자보다 결코 쉽지는 않았다.

오전 4시에 기상해 대부분 혼자 온 노동자들의 아침과 점심을 준비해 주고, 땀과 피로 물든 노동자들의 빨래를 하고 나면 다시 저녁준비를 해야 하는 등 중일 호된 가사노동에 시달렸다.

당시 그들이 시간을 알 수 있던 것은 농장에서 불어주는 호각소리였는데, 그들은 모든 시간을 그 소리로 계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고 한다.

# 이민 이끌었던 세 지도자



인물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초기 한인사회는 숭한 고난을 거치는 과정에서 뛰어난 지도자들을 많이 탄생시켰다.

이들은 암울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한편으로는 이민에게 계몽활동을 전개하여 무엇보다 한인들이 생활의 변화를 주장하며 개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선각자 역할을 한 훌륭한 지도자들 모두 제대로 평가받고 그 공적이 상세히 알려져야겠으나, 여기에서는 지면상 서재필, 이승만, 박용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초기 이민의 지도자로서 이 세 사람이 미주 이민사회에 끼친 영향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공적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이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산 안창호의 업적은 다음 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 서재필(1863-1951)



보성에서 출생한 그는 7세에 서울에 올라와 14세 때 장원급제를 한 수재였다.

개화파 김옥균을 알게 되면서 개화사상을 갖게 된 그는, 일본 육군학교에 유학한 뒤 김옥균과 함께 사관학교를 설립하려다 수구파의 반대로 실패했다.

김옥균, 박영효 등과 1884년 갑신정변(개화당이 민 씨 일파의 사대당을 몰아내고 인민평등권을 주장)을 일으켜 신정부의 병조참판과 정령관을 맡았으나 청국의 군사개입으로 3일 만에 정변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했다. 거기서 자신 때문에 부모와 부인은 음독자살을 하고 동생은 참형을 당했으며 유일한 혈육인 3살짜리 자식이 굶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된다.

일본정부가 망명객을 박해하자 그는 1884년 4월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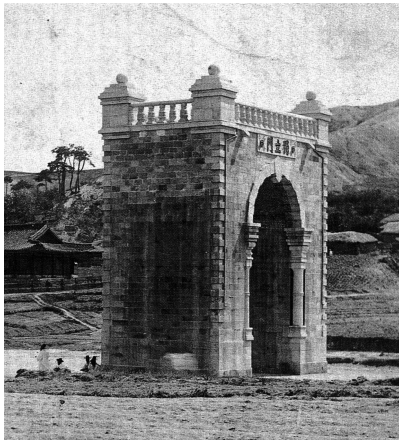
“은둔의 나라에서 온 망명자들-반란 끝에 온 표류자-샌프란시스코는 세 진보당 지도자들의 피난처” 1885년 6월 19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신문은 그들에 망명에 이런 기사를 실었다. 그는 일당 2달러를 받고 하루 10마일을 걸어 다니며 가구상 광고전단을 붙이는 일을 했는데, 발바닥이 갈라지고 발목이 아파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일이 너무 고되고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혀 샌프란시스코에 펼쳐진 태평양에 빠져 죽으려는 생각도 가졌다고 한다. 그때 그 신문기사는 마침 그에게 도움을 줄 미국인들을 연결시켜 주었다.

서재필은 영어를 배우려고 다녔던 샌프란시스코 메이슨 스트리트 장로교회의 성경 공부반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했다. 거기서 자신의 일생에 중요한 도움을 준 홀렌백을 만난다. 서재필을 선교사로 만들



싶었던 홀렌백은 그를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게 한다. 워낙 머리가 좋아 1년을 월반한 그는 학교 백일장에서 ‘가필드 대통령에 대한 찬사’라는 제목으로 2등에 뽑혀 10달러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3년 만에 우등졸업을 했는데 그즈음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명으로 바꾸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시민이 됐다.

고학으로 1892년 컬럼비아 대학(현 조지 워싱턴대학) 학부를 졸업한 그는 메디컬스쿨에 진학해 한인 최초의 의사(의학박사)가 된다. 1894년 미국인 유리엘 암스트롱과 결혼했다. 그 후 갑신정변 주동자의 사면이 이루어지고 갑오경장 추진내각이 수립되자 조국의 개화에 봉사하려고 1895년 귀국했다. 1896년 4월 7일에는 한문을 모르는 민중을 위해 국문전용, 국문 띄어쓰기, 쉬운 국어 쓰기의 방법으로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1896년에 7월 2일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독립문을 세웠으며 만민공동회를 조직했



다. 1898년 3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시민권기대회인 ‘만민공동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러시아의 침략정책을 규탄했다. 그러나 수구파 정부와 이권에 개입된 러시아와 미국은 1898년 5월 14일 그를 미국으로 추방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서재필은 미국에 개업했던 병원을 닫고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1919년 3

월 15일 재미한인전체회의에서 외교고문이 된 그는 필라델피아에 외교통신부를 설치하고 각국에 한국독립을 위한 선전활동을 벌였다. 1919년 4월 한인자유대회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해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919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독립 퍼레이드

3        결친 자유토론회를 개최하고 3일째 되는 날 독립기념관으로 시가행진을 주도했다. 미국 기마순경의 선도를 받으며 한인 150명은 때마침 쏟아지는 소나기에 흠뻑 젖은 채 태극기로 물결을 이루며 필라델피아거리를 메웠다.

그 때 이승만은 독립관에서 조선독립선언문을 목멘 소리로 낭독하여 워싱턴 주변에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임시정부가 워싱턴에 구미위원회를 설치하자 서재필은 위원장을 맡고 1919년 5월 ‘한인 친우회 (League of Friends of Korea)’를 조직했다. 1만 명의 회원과 미국각지에 17개의 지부로 확대된 한인 친우회는 미국 상원의원들과 저명인사들을 가입시키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1919년 8월에는 ‘한국평론(Korea Review)’이라는 영문 월간지를 발행하고 주필로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1921년 11월에 세계군축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922년 1월 미국 대통령 하딩을 직접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1925 7월 1일 태평양연안의 여러 민족이 서로 정치, 종교, 교육, 인종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범태평양회의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다. 서재필은 한국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요구했다. 이 회의에서 감동적인 연설과 활동으로 서재필은 대리 회장에 선출되는데 그 자리를 이용해 각국의 대표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3.1운동 후 자신의 병원과 문방구점 등 전 재산을 팔아 7만 6천 달러를 만들어 그것을 모두 독립운동에 쏟아 넣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은 파산지경에 이른 서재필은 2천 달러 빚을 얻어 1926년 의과 대학원으로 복귀하여 의학연구에 몰두, 큰 업적을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에 징병 의무관으로 4년간 봉사하여 미국국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의사로 일하다가 1945년 8월15일 조국이 광복되자 일시 귀국하여 과도정부의 미군정 최고고문이자 특별의정관에 선임됐다. 1948년 9월 25일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이승만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국내 정세가 소란해지자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필라델피아 집으로 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안창호의 장남 필립과 대한인국민회 간부들에게 고국 소식을 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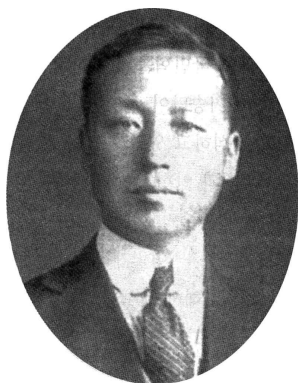
필라델피아로 돌아간 그는 근교 작은 마을에 의료 실을 열고 주중 하루 3시간씩 환자를 돌보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의 불운을 통탄하다 1951년 1월 5일 86세를 일기로 필라델피아에서 생애를 마쳤다.

정부는 그에게 1977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2008 주미 한국대사관 앞에 세워진 서재필 동상

## 이승만(1875-1965)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은 천자문과 시를 가르칠 정도로 학식이 높았던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 1894년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단발부터 결행하고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 미국인 선교사 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어 학비를 벌면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배재학당의 영어조교가 됐다.

당시 미국에서 돌아와 다니는 학교에 교사로 있던 서재필의 권유로 1894년 서울에서 ‘협성회’를 조직하여 회의와 토론, 민주주의 정신을 배운다. 그는 ‘협성회보’라는 주간신문을 만들어 주필이 되어 날카로운 비판을 했는데, 협성회보는 정부의 탄압으로 폐간되고 만다. 그 뒤에는 ‘매일신문’이라는 일간지를 발행하고 주필로 계속 활동했다. 1896년 6월을 기해 협성회가 정치단체인 독립협회로 발전하자 이승만도 독립협회 회원이 되어 정치무대에 나서게 됐다.

그 당시 독립협회는 서재필, 이상재, 남궁억이 주축이 되어 민권 운동을 전개했는데 고종황제의 미움을 사자 독립협회는 해산상태에 처하게 된다. 서재필은 미국으로 추방되고 이상재와 남궁억은 체포됐는데, 그 때 이승만은 “광무황제는 연령이 높으시니 황태자에게 자리를 내 주셔야 한다.”는 진단을 배포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옥중에서 선교사들이 넣어 준 신약성경을 읽고 감화를 받아 동료죄수 40여 명을 개종시켰다. 투철한 믿음을 갖게 된 그에게 기독교는 그의 삶과 사상에 초석이 됐다.

그는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첫째, 세계와 마땅히 통하여야 할 줄로 안다. 둘째, 새 법으로써 각각 몸과 집안과

보전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셋째, 외교를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넷째, 국권을 존중히 하자. 다섯째, 의리를 존중하라. 여섯째, 자유권을 중히 여길지라.”

감방에서 밀반출된 이 원고는 후일 박용만이 일본 세관원의 적발을 피해 트렁크 밑에 숨겨서 미국으로 들어왔다. 초판 천부가 한국인 망명객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판됐다.

1904년 노일전쟁이 발발하고 민영환 등 혁신파가 정권을 잡게 되자 5년 7개월 만에 석방된 그는 선교사의 권유로 11월 미국으로 떠났다. 1904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1910년까지 조지 워싱턴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마쳤다. 1910년 6월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인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후에 대통령이 된 윌슨 총장이 당시 직접 학위를 수여했는데 그는 이승만을 ‘한국의 자유를 회복할 인물’로 자주 소개할 만큼 이승만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겼다.

1910년 9월 3일 귀국한 그는 서울 YMCA(Youngman's Korean Association)에서 국제법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1912년 세계감리교회총회 한국 평신도대표로 임명되어 미국으로 가서 총회에서 연설했다. 그때 그는 하와이에 있는 박용만에게 외교와 출판 사업을 하고 싶어 미국에 남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당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기관지 ‘신한국보’ 주필이던 박용만은 1913년 2월 이승만을 하와이로 불러들였다.

하와이에서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승만은 1913년 9월 순 한글 월간지 ‘태평양잡지’를 발간하고 주필이 됐다. 1914년에는 하와이 한인들의 성금을 모아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학생기숙사를 지었고 한인중학교를 설립해 교육 사업을 폈다. 그는 언론, 교육, 선교 등 세 방면에서 독립운동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하와이 국민회의 실권을 쥐게 된 그는 미주 본토에 있는 국민회 대의원회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국민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국민회 증서

일로 하와이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했고 이승만은 한인기독교회를 설립한 뒤 1915년에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총회를 장악했다.

그리고 아예 하와이총회를 대한인 국민회에서 탈퇴시켰다. 박용만이 이끌던 독립군단의 군인 양성이나 이승만이 추구하던 사업이나 모두 재정은 미주한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둘은 반목하게 됐다.

월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한인 대표로 민찬호, 정한경과 함께 가려던 이승만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는 여건이 되자, 한국을 위탁 통치하도록 바라는 청원서를 미국정부에 보냈다. 이에 한국의 주권 회복과 완전독립을 주장하던 독립 운동가들의 반발은 대단했다. 중국에 있던 신채호를 비롯한 54명이 위탁통치반대 성토문을 발표하며 분개했고, 3.1운동 소식은 분열되었던 한인단체들을 대한인국민회 산하에 단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19년 4월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또한 국내에서 조직된 한성정부 집행관 총재 임명을 받은 그는 임시정부가 개조함에 따라 9월 6일 임시대통령이 됐다. 워싱턴에서 구미위원부를 조직하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자유의회’를 개최해 미주 내 27개 단체의 대표들을 모아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선포했다. 그는 한국외교통신부를 설립하여 많은 홍보를 펼쳐 미 의회에 한국의 독립 원조 제안이 네 번이나 상정되게 했다. 그로 인해 미국 국회의사록에 한국 독립에 관한 기록이 남게 됐다. 1921년 5월에는 워싱턴 군축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했다.

1921 7월 동지회를 조직하여 박용만을 무정부주의자로, 흥사단의 안창호를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자로 단정했다. 당시는 미주 각 단체가 한인들로부터 각기 독립운동기금을 걷기 시작하던 때여서 독립운동 자체가 분열양상을 띠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국민회가 걷는 애국금과 별도로 임정명의로 공채표를 4만6천400달러나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임시정부는 여전히 재정난을 겪었다. 1922년 6월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의 불신임을 받았다. 1924년 11월 이승만은 임시정부 측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동지촌을 만들어 자급자족하는 부락을 만들려고 자본금 7만 달러로 동지식산회사를 설립했으나 실패했다. 1925년 3월 그는 임시대통령직에서 임시의정원 출석인원 4분의 3이 찬성해 탄핵 면직됐다.

“임시 대통령 이승만은 시세에 암매하여 정견이 없고 무소불위의 독재행동을 감행하였으며, 포용과 덕성이 결핍하여 민주주의 국가정부의 책임자격이 없고, 대한민국임시헌법에 기탄없이 저촉하였고 국정을 혼란시켜서 국법의 신성과 정부의 위신을 타락하게 하였음을 판정함”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1929년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지회를 결속해 나성동지회를 만들었다. 그 후 동지회와 국민회간의 돈 문제 대립으로 하와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던 이승만은 이때 패소하자 1931년 하와이를 떠나 국제연맹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로 갔다. 1933년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한국 병탄과 만주 침략의 부당성을 폭로했다.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승만은 1933년 여행 중에 오스트리아 여성인 프란체스카 도너를 만나 미국으로 데려왔다.

1934년 10월 8일 뉴욕시 몬클레아 호텔에서 결혼했다. 그가 서양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에 하와이 부인회 부녀들은 통곡을 했다.

이승만에게 독립운동자금을 보내느라 쌀을 걷고 떡을 빻어 백 근에 3달러씩 팔아 모은 돈을 워싱턴에 보냈던 것을 회상하며 그가 외국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 민족적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1940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이던 그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를



밀송된 노끈 통신문을  
읽고 있는 이승만 1914

통해 육성방송으로 국민들의 단결  
을 호소했다. 일본이 곧 패망한다  
는 육성방송으로 머지않아 독립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국내외 동포  
들에게 주었다. 이승만은 유럽에서  
많은 외교활동을 하였는데 일본을  
규탄하는 글을 여러 신문에 투고  
하고 임시정부의 승인과 한국의  
국제연맹 가입도 요구했다.

1941년 4월에는 재미한족연합위  
원회 외교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승인  
하게 하고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일원으로 참가시켜줄 것을 로비  
했다.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연합 창립총회  
때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와서 연합국 여러 나라 대표단이 한국을  
연합국의 일원으로 국제질서 수립에 참여하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  
소하고 다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하자 1945년 10월  
16일 33년 만에 귀국했다. “뭉치고 엉키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못사나니 다 같이 하나로 뭉치자”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대한인국민회 관계자들을 못 들어오  
게 막기도 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73세에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60년 4월 19일 민주화운동으로  
실각할 때까지 12년간을 한국의 통치권자로 있다가 실각했다. 하와  
이로 망명가서 살다가 1965년 별세했다.

정부에서는 1949년 그에게 건국헌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박용만(1881-1928)



창설한 우성 박용만은 강원도 철원의 양반계급 출신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에 의해 양육됐다.

일본에 건너가 중학교와 게이오 의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박영효 등 개혁파 인사들과 사귀어 정당에 가입했다.

그로 인해 관헌에 체포되었다가 몇 개월 만에 석방됐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박용만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참여해 중견간부가 됐다.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활동을 하며 민족계몽운동조직인 ‘보안회’를 이끌다 일본경찰에 의해 투옥됐다. 감옥에서 이승만과 정순만을 만나 박용만 까지 ‘삼만’은 의형제를 맺었다. 상동 감리교회의 전덕기 목사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1905년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처음 호놀룰루로 오면서 이승만이 15세 때 동갑내기 음죽 박씨와 결혼해 낳은 7살짜리 아들 7대 독자 봉수를 데리고 왔다. 당시 이승만은 동부에서 공부 중이라 아들을 미국인 집에 맡겨두었는데 미국에 온지 1년 만에 디프테리아에 걸려 필라델피아에서 사망했다.

박용만은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려 했으나 안창호 중심의 공립협회가 포진하고 있어 그들과의 경쟁을 피해 덴버로 갔다. 그곳에서 삼촌인 박장현이 경영하던 한인들을 위한 직업소개소와 여관에서 삼촌을 도왔다. 대륙횡단철도 공사장 인부일도 하고 광산에서도 일을 하던 그는, 덴버 예비학교에서 공부하고 네브라스카 주의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정치와 군사학을 공부했다.

1909년 7월 군사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장으로부터 한국청년들에게 군사교육을 시켜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 네브라스카 ‘한인소년

’를 창설했다. 27명의 학생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고 1912년에는 3년간 훈련을 끝낸 13명의 한인 사관을 졸업시켰다.

이승만이 그 날 축하연설을 했는데, 소년병학교는 1914년까지 백여 명의 사관생도를 배출했다. 그러나 박용만이 하와이로 떠난 후 2년여 간 지속되다 폐교됐다.

1911년 2월부터 샌프란시스코 신한민보 주필을 1년간 역임하고 4월에는 신한민보에서 ‘국민 개병설’을 출판했다. 독립이라는 신문에 박용만이 기고해 10회 연재됐던 내용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부국강병을 위해 국민들이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족의식이 강한 자원자들로 구성된 군사력을 가진 수비대 조직을 제창했다. 1912년 6월 네브라스카 주립대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고 7월에는 ‘국민수지’를 저술했다. 졸업 후 하와이로 가서 ‘신한국보’ 편집장이 됐다.

1912년 11월 8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설립되었을 때 선포문을 기초했다. 1914년 6월 하와이 마후마누에 국민회 도움으로 한인 군사학교 ‘대조선국민군단’훈련소를 창설했다. 독립군 무관을 양성할 목적의 이 학교는 예산이 7만8천 달러에 달했고 103명의 젊은이가 입교했다. 미주 군사훈련 방면 제1인자였던 그는 조국의 독립은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군인을 양성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도는 미군제도를 따랐으나 실총은 사용하지 못하고 목총으로 대신했다. 전성기 때는 학생 수가 331명까지 늘어났다.

‘산 너머 아이들’ 또는 ‘우리 독립군’이라고 불린 그들은, 파인에 플 농장에 기숙하면서 병영을 만들고 군복을 착용했으며 병영입구에 아치스타일의 문도 세웠다. 원래 미국 통치령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군사훈련 활동이 일체 허락되지 않았으나 하와이 군사령부는 묵인해 주었다. 청년 훈련병들은 뜨거운 농장에서 10시간이상 노동을 한 후 목총을 메고 군가를 부르며 고된 군사훈련을 받았다. 당시 한인사회에서는 이들이 행한 군대식 보건체조가 유행하기도 했다.

1914 8월 29일 국치일에 군단의 영사 건축을 완성하고 600여 명의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낙성식을 가졌다. 그러나 박용만의 군사력 신념은, 외교를 제일로 여기는 이승만의 생각과 대립되어 점점 갈등과 충돌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하와이 한인들은 박용만과 이승만파로 나뉘는 양상을 띠게 됐다. 결국 2년여 만에 군사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 직접적인 동기는 파인애플 농장이 토질이 좋지 않아 농사를 폐지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나, 내면적으로는 이승만과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승만 측은 박용만의 군단학교가 성하여져 기부금이 나뉘고 본인의 교육 사업에 지장이 되자, 미국 내의 군사훈련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하와이 한인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이승만과 국민회 간에 갈등이 생기자 이승만은 국민회 총회관의 건립 재정문제를 걸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무혐의로 풀려난 당시 국민회 회장 김종학은 자살미수까지 했다. 박용만의 국민군단 사업도 금전문제로 풍파를 겪었다. 이승만 측은 “박용만의 패당이 미국 영토 안에서 한국 군단을 설립하고 위협한 행동을 하며, 일부 분자들은 일본 군함 출운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고 음모하니 이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 사건을 유발하여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이니 조치하여 달라”고 하와이 경찰청에 고소까지 했다. 안창호가 이러한 하와이 분규해결을 위해 1915년 1월 15일 호놀룰루 도착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결국 박용만의 지지 세력이 약화되고 하와이 정부 비협조와 일본의 방해공작 등으로 1916년 군사학교 기지까지 잃고 폐지해야 하는 아픔을 맛본다. 박용만은 샌프란시스코로 왔다가 하와이로 돌아가 1918년 11월 ‘태평양 시사’를 창간해 주필이 된다. 3.1 운동이 일어난 그 달에 하와이에서 국내, 만주, 연해주, 중국의 구국단체와 제휴를 하고 ‘대조선 독립단’을 창설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이 되었으나 이승만이 외

청원으로만 독립운동을 하려는 것을 알고는 취임하지 않았다. 박용만은 평생소원이던 군사훈련과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대본공사를 세우고 항일운동을 계속했다.

노백린은 박용만과 상의한 뒤 1920년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만들었다. 군인이고 학자였던 박용만은 하와이 국민회의 최고 지도자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았으며 한글교육을 강조하였다. 1927년 초등 국어교과서를 편찬했다. 중국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불철주야 뛰던 박용만은 1928년 10월 17일 47세의 한창 나이에 북경에서 암살범에게 총 세 발을 맞고 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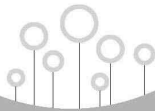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독립운동 활약상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가려지고 말았다. 여러 문헌으로 볼 때 박용만의 공로가 과소 평가됐으며 이제라도 그의 충정어린 독립운동 활약상이 재조명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1995년 대통령 장을 추서했다.



박용만

# 지주였던 도산 안창호



안창호(1878-1938)는 1902년 미국에 공부를 하려고 왔다. 그러나 당시 미주한인들이 구심점 없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에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한인사회 계몽운동에 나서게 된다.

구습과 패배주의적 발상에 매인 동포들의 변화와 개조를 강조하며 소망을 주려고 애쓴 사상가였고 생활 운동가였다. 도산은 재미 한인공동체 발전과 결속이 곧 나라를 찾을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다. 인재양성과 경제 부흥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민족의 자긍심도 키워낼 수 있다고 믿은, 미주 한인 초기 이민의 대부와 같은 인물이다.

도산은 1878년 11월12일 평남 강서군 대동강 하류 도룡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가난한 선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곱 살에 부친을 여우고 조부슬하에서 자랐다. 서당에 다니며 서너 살 위의

친분을 맺으며 신학문에 접하게 됐다.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청일간의 세력다툼을 보고 울분을 느끼고 신학문을 배울 것을 결심한 그는 1894년 상경하여 정동에 있는 구세학당(경신학교 전신)에 들어갔다. 3년간 수학하여 보통과를 졸업하고 조교가 됐다. 이 학교에서 서구인들의 세계관에 눈을 뜨고 필대은과 함께 예수교에 입교한 후 새문안교회를 다녔다. 19세 때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필대은과 함께 독립협회 관서지부를 결성하였다. 평양 캐재정에서 만민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처음 대중 앞에 연설을 하여 청중의 갈채를 받았다. 그 후 약 3년간 경기, 황해, 평안도 등

을 순회하며 국민의 자각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게 된다.



여권

21세에 강서군 동진면 안화리에 점진학교를 설립하여 민중에게 신학문의 길을 열어주었다. 24세 때 정신여고를 나온 이해련과 결혼하고 신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으로 가는 배

에서 넓고 푸른 태평양 바다만 보고 여러 날을 가다, 홀연히 섬이 나타나자 “오! 그리운 육지의 섬(島), 그 섬의 푸른 산(山)!”이라고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호를 ‘도산’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 도착한 도산

1902년 9월 캐나다 밴쿠버 항에 도착한 그는 시애틀을 경유해 10월 14일 24세의 나이로 샌프란시스코에 왔다. 그의 여권은 한인여권(여권번호 51호)으로는 미주 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길을 가다가 한인 두 사람이 한길에서 상

마주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주변에는 미국인들이 재미있다는 듯 구경하고 있었다. 도산은 당장 뛰어들어 싸움을 말리고 이유를 물었다. 그들은 한인 인삼 상인들이었는데 화교들을 상대로 협정한 판매구역을 한사람이 범해서 다룬다고 했다.

이 일은 도산에게 큰 충격이었다. 조국을 등지고 멀리 까지 와서 같은 민족끼리 작은 이권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도산으로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 뒤 도산은 동포들의 생활상을 두루 알아보게 된다. 세 들어 사는 그들의 생활 상태는 불결하기가 짝이 없었고, 말소리는 크고 말도 많아 이웃 사람들이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은 전무 했다. 도산은 동포들이 이렇다면 미국인들이 우리를 미개인으로 보고 독립국의 자격도 없다고 볼 것으로 여겼다. 그는 20대 중반의 나이로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필요하면 어떤 상황이든 공부를 마다 않겠다는 훌륭한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부보다 나라를 찾고 한인 사회의 계몽운동을 펼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긴 그는 당분간 공부를 포기하더라도 동포들을 위한 계몽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그는 먼저 청소운동부터 시작했다. 동포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창을 닦고 커튼을 치고 문 앞에 화분을 놓거나 꽃씨를 뿌렸다.

변소와 부엌을 깨끗이 치우는 일종의 환경혁명이 일어나자 동포들은 어느새 면도도 자주하고 의복도 단정해졌다. 갑자기 달라지는 교포들의 모습에 한인에게 세를 주던 주인은 도산을 만나보고는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하는 그에게 감동하였다. 도산을 돕고 싶던 그는 한인들이 모일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처음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도산은 우선 인삼상인들에게 협정가격을 정해주고 판매구역을 한 달씩 바꾸도록 하여 경쟁 때문에 인삼 값이 떨어지는 폐단을 없이 했다.

상향친목회를 조직하여 한인 노동력을 통합 공급하는 기관을 만든 그는, 미국인에게 노동력 주문을 받고 공급하되 최저임금은 보장

요구했다. 공립협회를 조직하고 공립신보를 발간하고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과 하와이, 멕시코에 있는 동포까지 합하여 대한인국민회를 형성하였다. 당시 미국에 새로 입국하는 한인은 여권이 없거나 법정 휴대금이 없어도 국민회에서 이민국에 보증을 하면 통과될 정도가 됐다. 사업주가 노동력이 필요하면 국민회를 통해 요청했고 사업주와 동포간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에는 국민회가 나서서 중재해 동포의 이익을 보호했다.

1903년 9월 23일 도산은 미주한인사회 최초의 모임이며 민족운동의 출발이 되는 ‘상향한인친목회’를 조직했다. 그 뒤 리버사이드에서 공립협회를 조직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친목회를 명실상부한 미주한인의 민족운동단체인 공립협회로 발전시켰다.

초대회장이 된 그해 11월 27일에는 샌프란시스코 퍼시픽가 938호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립신보를 발행했다.

1907년 귀국 길에 일본에 들러 유학생단체인 태극학회에서 시국강연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을 감동시켰다. 그들은 그 해 안창호가 조직한 비밀결사단체 신민회와 청년학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도산은 국권회복단체인 신민회 조직을 맡아 규칙서와 세칙을 마련했다. 신민회는 교육과 산업의 양대 사업을 목표로 하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평양 마산동에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회사는 신민회의 경제적 뒷받침이 됐다. 평양, 서울, 대구에 태극서관이라는 서점을 열었던 그는, 1909년 흥사단의 전신인 국내 최초의 청년 운동단체 청년학우회를 창설했다.

1909년 2월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해외에 체류하는 한인들의 단체가 통합하여 국민회가 조직되었다. 국민회는 1912년 대한인국민회가 되는데 도산은 초대회장에 추대되어 재외한인들의 구국운동을 지도하게 된다. 그 해 국내에서도 국민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전 국민의 조직화를 착수했는데,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자 혐의를 받게 된 그는 용산 헌병대에 체포되어 두 달간 수감생활



했다. 1910년 일제 통감부의 이토 히로부미는 안창호내각을 만들 것을 제의하나 거부하였다. 한일합방이 있는 다음해인 1911년 도산은 해외망명길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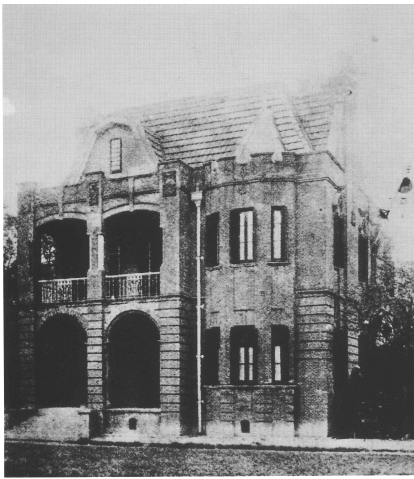
도산은 조국의 독립은 오직 우리 민족이 조국을 찾을 만한 힘을 길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조국의 강산과 동포에 보내는 유명한 ‘거국가’를 남기고 영광을 회복할 훗날을 기약하면서 도산은 일제치하의 조국을 떠났다. 해삼이 많이 나서 해삼위라고도 불린 블라디보스톡에 머무는 동안 독립군 양성과 기지설립을 구상하고 이상촌 건설 부지를 찾아 만주를 답사했다. 중국 청도에서 망명자들을 모아 청도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당장 일본에 무력적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파와 동포의 산업을 진흥시키고 교육을 보급시켜 준비하자는 파로 나뉘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편 나라를 잃고 망명한 그의 국적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문제가 됐다. ‘한국 신민’이라는 옛날 여행권을 일본과의 동맹국이던 영국에서는 ‘일본 신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산은 자신은 정치 망명가이므로 일본 신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 결국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도산은 미국에서 발행한 ‘무여권(without passport)’이라는 신분으로 여행하게 되는데 이는 ‘국적 없는 국민’을 뜻하는 것이었다.

19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초대회장이 되었는데, 1913년부터 대한인국민회는 미 국무성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자치단체의 자격과 권위를 인정받아 한인사회의 자치와 권익을 크게 신장시켰다.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 강영소의 집에서 한국 8도를 대표할 청년 8명을 비롯해 25명을 모아 흥사단을 조직했다. 지방색과 분파주의를 타파하고 독립운동을 이끌 정예부대를 양성하려는 목적이었다. 무실역행, 건전인격, 단결훈련, 국민개업 등 정신개조를 목표로 동맹 수련하는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며 국민회 운동에 전력했다. 1917년에는 멕시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잘못된 이민으로 고통 받는 동포들을 심방하고 한인사회

위해 활동하다 이듬해에 돌아왔다.

1919년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을 대표로 선출하여 파리강화회의의 국민대표로 파견하여 한국문제를 제의하려 노력했다. 곧 이어 3.1 운동이 일어나고 4월에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내무총장이 되어 상해로 다시 떠났다. 미국으로 간지 7년 7개월 만이었다.

##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도산 안창호는 1919년 5월 25일 미주 국민회가 모은 2만 5천 달러를 갖고 상해에 도착했는데 미주 동포들의 도움은 임시정부 청사마련에 큰 힘이 되었다. 1919년 6월 28일 상해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에 취임한 도산은 연통제를 실시, 국외조직을 국내와 연계하여 그 위에 독립운동 조직을 발달시켰다. 국내에서

9월 내각개조로 국무위원 노동국 총장이 되자 내무총장에서 스스로 자신을 격하시키면서까지 임시정부 내부의 분열을 단합으로 바꾸려 애썼다. 독립신문 발간 등 동년 7월 2일에는 임시사료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재가 되어 이광수와 더불어 한일관계사료 전 4권을 편찬 발행했다. 국민대표회의를 여는데 힘쓰고 한국독립당을 만들었다. 임시정부 후원회를 조직하여 해외교포들에게 군자금을 출연할 것을 호소했다. 임시정부기관지 ‘독립’을 발간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지도했다. 1920년 1월 15일에는 흥사단 사업에 착수하고 대한광

총영을 남만주에 설치케 하였다.

1920년 6월 18일 극동을 순방하는 미국의원 시찰단, 미의회 상하원의원 9명이 가족동반 관광으로 한국을 통과하게 되었다. 도산은 미국의원단 접촉 준비회를 결성하여 환영준비위원장이 되어, 북경에서 의원단 일행을 맞이해 한국 독립 지원을 호소했다. 윤치호 원작의 애국가를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애창하도록 하였다. 1921년에는 서울에 수양동맹회, 평양에 동우구락부를 설립했다. 후에 두 단체는

수양동우회로 통합된다.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들  
(1919년 10월 11일)

1921년 이승만과의 불화로 김규식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사퇴했다. 그 뒤 여러 차례 국무총리 추대를 받지만 사양했다.

1923년 1월 3일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미주 대한민국민회 대표로 임시의장이 되었다. 그러나 대표회의가 개조론과 창조론으로 심하게 대립되자 북만주로 가서 독립운동기지인 이상촌 건립을 추진하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상촌 건설운동을 편다.

1924년에는 남경에 동명학원을 설립하여 해외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실력배양을 돕는다. 192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각지를 순행하며 국민회와 흥사단 조직을 강화했다. 이상촌을 건설할 투자금과 가입자를 모집하고 미주에서 임시정부 유지비 지원을 주도했다. 도산이 이끌고 있는 국민회는 임시정부에 사람마다 인구세를 납부했다. 다시 상해로 건너가 1926년 2월

20 상해 임시정부 3대 국무령으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군사, 외교, 재정, 문화, 식산, 통일 등 6대 방향으로 독립운동의 나갈 길을 정하고 대독립당 결성을 토의했다. 그 때 20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중국 경찰에 감금되었다. 20일 만에 석방된 그는 더욱 열성적으로 이상촌 건설에 힘쓰지만 김좌진, 정진 등이 암살되는 수난이 계속되고 만주사변까지 발생, 결국 그 계획을 접고 만다. 그는 중국에서 통합임시정부, 국민대표회와 유일당 운동을 주도했다.

1928년 3월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1929년에는 필리핀 교민사회를 방문하고 파인즈 마을을 돌아보고 이상촌 건설지를 물색했다.

1930년에는 생활역량을 넓히기 위한 ‘동인호조사’를 조직해 상해 한인들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1931년 1월에는 흥사단 제17회 원동대회를 주재하여 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흥사단보를 발행하여 흥사단의 이념을 널리 알렸다. 또 흥사단 원동임시위원부의 주관으로 국내에서 ‘동광’잡지를 발간하였다. 애국부인회가 흥사단의 취지에 따라 군자금 모집 계획을 세우자 동인호조사를 공평사로 개칭하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도산은 공평사를 통해 생활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소비, 신용, 생산 등의 합작운동을 추진했다. 같은 해 만보산 사건으로 한인과 중국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중국인의 한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자 병인의용대, 노병회, 교민단, 학우회, 여자청년동맹, 애국부인회, 청년동맹등의 각 단체가 연합되어 ‘상해한인단체연합회’를 조직하게 된다. 도산은 여기에 흥사단 대표로 참가하여 중국과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1931년 10월에는 이시영 등과 교민단 심판원으로 활동했다.

한창 활동이 무르익던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 의거가 발생하자 일경은 독립운동가의 일제 검거에 나섰다. 도산은 이런 일을 알면서도 상해 한인거류민단장 이유필의 어린 아들과 약속한 소년단 기부금 2원을 전달하기 위해 상해 하비로에 있는 이유필의 집으로 간다. 여러 동지들이 극구 만류했지만 도산은 “어린이

실망과 불신을 주어진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던 도산은 그곳에서 프랑스경찰관에 체포영장 없이 체포되어 일본 영사관에 넘겨졌다. 본국으로 압송된 그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대전 두 감옥에서 복역하였다.

1935년 대전 감옥에서 위장병의 악화로 출옥한 그는 일경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지방을 순회하며 계몽강연을 했다. 그 후, 평남 대보산에 은거하며 이상촌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191명과 함께 일경에 다시 체포되었다. 옥살이를 하던 중 ‘간 결핵 검 결핵성 복막염’으로 동년 12월 보석 출감한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 1938년 3월 10일 12시 6분 60세의 나이로 운명했다. 일경은 “안창호는 동우회 사건의 피고의 몸이었으니 정식 장례를 불허하고 가족도 상복을 입을 수 없다. 물론 상여 뒤에 조객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탄압했다. 이에 분노한 오기영은 “상주에게 상복도 못 입히는 것이 무사도냐”고 항의하고 이는 일본 정치의 아량 없음을 드러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상주만은 상복을 입고 조객으로는 특별히 허락 받은 조만식만 뒤를 따랐다. 조문객보다 멀리 물러선 사복 경관이 더 많은 기이한 장례였다. 묘지에 이르는 연로에는 경관들이 경호하듯 늘어 서서 일체의 자동차 통행을 금했다. 총독부는 도산 사후 민심의 동요를 꺼려 일체 보도를 통제하고, 선산 대신 망우리 공동묘지에 20여명 정도의 친족 및 기독교 교우만 입회시킨 가운데 시신을 매장토록 했다. 친지들은 무덤가에 무궁화를 심었는데 일본경찰은 “이를 베어 버리고 사꾸라를 심으라”고 간섭했다.

도산은 그의 60평생 중 34년을 대한민국에서, 13년을 상해에서, 13년을 미주에서 보냈다.

정부에서는 도산에게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사상과 가르침

정신과 사상은 ‘진실 되자, 일하자, 사랑하자’로 표현된다. 사람은 첫째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남의 본보기가 될 만한 진실 된 도덕적 품성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둘째로, 건전한 인격은 한 가지 이상의 전문지식과 생산 기능을 가진 생산적 직업 인이어야 하며 셋째는, 튼튼한 신체를 가지도록 하고 우선 몸가짐과 거처로부터 개조하여 새롭게 되지 않고는 독립국민이 되지 못한다고 믿었다. ‘아무렇게나’ ‘어물쩍’ ‘되는데로’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도산은 그런 것이 거짓과 한 통속이라며 조국을 망하게 한 원수라고까지 비판했다. ‘그렇소’ ‘아니오’를 분명히 하여 ‘글썄’라는 것은 없었다. 그는 인생 전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후반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바쳤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라는 애국 애족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생각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성실한 자세와 정직한 마음씨의 인격적인 지도자였다. 도산은 청년들에게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처럼 도산은 일생을 통해 조국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또한 사랑을 통해서만 조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며 정의돈수와 신성단결을 역설했다.

도산은 항상 “서로가 빙그레 웃는 얼굴로 대하는 사회가 그림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이 먼저 웃음을 머금었다. 매일 아침 한 시간씩 명상과 기도로 조선의 운명을 걱정하고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염 조선’을 했다. 도산의 꿈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세계가 존경받는 민족으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만드는데 있

. 모든 기관을 갖춘 집단부락을 곳곳에 세워 집단생활과 사교생활을 통해 가족적 이기주의를 벗고 민족의 사회적 습관과 예의와 소망을 이뤄나가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다.

도산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민족주의, 조직, 교육, 산업주의 등 4가지를 명심하라고 가르쳤다. 민족주의는 독립정신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였고 조직은 개인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또한 행동을 위한 계획을 제공하고 산업주의는 스스로 충분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또 무실, 역행, 충의, 용맹의 4가지 덕목을 강조했다. 인류의 희망과 최종 목표는 인류의 완전한 행복으로, 이 행복의 어머니는 문명이고 문명은 사람이 개조하는 일에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사람이 일생에 힘써 할 일은 개조하는 일이고 성경의 회개도 개조라고 했다.

## 편지

1924년 안창호가 상해에서 춘원 이광수에게 구술시켜 쓴 글이 동광지에 연재됐다. 이 글들은 1924년에 쓴 것으로 갑자년에 씌어져 ‘갑자논설’이라고 한다. 일본 측에 의해 부분삭제 및 연재 금지를 당하였는데 삭제된 것은 해방 후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1924 ‘동포에게 드리는 편지’>

( 이광수를 만나 구술로 한 편지)

“(생략) 오늘 우리 대만을 보면 합해야 되겠다하면서 어찌하여 합하지 아니하고 편당을 짓는가 왜 싸움만 하는가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꾸짖는 소리가 대한 천지에 가득 찼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 사람은 합동적이 아니오 분리적인 것을 알 것이요. 또 오늘날 대한사람은 합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 런즉 우리 무리는 이 합동에 대하여 주인 된 자의 자격으로 책임

지고 합동의 방법을 연구하며 합동하는 행위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포에게 고하는 글(1925년 1월23일): 지금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여 전달될 만한 한도 내에서 몇 가지를 묻고 말하고자 합니다.”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동아 1925년 1월 24일): 시국과 상황을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일제히 분발하여 의로운 자격으로 의로운 목적을 굳게 세우고 의로운 일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면 성공이 있을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비관은 없고 낙관뿐입니다.”

“불평과 측은(1925년 1월 25일):우리는 사회에 대해 불평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를 측은하게 보는 방향으로 돌려야한다.”

“주인인가 나그네인가(동광 1926년 6월): 민족사회에서 스스로 믿고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나그네다.”

“합동과 분리(동광 1926년 5월 6월): 우리민족하고 부를 때 벌써 민족적 감정을 기초로 한 합동은 자연적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합동할 조건 첫째는 목적이요 둘째는 목적 달성을 위한 방침과 계획으로 각 개인의 머릿속에 방침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도자(동광 1926년 5월 6월): 우리 민족사회의 정도가 낮다면 오늘의 형편에 지도자, 위인이란 마음으로 위인의 일을 하는 자가 위인이다.”

“지도자를 택할 때는(동광 1926년 5월, 6월, 8월) 가깝고 멀고 네 파 내 파라는 관념을 떠나 전 군중의 이해를 기준으로 하고 공평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부허와 착실(1926년 9월 동광): 부허는 패망의 근본이요 착실은 성공의 기초, 부허는 인과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당한 계산과 노력은 하지 않고 요행수만 바라고 예외적 행동으로 덤비는 것이다.”

“오늘 할 일은(1926년 11월 호): 오늘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일은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는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이 이 두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한 학생(동광 1926년 12월): 인류 사회의 생존은 사람의 활동에 있고 사람의 활동할 무기를 잘 준비함에 있으며 이 무기를 예비하는 자가 곧 학생이다.”

“청년의 용단력과 인내력(동광 1927년 1월): 대한의 청년에게 공이나 사로 막혀있는 큰 원수 이것은 곧 방향과 주저이다. 할까 말까 하다가 말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방향이요 주저이다.”

“사업에 대한 책임감(동광 1927년 2월): 사업의 목적은 결국 우리 사회의 삶을 위함이다. 가치가 있고 없고의 측정은 자기의 몸과 집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자기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주인의 관념이 있는 후에야 정도가 되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에는 공적 사업과 사적 사업이 있어 자기의 몸이나 집을 위하여 하는 사업은 사적 사업이요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를 위하여 하는 사업은 공적 사업이다 다 필요하고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이므로 누구든지 놀면서 입고 놀면서 먹지 말고 오직 공과 사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서게 하라.”

“청년에게 호소함(동광 1931년 2월):가장 먼저하고 가장 힘쓸 것 - 인격훈련과 단결훈련”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없으면 일은 하나도 이룰 수 없다.(홍사단보 1946년 7월): 조직에 합당한 지식 조직에 합당한 신의 이것을 갖춘 인격이 없는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다.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하여 참 삶의 맛을 알게 될 것이다. 정의를 기르는데 주의 할 것은 남의 일에 개의치 말고 개성을 존중하라. 자유를 침범치 말라. 물질의 부탁을 하지 말라. 정의를 혼동치 마라. 신의를 확실히 지켜라. 예절을 존중하라.”

“ 사랑하는 아내 혜련(1933년 6월 1일): 사랑, 이것이 인생에서 밟아 나갈 최고의 진리요 인생의 모든 행복은 인류간이 화평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요. 사랑을 믿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자신의 마음은 비상한 화평 속에 있으므로 남이 헤아리지 못할 무한한 행복을 받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정의 행복을 희생한 지도 오래되었소. 뿐만 아니라 당신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는 바요. 오! 혜련! 나를 충신으로 사랑하는 혜련! (중략)나의 몸을 이미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바쳤으니 이 몸은 민족을 위하여 쓸 수밖에 없는 몸이라 당신에게 대한 직분을 마음대로 못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필립: 좋은 사람 되는 법은 좋은 친구를 잘 가리어 사귀며 좋은 책을 잘 가리어 보는 두 가지가 매우 요긴하다. -네 아버지가 중국 홍콩에서”

“나의 사랑하는 딸 수잔: 너희들도 매우 바쁘겠지만 딸을 깨끗하게 거두고 화초를 잘 길러라. 이것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좋은 습관을 양성하는 한 과정이다.”

## 미주 인사들 간의 서신교환

미주지역 인사들과의 서한에서 주로 공적인 업무에서 파생된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사적인 내용에서는 수신자의 삶과 애국정신을 격려했다. 도산에게 편지한 이들은 자신들의 진로나 장래를 상의하고 생활에서 오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재정적 지원이나 지극히 사적인 부탁을 한 이들도 있다. 강명화와 강영소, 강영대는 부자간으로 대한인국민회 조직에 큰 공헌을 한 이들이다. 강명화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일을 맡았다. 1912년에는 대한인국민회 활동을 접고 개인 사업에 치중하였는데 그의 아들들이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에서 중임을 맡아 개인적 희생이 너무 크자 그 불만을

통해 드러냈다. 특히 신한민보의 중임을 맡은 강영소가 병이 나고 강영대가 학업을 포기하자 이들을 독립운동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했다. 이를 안 강영대는 자신이 학업을 포기한 것과 강영소가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국민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오히려 도산에게 부친의 실수를 사과하는 서한을 보냈다.

광림대의 서한 중에는 그가 흥사단 검사직을 수행할 때 단원의 의무사항인 통상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안창호에게 1개월 정권처분을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백일규는 독립금 마련에 노력했으나 그 금액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는 서신을 보냈다.

송중익은 안창호가 상해로 간 이후 미주의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 운영을 중심이 되어 맡아 했는데 흥사단과 북미실업주식회사 운영문제를 상의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 이래 흥사단원으로 활약한 양주은은 안창호와 서신을 자주 주고받았다. 흥사단 창립멤버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약한 염만석은 샌프란시스코의 한인정황을 도산에게 서신으로 알렸다. 1915년 인터타입 한글식자기를 발명한 이 대위는, 일제가 국문주자제조 및 발매금지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국문 발달을 위한 국문주자회사의 설립을 건의하는 편지를 도산에게 보냈다. 흥사단과 대한인국민회 운동자금 마련에 큰 역할을 한 임준기는 북미실업주식회사를 지도하며 농업경영관계를 알렸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사들의 보고를 받은 최정익은 변호를 매겨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보냈다. 1910년대 이승만은 안창호의 안부를 묻고 가르침을 달라는 서신을 보냈고 1919년 대한민국의정부 대통령으로 임명된 뒤에는 안창호가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1911년 신한민보 주필로 초대되어 북미로 건너와 흥사단 창립멤버로 흥사단 조직과 발전에 큰 공헌을 흥언은 도산의 딸 안수산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의 서신은 도산의 가족과 돈독한 유대를 보여준다. 미주지역의 서한의 주인공들은 노동자, 농민들도

미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 속에도 깊은 애국심을 품고 조국의 부름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주였다. 홍사단 창립 멤버이며 농장경영 대부호 김종립은 벼농사와 관련된 여러 정황을 알리고 독립운동 자금마련 문제를 안창호와 의논했다.

## 명 연설가 도산

도산은 일찍이 훌륭한 연설가, 웅변가로 명성이 높았다.

1898년 7월 25일 광무황제의 생일을 맞아 독립협회 평양지부에서 ‘쾌재정’이라는 정자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21세의 도산은 당시 연설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쾌한 일과 불쾌한 사정을 들어 일반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감탄했다. 이때부터 도산의 명연설은 시작됐다.

도산의 연설이 있다고 하면 회의장은 늘 터지도록 만원이 됐다. 그의 풍성한 신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 정열로 넘치는 극진한 애국 정신이 듬뿍 담긴 연설은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었다. 도산은 세계가 민족경쟁시대라는 것, 독립한 국가 없이 민족이 서지 못하고 개인이 없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분발 수양하여 도덕적으로 거짓 없는 인격을 갖추고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삼았다. 도산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웅대하고 폭이 넓고 물이 용 출하고 산이 솟아나는 듯하였다”고 평했다. 도산은 언제나 “대한의 남자여, 여자여”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정부의 무기력을 한탄하고 민족의 결함을 척결하자고 호소하고, 지금 깨달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망국을 누가 막겠느냐고 연설을 하면 만장이 흐느껴 울었다. 도산의 연설은 제목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예를 들어주어 그 의의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생기는 결과를 지적하는 식이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하였고 때때로 간단하고 적합한 비유와 유머를 섞어 지루함이 없게 하였다.

명 연설가로는 1907년 2월 귀국하여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하기까지 3년간이 그 절정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식 후 1908년 10월 홍사단 단원에게 ‘전쟁종결과 우리의 할 일’이라는 연설문을 발표했다. “……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대동단결을 이루고 저 하면, 형세 밖의 일을 몽상하다가 몽상대로 아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수 동포가 상식이 자라도록 중추력이 생겨지도록, 위대한 인물이 발현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함이 가하다 하노라”



USC 연구소가 된 도산이 살던 집 (로스앤젤레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캠퍼스 내)

1919년 3월 13일 대한민국민 회의에서는 ‘삼일운동을 위한 계승’을 연설하고, 국민회 총회 장으로는 ‘재산과 생명을 아울러 희생하자’고 호소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희망적이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고 끝에는 “대한독립만세”를 청중들과 함께 외쳐 나라 잃은 국민에게 새로운 기운

을 일으켰다. 남강 이승훈은 “나라가 없고서 일가와 일신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를 받을 때에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가 없소”라는 도산의 연설을 듣고 그날로 상투를 자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를 세웠다.

도산이 다시 미국에 와서 1924년 12월 25일 동포들이 마련한 환영식장에서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동포의 유일한 책임은 모여 서로 서로 사랑하여 샌프란시스코 공기를 따뜻하게 하며, 새크라멘토에 계신 동포나 스타톤에 계신 동포나 어디에 계신 동포나 다 막론하고 서로서로 사랑하여 전 민족의 공기가 따뜻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장래 성공에 무엇보다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다.

동포들끼리의 사랑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도산의 연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열렸다. 1907년 4월 27일 만월대에서 군민연합운동회 연설회에는 2천여 명이 모였으며 7월 8일 평양 연설회에는 3천여 명이 몰려들었다. 1907년 군명 학교 연설에서는 애국사상 고취를 위해 아침마다 학교에서 국기를 게양할 것과 애국가를 제창할 것을 제안했다. 도산의 연설은 독특하여 실생활과 관계있는 상업육성, 가옥개량, 운동장 설치, 모범농장 설립, 학도의 해외파견 그리고 의무교육 실시 등을 소재로 삼았다.

그의 연설은 보통 2시간 이상 계속됐다. 1908년 2월 8일 대한협회 주최의 한 연설은 무려 3시간 50분 동안 계속됐다. 도산의 연설회를 취재한 한 기자는 그의 연설은 글로도 입으로도 능히 읊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극찬했다. 1908년 6월 14일부터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도산 연설을 ‘안씨 연설’로 독립 기재하였다.

일본인 형사가 도산의 연설을 필기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의 명령만 있다면 사를 버리고 오직 복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 하겠다”고 했다는 등 그의 연설에 관한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

도산의 공식적 국내연설은 1909년 1월 14일 청년회관(YMCA)에서의 ‘전제와 희망’이라는 연설이 마지막이었다.

도산은 우리겨레가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영원히 번영을 누릴 길을 깊고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독립의 유일한 길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고 독립전쟁 준비론을 정립했다. 독립 후에는 자유롭게 모두 잘살 수 있는 민주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을 위한 인물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도산은 학교를 세우고 지, 덕, 체를 골고루 갖춘 건전한 인격자를 배양하는데 힘썼다. 흥사단 운동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조국을 살리는 길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력이라는 것을 역설하여 산업을 진흥함이 곧 애국이요 구국이라고 하고 경제적 침략이 군사적 침략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케 하려고 노력했다.

또 도산은 민족의 정신과 문화 보급을 위해 출판 사업을 중요시하여 “책사(서점)도 학교다. 책은 교사다. 책사는 더 무서운 학교요, 책은 더 무서운 교사다”라고 평소 말했다. 서적과 출판물이 민족 힘의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믿었다. 도산은 민족향상 운동이 도덕운동에 중심을 두는 것이라며 정치와는 분명한 구분을 두었다. 정치로 인한 일시적 오르내림보다는 민족의 진정한 역량을 키울 때 민족의 영원한 생명이 보존된다고 역설했다. 도산은 대화와 오락도 중요시 여겼는데, 단체생활에서 서로 지식을 얻어 덕을 모으고 웃음과 기쁨을 함께 분담하여 전체가 즐거워하자는 뜻이었다.

정신여자학교를 나온 도산의 부인 헬렌(헤런)은 남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쏟는 만큼, 자신도 일생을 희생적 정신으로 살았다. 부인은 결혼 후 도산에게 “당신은 국가에 속한 사람이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의 남편 도움 없이 3남 2녀를 양육하며 힘든 일생을 살았다.

1905년에 장남 필립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수많은 미국 출생 한인 2세 중 제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평생을 총각으로 지내며 40여 년간 할리우드에서 3백여 편의 영화와 TV에 출연하여 동양인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다. 차남 필선은 화학을 공부해 휴즈 항공에 30년간 근무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삼남 필영은 아버지가 상해로 떠난 뒤인 1926년에 출생하여 아버지를 영영 보지를 못했다..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사병으로 복무했으며 칼 스테이트 LA 대학시절 풋볼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형과 함께 Moongate 식당경영에 참여했다. 장녀 수산은 미 해군 소위로 입대, 대위시절 전투기 사격을 가르친 첫 동양계 여성 장교였다. 차녀 수라는 남가주 대학을 졸업하고 소설 위커로 사회에 봉사하였다.

필립과 함께 30년간 Moongate를 경영했다.

## 세운 단체 및 기관

, 흥사단, 상항 친목회, 공립협회, 신민회, 청년학우회, 수양  
동우회, 평양 대성학교, 흥사단, 북미실업주식회사, 남경에 동명학원,  
국민회, 대한인국민회

교육 / 오산학교, 대성학교, 보창 학교, 양실학교, 신안학교,  
가명학교 등 수십 개의 학교

산업 / 평양 자기제조주식회사, 상무도사 협성동사, 방직회사,  
연초공장, 광산업

출판 / 태극서관, 조선 광문회, 안악면려학회

학술회 / 1907년부터 1908년까지 5개 설립.



3 필영이 태어나기 전 (1917년)

도산의 일기와 자료 및 그와 관  
련된 문건은 봉투나 메모지 한 장  
조차 흐트러짐 없이 도산의 부인  
이 도산 생존 시는 물론 작고 후  
에도 잘 보관해 두었다. 이 자료  
는 독립기념관과 기념 사업회에  
그대로 기증되어 한국민족운동 또  
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더 없이 귀  
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도산의 일기는 1902년 유학으로  
미국에 갈 때 쓴 것(6.25 전쟁 때  
화재로 인해 소실)과 상해 임시정부에서 각료로 활동할 때 쓴 것  
(1920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 분량)으로 나눌 수 있다.

일기는 가로 20센티, 세로 27.5센티 크기의 양지에 일자별로 빼곡  
하게 기록했다. 26년 임시정부 존속기간동안 일기를 남긴 인사는  
도산이 유일하다. 초창기 임시정부의 활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다. 홍사단에 관련된 내용도 많고 북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비행학교를 세울 무렵 상해에서 비행기 구입을 추진한 일기도 있다. 그는 비행기 구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비행사를 구하기도 하였다. 당시 비행학교 재정지원과 운영에 깊게 관계한 김종립과 노백린을 비롯하여 교관 한장호, 학생 오림하, 장병훈, 이용근이 홍사단 단원이므로 서로 연계가 있었다. 도산의 일기는 국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정리한 것이 아닌가하는 학계의 의견이 있다.

도산은 많은 국내외 인사들을 만나면서 면담한 인물의 이름과 담화내용을 기록해 두었는데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독립운동의 상황, 그리고 홍사단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다. 도산이 평생 관여한 민족독립운동, 기타 활동, 한말 일제하의 독립운동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본인과 부인 이해련 여사가 정리 보관했다.

## 기념사업

1947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 사업회 창립

1962 대한민국정부는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1969. 4.21.미국에서 부인 이해련 여사 별세.

1973.11.10 도산 탄신 95주기와 홍사단 창립 60주년을 맞아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던 도산 유해와 미국 이해련 여사 유해가 도산공원으로 이장하여 합장함. 청담동에서 논현동에 이르는 신설가로를 도산대로로 명명

1985. 3. 9 도산사상연구회 창립

1986. 12. 5 서울 동숭동 서울대 문리대 자리에 도산회관 건립

1994. 2. 3 로스앤젤레스 제퍼슨가에 위치한 대한인국회 총 회관 앞에 로스앤젤레스 시의 허가를 얻어 1368 제퍼슨가에 ‘도산 안창

광장' 조성. 서울 강남과 자매도시 리버사이드에 동상 건립  
 1998년 도산의 유해를 강남구 신사동 649-9 번지에 조성된 도산  
 공원으로 이장



안창호 우체국



도산 안창호 Memorial Interchange

2003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소재 한 연방우체국의 이름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는 다이앤 왓슨 미국 하원의원이 주창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됐다. 2004년 9월 18일 오전 10시 LA 한인 타운 내 6가와 하버드(3751 W 6Th St.)에 ‘도산 안창호 우체국’의 현판식이 있었다.

케빈 머레이 상원의원이 제출한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 명명 결의안’이 통과되어 2004년 6월 11일 ‘Dosan Ahn Chang Ho Memorial Interchange’가 로스앤젤레스 10번 프리웨이와 110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곳에 설치됐다.



1900      캘리포니아 주는 곳곳마다 개척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여 쌀 농장으로 바뀌고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를 연결되어 서부해안과 동부까지 잇는 교통망이 완성됐다.

철도공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흥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모자라는 인력은 타 지역에서 유입이 불가피했다. 동양인들은 성실하고 근면했으며 임금도 미국인들에 비해 저렴했다. 캘리포니아에 동양인의 이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 개척 소식은 하와이에 있던 한인들에게도 솔깃한 내용이었다. 더구나 캘리포니아 임금은 하와이의 농장 임금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으로 미국 본토의 비슷한 노동에 비해 3분의 1 또는 절반가량이 낮았다. 하와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본토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임금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받는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은 그들은 누구나 대륙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기회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몇 년 고생한 후 돈을 벌러 귀국을

한인들에게 본토진출은 더욱 절실한 소망이 되었다.

학업에 뜻을 두고 하와이로 왔던 이들 또한 본토로 가기를 열망했는데 광활한 곳 좋은 환경에서는 일을 하거나, 학교선택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와이보다는 수월하다는 판단을 했다.

윤응호는 윤치호의 격려로 샌프란시스코로 향했고 양주은도 학업을 위해서는 본토로 가야한다고 판단했다. 1904년부터 1907년까지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온 사람은 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다른 자료 ‘The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문 형준 교수)’에 따르면 1903년부터 1913년까지 하와이에서 본토로 한인들은 4~5백 명가량인데 이중에 절반정도가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기후도 한인들이 이주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사계가 뚜렷한 한반도에서 살다 온 한인들은 매일 1백도가 넘는 띄약벌에서 노동하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캘리포니아는 사철 날씨가 좋고 일거리도 풍부하다는데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관문인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권과의 무역이 이뤄지고 있어 문화교류도 활발해 동양인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도시였다. 그 때 하와이의 한인들에게 본토진출의 기회를 주려고 처음 등장한 회사가 있었다. 철도회사였다.

1903년 유니온 퍼시픽과 태평양철도회사는 워싱턴 주 시애틀 향에서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까지 철도를 부설하려고 무려 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동자를 모집했다. 모집대리인의 자격을 얻게 된 문홍석은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신이 경영하는 호놀룰루에 있던 한성여관에 사무소를 차렸다.

1905년 3월부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기회로 많은 한인들은 미국본토로 건너가기 시작했다. 호놀룰루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배로 6일이 걸리고 배 값은 28달러정도였다. 그 후 캘리포니아를 연결하는 철도공사나 농장 개척 사업에 필요한 인부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하와이에 줄을 잇게 된다.

◆ 1906. 3. 12 ( ): 한인들은 하와이에서 미주 본토로 올 때 매우 가난했고 여비도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공립협회는 이들의 농장 일자리를 주선하고 숙소, 철도여비도 주었다.

◆ 1907. 3: 1907년 일본과의 신사협정을 맺은 미국정부는 하와이 이민들이 본토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 1912. 7 (대도): 하와이 한인이 미국에 올 수 있느냐는 하와이 동포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하와이 온지 7년 된 증서를 하와이 이민국에 가서 얻어 가지고 미국으로 와 보시오. 그러면 될 줄 아외다. 그러나 돈이 좀 있어야 될 듯 하외다. 몇 사람 먼저 시험하여 보시오.”

초기에 본토로 온 사람들은 한국에 선교사였던 닥터 드류의 도움으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없었다. 재정보증은 공립협회에서 주었는데,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사를 짓거나 과일농장에서 일을 했다. 유타나 와이오밍에 석탄광부나 애리조나로 철도인부로 떠나기도 했고 알래스카로 가는 원양어선을 타기도 했다.

## 본토이동 통계

1910년 미국정부의 인구조사 의하면 하와이 한인은 4천 533명이고 미주 본토의 한인인구는 462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민국 기록에 1905년부터 1910년까지 하와이에서 미주 본토로 이주한 한인 인구는 1천명이 넘었다고 되어있다. 그 기간에 300명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한국에서 직접 본토로 온 사람이 200명이니 최소한 900명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462명으로 조사되었던 이유는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조사하는 사람들이 국적을 제대로 명기하지 못했던 탓도 있겠다. 한인과 일인을 구별하지 못한 그들은 인종 난에 일본사람을 낮춰 부르는 단어 ‘Jap’을 써 넣어 일본사람으로 정리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1905년부터 1907년 사이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 지방으로 건너간 한국인은 1905년에 399명, 1906년에 456명, 1907년에 148명으로 모두 1003명에 달한다. 1907년 3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들어오는 배를 기다리던 초기 한인 이민들

은 하와이의 일본인과 한인노동자들을 미국 본토로 이주할 수 없게 하는 시행령 589호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한인들은 더 이상 본토로 이주하지 못하였다.

자료마다 숫자가 다르지만 정리된 기록들을 보면 하와이에서 본토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이주한 사람은 남 941명, 여 45명, 아동 29명으로 총 1015명이었다. 1903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온 한인인 103명으로 하와이에서 이주한 1900명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 1903년부터 1904년까지는 총 50명이, 1911년 3명, 1912년 7명, 1914년 18명, 1915년 15명이 하와이에서 본토로 이주했다.



## 일어났던 일

초기 이민이 미주 본토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은 1595년 스페인의 탐험가 세르메노를 수행한 1776년 프란체스코파에 의해 건설되고, 그가 ‘La Bahia de San Francisco’라 명명하였다. 1848년 금광이 발견된 이후 금문(金門)이라 불리며 골드러시를 이루는 바람에 인구가 급증했다.

1906년 대지진으로 도시전체가 파멸의 위기에 빠졌으나 한 은행가가 피해자들에게 조건 없이 복구비용을 무상 대부해 주는 바람에 도시 복구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약 9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은 샌프란시스코는 1936년 베이 브리지, 1937년 금문교를 완성하며 항만의 정비 등으로 크게 발전하여 항구를 중심으로 상공업의 중심지가 된다. 기온은 연간 8~18도 정도로 따뜻한 기후이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다. 언덕과 안개가 많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알려져 있다. 초기 이민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첫 이민이 겪었던 일들을 알아본다.

## 지진



1906 샌프란시스코 지진 후

1906 4월 18일 오전 5시 12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초간 발생한 8.3도의 강진은 엄청난 화재를 불러 3일간 전 시가를 불태우고 674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목조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수도 본관이 파괴되어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로 인해 이재민이 20여만 명 이상 발생했다.

생존자들은 몇 주 동안 천막이나 공원에서 잠을 잤다.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지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거나 본토로 오려고 계획했던 하와이 한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다. 다행히 한인 피해자는 50여명이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상항교회당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곳에 거주하던 15명의 한인이 오갈 데가 없어지자 미 감리교회 구제부에서 이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또 다른 40여명의 피해 한인들은 오클랜드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록에 따르면 공립협회 회관과 대동보국회 건물, 예배당이 손실을 입고, 53명의 동포가 재난을 당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때는 말이 끄는 불자동차가 와서 불을 켜는데 소방관이 부족하여 오클랜드와 알라메다 그리고 버클리에 있는 소방관들이 와서 도왔다. 지진이 난 후 많은 사람들이 새크라멘토로 이사를 갔다.

고국의 대한매일신보(227호)에는 일본 통감부가 샌프란시스코 일본 영사의 보고를 받아 “한인 사망자가 24명에 피해자가 80명 정



”라고 발표한 내용을 신기도 했다. 이어 228호 신문에는 “한국 정부가 구휼금(구제금) 4천환을 일본영사관을 통해 동포들에게 배급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뒤늦게 접한 공립협회는 피해상황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일본 영사관을 통한 구제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자체적으로 일본영사에게 구휼금을 받은 동포를 조사했다. 그런 후 다음과 같은 통고문을 통해 일본정부의 미주한인사회 접근과 간섭을 거절하고 차단하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 사본을 대한 매일신보사에 보냈다.

< >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보에 기재되기를 한국정부가 상항 진재의 조난 동포들을 위하여 구휼금 4천환을 보내는데 일본영사로 하여금 분급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재난으로 인하여 회관이 소화되고 신문을 정간하는 경우에 처하였으며 동포들이 곤경에 있으나 왜적의 간섭을 거절하는 우리로서 일본영사가 분급하는 구휼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재래에 일본영사가 우리의 일을 간섭하려고 여러 번 시험하다가 거절을 당한 까닭에 우리가 곤경에 빠진 때를 기회 삼아 구휼금으로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나 우리가 굶어서 죽을지언정 일본영사의 간섭은 받지 않아야 한다.

일찍이 하와이 동포와 함께 배일을 공결한 바 있고 그 신조를 지켜야 할 것이니 우리의 회관과 신문사 설비가 지체되고 동포의 곤란이 막심하더라도 일본영사를 경유하여서 주는 구휼금은 거절할 것이다.

1906년 6월 24일

북미 한인 공립협회 총회장 송석준

또 일본영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질문하기를 “상항 지진에 한인 사상자가 없는데 어찌하여 통감부에 거짓 보고를 하였으며 한인의 일을 어찌서 간섭하는가?”하였다.

이에 일본영사는 지진에 관한 일반 정형은 일본 외무성에 보고하였으나 한인의 사정을 통감부에 보고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한인구제에 관하여는 5월 10일에 예배당 전도사 문경호에게 일화 5백 원과 백미 13부대와 간장 3통을 주고 한인들에게 분배하라고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며 앞으로는 한인의 일을 간섭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립협회는 심사회를 열고 전도사 문경호를 불러서 일본영사 구제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문경호가 사실을 부인하였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Ellis St에 있는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던 문경호는 10일 동안 계속 질문을 받자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구제품을 받은 것을 실토했다.

공립협회 관계자들이 구제품을 일본영사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문경호는 거절하게 된다. 이에 공립 협회 관계자들은 문경호를 ‘친일자이며 구제금 횡령 협잡자’라고 판정하였고 문경호는 이후 중적을 감추었다.

한인의 곤궁한 때를 이용하여 배일 정신을 흐리게 하려던 일본영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소문이 국내에까지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일본 영사를 통하여 보내려던 구제금 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광무 황제는 동포에게 보낼 구휼금 미화 1천9백 달러를 뉴욕 선교부의 브라운목사에게 보내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미국인 라클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게 했다. 공립협회에서는 이 돈으로 회관을 다시 짓는 한편 임시 사무실을 오클랜드 7가 1230번지에 설치했다. 또 대한매일신보사는 의연금 592달러 50센트를 거두어 전 상항 명예영사 빠스윅에게 보냈는데 이민국 의사 쭈루시가 그 위탁을 받아 한인들에게 분배했다.

## 박람회



기념을 위해 지어진 Palace of Fine Arts

10 동안 공사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40.5마일로 잇게 된 파나마 운하가 1914년 8월 15일에 개통됐다. 그동안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는 남아메리카의 끝을 도는 8천 마일의 위험한 항해였으나 파나마의 가장 좁은 부분을 통과하면 훨씬 더 빨랐다.

미국은 이 운하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1915년 2월 20일부터 11개월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나마태평양 박람회를 개최했다.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극렬함에도 동서양각국의 출품이 아주 많았다. 높은 누각들을 지어놓고 정원의 꽃들도 휘황찬란하고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어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12월 20일에 막을 내린 박람회 총 경비는 2천 586만 5940달러, 수입은 2천 718만 8065달러였다. 신한민보는 이 박람회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뤄 한인사회에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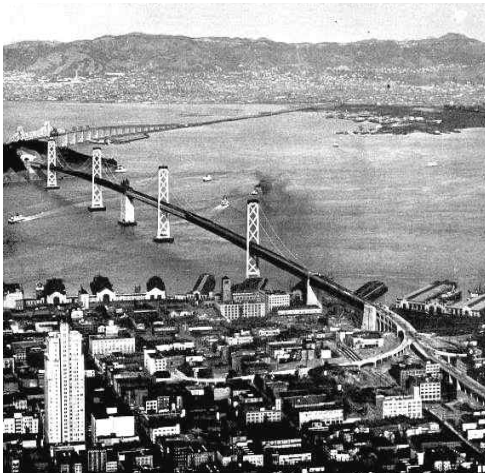
◆ 1914. 3. 26: ‘우리도 박람회에 뜻이 있는가?’

하상옥 논설 / 미국은 1915년에 상항에서 파나마 태평양 박람회를

태평양 연안에 상업 중심을 삼으며 동양무역의 교통을 발달하게 하여 패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이다. 상업은 그 나라를 부강케 하는 원동력이다. 이 같은 주요한 일에 박람회 기간은 점점 준비를 재촉하는데 우리의 자본가들은 상항 박람회에 대하여 뜻이 있는가?

◆ 1915. 4. 8: 태평양 연안의 항구는 파나마운하 개통이후 상업이 발달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출구한 물건이 1천 355만 9천 572원이었다. 미국 대서양 함대는 샌프란시스코 박람회에 참가할 것이고 7월 4일에 금문만에 날을 것이다. 시카고에서 온 비행기가 날마다 비행하여 관광객을 기쁘게 한다.

### 브리지 개통식에서 퍼레이드 상 받은 한인들



-오클랜드를 잇는 베이 브리지

1936년 11월 14일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를 잇는 13km Bay Bridge 개통식이 있었다.

중간에 있는 에르바부 에나 섬에 의해 동서로 양분된 2중 구조의 다리이며, 하단에는 철도가 통해 있었다. 한인들은 총천연색으로 준비한 퍼레이드를 몇 주에 걸쳐

준비하여 참여하였다. 대한인국민회 회장 Mr. C.H.Choy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하니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였다.

한인들은 여러 나라 퍼레이드 중에 가장 아름다운 퍼레이드를 펼친 나라로 뽑혔다. 11월 21일 Mr. C.H.Choy(최진하로 추정)는 관계 부처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다리 개통식에 여러 나라 중에

아름다운 퍼레이드를 펼쳐 심사위원들이 특별상을 주기로 하였으며 세계에서 아름다운 다리 개통식에 참여해준 기념으로 기념 컵을 보내준다는 내용이였다. 컵은 이름이 새겨지는 대로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그랜트 브라더스에서 직접 보내줄 것이라고 하며, 이 컵이 최고의 다리 개통식에 참여한 기념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금문교 개통

1937년 5월 27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개통되었다. 당시 60세이던 조셉 스트라우스가 설계하고 3500만 달러의



1937 금문교 개통식 모습

공사비로 4년 만에 걸쳐 진행되었다. 5mm의 케이블 27,572개를 한 개의 케이블같이 묶어서 직경 92.4cm의 원통형 케이블을 만들어 2,737m의 다리를 공중에서 떠받들듯이 지탱하는 서스펜션 브리지(현수교-구름다리)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베이를 연결하는 베이 브리지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 아래 건설 중이었고 계획자체도 마침 대공황이었기에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의 양쪽에 주 탑을 2개 세우고 탑 위로 메인 케이블을 빨랫줄처럼 옆으로 걸친 다음 주 탑 중앙에 캔티레버 형식으로 연결된 교량 상판을 메인 케이블에 매다는 현수교 방식을 제안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만을 가로지르는 오렌지 빛 금문교 Golden Gate Bridge가 완성되었을 때 주민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금문교 건설에는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일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었다. 교량 상판을 케이블에 매다는 과정에서 바다 속으로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 자모일 행렬

1942년 5월10일 자모일(어머니날)에 27개국 동맹국민으로 조직한 승전위원회에서 거행한 행렬에 한인도 참가하였다.

충천연색 퍼레이드 행렬에는 부대의 인원 총수가 약 1만 5천으로 행렬경과 지점은 샘슨과 마켓 스트리트로부터 시작해 마켓 스트리트를 지나 상향 시정청 ‘씨빅 센터’에 와서 평판을 받게 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1/4 마일 길이의 군인들이 참가해 모든 나라 사람들과 가도에 있던 관중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한인 꽃차 행진으로 그 날의 퍼레이드에서 데몬스트레이션 2등 상을 받았다. 승전 행렬의 참가해 성공한 한인들은 그날의 의의를 이렇게 분석했다.



1942 5월10일 어머니 날  
샌프란시스코 시가행진



1942년 5월10일  
샌프란시스코 시가행진

1. 국기 가운데 태극기도 참가하게 한 것은 사실상 한국의 동맹군 참가를 승인한 것
2. 한인 꽃차동차가 2등 상을 받은 것

3. 참가는 특색이 있어 연도관객들의 박수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고 서부 사령관 겸 제2군 구 사령관 다윗장군이 한인의 애국성을 찬양한 것

4. 한복 입은 여자 수십 명이 행렬에 참가하여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표시한 것들이다.

## UN 평화회의



1945 4월 25일 유엔평화회의에  
참석한 한인 대표단

1945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평화회의가 열렸을 때 미주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동지회의 이승만은 윤병구 등 동지회 회원으로 임시정부대표단을 구성하고 한족 대표단은 한시대, 김호 등이 파견되었다. 한족

대표단이 합치자고 하였으나 이승만이 타협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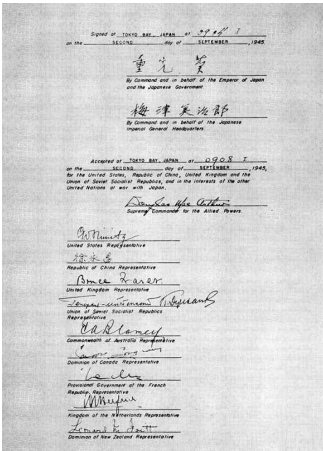
유엔(United Nations)이라는 명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고안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서약하였으며 유엔이라는 말은 1942년 1월 1일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제2차 대전 진행 중 연합국간에는 전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설립 필요성이 검토되었으며, 동 국제기구는 국제연맹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보다 일반적이고 새로운 범세계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구상으로 발전하였다.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라고 불리던 이 회의에는 50개국 대표가 참가하였다.

1944년 8월부터 10월간 Dumbarton Oaks 회의에 회합하였던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 대표들이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유엔 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에서 서명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폴란드가 추후 서명함으로써 51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유엔은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소련과 여타 서명 국 과반수가 유엔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 맞은 조국의 해방



항복문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의 승리를 앞두고 미국, 영국, 중국의 세 나라는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고 1943년 11월 12일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는 ‘조선 인민을 예측상태로부터 해방하여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독립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독일이 항복하자 포츠담에서 1945년 7월 17일 회담을 열고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 일본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소련군이 진출하여 참전하자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연합군의 요청대로 무조건 항복했다. 그들은 1945년 8월 15일에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드디어 조선은 일본제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었다.

이승만은 해방되던 1945년 10월 16일 70살의 고령이 되어 33년 만에 서울로 환국하고 한시대, 김호, 송중익 등 일행이 10월 26일



서울로 갔다. 1947년 11월 5일 뉴욕 주 레익썬서스에서 개최한 연합국총회에서는 한국 독립문제가 40대 0으로 통과됐다.

1948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연합국 총회에서

남한정부 승인 안을 46대 6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9년 1월 1일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잇달아 승인을 발표했다.



초대 대통령 취임식  
(1948년 7월 24일)

## 세 발의 총성을 신호탄으로



1908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페리항에서 장인환, 전명운 두 의사가 스티븐스를 처단한 사건은 한민족의 자유정신과 항일 의식을 만천하에 떨치는 계기가 됐다. 또 미주 한인사회에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미주 한인들은 이 사건을 일본의 한국침략을 미 주류사회와 세계에 알리는 호기로 삼았다. 당시 산만하다 싶었던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이 사건이 자극이 되어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두 의사의 생명을 건 애국적 행동이 모체가 되어 미주 내 산재해 있던 단체들은 1909년 2월 1일 ‘국민회’라는 하나의 항일독립운동 단체를 탄생시킨다.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인환, 전명운 두 한인은,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였으나 큰 의미로는 한국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를 세계 자유인의 법정자리 피고석에 앉힌 격이었다. 이 사건은 한인 개인들의 의식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모든 힘을 조국의 자주독립운동에 모으게 했고 국내외에서의 구체

국권회복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기 시작했다. 백년이 되어야야 조명 받기 시작한 이 사건은 아직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은 중요한 사건이다. 두 사람의 거사는 자기의 목숨을 내건 나라 구하기 일념에서 나온 민족적 투쟁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세 발의 총성을 신호탄으로 일어난 이 일은 한국 역사와 미주 이민역사에 민족의식의 강화, 민족주의 사상 정립, 자주성 회복운동을 되짚어 보게 한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

## 발단

스티븐스는 미국인으로 일본주재 미 공사관의 참사관으로 일본 동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본정부가 한국 합병을 앞둔 1904년 8월 스티븐스를 한국으로 파견되어 고종황제의 외교 고문을 맡게 된다. 그는 친일파였다. 이등박문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고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을 합병하기 전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국정부의 이해를 얻고 미국의 여론을 친일적으로 이끄는 데 스티븐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스티븐스는 명분상 휴가를 보내기 위해 미국에 온다고 발표했다. 스티븐스 일본의 통감부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친일행적을 계속했다는 일설도 있었다.

그가 얼마나 친일적이었던지 한국인들 사이에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일본관리보다 더 충복’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외국인 중에서도 국제 정세와 일본의 야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던 헐버트, 벅셀, 맥킨 같은 이들은 책, 월간지,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서의 만행을 비판하고 있었다.

1908년 3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그는 “한국은 사실상 일본정권 아래 이득을 얻고 있으며 결국은 미국도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망언을 했다. 이어서 “첫째,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후 한국에 유익한

많아 양국관계가 점차 친밀해지고 있으며, 둘째, 한국 사람들은 글을 모르고 미개하여 자주정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일본이 한국 인민을 다스리는 법은 미국이 필리핀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과 같다. 셋째, 한국이 만일 일본정권아래 있지 않았다면 지금쯤 러시아 지배 하에 있었을 것이며 한국 신정부가 조직된 이후 정계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일본을 반대하지만 농민과 일반백성은 종전의 한국 정부가 일삼았던 학대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일본인을 환영하고 있다. 넷째, 일본은 전보다 나아지는 생활에 기뻐하고 즐기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스가 타고 온 배가 도착한 날, 또 다른 배 한 척에는 한국에서 항일인사들이 스티븐스의 미국방문에 즈음해 보낸 격문이 있었다. ‘고 재 상황 동포’라고 되어있는 이 편지는 스티븐스가 한국에서의 외교행각이 얼마나 친일적이었는지를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지역 동포들의 궤기를 촉구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노동자 배척운동이 일어나 이와 관련한 법안이 제안되어 12월 열릴 예정인 미 의회는 이 법안을 다루도록 되어있었다. 일본은 미국을 방문하는 스티븐스로 하여금 미 의회 의원들 및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접촉케 하여 법안통과를 무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 반응

스티븐스의 기자회견 내용이 크로니클 지 전면에 크게 보도되자 교포신문 국민보는 이 내용을 받아 토요일 자에 실었다. 이 기사를 읽은 한인들의 분노는 이루 형언키 어려운 정도였다. 다음날인 일요일 상향한인감리교회에 모인 한인들은 앞 다투어 스티븐스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동요했다. 3월 22일 오후8시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는 공동주최로 연합 임시총회를 열었다.

자리에 있었던 선우탄의 증언에 의하면 총회가 열린 공립회관에는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서 약 150명 정도의 한인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사회를 맡은 양주삼 목사가 “스티븐스는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족을 무시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젊은 학생이었던 전명운은 “원통한 노릇입니다. 나라가 약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요. 우리는 행동으로 처리해야지요. 그놈을 죽여야 해요”하고 흥분된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스티븐스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스티븐스가 그런 망언을 일삼았는데도 한인사회에서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미 주류사회에서 우리 민족을 무엇으로 보겠느냐며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토론 끝에 4명의 대표가 선출됐다. 대동보국회 대표로 이학현과 문양목, 공립협회 대표로 최유섭(최정익과 동명이인)과 정재관이 선출됐다. 이들 대표 4명은 즉시 스티븐스가 투숙하고 있는 페어몬트 호텔로 찾아갔다. 호텔직원으로부터 동양인들이 찾는다는 말을 들은 스티븐스는 일본친구들이 찾아 온 줄로 알고 호텔 로비에 내려 왔다가 한인대표들을 보자 얼굴색이 변했다.

대표단은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인정하느냐”고 추궁하고 “잘못된 내용이니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스티븐스는 “한국에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등박문 같은 통감이 있으니 한국에 큰 행복이요 동양에 큰 대행이라, 한국 사람들은 이등박문의 총책을 환영하고 있다. 이등박문은 아시아의 위대한 정치가이다. 그는 한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한국은 다행이다. 한국의 고종황제는 능력이 없고 한국 관리는 부패했다. 한국국민은 미개한 백성이다. 그들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 일본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아마 러시아가 한국을 점령했을 것이다. 당신들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망언을 반복하며 오히

큰소리를 쳤다. 또 그는 “백성이 어리석어 독립할 자격이 없으며 내가 신문에 말한 것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니 다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재관과 최유섭은 “이런 개자식 같은 놈은 죽여 버려야 한다”, 문양목도 “버릇없는 놈은 때려 죽여라”라고 분을 냈다. 정재관이 주먹으로 스티븐스의 턱을 치자 스티븐스는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졌다. 이에 네 명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내려치자 스티븐스의 얼굴에는 피가 흘렀다. 스티븐스가 비명을 외치자 호텔 종업원과 손님 여러 명이 달려왔다. 그러나 한인대표 4명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리는 이들에게 스티븐스의 행적과 일본의 포악한 만행을 호소했다. 당시는 동양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아 백인이 동양인을 죽여도 관대해 법정에서 재판은 고사하고 신고도 되지 않을 때였다. 와이오밍 주에서 중국사람 20여 명이 무더기로 학살을 당했으나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었다. 이런 동양인들이 샌프란시스코 최고급 호텔의 로비에서 백인 외교관을 구타했다는 사실은, 현장에 모여든 백인들과 경찰관을 놀라게 했다. 영어가 유창한 이학현이 말했다. “이 사람은 일본정부의 앞잡이, 친일파다. 일본의 스파이이고 배신자다. 이런 미국인은 미국에 수처다.”

너무도 당당한 한인 4명의 태도에 모여든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곧이어 도착한 고이케 영사는 그들의 체포를 강경하게 스티븐스에게 권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과 외교상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스티븐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관들도 스티븐스의 태도에 따를 수밖에 없어 한인들을 어찌지 못한 채 로비에서 나가라고 손짓할 뿐이었다.

후에 이 사건을 안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 신문기자가 이들 대표들을 찾아 왜 스티븐스를 쳤는가를 물었다. 이학현은 “우리에게는 자유냐 죽음이나 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것이다.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경관이 체포한다

무섭지 않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양목은 “우리는 한국의 애국자들이다. 당신들의 역사를 보라. 미국의 애국자는 영국을 반대했다. 한국의 애국자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한다. 일본제국주의를 지원하여 한국백성을 압제하는 국가나 개인은 우리의 원수다. 스티븐스는 우리의 원수다. 당신들이 미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스티븐스를 구타한 네 명의 한인대표들은 그 길로 공립회관으로 돌아왔다. 기다리고 있던 한인들에게 스티븐스의 계속된 망언, 그리고 호텔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고했다. 흥분한 한인들은 다시 대책을 토론했다. 그때 전명운(당시 25세·공립협회원)이 “내가 처치 하겠다”고 나섰고 허승원, 신영구, 리몽규 등 격렬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자리가 없어 벽에 기대섰던 장인환(당시 32세·대동보국회 회원)이 “누가 총만 주면 그를 쏘아 응징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평소 조용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이 없던 장인환이었다.

네 명의 한인대표들은 그날 밤 잠을 잤을 리가 없고 작전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을 내세워 일본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스티븐스의 일정을 알아냈다. 전날 일로 불안해진 스티븐스는 일정을 앞당겼다. 구타사건이 있던 다음날인 23일(월요일) 떠나기로 했다. 오클랜드에서 동부로 출발하는 기차를 타려면 샌프란시스코 페리항(부두)에서 배로 오클랜드를 가야했다. 당시는 동양인이 총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장인환은 총을 품고 부두로 나갔고, 전명운도 총을 준비하고 부두에서 스티븐스를 기다렸다.

스티븐스는 호텔에서 한인들에게 구타당한 뒤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는 일정을 앞당겼을 뿐 아니라 호텔을 떠나면서 일본총영사에게

“혹시 죽으면 통감 이등박문과 일본외무대신에게 전해달라”며 유서 두통을 전달했다. 유서에는 자신이 죽으면 그 보상금을 두 여동생에게 주라는 내용과 자신은 일본을 위해 22년간 일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10분 샌프란시스코 페리 정거장에 도착한 스티븐스가 일본총영사 소지 고이계의 전송을 받으며 자동차에서 내리자 전명운은 총을 뽑아 그를 쏘았다. 그러나 불발이었다. 전명운은 권총을 거꾸로 쥐고 스티븐스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 즉시 반격에 나서 범인을 잡으려는 거구의 스티븐스와 전명운 사이에 육박전이 벌어졌다. 그때 돌연히 나타난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향해 총을 겨눴다. 장인환은 권총 세 발을 쏘았는데 그 중 첫발은 스티븐스와 전명운이 뒤엉켜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바람에 아깝게도 전명운의 어깨에 맞았다. 스티븐스를 향해 다시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스티븐스는 등과 허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장인환을 체포했다. 부상당한 전명운과 스티븐스는 근처 하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 반응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은 대부분 백인이었다. 이들은 장인환과 전명운에 대해 “두 놈을 죽여 버려라”, “목을 매 죽이자”, “저 동양인 악마를 처형하라”고 아우성들이었다. 그 때 한인 대표 이학현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우리는 야만적인 일제로부터 피해온 사람들이며 이 일은 미국이 대영제국과 벌린 독립전쟁과 같은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현장을 목격한 한 미국부인은 나무상자 위에 올라가 “이 사람은 비록 황인종이지만 과연 애국지사요 의기 있는 남자다. 자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였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일반 국민 된 자는 자기나라를 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고 이학현에 동조하는 연설을 했다. 역시 현장에 있었던 선우탄의 증언에 의하면 배웅을 나왔던 일본영사 고이께는 어쩔 줄 모르고 경찰에게 호신을 요청하며 피신했다고 한다.

## 상황과 언론의 반응

스티븐스가 워싱턴에서 일본의 한국합병의 정당성을 말하기 전 사실 미국정부는 일본정책을 내적으로 승인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 조차 “한국 사람은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손가락하나 쳐들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태프트-가쓰라 비밀조약’을 맺어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것을 인정했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으나 워싱턴 지도층에서는 이해가 된 일이었다. 태프트-가쓰라 비밀조약이란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에 취하는 조치에 대해 어떤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약이다.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가 양해한 패권주의적 발상의 약속이었다. 스티븐스의 역할은 일본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1904~1905년에 일어난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다. 일본은 러시아 및 중국과 맞닿아 있는 반도나라 한국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도 일본이 한국을 간섭하는 것을 인정했다. 한국은 일본이 지정하는 제3국의 사람을 재정과 외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기로 했는데 1904년 8월 친일파 스티븐스가 이에 취임한 것이다. 1905년 11월 17일에 이르러는 한국의 모든 외교적 계약 권한은

있다는 5 조약까지 맺게 된다. 이어서 모든 법적 지위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조약을 맺었다.

3월 23일 아침에 일어난 스티븐스 저격사건은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와 여러 대도시의 신문에 스티븐스를 저격한 두 한국청년 이야기로 다뤄졌다. 두 사람이 가졌던 애국적 인식과 스티븐스에 대한 한인

들의 분노를 보도했다. 마침 미국 하층민들 사이에 일본인 노동자 배척운동이 벌어졌던 시기라 이 일은 미국시민들로부터 큰 이해와 동정을 살 수 있었다.



1908 3월 24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의 장인환 전명운 의거 장면 삽화 (문양목, 이학현, 최유섭(최정익), 고이께 영사, 수갑 찬 장인환)

### 크로니클 기사

다음날 크로니클지는 헤드라인으로 스티븐스 저격사건을 다뤘다. ‘기도하고 살인 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사진은 물론 장인환의 저격 장면과 전명운의 타격 장면 등을 묘사한 몇 가지 큰 삽화까지 그려 함께 게재했다. 기사는 일제나 스티

측을 두둔하는 코멘트도 실고 있었으나 장인환과 전명운의 행위를 정당하고 애국적이라고 말하는 한인사회의 모습에 비중을 두었다. 스티븐스 저격사건과 관련한 주요 크로니클 신문 기사를 날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08 3월 24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1908년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민영환과 장인환

을사보호조약 후 민영환의 자살은 장인환의 거사동기가 되었다. 공립협회에는 민영환의 사진이 붙어 있어 한인들은 드나들면서 항일정신과 독립심을 키웠다고 한다.

▷ 1908. 3. 21: 스티븐스 인터뷰기사 “처음에는 한국 관리들이 일본을 환영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관리들도 농민들처럼 일본을 환영하고 있다. 그 까닭은 구식 정부구조를 개량해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 1908. 3. 22: ‘스티븐스는 한국의 공적이라고 말하는 한인들’이라는 제목 하에 “한국인들은 이 충성을 찬미할 것이며 일본은 이 보도를 듣고 한국을 폴란드와 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보도.

▷ 1908. 3. 24: 1면 헤드라인 장식, 2면 전체, 3면의 대부분을 한

입장에서 본 기사를 중심으로 실었다. 불법, 살인 사건으로 보기보다 일본과 관련한 아시아의 정세, 한국의 입장 등 정치적인 사건으로 분석.

이 같은 보도에 일본의 총영사는 당황했다. 그러자 심한 부상으로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도 스티븐스는 “나를 해친 그들은 광신적 젊은 학생들이다. 그들은 일본의 한국보호를 반대하나 그들의 행동은 한일관계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1908. 3. 25: 장인환은 경찰관 입회하에 양주삼의 통역으로 전명운과 스티븐스가 함께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스티븐스와 대질하였다. 그 내용이 신문에 실렸는데 장인환이 “너는 우리나라를 판 매국노이다. 너는 우리로부터 돈을 착취한 것밖에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말했고 스티븐스는 “불쌍한 처한 같으니, 너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다. 너의 무식은 너에게 해롭다. 나는 너의 소행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는다. 나는 3년 동안 너의 국민과 같이 살아서 다수의 친구를 갖고 있다. 나는 네가 그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 장인환은 크로니클 신문에 편지를 보내. “왜 내가 스티븐스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나를 생각해보라. 스티븐스는 한국과멸의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일본에 가담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봉급을 받으며 오히려 일본을 위하고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나라 인민에게 허다한 박해를 가했다. 그는 나를 가르쳐 대세를 오해한 처한이라고 했지만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는 구속 때문에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인의 신용을 사기 위해 ‘한국의 미국인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이곳에 왔다. 스티븐스의 음모로 인해서 수천의 우리 국민은 살해당했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다. 나는 우리 동족을 동정한다. 나는 더 이상 스티븐스 때문에 나의 동포가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의 생명이란 무엇이야? 사람은 죽을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스티븐스를 죽이고 또 나도

우리나라의 영광이며 우리나라 인민의 행복이다.”라고 했다.

일인 신문 신세계보 (1908년 3월 24일)

크로니클 신문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시각을 가졌던 반면에, 상항에서 발행되던 일인들을 위한 신문 신세계보는 스티븐스 피격을 애석해 하는 기사를 실었다.

“ 16년 이래 가장 충실한 고문관으로 미일공관에 봉직하던 스티븐스(55세)는 왕년에 한국정부의 외교고문이 되었으니...한국정부에 외교고문을 두어야 될 필요가 급박한 당시에 일본인으로 고문을 둘 지경이면 제3국의 오해할 염려가 있을 듯 함으로 외국인 중에 형상은 다르고 마음이 같은 자를 천거할 특권을 가지고....양국의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막대한 공헌을 한자는 실로 스티븐스 그 한 사람이었다.....한인 된 자는 지금에 반성하지 않으면 전도에 당하여 한심함을 가히 익히지 못하겠다.”

## 뉴욕 타임즈

▷ 1908. 3.25: ‘한국 민족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사설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한 것은 한국인들의 생존을 위한 표시였고 자기민족의 운명을 자기들의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죽음을 무릅쓰고 형벌에 관계없이 이 젊은 학생들은 고의적으로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일본을 돕고 한국을 배신한 사람을 습격했다. 물론 그 행동은 그리 아름답거나 현명한 행동은 못된다. 그러나 칭찬할만하지는 못해도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한인들의 견해를 실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오클랜드 트리뷴 지 등에서도 대서특필했다. 한 신문은 ‘한국정부 미국관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총을 맞았다’는 제목

‘한국 독재자 학생의 총에 맞다’라는 부제를 달기도 했다.  
(1908년 3월 25일)



의거 보도기사  
(1908년 3월 25일)

“ 여러분! 참여하  
라! 권총소리에 각성하라!  
우리 정부 내에 반역자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의 원  
수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가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  
고 정성이 있다면 장인환과  
전명운 두 분을 애국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동포와 우리나라를 상하게  
하는 자를 저격한 것은 정  
당한 것이다. 2천만 동포는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  
여 싸워야한다.”

국민보, 공동신보 등도

장인환 의사의 쾌거는 항일기개를 높이고 미국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크게 보도했다. 국내 신문 대한매일신보는 두 사람이 보기 드문 열렬한 우리 대한의 애국지사라면 이 사건을 계기로 민중들의 항일정신이 높아지고 일본인 거물 정객들을 암살하는 우국지사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의 세계일보도 “한국에서는 의병대가 계속 봉기하고 미국에서 스티븐스 암살... 이것은 한국인이 자기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충분히 표시한 것이다. 용감한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위대한 한국이 아닌가?” 라고 했다.

## 진술

전명운은 자신을 만나러 온 기자들에게 “스티븐스는 한국에 대해 거짓말을 하러 온 사람이고 일본인들은 한국의 부와 나라를 도적질하고 있다”고 서두에 밝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25세다. 학생으로서 미국에 유학하러 왔지만 돈이 없어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돌아 온 것은 5일 전이나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를 소동국이라고 한다. 나는 늘 이것을 슬퍼해 왔다. 나는 배움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고국을 떠났다. 그러나 내가 고국을 떠난 후 형편은 더 나빠져 일본은 각종 조약을 체결하려고 우리나라를 압박하였다. 나의 형제와 친척 중에 왜놈에게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호소할 아무런 힘도 없다. 며칠 전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한국 사람이 왜놈을 환영한다는 말을 했고 이 점에 관해 미국인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해 나는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그의 초상을 신문에서 얻어 호주머니에 넣고 역으로 갔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격하려 하였으나 내 총의 탄 수가 돌지 않았다. 그래서 권총으로 그를 쳐서 가능하면 두 눈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나를 치는 판이 되어서 나는 도망하였다. 스티븐스는 뒤에서 나를 쏘았다. 나는 혼자였고 누구에게도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일본을 위해 더 충실할 것이다. 나는 누구와 사전에 모의 한 일이 없다. 나는 이제 죽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발언은 미국 내 주요 신문에 보도됐다. 이를 본 한인들은 물론 미국인들까지 그의 애국심에 탄복하였다. 또한 그가 동포들에

“나는 미국의 살인법을 범하였으니 다시 살기를 바라지 않거니와 동포 동포여 나라 사랑 나라 사랑”이라며 글을 썼는데 곧 ‘전씨 애국가’ 라고도 한다.

“ 동포들아 일심애국 힘을 써서/ 4천 년 내 신성동맹  
신세계에 빛내보세/ 사농공상 동력하면 대한제국 자연부강/ 자유독  
립 하고보면 세계상에 제일일세/ 잊지말아 잊지말아 충군애국 잊  
지말아/ 일심하세 일심하세 나라위해 일심하세/ 건곤감리 태극기를  
지구상에 높이날려/ 만세 만세 만-세로 대한독립 어서하세”

## 진술과 사망

스티븐스는 경찰의 심문에 “내 나이는 55세, 주소는 한국 경성이  
다. 한국내각의 원문으로 사무소는 한국궁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정황에 대해 “간밤에 수명의 한국인이 페어몬트 호텔로 찾아  
와 나를 습격하였다. 그들은 나를 의자로 내려쳐서 오른편에 입은  
상처는 그때 입은 것이다. 오늘 아침 차에서 내릴 때 한사람은 앞  
쪽으로 달려와 내 얼굴을 세차게 쳤다 그때 나는 이 자(병상에 누  
워있는 전명운을 가리키며)를 쫓아 따랐는데 그때 이자(장인환을 가  
리키며)가 나를 쏘았다. 그는 두 번 나를 쏘았다. 누군가가 그의 손  
으로부터 단총을 빼앗은 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는 동안  
에 군중이 모여 와서 사건에 관계하였다. 지금의 상태로는 나의 병  
세는 생사가 반반이다. 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순간까지 일본의 한국 강점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한  
국국민을 모욕했다. 또 그는 “나를 해치고자 한 행동은 신중성이 없  
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의 한국보호를 반대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  
동은 한일관계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 오래 기다린 휴가를 이  
처럼 시작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1908년 3



24일자)고 말했다. 스티븐스는 25일 오후 급격히 상처가 악화되어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병원에서 오후 11시10분 사망했다.

## 애국정신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보복이 있을지 모르고 일본당국의 악선전 등으로 불안해했다. 이런 공포 분위기가 감돌자 처음에 한인들은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는 것을 피했고 혼자 외출하는 것도 삼갔다. 그러면서도 용감한 두 애국자를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었다. 두 애국자 구명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퍼지자 움츠렸던 한인사회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또 술, 담배, 도박 등으로 외로움을 달래며 세월을 탓하던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애국운동에 매진하는 현상도 일어났다.

한인사회는 장인환, 전명운 두 사람의 미 법정 재판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억울한 사정을 세계에 발표할 기회가 없어 항상 개탄이더니 오늘 양씨의 충의로 소개하여 반일동안에 각처 호외신문과 세계 전보가 사람의 이목을 경동케 하였으니 만일 양씨의 의혈이 아니면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세계만국에 공포하였을까? 이 재판은 세계의 공개 재판이오 우리의 독립 재판이니 우리가 이 재판을 이겨야 우리 2천만의 독립이 될 것이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스티븐스가 저격된 날 하오 9시 30분,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의 40여 명이 제2차 한인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의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는 이 두 사람을 돕기 위한 의연금 700여 달러가 각출됐다. 재판에 대비하여 최유섭, 문양목, 백일규, 정재관 등 7명의 ‘판사전담위원회’가 구성되고 재무는 문양목과 김영일 양씨가 임명됐다. 신한민보 등 한인 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계속 보도하며 항일기개를 높이고 여론을 환기시켰다.

3명의 유명한 변호사를 선정되고 두 의사의 행동은 애국지사의

살인행위가 아니라 는 점을 변론케 했다. 미주전역에서 한  
인들은 이 재판이 곧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민족의 자유를 건 재  
판으로 생각하여 앞 다투어 의연금을 보내왔다.

미주 본토는 물론 하와이, 국내와 멕시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지에서 모금에 참여한 동포들의 숫자는 1천여 명에 이르렀다. 총 8  
천568달러41센트(어떤 기록은 7390달러)가 모금되어 일체의 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버클리에서 유학하는 중국학생대표가 의연금 10  
달러를 내어서 재미교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때 두 의사 후원 관계자들은 이승만을 동부에서 샌프란시스코  
로 불러와 법정 통역을 부탁했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자 이승만은  
“논문을 써야 되니 시간관계로 더 있을 수 없다. 나는 예수교인인  
만큼 살인재판의 통역을 원하지 않는다”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는 여비와 1개월 체재비만 쓴 셈이어서. 한인들은 “그러려면 오지  
나 말지. 동포들이 애써 모은 비용만 쓰고 갔다”고 이승만을 비난했  
다. 그 후 이승만과 배재학당 동기였던 신흥우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라와 통역을 맡았다. 전명운은 병원에서 퇴원 후 수감되어 미국  
경찰 수사관에게 심문을 계속 받고 같은 해 7월 석방되었다.

## 진술

장인환은 경찰서로 찾아온 크로니클 기자에게 의거 목적을 자필  
로 써주었다. 신문에는 서명까지 한 이 진술서가 사진과 함께 실리  
고, 그 요지는 번역 게재됐다. 그 내용은 참으로 애국충절에서 나온  
것으로 한인들은 물론 많은 미국인들에게도 감명을 주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일찍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  
었으나 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라를 돕기 위해 배우려  
고 하와이로 이민을 왔다. 수백 수천 명이 일제의 손에 죽어가고

때에 스티븐스는 한국 사람들이 일제의 침략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그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말한 것처럼 거짓말로 대중을 속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였다. 만일 그가 다시 살아서 한국에 돌아간다면 다시 그만한 한국인민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그를 저격하였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미 죽임을 당한 동포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장차 스티븐스에게 죽임을 당할 동포를 구하였다. 인생이란 무엇이나. 사람은 죽임의 길을 알아야 한다. 내가 그를 죽이고 또 나도 죽으면 우리나라의 영광이며 우리나라 인민의 행복인 것이다.”

## 태도

일본은 스티븐스의 사망소식을 듣고 호외까지 발행했다.

“일본 황제는 스티븐스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친서를 발하여 조상하였으며 이등박문은 스티븐스의 부음을 듣고 보는 사람마다 향하여 애통한 정을 말하며 전체 일본인민도 크게 격양하고 자리에 앉는다”는 내용이 실렸다. 한편 상항주재 일본 총영사 고이께는 사건발생 후 여론이 계속 일본의 한국 점령에 관심을 두고 한인사회에서는 항일운동이 점점 거세어지자 “스티븐스가 일본정치와 관계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그와는 사적관계로 스티븐스가 휴가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한 도중에 만났던 것 뿐”이라고 발뺌을 했다.

고이께는 스티븐스가 한국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일본정부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미국여론이 반일로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장인환, 전명운 두 사람을 기소하는 검사 측 통역관을 일본 총영사의 주선으로 도쿄에서 데려왔다. 일본 측은 일본이 한국의 진보 발전을 도운 것으로 보일 만한 사례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기소검사에게 즉시 보냈다.

대한 한인들의 비난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위한 자료였다. 또한 고이께 일본 총영사는 검사를 도울 변호사로 사무엘 나이트를 5천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 고용했다.

1908년 4월 4일 자 고이께는 자국의 외무대신에게 “변호사비가 하루 100달러이나 법정애 가면 1500달러를 추가로 주어야 하지만 기간이 너무 길지 않으면 5천 달러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변호사의 말을 전문으로 보냈다.

사무엘 나이트는 “장인환의 행위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거사가 아니라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 범죄성향”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 검사 측의 전문인 증인으로 선 정신과 의사 루스버그와 위스는 장인환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고 말해 변호인 측의 ‘애국적 충동에 의한 정신적 환상상태’ 주장에 맞섰다.

하와이 일본 영사관에서는 서기관을 별도 파견하여 재판 진행을 일일이 챙겼다. 또 재미한인단체의 동정을 살피면서 친일적인 한인 유력자를 매수하기도 했다. 스티븐스가 사망하자 일본정부는 치료비와 장의비 일체를 부담하고 유족에게 15만원을 주고 한국정부에게도 5만원이나 내게 하였다. 3월 28일 스티븐스의 누이와 그 남편이 장례식 참석 차 상항에 도착했다. 고이께는 3월 28일자로 페어몬트 호텔로 편지를 보내 사건이 났던 일요일 밤 스티븐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체포하지 않아 이런 슬픈 일이 생겼다면 안타까워했다. 5월 18일엔 일본 동경에서 추모진혼제까지 열렸다.

## 판결

장인환, 전명운 두 의사의 공판은 3월 27일 경찰법원에서 시작했으나 살인중죄인으로 곧 상급법원으로 옮겨져 미주 한인뿐만 아니라 국내외 한민족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 12호 법정에서 배심원 12인을 선정하고 재판장 캐롤 쿡이 심의 판결

장인환 전명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사건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가운데 한인들의 들끓는 애국심에 감동한 카크란 변호사는 무료 변론을 자처했고 장인환, 전명운 구출위원회는 자원했던 나단 카크란과 존 바렛, 로버트 패럴 3명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들은 전명운과 장인환의 케이스를 분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저격사건과 관련, 사전에 의견을 나누거나 공모를 한 증거가 없다고 변호했다. 재판에는 일제가 고용한 나이트 변호사가 샌프란시스코 부 검사 헨리를 도와 장인환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일급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들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고 애국심의 자연스런 발로였으며 그 애국심의 충동에 의한 일시적인 정신적 환상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무죄”라고 변호했다.

전명운은 총상을 입었으나 치료경과가 좋았다. 4월 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명운이 장인환과 살인을 계획한 공범이라고 주장을 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전명운과 장인환은 공모한 적이 없으며 전명운은 오히려 스티븐스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변호했다. 또한 전명운은 총을 발사한 증거가 없으며 스티븐스에게 육체적 손상도 입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명운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카크란 변호사는 배심원에게 살해행위 당시 피고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정신이상을 주장하고 마땅히 법률상 제재를 면제받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병준과 장라득이 증언석에 나와 일제의 대한 침략상과 장인환의 열렬한 애국심을 웅변적으로 증언했다.

이병준은 “장인환은 본래 애국지사다. 저 야만의 일본인이 우리의 힘이 약한 때를 승시하여 정권을 빼앗고 충신열사를 학살하며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를 강간하는 사실이 신문에 그칠 날이 없음에 장씨는 이것을 분개하여 자기의 몸을 국가에 헌신하기로 임이 같이 맹세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당 간사인 장라득은 “장인환은 작년에 알

다녀온 후에 모아 두었던 신문을 보고 7월 정변(광무황제의 퇴위사건과 군대를 해산시킨 일)의 참혹한 사상을 생각하고 자연 상심하여 혹 잠도 아니 자고 밥도 아니 먹을 때가 있으며 매양 나라를 생각하고 통곡할 때가 많았다”고 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에 12명 배심원 중 상당수가 감명을 받았다. 또 다른 여러 한인들도 증언대에서 장인환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배렛 변호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나라만 사랑한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내 나라를 해하는 도적을 만나 충을 들었다. 이는 나라 사랑하는 열광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저지른 것이다. (중략) 나는 장인환이 무죄라고 믿는다”고 변론했다. 그의 변론에 배심원 중 2명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는 이어서 “오늘 이 재판은 큰 권세 있는 일본과 망명객 장인환이 서로 재판하는 일이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죽이고 재물을 겁탈하는 것이 진짜 죄다. 이런 죄야말로 1등 살인죄”라며 죄는 스티븐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트 검사가 피고 심문에서 “한국은 이미 망하게 됐고 일본이 도와서 한국국민을 잘 살게 할 터인데 무슨 불평인가”라고 묻자 장인환은 “일제를 찬양함은 이천만 동포를 독살하는 것이니 적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 이천만 동포가 멸망케 되므로 죽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며 나는 죽어서 자유로운 혼이 될지언정 살아서 노예는 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했다.

패렐 변호사는 “피고는 일본제국이 한국을 침략한데 분개하여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한 것이다. 우리도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을 생각해 보자”면서 “마침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이니 한국의 애국자 장인환을 구해 달라”고 배심원을 설득했다. 장인환은 당시 산호제 브라운 기숙학교 프란시스 부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증인으로 나와 “장인환은 매우 정직하고 품행

단정하며 배우기에 열중하고 부지런한 청년이다. 그의 피부는 다르나 나는 그를 친자식처럼 생각한다. 이번 일은 순전한 애국심에서 일어난 것이다. 나는 지금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계로 무료 변호를 자청했던 카크란 변호사는 “역경 속에서 자주독립을 고수할 수 있는가”, “악인을 제외하는 것이 애국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장인환에게 유리한 질문으로 변론을 이끌어 나갔다. 이에 장인환은 “다른 사욕은 없다. 악의 논리를 장려하는 사람은 인간사회에 독이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법정엔 있던 한인들은 장인환의 떳떳한 모습과 증언에 자부심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카크란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고상한 인격자, 진실한 애국자, 참된 인간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 앉아 있는 수십 명의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이라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포의 몸을 구원하려 한다.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장인환을 죽인다면 그의 원통한 피가 더 말할 수 없다. 또 하나 지금은 예수의 탄일이니 이러한 명일에 불쌍한 의사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배심원 여러분은 애국 의사 장인환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은 꼭 재판장의 법률적 설명을 듣고 그날 밤 9시19분부터 11시15분까지 별실에서 장장 3시간 가까이 판정회의를 열었다. 12명의 배심원 중 일곱 명은 사형을 주장하고 다섯 명은 무죄를 주장하여 타협이 되지 않았다. 계획된 암살이라고 판단하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판단할 여유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는 몇 차례의 투표로도 좁혀지지 않았다. 장시간 토론이 맴돌자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배심원들 간에 타협하자는 안이 나왔다. 배심원들 자신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빨리 판결을 매듭짓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결국 8차례의 비밀투표 끝에 ‘애국적 환상에 의한 2급 살인죄

(Insane Delusion)’ 배심원의 일치를 보았다. 사형을 면했으므로, 장인환의 공판은 한인들이 원하는 대로 끝난 셈이었다. 이 사건의 발생은 매스컴을 통해 일본의 한국 침략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대내적으로는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결속력과 박차를 가져왔으며, 장인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한인들에게 승리를 의미했다.

재판은 1909년 1월 2일까지 장장 280일 동안 열렸다. 2급 살인죄는 사형을 면하고 최고 30년, 최하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있었다. 1909년 1월 9일 쿡 판사는 장인환에게 25년 금고형을 선고했다.

### 후 장인환의 태도

판사의 판결에 대한 장인환은 “나는 내 나라에 의무를 다 한 것 뿐이다. 나는 차라리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나에게 더 영광이다. 내 나라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내게는 영광이다.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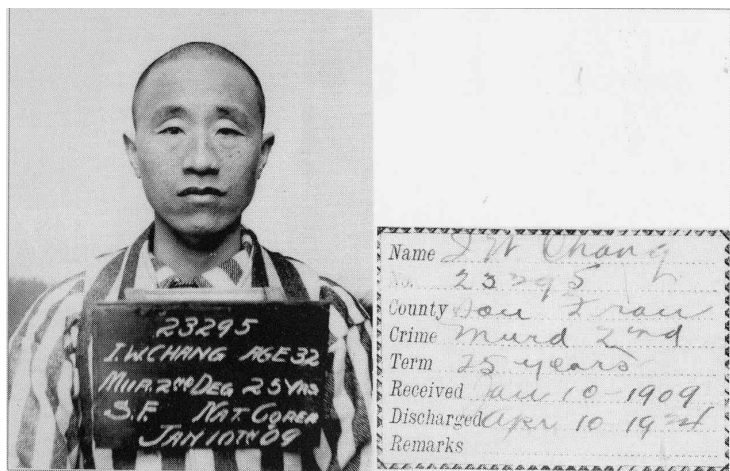
그러나 최정익이 “25년 징역은 안 돼. 대법원에 상소해야 한다.”고 하자 장인환은 “우리 한인들의 재정이 약하고 지금까지 허비한 경비가 막대합니다. 하여튼 사형이 아니니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했다. 장인환은 공판정에 나와 있던 사람들에게 “25년은 긴 세월입니다. 내가 25년을 못 채우고 죽을는지 어떻게 압니까? 친구들, 부디 한 가지 기술을 배워서 조국에 돌아가 만인에게 평등한 자유의 새 민주대만을 건설하세요. 이것이 나의 최후 부탁입니다”라고 말했다.



## 수감생활과 그 후

죄수번호 23295호를 달고 1909년 1월10일부터 북가주 샌퀸틴 감옥에서 외국인 정치범 대우로 복역했다. 신한민보 1월27일 기사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이라야 (장인환을) 아무나 상면할 수 있다하며 샌퀸틴 감옥은 상황서 내왕차비가 50전”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감옥규칙을 잘 지키어 다른 죄수들의 모범이 되었다. 교도소 안에서 그가 한 일의 기록을 보면 1909년 1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카펫의 실 짜는 일을 하고 1909년 10월 13일부터 1912년 9월 19일까지는 세탁기술을 배웠다. 1912년 9월 19일부터 출감할 때까지 양복 다리는 일을 했다. 품행이 언제나 단정했으며 일요일에는 옥중교회에 다녔다. 한인사회에서는 세 차례의 석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되다가, 1918년 강영소 국민회장과 황사선 목사 등이 출옥 후 생계 보장을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감옥에 들어간 지 10년 만인 1919년 1월 10일 가석방됐다.



수감되기 전 찍은 사진

돌아온 애국지사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가석방 상황에서 장인환은 월마다 신상보고를 했는데 1924년 4월 10일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다. 그 뒤 그는 십 수 년 꿈에도 그리던 고향 평양으로 간다. 그러나 그토록 그리던 조국으로 가려던 그 앞에 장애가 생겼다. 그것은 당시 한국에 가려면 일본 영사관에서 일본인여권을 발급 받아야만 했다. 고민하던 장인환은 일본인 여권을 받아 23년 만에 조국으로 갔다. 고향친구들의 소개로 그때까지 총각이던 51세의 장인환은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 인텔리 여성 윤치복양(21세)을 만나 오기선 목사의 주례로 두 사람은 혼인하기에 이른다. 동아일보는 ‘노신랑소신부’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결혼 기사를 다뤘다. 평생 자신의 고향인 선천에서 고아원 경영이 소원이던 장인환은 출옥 후 ‘대동고아원 외국총무’라는 직함으로 미전역에 모금운동을 벌였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은 물론 하와이까지 두루 심방해 789명에게 모금해 평북 선천읍 천목동에 연와제 고아원을 짓고 그 주변에 만 이천 평에 달하는 토지도 매입했었다. 1927년 2월 27일 자 동아일보는 그가 도착하기 전 ‘재외동포의 동정과 내지 동포의 감사, 선천고아원 전도 양양’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장인환이 결혼까지 하고 선천 고아원을 경영하자 일제의 감시는 더욱 심해져 결국 그는 일 년도 못 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생계유지가 급급해 친구들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탁소를 열었다.

최소한의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부인을 초청하려 했으나 이민법으로 길이 막혔고 돌아온 후 유일한 혈육 딸마저 죽었다는 소식에 상심했다. 사정을 모르는 부인이 “왜 나와서 살지 않느냐,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느냐”고 재촉편지를 자주 보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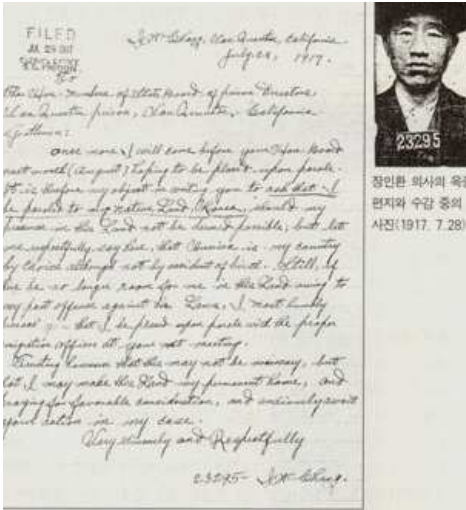
#### <장인환과 관련한 문건>

▷ 1909. 7.28 신한민보: 조국의 쇠운을 분개하여 국가의 공적을

몸이 옥중에 있는 애국지사 장인환씨는 불철주야하고 영어와 영문을 전공하는데 일전에 그 친필로 쓴 영문편지가 어떤 곳에 왔으니 보는 자 그 학력의 신속함을 복지 않는 이 없었다더라.

▷ 1914. 1.29: 장인환 씨 편지-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신 성탄예물과 새해문안카드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이 정성 되고 기쁜 뜻으로 여러분에게 회답하여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는 정을 표하고자 하옵나이다. 나



장인환 의사의 옥중 편지와 수감 중의 사진(1917. 7.28)

는 우리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안에서 육신과 영혼이 다 평안하고 즐거이 지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진진하게 하며 발달하게 하여 피차에 사랑하고 단합하여 장차 우리의 일어발인 나라의 자유를 회복하고 인민을 노예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기를 쉬이지 안코 기도하며 또한 태평복락을 누리게 되

옥중 편지와 사진(1917년)

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를 십자가에 고난 받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였스니 우리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서로 사랑할 것이라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밋으며 사랑은 바라며 사랑은 낙심치 안코 영원히 힘쓰나니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노라. 또 다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나의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뜻으로 사랑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에게 문안하나이다.

건국기원 4247년 1월27일 캘리포니아 썬퀴인틴감옥 당인환 상

▷ 1918. 10.3 : 철창 냉옥의 장의사는 백일 후에 출옥  
- 장인환의사는 장년의 좋은 시대가 10년 철창에 거의 늙어 앞머리가 드문드문 빠지고 안색이 창백하여 당년의 영풍활기가 없는지라.....더운피의 구각이 이제 얼마나 더 늙었는고?

## 사망

1930년 5월 22일 장인환은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3층 병원 유리창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티븐슨에게 총을 겨누고, 의연한 자세로 십여 년 감옥생활을 한 그의 모습에 비해 그의 말로는 너무도 허무하고 비참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이미 쇠약해있었고 몸은 악명 높은 감옥에서 이미 망가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소변불통으로 입원했다지만 자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힌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4세로 마감된 장인환 의사의 소식을 들은 한인사회는 비통하기 짝이 없었다. 뜻있는 한인들과 외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6일 하오 2시30분 장인환 의사의 장례가 한인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시신은 샌프란시스코 인근 콜마 시의 사이프러스 공동묘지에 ‘대한의사 장인환공의 묘’라고 새긴 비석과 함께 안장됐다. 그 뒤 1975년 8월 3일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됐다.

한편 장인환과 전명운, 두 의사가 스티븐슨을 저격한 사건은 우연이었던 것처럼 문헌에 나타나고 있지만, 장인환은 귀국하였을 때 1927년 4월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리 약속하였다”(전명운과)고 말했다.



석방 축하 기념사진 (가운데 왼쪽부터 전명운 장인환의사)  
상향한인감리교회에서 (신한민보 1924년 6월24일 자)

## 저격사건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

저격사건은 미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에 불길을 당기는 전환점이 되는 등 해외항일운동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이 사건은 안중근의 이등박문 저격사건과 이재명의 이완용 저격 의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러시아의 하얼빈 역에서 을사보호조약의 원흉 통감 이토를 3발의 총탄으로 제거하였다. 이등박문이 군대와 외교관에게 인사를 마치고 막 마치고 마차를 타려는 순간 양복에 캡을 눌러쓴 그는 이등박문에게 단총을 연발하였다.

흉부에 두발과 복부에 한발을 맞은 이등박문은 오전 10시에 69세로 절명하고 안중근 의사는 “이제야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았다.”고 하며 ‘코리아 만세’를 외쳤다. 안 의사는 이듬해 3월 25일에 옥중에



석방 후 전명운(왼쪽)과 함께

사로 파견되었던 이준열사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일로 열린 1907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동회의에 참석하였던 그는 19살의 나이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자원했다. 그의 목적은 매국노 숙청이었다.

그해 10월 귀국하였으나 매국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2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재명은 1909년 12월 22일 명동성당 앞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인력거를 타려던 총리대신 이완용을 공격했다. 학생복 차림의 이재명은 거침없이 이완용에게 달려들어 칼로 이완용의 어깨와 배를 찔렀다. 인력거 차부가 달려들었으나 이재명의 칼을 맞고 쓰러졌다. 그는 이완용 위에 올라타고 다시 단도로 거듭 찔렀다. 체포되면서 이재명은 '대한제국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이완용은 중상을 입고 죽지는 않았다. 일제는 미공개 재판을 열어 1910년 9월30일 의사 이재명을 사형에 처하였는데 그의 나이 22세였다.

그의 나이 32세에 순국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샌프란시스코 국민총회는 안 의사의 변호 비를 위해 1910년 3월 7일과 4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1천 5백 달러를 해삼위(블라디보스톡)로 보냈다.

본명이 이수길인 이재명은 1888년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1905년 미국에 이민 와서 노동에 종사했다. 샌프란시스코 공립협회 회원이었던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 밀

## 의사(1876-1930)



의사

1876 3월 10일 평북 선천에서 출생한 의사는 어머니는 6살에 아버지는 16살 때 일찍이 양친을 여의었다. 소학교를 마친 뒤 상점점원으로 일하다 1895년에는 평양에서 상점을 경영하였는데 실패하였다. 국세가 기우는 것을 개탄하고 국가중신들이 일제에 아부하여 국사를 돌보지 않는 것을 보고 미주에 유학하여 국치를 씻겠다고 1904년 2월 28세에 하와이 코알라농장으로 노동이민을 하였다. 1906년 7월 한인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였다.

8월과 9월에는 퍼시픽 철도공사에서 철로를 놓는 고된 중노동을 하다 작업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해 치료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공립 병원에 있었다. 농장에서 고용살이도 하이트 가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일도 제이슨 가 하숙집에서도 일했다. 1907년 여름에는 알래스카 얼음판에서 연어 통조림 인부로 일하다가 9월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상향한인감리교회 창설멤버였던 그는 한인 독립운동단체인 대동보국회에 가입하여 맹렬히 활약했다. 1908년 3월 23일 그는 샌프란시스코 페리 항에서 일본 앞잡이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세 발의 총성으로 쏘아 죽이고 젊음을 옥중에서 바쳤다. 사건 후 일제 측과 검사 측은 장인환을 일급 살인범으로 몰아갔으나 변호인 측은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나온 애국심의 발로임을 강조했다. 1909년 1월까지 280일 동안 팽팽한 공판투쟁 끝에 장인환은 ‘애국적 환상에 의한 2급 살인죄’로 25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San Quentin 감옥에서(죄수번호 23295) 정치범으로 모범적인 수형 생활과 대한인국민회의 끈질긴 석방운동으로 10년 만인 1919

1월 10일 가석방됐다.

출감 후 대동보국회가 한국에 세운 대동고아원 외지 총무를 맡았다. 스티븐스 저격사건이 있을 즈음, 이미 장인환은 김마리사와 고아원 일에 열심이었다. 그는 투옥되는 바람에 고아원 측에 100원을 보낸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괴로워했다. 그 사실을 안 주위 사람들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약속을 지켜주었다.

1924년 4월 10일에 자유의 몸이 되어 1927년 4월 20일 25년 만에 고향을 찾아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삼촌 장명진 닥에 머무르던 장의사를 조만식 등이 위로연을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선천에서 고아원을 경영할 것을 말하였다. 그곳에서 결혼을 한 장인환은 일경의 감시로 조국에서 포부를 계속 펼 수 없어서 동년 10월 11일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다. 옥고로 인해 얻은 신병과 경제적 궁핍함에 상심한 장인환은 병원에 입원 중 자살해 1930년 5월 22일 54세로 사망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의사(1884-1947)

전명운은 1884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한성학원(경기고 전신)에서 수학하던 그는 일제의 탄압이 날로 심해지자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러다 일본 헌병에 쫓기어 1905년 결혼한 지 3일 만에 간도와 연해주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하와이 농장에서 일하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철로 공사장과 알래스카 어장에서 노동자로 다녀왔다.



의사



독립운동 단체인 공립협회 회원으로 청년회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던 중 1908년 3월 스티븐스가 미국에 도착한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통치를 잘된 일이며 일제의 통치만이 한국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망언을 하자 몹시 분개했다. 샌프란시스코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 회원들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망언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요구가 묵살되자 이 두 협회에서는 스티븐스 처단방법을 논의하게 되는데 전명운이 자원하게 된다.

1908년 3월 20일 오전 9시30분 경 스티븐스가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페리 항에 도착하였다. 대기하고 있던 25세의 전명운은 스티븐스에게 권총을 겨누었다. 그러나 불발되고 만다. 전명운은 스티븐스의 멱살을 잡고 총으로 그의 턱을 내려치며 육박전을 벌였다.

이때 장인환이 권총을 발사한다. 불행하게도 장인환이 쏜 세 발 중의 한발에 전명운은 어깨에 맞고 쓰러졌다. 경찰은 암살의 주 용의자로 장인환을, 공범 혐의로 전명운을 체포했다.

전명운은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었으나 1908년 6월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고 97일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일본공사와 영사가 배후에서 그의 재수감을 노리는가 하면, 협박 등을 일삼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이름을 Mack Field라고 고치기도 한다. 전명운은 “진행 중인 장인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타지로 떠났다가 돌아오라”는 장인환 변호사의 권유로 뉴욕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그 뒤 러시아의 연해주로 간 그는 그곳 동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항일운동과 연설을 하였다.

한편 밤에는 노어학교에 다니며 노어를 열심히 배우며 연해주의 독립운동 단체인 동의회에 가입하여 활약하였는데 이때 안중근 의사와도 상면하였다. 1909년 5월에는 국민회의 이상설, 공립협회 대표 김성무와 함께 러시아를 순행하며 러시아에 16개소의 지방회를 조직하는데 힘을 썼다. 1915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스타튼 등 농장지대에서 일을 하면서 ‘조국한국을 돕자’는 외침아래 의용군을

활약하며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내기도 하고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돕기도 하였다.

장인환 의사와 전명운 의사가 스티븐스를 죽여 일제의 기를 꺾자 국내 일본 미국 멕시코 상해 등지의 한인들이 회사한 의연금에 무려 8천568원41전이었다고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사에 나와 있다. 1917년 12월 27일 신한민보에는 “스탁톤에 거주하는 전명운 씨 부인은 나이 40에 처음으로 잉태한지 6개월에 신체가 강건치 못해 스탱톤 카운티병원에 입원하였다. 부인은 회복 후 차도가 있으나 세상 구경을 못하고 불쌍히 생명을 잃어버린 어린 아해가 참으로 불상한 일이며 또한 병원비도 매일 적지 안타 하였더라”고 적혀있다. (당시 전명운은 스탱톤에 살았다.)

1920년께 주순기(또는 추순기)와 결혼을 하여 1929년 맏딸이 7살, 둘째 딸이 5살, 막내아들이 2살이 채 못 되어 부인은 일찍 타개하였다. 이때부터 전의사는 고생을 많이 하고 미주에 경제공황까지 겹쳐 자녀를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세 자녀를 프레즈노에 양부모가 길러주는 곳에 맡기고 1929년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였다.

후에 천주교아원에 있던 세 자녀 중 7살 난 막내아들이 수영장에 빠져 숨진 후 전 의사는 말이 줄었다고 한다. 1983년 초기인맥을 캐던 민병용 씨는 전명운의사의 맏딸 로즈메리이여사와 홀트양자회 남가주지부 책임자로 한국 어린이를 위해 사회사업을 한 적이 있는 마가렛표 여사를 만났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와 함께 거의 산적이 없어 두 딸은 스티븐스사건의 높은 뜻을 거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전명운은 1947년 11월 19일 하오 7시 고혈압에 의한 혈관 파열로 63세를 일기로 우울한 생을 마쳤다. L.A. 근교 위티어에 있는 천주교 장지에 Mack Field라는 이름으로 묻혀있었다. 한국정부가 본국으로 이장하려 하였으나 딸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다 1994년 4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공훈을 기리어 정부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 1852-1908)



대통령의 친구였던 스티븐스는 1852년 오하이오 주에서 출생하여 뉴욕 콜롬비아대학 법대 외교과를 졸업하였다. 잠시 국무성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주일 미국공사관의 서기관이 되어 동경에서 약 1년간 근무했다.

1년 뒤인 1883년 미국으로 돌아와 주미일본영사관의 서기관이 된 그는

일본에 심복이 되었다. 다음해 일본 외무성 고문으로 채용되자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 침략외교를 시작하였다. 갑신정변으로 체결하게 된 한성조약 때 일본 전권대사를 따라 내한하여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여 일본에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으로, 포츠머드 러일 강화조약에는 ‘지도, 보호, 감리’라는 글을 넣으므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1904년 한국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초빙되어 몸은 미국사람이나 일본의 복리를 위해 일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미조약 체결에 앞장서고 1907년 헤이그 밀사 후로는 광무황제의 강제퇴위와 정미조약 체결에 중요한 몫을 하였다. 그가 1908년 미국에 온 이유는 겉으로는 휴가라고 하였지만 미국 안에 일본 노동자 배척운동이 격화되고 국회에 그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어 국회의원 및 유력자와 접촉하여 일본에 불리한 법안의 제출 및 통과를 방지시키려는 목적이었다. 1908년 3월23일 샌프란시스코 페리 항에서 장인환의사의 두발의 총에 맞아 1908년 3월25일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은 4월 18일 워싱턴에서 치러졌다.



2008 3월 22일 거사장소에서 열린 장인환 전명운 의사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하고 있는 구본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                    ’은 1909년 한인공동회가 제작 간행한 장인환과 전명운의 전기이다. 필자는 헤이그에 특사로 갔던 이상설로 헤이그에 갔다가 미국으로 온 후 공립협회관에 머물며 이를 완성했다.

이 책은 의연금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는데 모두 3000부를 찍어 미주 본토는 물론 하와이 1480부, 연해주 90부, 멕시코 70부 등 국내외에 배포해 두 의사의 생애와 의거 의의를 널리 알렸다.



## 상공에 비행기를 날리자

1905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맺은 일본은 1910년에는 강제로 한일 합방을 체결했다. 조국에 더욱 암울한 그림자가 짙어지자, 이미 수천 명의 한인들이 이주해온 미주에서는 자연스럽게 구국운동이 불붙게 된다. 애국지도자들의 계몽 선도적 역할이 컸지만, 고국을 떠나와 고생스런 삶을 살고 있는 이민들에게 ‘기운 조국을 우리 힘으로 바로 세우자’는 대의적 제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대한 목표의 하나가 됐다. 자녀들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어 받게 하고 극심한 노동에도 건강히 살아남기만 하면 일본이 물러간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한인들은 더욱 일심으로 단결하여 정치적인 항일운동과 독립군 양성을 통하여 구국투쟁을 전개했다. 본격적인 독립운동은 1905년부터로, 이때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무려 40년간 미주 한인들은 끈질기고 꾸준하게 애국, 애족에 힘을 모았다.

무력항쟁을 위한 독립군 양성이 한때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워낙 조국과의 먼 거리에 있는 관계로 실효를 보거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는 독립자금 모금에는 한인들이 거의 다 참여했고, 또 그 액수가 상당했다. 뿐만 아니라 애국단체를 조직해 그 상황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일본상품 안 쓰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20년 노백린 장군과 레드우드 비행학교 출신 한인들이 ‘쌀의 왕’ 김종립의 도움으로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윌로우스에 비행학교를 세웠다.



1920 5월 1일 윌로우 시에 있던 비행 훈련장 전경

북가주 새크라멘토 근처 윌로우시에 세운 비행학교는 일본과의 독립전쟁에서 필요한 비행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미주한인들의 힘으로 세운 비행학교였다. 당시 일본의 공군병력은 전무하여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군병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땅을 얻고 비행기를 사서 태극마크를 달고 비행사를 양성했다. 그러나 잘 진행되던 비행학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고 쌀 수요가 감소되고 전쟁 중 벼농사를 짓지 못하던 나라들이 다시 경작을 시작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920년 11월과 12월에 북가주 지방에 엄청난 홍수가 나 한인들은

거둬들이지 못한 벼를 전혀 수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도시 표시판

이에 한인들의 쌀농사는 다시 복구하지 못하게 됐는데,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하던 쌀 농장부호 김종립의 농사도 흉수로 인해 망하고 설상가상으로 박희성이 백인에게 무상으로 비행기를 빌려 비행면허 시험을 보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재정적 손실이 컸다. 1921년 4월 비행학교도 눈물을 머금고 완전히 문을 닫아야만 했다.

###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3.1운동

일제는 독립의 기대에 어긋나는 서명운동을 벌렸다. 고종은 이때 용감하게 일제의 서명운동을 거부해 국민의 존경과 애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1919년 1월 20일 숨을 거두었다. 뇌일혈이라 일제는 사인을 밝혔지만 혈압이 정상이었던 터라 두 가지 소문이 전국을 휩쓸었다. 하나는 그가 독살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총에 하던 아들 영친왕이 일본여자 마사코와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것이었다. 일제는 고종의 사망을 이틀이나 숨겨 독살되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에 불을 지폈고 애도기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못해 3월 3일 지역별로 추도식을 갖게 했다. 추도행사를 독립운동의 기회로 삼기 위한 계획이 논의되었다.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주도하였는데 개신교를 이끌던 길선주 목사와 한국 개신교 지도자 이상재, 천도교의 손병희, 불교의 한용운이 주동이 됐다. 일제는 추도일인 3월 3일에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민족대표 33인은 일제의 허를 찔러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독립선언문을 채택했다. 그것은 비폭력

평화적 시위였다.

미주한인들은 현순의 전보가 3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안창호에게 전달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3백만 명 조선독립단은 3천 명의 예수교인, 5천 명의 천도교인, 그리고 각대, 중학교 학생들 및 각 단체로써 조직한 기관이다. 독립단은 3월 1일 하오 1시에 서울, 평양과 기타 각 도시에서 대한독립을 선언하였음. 대표자는 손병희, 이상재, 길선주임. 이승만 박사는 어디 있습니까? 상해 특별대표 현순”

안창호는 3월 13일 3.1운동 이후 미주한인들이 취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개개인의 독립의 각오와 일치된 행동을 가질 것, 둘째, 미국 각 언론 잡지나 종교계에 3.1운동소식과 기독교 박해사실 등 한국사정을 미국인들에게 알려 그들의 동정을 얻고 한인활동에 많은 도움을 얻도록 할 것, 셋째,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북미, 하와이, 멕시코 재류동포들의 재정공급의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미주 한인들은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쁨으로 3.1운동으로 하나가 되어 너나없이 더욱 열성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독립자금을 냈다.

## 항공학교

샌프란시스코에서 20마일쯤 남쪽에 위치한 레드우드 시에 있던 항공학교다.

1916년 크리스토 펄슨이 시작한 비행학교로 그는 학교를 시작한 지 4달 만에 28살의 나이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이 학교엔 미국인 및 외국태생의 학생이 28명 재학하고 있었다.

설립자 사망으로 생긴 갑작스런 공백은 1917년 11월 당시 교관이었던 해피 브라이언트가 학교를 인수하면서 해결되었다. 학교 소유자가 된 교관 브라이언트는 누구보다도 많은 학생을 가르쳤다.



학교에는 1919년에 한장호와 9명의 한인들이 다니면서 비행기술을 배웠다. 그들은 일 년 안에 자격증을 받았다. 후일 브라이언트와 한장호는 월로우스에 설립된 한인 비행학교에 교관으로 초빙된다.



1917 한장호

미국정부 기밀문서에는 1915년 10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 학생으로 도착한 한국 사람이 레드우드 비행학

교에서 6개월간 비행교육을 받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말과 중국말도 한다는 이 사람은 외아들로 10살에 아버지를 잃고 평양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고 했으며 1922-23년 시카고 YMCA 학교를 다녔다고 되어있다.

1942년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 멤버가 되었다는 그의 이름은 서류에 이니셜 B로만 써 놓았는데 노백린이 아닌가 짐작된다.

## 비행대 편성 문제와 양성소

1920년대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비행대 편성문제가 활발히 대두됐다. 1920년 1월과 2월에 비행기 구입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임시정부 관계자는 상해의 영자신문 ‘대륙보’ 기자 에벤츠에게 비행기 종류 및 구입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2월 2일부터 19일까지는 거의 매일같이 미국인 비행기 조종사 에드먼과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그 때 구입하려 했던 비행기는 직접 독립전쟁에 전투용으로 사



1919 레드우드 항공학교 한인 학생들

했던 것이 아니고, 국내에 선전문 살포, 각처에 있던 독립군 단체 혹은 각 처의 동포사회와 연락을 신속히 하는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인 에드먼을 통해 조사한 결과 당시 임시정부로서 구할 수 있는 기종으로는 150마일 밖에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이며, 자금문제도 여의치 않아 좌절됐다. 상해에서 비행대를 편성하려던 문제는 미주에서 비행사 양성소 설치문제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다. 비록 비행대 편성계획은 무산됐으나 미주의 비행사 양성소는 일단 뜻을 이루게 되었다.

### Willows( ) 비행학교

상해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은 미주에 체류하던 때에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간 비행술을 배웠다. 그는 미국에 와서 꼭립대를 만나 공군창설을 논의한 후, 1920년 2월 20일에 북가주 윌로우스 지

군단과 비행학교를 설립했다. 비행사를 양성하기 위한 비행학교는 총재 김종립이 낸 2만 달러의 자금과 비행장으로 사용할 40에이커의 운동장을 기부 받아서 시작됐다. 매달 3천 달러의 예산도 김종립으로부터 받아 교사의 월급과 운영금으로 사용했다. 교육국에서 임대한 퀸스 디스트릭트 학교건물에서 교련, 전술, 비행술, 비행기수리와 관리, 무선전신학, 영어등을 가르쳤는데 월사금은 10불이었다. 1920년 6월 22일 김종립이 구입한 비행기가 도착하여 비행술 실습이 시작됐다. 이를 뒤인 6월 24일에도 레드우드시로부터 비행기가 도착하여 9월에는 무선통신을 갖춘 5대의 비행기를 갖게 됐다. 월로우스 데일리 저널 1920년 6월 24일자에 의하면 교관은 레드우드 비행학교교관이었던 브라이언트였는데 학생은 30명이었다고 한다. 미국인 교관 프시안을 월봉 5백 달러에 초빙했고 한국인 비행사 6인을 초빙했는데 미국에 망명하여 레드우드시 비행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장호도 있었다.

총재에는 김종립, 총무 노백린, 서기 강영문, 재무 이재수와 신광희, 감독은 꺽림대였다. 9명의 간사와 교관은 레드우드 비행학교교관이었던 브라이언트였으며 한국인 교관은 이용선, 오임하, 이초, 노정민, 박낙선, 우병옥이었다. 학생은 최영길, 김태선, 박유대, 조기호, 최능익, 박대일, 신영철, 조종익, 정이용, 정홍성, 김몽용, 홍종만, 조진환, 신형근, 임상희, 이영기, 김진, 손이도, 박희승 등이었다.

이동녕, 이동휘, 김구, 이시영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국무총장(국방부 장관) 노백린이 임지에는 부임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조국을 위해 비행사를 양성하고 양성된 비행사로 하여금 공중전을 펼치게 한다는 것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연습용 비행기의 값은 대 당 2천 달러씩이었다. 새로 구입된 비행기에 선명한 태극마크를 그려 넣고 K.A.C(Korean Aviation Corp-한인비행기구락부) 글자를 넣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시절의 노백린

1920년 3월 1일 한국의 3.1운동 1주년에 400여명의 한국인이 북부 캘리포니아 여러 지방으로부터 새크라멘토로 모일 때 이 행사를 축하하러 왔다.

1920년 독립신문에는 ‘한인의 손으로 최초의 비행’이란 제목 하에 3월 1일 각처에서 축하식이 거행될 때 비행학교 수업 중이던 학생 이용선과 이초 양군이 비행기를 조정 하여 식에 참여하러 비행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큰비가 내려 행렬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 비행시간이 이용선군은 3시간 20분, 이초군은 2시간이다. 한국인의 손으로 조종한 비행기가 천공을 날음이 이것이 처음이라고 하리도다”



이용선과 비행기

라고 보도됐다.

1920년 3.1기념식에 참석한 학생 중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지원한 최능익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관학교의 학생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태평양 이쪽에서 군술을 수련하니 위급지추에 어찌 적용할까 함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노백린 각하가 우리 독립전쟁의 선봉장인 줄 아시거든 우리도 제때에 죽을

줄 인정하여 주시오. 나는 몇 날 전 까지 교회 일을 보던 자이올시다. 동족의 속죄 구령에 힘을 다하는 일이나 총과 칼을 배우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충의로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벌어먹어 가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 하려 합니다. 우리 독립 사업에는 죽는 일이 도리어 쉽습니다.”

1920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북미한국국민총회에서는 비행학교 보조금 지출을 위해 그해부터 회원 각자의 1년 분 수입의 5%를 소득세로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사회에 비행학교에 대한 관심과 기부가 더 고조되자 국민회에서는 애국심이 줄어들까 걱정을 할 정도였다. 상해의 독립신문은 4월과 5월에 비행학교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었고 월로우스의 영자신문 월로우스 데일리 저널도 이 비행학교에 대하여 여러 번 보도했다.

1920년 7월 5일 성대한 개소식이 200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첫 비행학교 졸업생이었던 우병욱, 오임하, 이용선, 이초 등 4명의 졸업과 동시에 월로우스 비행학교 교관이 되었다. 그날 노백린과 김종립이 비행기에 의한 독립전을 연설했고 교관 브라이언트와 오림하가 축하비행을 했다. 당시 연습생은 25명으로 학비는 자비 부담으로 150달러였다. 그러나 1921년 4월 10일 미국정부의 항공자격증을 받기 위한 비행시험에서 박희성(3.1 독립선언 33인 중 한 분인 박희도의 동생)이 추락하여 비행기는 대파되고 박희성은 중상을 입어 김종립은 이를 뒷바라지할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 학교의 졸업생 박희승과 김자중, 이용근은 국제 비행사가 되었고 김자중은 동삼성 장작리의 항공대에서 활약했다. 박희승과 이용근은 1921년 7월 1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 비행병 소위에 임관되기도 했다. 이 학교 출신 중에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공군에 자원 참전한 용사도 있었다. 월로우스 비행학교는 영화로 촬영되어 미국 전역에서 유명해져 미국인이 이 학교에 지원하기도 했다.

1944 - 1945년 미국의 OSS대원으로 유일환과 함께 한반도 침투작전에 참가해 무공을 세웠다.

이 학교는 김종립과 북미한국국민총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승만이 중국으로 갈 때 노백린 장군도 함께 가느라 군단을 떠났다. 그 후 광복대가 말았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쌀값 폭락과 흉작으로 ‘쌀의 왕’ 김종립으로 부터 지원금이 끊기고 자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쇄됐다. 도산 안창호는 비행기에 관련하여 대단한 의지와 집념을 보였는데 같은 서북계 인사인 계원 노백립과 수시로 의논하였다고 보며, 도산의 항공을 통한 독립사상과 실천집념은 계원에게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총재 김종립이 흥사단 창립위원이고 나머지 주요 인물들도 흥사단 단원인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안창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한민보는 “장쾌하고 신기하여도 이렇게 신기한 일은 진실로 무엇에 비할 데 없으니 기쁨에 겨운 우리는 눈물을 뿌렸노라.”고 미주한인들의 감격을 그렸다.

## 데일리 저널에 보도된 한인비행학교

### ◆ 1919. 2. 19: 한국 사람들 항공분야에 진출하다

총책임자로 벼농사를 짓는 부유한 김이라는 사람이 퀸트 하우스에 세 들어 40에이커의 땅을 사고 교사를 고용하여 15명의 학생이 3대의 비행기로 교육을 시작했다.

### ◆ 1919. 2. 19: 한인 비행학교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14 카운티 관계자들에게 알린다. 월로우스시에 있는 한인 비행학교는 젊은이들을 훌륭한 미국인으로 교육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비행학교와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캘리포니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글랜카운티 월로우스시 변두리에 있는 이 한인 비행학교는 한인들이 비행술과 비행수리 등 비행

다루는 법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버나드 회장과 14카운티 관계자들은 달갑지 않은 외국인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인들은 단순히 평화와 미국인들에게 즐거움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집과 농토는 한인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저널에 소개된 한인 비행학교

만일 주지사 스테판스가 계속 우리들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그는 곧 ‘평화적 투쟁’에서 ‘강제적 투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버나드 회장은 말했다. 비행학교를 위해 40에이커의 부지를 이미 사두었고 몇 대의 비행기가 한인에 의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법에 의해 가주에 있는 땅을 살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땅주인이 되려면 백년에서 2백년 세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주민들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 동양인은 삼 년이면 땅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 1920. 3. 1: 한인들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 비행사를 양성하다. 새크라멘토에 온 노백린 대령은 인터뷰에서 “학교의 목적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비행술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은 어느 때인가 한국

외국가주.한인비행기. "로빈슨"장군.지위하여



한인들

한인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되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하여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920. 6. 22: 한인 비행학교 비행기 오늘 도착하다.

한인 비행사들은 기술을 습득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항공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 1920. 6. 24: 한인 비행학교에 2번째 비행기 오늘 도착하다

교관 겸 비행사 브라이언트는 다른 비행기가 오늘 레드우드시티로부터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와있던 비행기로 이미 학생들은 교습을 받고 있다. 브라이언트는 Young S. Lee, Peter Ohu 그리고 Charles Lee 세 한인과 함께 일하고 있다.

◆ 1920. 9. 4: 한인 비행학교 영화에 나오다

한편 신한민보는 1920년 5월 25일자에서 한인비행학교와 관련, ‘세상에 참혹한 것은 일본’이라는 제목 하에 훗날의 일본 모습을 이렇게 보도했다. “만일 비행기가 습격하면 일본은 아무 방어책이 없



. 일본은 나무로 지은 집이라 화재가 나기 쉽고 땅속 방(베이스먼트)이 없으즉 숨을 곳이 없다. 만일 비행기가 동경을 습격하면 비행기 10척만 가지고 소화탄을 떨어뜨리면 7,8분 동안에 동경 전부를 소화할 수 있으니 일본의 가옥이 중국과 조선보다 소화하기 쉽게 되어서이다.”

## 항일 독립사상

계원 노백린은 학생들에게 “우리는 독립전쟁에 나갈 용사이다. 우리의 적은 일본이다. 일본은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의 황제를 위협하고 강제로 함방이라는 구실로 강점하였다. 그들은 우리 동포들을 노예만도 못하게 학대했고 금수처럼 천시하여 인권유린은 물론 생명을 파괴 목숨처럼 여기며 참살에 학살을 더했다. 우리의 강토를 빼앗고 생존권을 짓밟은 원수중의 원수이다. 지금도 본국에서는 무서운 살육이 감행되면서 동포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력을 양성해야한다. 지금은 저 잔인한 군국주의 일본을 상대해서 싸워야 할 우리들이다. 우리 비행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 도쿄이다.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공군이 일본에 날아가 도쿄 시내를 쑥대밭이 되도록 폭격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꿈에라도 잊지 말고 명심불망하여 언제나 전투출격 태세를 갖추고 훈련해야 한다. 우리는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다. 실전으로 알고 싸우자. 일기당천(말 한 필을 탄 용사가 천명의 대적을 무찌른다)이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 비행사는 일대 당 만으로 일본인을 처치해야 할 각오로 훈련하고 싸워 기필코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노백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으로서 훗날 자신의 선임 군무총장이었던 당시 상해 국무총리 이동휘에게 비행학교의 준비 단계부터 상세하고도 고무적으로 보고했다. 당시 이동휘는 임정을 민족운동의 대표기관으로 개편하려하였으나 노백린은 사관양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상해

장년 층 연락원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종합지도 육성을 해야함을 강조했다. 비행학교에 고무된 임정에서는 기량이 우수한 청년을 선발하여 미국에 보내 비행기 제조와 비행술을 학습케 하고 비행대를 편성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 비행기 관련 기록

안창호의 일기에는 그가 비행기와 관련한 독립운동에 깊이 관심을 두고 있음이 나타난다.

“비행기를 수입할 계획과 방법이 있는바 …… 미국인 등 3인을 소개하고 비행기 수입은 러시아 정부와 교섭하라고 답하였다.”

“황지남군과 더불어 비행대장인 미국인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비행기 구입과 기수 문제를 말하자 비행기 구입은 매우 곤란한 일이나 진력하겠다고 언급한다 …… 윤군에게 비행기 구입경비를 속히 준비하라고 당부하였다.”

“마닐라에서 답전이 왔는데 수상용 비행기와 육상용 비행기를 함께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황군으로 하여금 장거리 항공기 유무를 즉시 알아보게 할거 …… 10만원 금액은 장차 준비할 희망이 있다 함 …… 광동에 있는 비행기 학교에 한국 학생을 파견하여 유학 가는 여부를 알아보게 했더니 ……”

## 윌로우스의 독립군단

독립군단은 300명의 한인을 군대로 편성하고 교장인 노백린의 지휘아래 매일 일정한 시간에 군대훈련을 실시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훈련을 받는 것을 일본 홋카이도에 있었던 둔전병 조직과 같았다. 이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한인국민회 총회에서 매달 600달러씩의 군단경비를 지출하였다. 기구와 천막 등 일체의 설비에 관한 경

40여 만 평의 거대한 땅에서 벼농사를 대규모로 하는 농장 부호 김종립의 후원으로 조달되었다. 김종립은 군단의 부지 1만평도 제공하였다.

군단에 참여할 징병은 노백린이 시카고에서 출발할 때 청년들이 그를 따라서 윌로우스로 온 수십 명이 동행하여 옮겨와서 충원되었다. 1920년 2월 중순에도 시카고에서 전도사, 실업가, 학생 등이 계원을 만나기 위해 새크라멘토에 도착했다. 이들은 낮에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노백린으로부터 고된 훈련을 받았다.

### 한인시국대회(독립신문 1943년 12월 23일자)

1943년 12월 12일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 등 3대 연합국 사이에 카이로 협정이 맺어지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 세계적으로 선언됐다. 북가주에 있는 한인단체들은 카이로 선언을 축하하고 관련한 사업 방침을 토의하기 위해 상향감리교회당에서 ‘북가주 한인시국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재훈의 취지 설명과 안숙차의 독창, 최봉운의 ‘전후계획’ 남궁탁의 ‘사활기로서 본 통일문제’ 염만석의 ‘군사운동’이라는 연설이 있었다.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사로 교육계에 종사하던 쉰수 박사의 ‘조선 독립문제에 대하여’라는 강연도 있었다. 그날 독립군사비로 2천 원이 걷히고 무명씨가 1천 원을 냈다.

북가주 한인시국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상향국민회 지부, 한인학생회 상향 지부, 상향 대한인 부인애국단, 오클랜드 국민회 지부, 오클랜드 애국부인단, 새크라멘토국민회 지부였다. 회장에 김재훈, 부회장 황사선, 서기 황성수 김덕순이었다.

## (The Tiger Brig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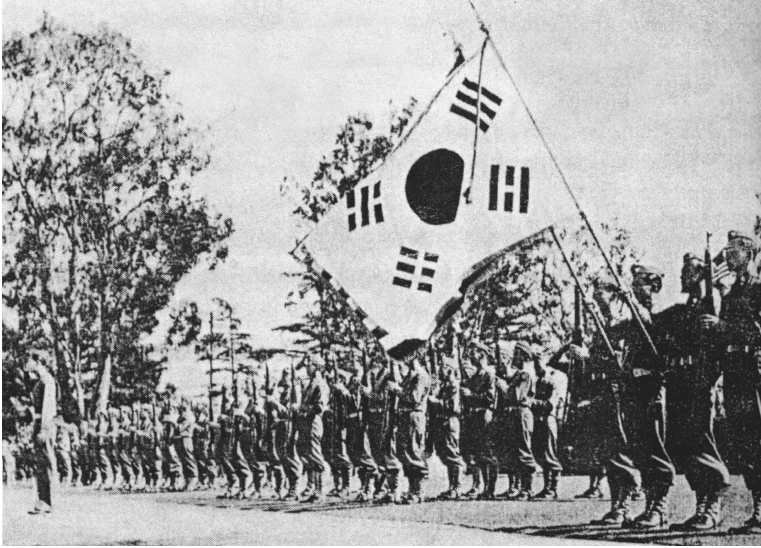
1940 북가주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미군에 입대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었다. 상향한인감리교회 내에서만도 6명이나 군대 징집에 응했으며 오클랜드감리교회 박용학 목사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 입대했다. 1941년 12월 22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가 한인 국방편성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국방경위대를 편성했다. 이것은 재미한민족이 미군과 함께 대일 승전을 기약하며 한국독립에 대한 연합국의 동정을 구하려는 목적이었다.

1942년 3월 30일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재미한족연합회가 주관토록 하여 재미한국인 6백여 명이 미 육해공군에 배속되어 태평양전에 참전했다. 일요일에 정규 육군 집중 훈련을 받아 유사시 적이 캘리포니아를 침공할 때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한인들의 애국심이 인정되어 주방위군에 속한 맹호여단을 창설하게 되어 나성 근처에 109명, 상향 근처에 30여명이 미 육군에서 지급된 군복을 입고 미 육군 휘하에서 훈련을 받게 됐다. 1942년 4월 26일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정식 인가장과 더불어 대대기를 증여하고 맹호부대라 명명했다.

1942년 4월 26일에는 처음으로 맹호군 열병식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는데 나성시장, 미 육군대표, 주 방위군대표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였다. 맹호군의 소식은 원동과 국내에 방송되어 본국 국민들의 항일투쟁을 격려했다.

1942년 8월 29일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시청에 1910년 한일합방 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휘날렸다. 가주 한인국방경위대가 스프링 가를 기념 행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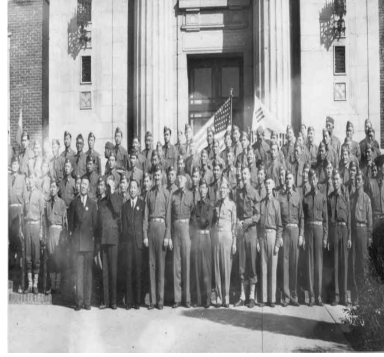
1943년 1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명 맹호군이라고 불리는 상향한인경위대가 편성됐다. 임시정부는 맹호군을 한국광복군이라 하



1942 한인 맹호군의 사열식 장면

한족연합 집행부의 관리하에 임정 광복군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편입시켰다. 1943년 오클랜드교회에서 찍은 기념사진에서 남자들은 모두 계급장도 없는 군복을 입고 찍었는데 모두 주말군인들이었다. 훈련을 지휘했던 미국의 한 육군장교는 맹호군을 칭찬하며 “내가 맹호군과 같이 훈련하며 참 애국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맹호군의 대대기는 남색 바탕에 맹호의 머리를 수놓은 비단 기인데 이는 맹호의 형상과 같은 한국강토를 표시한 것이다.

1942년 4월 26일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정식 인가장과 대대기를 증여하고 맹호부대라 명명했다.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1943년 6월 미 육군의 방침으로 재미한인국방경비대는 군사조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방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명목만 걸어둔 채 사실상 해산됐다.



경비대

◆ 1943. 3.4 ( ) : 노신태 씨 결혼 20년 잔치-다년 오클랜드에서 국민회와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던 노신태 씨는 부인과 달고 쓴 것을 같이 하며 2남 4녀를 길러온 2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만찬을 준비하고 상항 오클랜드에 재류하는 양 지방 한인 경위대 전체와 백인 중대장 2인 하사 2인이 참여하여 연향을 같이 하며 대전 승리의 희망을 담화하였고 연향을 펼친 후에는 회락회가 있어 즐겁게 놀고 동 6시에 산회하였다.

◆ 1943. 3.11: 상항한인경위대의 만찬 성황-27일 밤에 상항한인 경위대의 성대한 만찬회는 팔레스호텔식당에서 열렸다. 주벽 좌우에 한미 국기를 걸었고 중앙에 무궁화로 수놓은 한반도 지도를 걸고 그 앞에는 향기로운 장미화를 아름다운 화람에 이바지하여 한미 양국의 국색 천향이 무르녹았고 장내 기분이 일층 더 장엄하여 우리 진중한 정신을 표현하였다.(중략)

군복을 갖추어 입은 30여 명의 경위대를 비롯하여 내 외국인 2백여인이 일제히 기립하여 ...



1943 3월 27일 샌프란시스코 주 방위 맹호군 설립 축하연

## 전쟁지원

이민 50년 중에 미국 살던 한인들은 1차,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까지 큰 전쟁 셋을 겪었다. 전쟁 중에 한인사회는 미국을 도와 우리의 독립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1940년 9월 14일에는 수정 징집 안이 통과됐다. 태평양전쟁 중에 미국인들은 일본인을 적으로 간주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일본인으로 오해를 받지 않고 미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대한인국민회에서 지급한 ‘우리 코리안은 연합국과 승리할 것이다’라고 새겨진 핀을 달고 다녔다.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한인은 법적으로는 일본 시민이지만 ‘우방적인 적국 외국인’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당시 일본 여권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일본인이다’ 취급되면 일본인과 함께 수용소에 끌려가야 했고 ‘한국인이다’라고 하면 군대에 징집되기도 했다. 극히 일부에서는 군대 가기를 꺼려해 ‘나는 일본 시민이다’라고 선언해 군 입대를 피하기도 했다.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미군에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남자들은 관리인, 수위들을 자원했으며 250여명의 유학생 중에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은 전시 공보국, 육해군 정보부대 등에서 통역사로 근무했다.

미주 한인들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1943년 8월 30일 \$2만6천 265달러 35센트를 미국정부에 기부했고, 적십자사에도 429달러50센트를 기증해 미국의 승리를 지원했다. 1944년까지 미 본토에서는 195명이, 하와이에서 30여명이 미군에 입대했다.

한족연합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하와이에서 약 70만 달러,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84만 달러의 미국 전시공채를 구입했다.

1942년 11월3일자 신한민보에는 ‘대한여자애국단 총부의 한인출전군인에게 주는 연하장’의 모양이 설명되어 있다.

“자유여신이 한 손으로 등불을 높이 들어 대 전란 중에 흑암을 밝히고 가슴에는 스타 기장을 붙이고 그 아래 승리를 의미하는 V자를 푸른 잎으로 엮었다. 자유여신의 머리를 덮은 푸른 하늘 흰 구름 사이로 잡자리 떼처럼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것은 미국의 의로운 군사가 나쁜 마음을 가진 일본인의 죄악을 징벌하는 ‘공중포대’의 포격 비행기”라고 했다.



승리를 기원하는 차 스티커



## 한국독립을 위한 ‘한국(한인)친우회’조직

의해 주도된 외국인들의 한국친우회는 필라델피아 한국 친우회를 본부로 1921년 미국각지에 21개소와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2개소가 조직되어 총 2만5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 친우회 결성은 3.1운동으로 나타난 한국 실정을 국제적인 조직망을 통해 효과적으로 선전함으로써 한국 독립을 지지하고 친한 여론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대중 집회를 통한 친우회 결성은 미국인의 한국 지지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상당한 선전효과를 주었다.

캘리포니아 한인들이 서재필의 방문을 거듭 요청한 것은 국민회가 한국친우회 결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친우회 조직은 정한경이 중심이 되었다.

1919년 10월30일자 신한민보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친우회 조직-미주 서방에서 처음 보는 성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다음의 내용으로 실렸다.

<정한경이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 여관에서 한인친우회를 조직하였는데 1919년 10월 11일 미국 서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열렸다. 미국사람들과 한인들이 미국인들의 음악회와 같은 성격의 ‘한국의 밤’을 개최하며 결성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친우회 구성은 회장에 맥아피 목사, 부회장에 바로우스박사, 서기에 그로스 교수이고 그밖에 10명으로 구성된 평 위원회를 두었다. 특히 한국인 8명과 미국인 22명으로 구성된 친우회후원회 조직은 샌프란시스코친우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연설자로 나온 미국 후원자가 이렇게 말했다.

“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많으며 심한 압박당하는 자 많으니, 이때는 불행 중에 있어 압박당하는 자를 도와 그 무리한 압박과 곤란을 면케 할 때라. 한국은 4천여 년 긴 역사를 가진 고대

지금 불행히 타족의 압박을 당하는 도다. 그대 한인들은 더 참을 수 없어 지난 3월에 독립을 선언하고 3대 결의조건을 말하였으니 그는 곧

1. 오늘 우리의 이 거동은 세계적 기운에 촉진된 민족적 요구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을 하지 마라
2. 최후의 한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3.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여라'였는데 한인의 요구가 정당하면 도와 줄만하다

등 노래순서가 있는 후 정한경 씨의 ‘한국의 사정’이라는 연설이 있었다. 한국고대문명이 어떠하였던 것과 일인이 한국을 합병한 것과 한인들이 독립을 선언한 것과 현재 한국 안에 일인의 폭정과 ‘한인친우회’설립의 목적을 설명했다. 3.1운동으로 일본에 의해 고초를 당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실정을 담은 활동사진을 상영하여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 국민을 동정하게 하고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무도회로 끝이 났는데 이날 저녁 남녀인사 수천 명이 모여 재미있었고 오전 1시에 산회하였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한인친우회는 캘리포니아 주 내 시민단체나 상업단체 그리고 교육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펼쳐 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친한 여론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주 한인들은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무장을 갖추고 훈련된 광복군을 양성해 일제와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이 몫이 미주 한인들의 몫이

생각했다. 하와이와 미주 본토의 한인사회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 독립운동 자금(군자금)을 모으는데 열성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한인들은 더욱 큰 규모로 군자금을 기부했다.

상해 대한 적십자사사장 이의경 의사는 미국 서부를 40일 동안 돌면서 무려 1만300달러를 모았다. 하와이 국민회에서 모은 독립기금은 1919년 10월말까지 3만5천34달러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국민회 등이 모금한 금액은 4만2천955달러였다.

독립자금을 낸 개인으로 최고액은 김종립의 3천400달러였다. 그 외에도 3천 달러, 1천 달러씩 낸 이가 일곱 명이 있었다는 기록이다. 샌프란시스코 국민회 중앙총회는 1919년 12월말로 8만8천 달러의 수입 중 임시정부와 구미위원회에 3만2천600달러를 발송하였고 외교 선전비에 1만4천 달러를 지출했다. 원동과 유럽 대표의 경비로 8천500달러를 지출하였고 국내 구제비로 500달러, 여행비로 1만3천500달러, 통신비로 2천600달러를 지출했다

3.1운동 전후로 미국에서 모금한 독립운동 관련 자금은 총 20만 달러에 달했다. 1920년 11월18일 재미 한인 중 독립의연금을 많이 낸 4인에게 임시정부 재무부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그들은 북가주에서 농사를 짓던 김종립, 신광희, 임준기 그리고 김승길이었다.



# 살아야 우리가 간다

한인사회는 자치적으로 조국의 독립운동을 목표로 1909년 2월 강력한 조직체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러일전쟁 기간 중 ‘주한조선군’이라 칭하던 일본군은 본국에 들어와 재정궁핍을 구실로 한국군대를 해산했다. 1904년 1차로 한국 군인을 반감시킬 때 해산된 군인 중 3백 명 가량은 하와이로 와서 한인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약 2백 명은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각지와 네브라스카 및 콜로라도 주에 이르는 미주본토에 흩어져 그곳에서 또한 한인사회의 구성원이 됐다. 광무군으로 불리던 이들은 한일합방 후 조국을 지키지 못한 한을 절감하고 대한인국민회에서 추진하던 군사운동에 앞장섰다. 이들은 여가가 나면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909년 6월 네브라스카 헤이스팅에서는 독립전쟁을 위해 한인소년병학교(Military School for Korean Youth)가 설립되어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이곳에서는 재미유학생 및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하계학교가 운영되기도 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소년병학교 유지단까지

후원했다.

1910년 10월부터는 대한인국민회가 경영하던 로스앤젤레스 동북 지방에 위치한 클레어몬트 학생양성소에는 ‘군사훈련반’이 조직되어 매주 3일씩 저녁에 훈련을 했다. 롬복지방에서는 ‘의용훈련대’를 조직하여 매일 저녁 훈련했다. 11월에는 캔사스시에 ‘소년병학원’이 설치되었고 12월에는 와이오밍 슈페리오에 ‘청년병 학원’을 설립되어 매일 저녁 훈련이 실시됐다.

한인사회 규모가 큰 하와이에서도 대동공진단이 주동이 되어 각 지방의 농장에서 광무군을 중심으로 군사훈련이 실시됐다. ‘산넘어 병학교’라고 불리던 ‘대조선국민군단’이 편성되고 ‘대조선국민군단 사관학교’가 설치되어 국민군단의 사관양성을 본격화하였다. 사관학교 학생은 3백여 명에 달했다. 국민군은 원동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과 이동휘를 중심으로 편성됐던 ‘대한광복군정부’의 광복군과 맥이 통하였던 군대였다.



독립군단 사관학교생과 교관

<

>

우리 국민군 소년자제 / 건강한 아이들 다 나와 /  
한 목소리로 국민군가 부르세 /  
부르세 국민군 군가 / 지르세 우리 목소리 /  
잠든 자 깨고 죽은자 일도록 / 우리 국민군가 높이 부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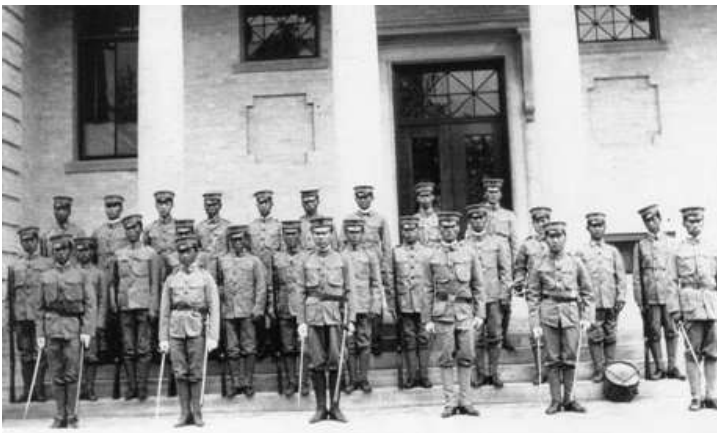
미주의 전역에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군사력 배양을 목표로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어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무장독립노선은 지도자들 간의 노선 차이, 전투 현장과의 거리감, 재정적 고갈 등으로 하나 둘씩 쇠고 만다.



독립군단 국민 수첩

1945년 4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 대표들이 회합을 갖고 전후의 세계평화와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임시정부는 샌프란시스코회의에 한국대표를 참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노선 부진을 만회하려면 군사계획과 실천밖에는 없다고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군인을 양성하기로 한다. 그러나 곧 조국에 광복이 찾아왔다. 임시정부는 해외에 선지 27년 만인 1945년 11월 조국의 재건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띠고 서울로 들어간다.



1910년 네브라스카 헤스팅스 소년병 학교 교관과 생도들



1912 8월 Hastings, Nebraska 한인소년병학교 야구반(YKMS) 뒷줄 중앙 박용만 교장, 정한경, 유일한, 백일규도 있었다.



1914년 하와이 대조선국민군단 사열식

# 무엇이관데



1906 2월 15일 일제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해외한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일본 영사의 보호를 받으라.”는 포고를 내리게 했다.

미주 한인들은 이러한 일제의 책략에 반발했다. 하와이 ‘애와친목회’와 샌프란시스코 공립협회 명의로 일본 영사의 보호를 거부한다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일본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분노는 항일, 배일 운동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지역별로, 단체별로 주도했던 항일 움직임은, 3.1 운동을 기점으로 더욱 확산되고 통합되기 시작했다

## 동포 제군에게 근고함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1910년 2월부터 각 신문에 발표됐으나 국내에서는 일본의 경찰 감시로 인해 별 거부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인국민회는 이에 즈음해 격분을 표



동포들에게 분발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 ) 애국 동포 제군이여 조국이 위란을 당하여 우리를 부르니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치자. 국가를 위하여 원수를 대항할 자 모두 오늘에 맹세하자 …… 애국 동포 제군이여 분발하고 모이라. 우리 전체가 미주에서는 북미지방총회로,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지방총회로 모여서 운동방침을 정하고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우리의 한 뭇을 바치기를 맹약하자.”

1910년 6월25일 대한인국민회 근교



운동을 벌이는 미주 교민들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이완용과 한국 강점의 ‘한일합방조약’을 맺고 그 다음날 외국에 통고하였으나 국내에는 일주일간 발표를 하지 않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무장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 조약은 전문 8개조로

있는데 한국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영원히 일본에게 양도할 것을 골자로 하고 한국의 황제 및 황족과 정부요인에게는 상당한 대우와 세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로 인해 친일파 76명의 새로운 귀족이 생겨 작위를 받고 세비와 상금을 받게 되었다. 서울 남산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헌병 경찰권을 통하여 무력통치를 시작했다.

## 동맹단

1910년 7월 3일에 대한인국민회 북미 지방총회가 최정익을 단장으로 각 지방의 민중 대표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총 회관 새크라멘토가 2928호에 모여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애국동맹단’을 조직하고 9개조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포전체가 일치하여 행하기를 맹세한 결의안은 일본을 원수로 정하고 적대행동을 취하기로 맹약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만행을 한국과 상호조약을 체결한 9개국에 보내 조약상의 의무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국내 동포들의 비참한 실정을 탐지하고 선전문을 만들어 구미 각지 언론기관에 발표하여 국제 여론을 일으키고 선전대회를 열어 동포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로 했다.

군사 인재양성 사업을 미국에서 착수하기로 하고 한일합방 반대 외교와 선전은 대한인국민회가 담당하고 군인 양성사업은 대동공진단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각 지방에 양성소를 설립하고 청년동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병식 훈련을 받게 하고 경비는 동포들의 특별연금으로 하기로 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선언되자 재미동포들은 비분에 빠졌다. 이에 집에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며 한일합방을 부인하는 결의문을 세계에 발표하고 독립전쟁을 선포했다. 또 미주 동포들은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 황제에게 전보를 보내 동포들의 뜻을 전했다.

< 황제에게 보낸 전보문 >

“ 재미 동포 전체를 대표하여 간곡한 애국정신으로 이 글을 폐하께 올리오니 통촉하시옵소서. 지금 미령(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조국을 일본에 합병한다는 소식을 받고 마음이 아파서 간원하오니 폐하께서 합방을 끝까지 거절하시고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물론 폐하의 판단에 있을 것이나 만일에 합방이 되면 조국이 망할 것과 무죄한 백성이 왜적의 노예가 되는 책임이 폐하에게로 돌아 갈 것입니다.

폐하 앞에 왜적의 위협과 역적 배의 간혹이 있을 것이나 2천만 시민이 폐하의 용단을 바라보고 있으니 치욕을 거절하시면 그 은택이 천추만대에 미칠 것입니다.

1910년(경술년) 7월 6일 재미한인 전체 대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 총회, 북미 지방총회”

<일본 황제에게 보낸 전보문 >

“본회가 미령에 있는 한국 민족 전체를 대표하여 정의와 인도의 사명으로 간원하오니 우리의 강토를 일본에 합병하지 말으시고 한일 양국의 친선을 장려하시기 바라나이다. 일본이 국제공약으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는데 그 조약의 목혼이 마르기도 전에 한국을 병탄하려는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구제 도덕과 신용을 말살하고 세계 문명국 지위에서 타락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리를 거슬러 합방을 강박 하면 이것이 두 민족 사이에 악화를 일으키어서 영원한 원수를 맺을 것이며 이로써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고 태서 민족이 없우이 여감을 받아 동양의 위협을 부를 것입니다. 합방정책을 변경하여 한일 친선을 실천하시면 폐하의 덕성이 천추에 미칠 것이오 만일에 합방을 강행하시면 우리는 폐하와

신민을 적대시하여 영원한 원수가 될 것입니다.

1910년 (명치 43년) 7월 6일 재미 한인 전체 대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북미 지방총회”

## 통고문

국내 통신에서 일본이 함방을 준비하고 7월15일에 ‘사내정의’를 ‘조선 통감’으로 임명해 불원간 함방한다는 소식에 접해 동포들에게 항일 투쟁 통고문을 내었다.

“(중략) 오늘 한족 된 자 누가 애통하지 않으며 분개하지 않으리오만은 애통하고 분개한 설화로 일을 치루지 못할 것이니 항일 투쟁을택하는 것이 첩경인 곧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왜적을 대항하는 방도가 여러 가지 있으나 해외 동포는 각기 처지에서 가급적 성공할 자를 데 우리는 이미 결의한대로 외교 선전과 군인 양성을 급선무로 택하였다 …… 우리의 군사 운동은 국내 연락 관계로 보든지 왜적을 대항하는 방편으로 보든지 원동 방면에서 할 것인데 기구의 곤란이 없고 설계가 가능한 미령에서 한번에 몇십 명씩 혹은 몇백 명 씩 사관을 양성하여서 원동의 군대 편성을 협조하자는 것이다.

1910년 7월 9일 애국 동맹단 근계”

## 공립신보와 신한민보에 나타난 일본관련 기사

◆ 1907. 9. 27: 한인이 본 일인 단평 “일인의 성격은 박약잔폭하고 악독 간홀하니 도덕심과 박애심은 조금도 없고 탐욕이 대단하여 돈 한가지면 못 할 것이 없으니 부모라도 유산이 없으면 구박이 자

노역을 시키며 …… 일본의 운명은 그 나라 제조품과 같이 견고치 못한 본질이 들어가 산산이 파락될 것이다.”

◆ 1907. 10. 4: “저 일본이 우리 대한민족과 강토를 다 저의 이른바 보호권 내에 끼이여 잡아먹고도 부족하여 오늘날 이 해외에 머무는 우리들마저 저희 올가미에 씌우고자 하여 일본영사가 동포 김현식씨를 심방하여 한인의 재산을 보호하려한다고 가칭하고 인명을 조사하여 적어 가려 하니 우리는 이 계교에 빠짐이 가하겠는가. 우리는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한 줄로 아노라.”

◆ 1907년 일본의 해외한인 보호민화 책동의 일환으로 인명조사를 하려하자 이에 거부하며 뉴욕의 공제회는 동맹문을 결의하여 샌프란시스코 신한민보에 실었다.

“일본영사에게서 오는 자에게는 성명도 통하여 알게 하지 말며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칭하고 간계 사행함을 거절하며 만일 동포 중에서 가만히 그 조사하는데 성명을 알려주다가 탄로될 때에는 우리는 저로 더불어 한 하늘 아래서 갓을 쓰지 아니할 사 ……”

◆ 1908. 4. 22: “일본에서 수입하는 술은 맛이 변치 않게 하는 독약을 많이 섞는 고로 위장에 극히 해롭다 하여 근일에 회관(국민회)에서 500여 통을 모아 일본으로 도로 보낼 것이다.”

◆ 1908. 6. 17: 일본인이 세탁소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미국인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 모임을 조직하고 일본인을 견제하기 위해 요리사와 웨이터도 모임을 만들었다.

◆ 1909. 5. 26: “미국에 이는 일본인은 1906년 12월까지 총수가 5만3천1백인 가량인데 5분의 3이 캘리포니아에 종사하는데 그 중에 만 4천이 농사에 종사하고 경작지가 만2천 에이커다.”

◆ 1913. 8. 1: “8월 10일은 캘리포니아주에 외인토지 매매 금지 법안을 시행하는 날인 고로 일인들은 그 전에 토지를 사고저하여 매득 한 것이 72만원이라더라.”

◆ 1916. 4. 27: “가주 일인의 통계 총 6만/ 로스앤젤레스 2만, 샌

8천, 오클랜드 8천, 새크라멘토 부근 2만9천”

◆ 1916. 5. 18: “미국 이민국 발표에 작년 7월부터 올 3월말까지 9개월간 상항을 경유하여 입국한 이민총수 1만3천1백93명중에 일인이 4천1백93명인데 그 중에 2천1백13명이 여자로 9분(90%) 이상이 사진결혼한 여자로 대부분 부도덕한 방법으로 인연되어 왔다고 이민국에서 목하 조사 중이라 하더라.”

◆ 1916. 11. 9: “다수의 일인 상점이 결단하여 중국인 물화를 배척하였다”

◆ 1917. 3. 29: “상항 필모어 St.에서 일인소년이 백인 부인의 차마를 들추고 보다가 백인 순사에게 포박을 당하고 끌려갔다.”

◆ 1917. 9. 6: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씨는 패스푹을 내려하니 장정등록 적령자임으로 이민국에서 내주지 않고 일본영사에게서 서류를 얻어오라 하여 일본영사관에 가서 말하니 ‘우리는 재미 한인의 일을 간섭하지 아니 하노라’하여 워싱턴 정부에 직접 청원하였다.”

◆ 1917. 11. 1: “재미 일본인 회에서는 일 총독 스테분씨에게 중국인 노름관을 단아 달라고 하였는데 거주 재류일인 6만 5천은 노름을 위하여 매년 2백만 원을 소모한다더라.”

◆ 1917. 11. 13: “일본인회 총 서기 가나가와란자는 새크라멘토 한인 리옥형씨의 이발소에 가서 당대 재류한인의 인구 조사할 것을 의논하고 암치없는 비위를 부리다가 가진 망신을 당하여 얼굴이 새빨개져서 돌아갔다더라.”

◆ 1918. 4. 11: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신문에 실린 일본에 대한 통쾌한 논란-일본은 양의 가죽을 쓴 여우로 눈이 발개서 남의 토지를 침략하려고 애를 쓴다.”

◆ 1918. 4. 18: “4월15일부터 일본미 간장 된장까지 금지품 중에 들어 일인은 큰 공황에 빠졌다더라. 간장과 된장은 우리 사람의 조식으로 요구하는 물건이라 미리 조금씩 제조하여 준비하기를 바란다.”

◆ 1918. 5. 9: “ 간장 만드는 법: 일인 간장 안 먹기 위한 방도- 재미 한인의 식료품 중 간장 한 종은 오직 일인의 공급을 의뢰하는바 4월 15일 전시 수입금지령이 발표된 후 일인의 간장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지라 대개 간장은 우리 식료품 중에 한때라도 뺄 수 없는 물건인고로 이에 대한 구급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제 먼저 황보정결씨의 실험 담을 게재 하여 일반 동포가 정에게 보이노라.”

◆ 1918. 6. 6: “미련한 일인 은행장은 승강기에 즉사-서울 조선 은행장으로 있는 일본인은 미국에 유람 차 건너와서 샌프란시스코 펠리스 호텔에 들었더니 올라가는 승강기에 머리를 들어 밀었다가 곧 목이 끊어져 즉사하였다더라.”

◆ 1919. 7. 29: “한인이 일인에 보복-농장에서 왜놈들을 내몰아 /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지방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인을 학대하고 살육하는 일을 생각하면 왜놈에게 물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물꼬를 주지 않아 일인들이 할 수없이 그곳에서 떠나고 왜놈들의 경영하는 농장까지 한인들이 빼앗아 한다니 이와 같은 보복은 쉽지 아니하고 장쾌한 일이다.”

◆ 1919. 8.28: “샌프란시스코 헤이 St.에서 세탁업을 하는 왜적 한 놈은 백인 중에 배일 감정이 팽창하여 왜놈 세탁소를 가기를 원치 않는 이가 많은 고로 백인들이 와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나는 한인이외다’하고 한인의 이름을 빌어 밥을 얻어먹는다더라.”

◆ 1919. 10.19: “일인이 요러케하여-맨티카의 사탕무우 농사를 지주가 물까지 공급하고 에이커에 9원 50전에 계약하는 것이 정례인데 지주에게 찾아가 10원 이상을 줄 테니 리즈를 달라고 하였다.”

◆ 1942. 4. 2: 3월1일 일인 단속령을 발표하여 무릇 일인은 적민 비적민을 물론하고 하오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거리로 나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만일 어기는 자는 5천 원 벌금, 1년 감금을 아울러

하였으니 한인이 이 시간에 거리로 나갈 때는 반드시 증명패를 차고 증명권을 휴대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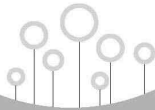
< -1909년 재미동포의 반일운동에 대한 보고>

재류의 한인은 1인이라도 다소의 배일사상을 갖지 않은 자가 없으며 그들은 기회가 없으면 부득이하나 기회가 있는 한 말하는 것이 모두 배일사상의 발현이라 할 것이다.

즉 1인도 배일언동을 하지 않는 자가 없는 상태로 국민회는 실로 그들의 본거지이다.



## 황색공포증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을 믿었다. 자신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 외에 피부 색깔이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들의 선민사상은 초기 한인들을 언어의 장애와 문화의 차이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심한 인종차별로 이어져 고통을 겪게 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하던 시기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아무리 부당해도 그것을 마땅히 항의할 만한 방법도 항의할 곳도 없었다. 지금처럼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는 인식을 갖지도 못해, 조국을 떠나온 사람으로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비단 한인들 뿐 아니라 동양인 전체가 인종차별의 대상이 됐고 진주만 사건이 일어나자 일인과 구별되지 않는 한인은 오히려 불이익을 더 당했다.

백인들은 “동양 황인종은 불가사의하고 부도덕적이고 광신적”이라고 생각했고 소위 ‘황화’ 또는 ‘황색 위기설’까지 나와 동양인종에

박대는 더욱 심해졌다. Yellow Peril이라고 하여 동양에서 온 칭기스칸이라는 한 사람이 세계를 무자비하게 정복하던 시대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어 동양인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동양인에게 적대적이던 사람들은 동양인을 위협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낮은 임금으로 일은 더해주니 결국은 백인들의 일을 다 뺏어 갈 것으로 생각했다.

1911년부터 1916년까지는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행 중에 호텔에도 들어 갈 수가 없었고 배가 고파도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었으며 머리가 길어도 이발소에서 이발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한 모욕 속에서도 초기 이민은 언젠가는 조국이 해방되면 돌아가리라는 희망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았다. 지식인들로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들은 더욱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인종차별을 더욱 힘들게 견뎠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접시를 닦거나 남의 집을 청소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60년대 민권조례가 미국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미국 식당에는 “우리는 손님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글귀가 걸려있었다. 이것은 동양인과 흑인에게는 음식을 팔 수 없다는 뜻과 같은 내용이었다.

이민 1세대는 언어부터 부자유스럽고, 또한 조국을 떠날 때 이미 비장한 각오를 하여 차라리 차별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 되면 더욱 힘들어했다. 놀려대는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에게 원망을 했다.

2세대들 중에는 한국이 미개한 나라이고 자신들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에서 일하고 온 선교사들이 선교보고 및 모금활동을 하면서, 한국은 선교의 필요성이 절실한 미개한 나라라고 알렸던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동양인 배척

◆ 1906. 10.11: 학군에서는 미국에서 난 일본인과 한국인은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 없고 10월 15일 이후에는 클레이가 이남에 있는 중국인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라고 하였다. 당시 일인은 11만 명, 중국인은 4만 5천명, 한인은 천 명 정도였다.

◆ 1908. 2.17: 캘리포니아 의원 헤이쓰시가 황인종 배척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하원에 4개 조항으로 제출했다. 그 내용은 “청국인 거절하는 법률을 일본인 조선인 인도인 등에게도 시행한다. 교사, 상민, 학생, 유람객이 아닌 자는 법률 시행 일 년 내로 지방 관리에게 거주 증서를 맡고 조사를 받는다. 본 규례를 시행한 지 일 년이 지난 뒤에 발부한 증서를 서실 혹 파손한 확거가 있기 전에는 다시 주지 않는다. 교사 상민 학생 유람객의 입국은 가능하나 노동에 종사하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규례를 범하는 자는 본국으로 송환한다. 학생은 종교, 과학, 공학, 문학기술에 관한 고등교육에 한한다” 등이었다.

◆ 1908: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서 일본인이 세탁을 못하게 하는 모임을 조성하였고 음식을 만드는 쿡과 웨이터도 노조를 만들어 일본인을 배척하였다.

◆ 1909. 2. 28: 상항 각국인 빨래집들은 연합하여 일인의 세탁업을 배척하는데 통문을 돌렸다. “일인은 세탁물을 저의 자는 집에 두는 고로 악한 병이 전염하기 쉬우니 빨래를 일인에게 주지 마라.”

◆ 1913. 5.: 캘리포니아 주에서 The Alien land Act'(Webb-Heney Land Law)가 통과됐다. 동양인은 시민권을 받을 수 없고 땅이나 가옥, 건물을 살 수 없다는 내용이다.

◆ 1916. 4. 27: ‘노동당의 동양인 배척’

“본 항 노동당은 동양 사람이 이익을 침탈함이 날로 심하다 하여 4월 23일 각 노동당에 통문을 돌려 동양 사람을 고용하는 자본가와

사람으로 더불어 물화를 교통하는 상점을 조사하여 노동당본부에 보고한 후에 다시 사람을 보내 어 자본가에게는 동양인 노동자를 내어 보내라 하였고 상점에는 동양인으로 더불어 물화를 교통치 말라 하였다더라.”

◆ 1916. 8. 3: 새크라멘토 물산진흥회와 잡화상점과 및 각 단체 대표자는 대회를 열고 연합하여 동양사람 각 소 상점에 물건을 팔지 말자고 결의하였다. 중일 양국 다수인이 상점을 개설하여 백인의 상무이권을 침탈함으로 새크라멘토 상인단체는 이를 제재하기로 진력 운동한다.

◆ 1917. 2. 5: 아시아의 미국입국 금지(필리핀과 일본 예외) - 미국 이민의 영어시험 실시

◆ 1921: 국가별로 이민 수를 할당하는 이민법 제정 - 1910년 센서스에 나타난 해당국가 출신의 3%이하를 기준으로 함.

◆ 1924. 5.15: Oriental Exclusion Act 통과.

동양인 절대배척 법안이 국회에서 신 이민법 안을 통과되어 동양인의 입국을 절대 금지하니 일인의 소위 신사협정도 스스로 폐지되고 사진결혼도 저절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 학문을 위해 미국대학에 입학이 된 학생들은 예외로 입국할 수 있었다. 이 법으로 고국에 돌아가면 다시 올 수가 없으므로 가족을 만나러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였다.

◆ 1927. 7.1: 1920년 센서스를 기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인 미국이민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 - 한국은 일본이 종속국으로 한국인에게도 이민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 1941. 1.17: 미국정부는 미주와 그 영토 안에 거주하는 일인의 소유재산을 봉쇄하였다.

◆ 1943: 중국인 배척법 철회.

◆ 1945: 전쟁 신부법(War Brides Act)이 제정되어 미군이 외국인 부인과 재결합 가능

◆ 1947: 미국인 남자와 결혼한 아시아인 여성의 미국 이주 가능

◆ 1947. 7.22: 인종에 상관없이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입국허용

◆ 1952. 6.27: 맥카런-월터 법 통과. 모든 인종에게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 부여.

## 사례 증언

◆ 방사겸: 1916년 방사겸 부부는 타코마로 가는 길 센터벨라라는 곳에 정거장 옆에 3백 달러를 가지고 식당을 열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편지에는 이곳에는 동양인은 받지 않으니 수일 내로 떠나라고 하였다. 시장을 찾아간 그는 사정을 얘기했더니 염려 말고 장사나 열심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가게주인도 협박편지를 받아 5년 계약을 했는데도 나가주길 바랐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 염통을 칼 2개로 찢어놓은 그림을 붉은 물감으로 그린 것이 날아왔다. 백인들은 밥값을 안내고 나가기 일쑤였고 어떤 사람은 방바닥에 물까지 끼얹고 갔다. 그러나 사업에 전 재산이 들어있으므로 이웃 장사꾼이 미워해도 그냥 견디자 해가 지나면서 수그러들어 2년 만에 5천 달러를 벌었다.

◆ 백 메리(백광선): 자신의 초기 이민생활을 생생하게 그려낸 자서전 ‘Quite Odyssey’에서 백 메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1906 12월3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부두에서 서성이고 있던 한 무리의 백인들이 우리의 가족을 보고 조롱을 하더니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그 가운데 한사람이 어머니의 치마를 발길로 걷어차고는 소리를 질렀다. 외간 남자가 정숙한 부인의 치마를 걷어찬다는 것은 특히 한국부인에게는 실로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

. 나는 왜 우리가 이런 곳에 와서 살아야 하냐고 울면서 따졌는데 아버지는 미국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돌을 던지고 ‘하얀 악마’라고 조롱하여 오늘 우리와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 동양인에게 화가 나면 그냥 총을 쏘아도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백인을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었다. ‘어디든지 ‘백인만을 위한 곳’이라는 큰 표시가 붙어있었고 극장에 가도 안내가 따라와서 구석진 자리에 따로 앉게 했다.

◆ 도라 김: 그녀의 가족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 사람들만이 그들을 받아주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브로드웨이 길을 경계로 차이나타운이 끝이 나고 이태리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노스비치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태리 아이들에게 맞았다.

◆ 장인환: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탁소를 하던 장인환의 가게에 아이들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다. “칭칭 차이나 맨 고 홈”이라고 놀려대어 다림질하던 장씨가 밖으로 뛰어나가 경관에게 호소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 안영호: 중가주 농장에서 일하던 안창호의 사촌동생 안영호가 어느 날 식당에 백인 노동자와 함께 들어갔다. 식당의 웨이터가 백인에게만 식사주문을 받고 안영호에게는 거절하면서 “너는 왜 요코하마로 돌아가지 않는가”하고 조롱했다. 이에 안영호는 “내 돈도 미국 화폐이다. 이 돈이면 어디서나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은 미국 상점이 아닌가”했더니 네게 팔 음식은 없다고 교만하게 반발했다. 안영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의자를 집어서 웨이터 쪽으로 던졌다. 웨이터는 피하고 식당의 유리가 깨지자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묻는 경찰관에게 안영호는 “나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본과 싸워온 지 수 십 년이 됐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일본과 싸운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내게 커피 한잔 안 팔고 내게 모욕되는 이야기를 하니 내가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당신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라고 했다. 경찰관은 “나도 네 경우에는 그렇게 했음직하다”라고 안영호를 두둔했다.

\*극장을 가면 동양인 구간을 따로 해놓고 그곳에 앉게 했다.

◆ 쏘니아 선우: 초기 이민을 인터뷰하여 미주 이민역사에 중요한 기록을 남겨놓은 쏘니아 선우는 1937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으나 교원자격을 거부당했다. 아시아계통 미국 시민에게는 교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1942년에는 그녀가 친구와 함께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에서 캠핑을 하고 있을 때 경찰관의 조사신문을 받았다. 미국 태생인 두 사람은 분개하면서 자기들의 시민권 권리를 주장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 주영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 10년을 지내면서 한국정부에게 처음으로 7-8척의 선박을 사서 보냈던 그는 미국 감리교회에 참석하였을 때 옆에 앉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옮기라”하는 차별대우를 받았다. 백인들이 한인들을 수십 명 자기 차에 태워 윌슨 산에 올라가서 자신들만 내려오기도 하였다. 1920년대 터락(Turlock)에 있을 때는 “동양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을 쉽게 볼 수 있었다.

◆ 황사선: 1913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온 황사선목사는 우체국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다. 30년이 지난 후 아들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학위가 있어도 동양 사람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질 않았다. 양복 집에서 아버지를 돕다가 페인트칠을 하는 직장을 잡았다. 동양인에게는 집 청소 일이나 노동하는 일만 하게 하였다.

◆ 최정익: 공립신보 주필 최정익의 둘째가 샌프란시스코 에머슨

다녔는데 1909년 1월 중순 교장이 편지를 보냈다. 학교법을 관계로 그 학교에서는 아이를 가르칠 수 없으니 동양인학교로 전학하라는 소개서였다. 이에 최정익이 샌프란시스코시 학무국장을 찾아가 문의한즉 학무국장이 학교장에게 전화로 설명하고 편지를 보내어 최양을 전과같이 통학하게 하고 또 동양인 학교는 다만 중국인의 아동만 위하여 설립한 것이니 한국 아동들은 어디서든지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다.

◆ Easurk. Emsen Charr: (1932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칼)

1905년에 미국에 온 Mr Charr는 1918년부터 1923년까지 제 1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참전하였다. Park College를 졸업했으며 1926년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부인 Evelyn Charr와 샌프란시스코 1032 Jakson St에 살고 있다. 시카고에서 첫 아이를 낳고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학교에 다니던 중 둘째 애를 낳게 되어 두 아이를 키우느라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유학생만이 체류가 가능한 동양인 배척법안에 따라 부인에게 추방명령을 내렸다. 28개월 된 딸과 9주된 아들을 두고 가야 할 형편이 되었었다.

\* 1905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황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호텔로비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보았다. 그에게는 미국에서 첫 번째 보는 예배로 흥분과 감사 속에 폐회찬송을 부를 때 주먹 만한 돌이 날아 들어왔다. 호텔 앞 창문을 깨고 들어와 예배를 인도하던 방장로와 그가 거의 맞을 뻔하였다.

◆ 장리욱: 식당에서 동양인에게 점심을 팔지 않는 이유를 동양인에게 팔면 백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 조성학: “상항감리교회 교인 조성학이 쏘솔리토지방 공립학교에서 수학하다가 그때 배일운동이 심하여 황인종이라 하여 퇴학을 당하자 조씨가 일하고 있는 집주인이 상황에서 행세하는 법률사라 학교의 불공평을 분히 여겨 그 지방재판소에 수습 차 재판을 정하



일이 여의치 않자 조 씨가 학업에 성공할 것을 알아 슈터 씨가 집에서 중학교과정을 예비하게 하였다. 낮에는 부인이 역사와 문법과 전문문학을 가르치고 외에 성경공부도 시키며 밤에는 그 남편이 지리학과 대수학과기하학을 교수하며 그 외에 정치상호 요긴한 것과 애국지사의 행적을 많이 가르쳐 금년초기에는 중학교나 대학교 예비과에 들어가게 될듯하다.” (대도 1909년 3월 23일 제4호)

◆ 안창호: 1921년 9월 14일 미국입국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중국 국적을 취하여 1924년 12월 16일 중국여권을 가지고 미국입국 비자를 받고 미국에 돌아왔다.

◆ 강영승: 1905년 하와이로 이민 온 강영승은 1912년 본토로 와서 명문 시카고대학 법대에서 법학사학위를 받았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과수원에서 일을 하였다.

◆ 서학빈: 입국거절 - 미주에 체류하던 서학빈이 본국에 가서 결혼하고 부인과 동반하여 1924년 7월 5일 씨애틀에 도착하였는데 신 이민법에(1924년 7월 1일부터 실시) 의하여 부인의 입국을 거절하였다. 각 방면으로 주선하여 11월 8일에 임시 상륙하였다가 마침내 환국 하였다.(공립신보)

◆ 한시대: 달라노에 살았던 그는 한인 중에 제일 부자였다고 말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가 차를 사게 되자 그것을 시기한 백인들은 그에게 돈을 던졌다.

◆ 염만석: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백인과 동양인들의 경계선 길인 부시St.을 걸어가다가 백인들에게 몰매를 맞았다. 백인들이 그를 일본사람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었다. 백인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인들이 모두 격리된 것을 모르고 한 일이라 다음에는 “나는 한국인입니다”라고 쓴 배지를 달고 다녔다.

## Upland에서 일어난 인종 차별

‘Steward Incident’ 알려진 이 사건은 미세스 메리 스투어드가 소유한 오펜드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오렌지 따는 일군으로 한인들을 고용했는데 한인들은 그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백인들이 한인캠프에 돌을 던지며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했다. 캠프 안에 겁을 먹은 한인들은 죽을까봐 어쩔 줄 모르고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이런 위기에 미세스 스투어드는 경찰에 연락하여 한인들이 자신을 위해 총을 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한인들에게 누구든지 캠프에 쳐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총을 쏘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신문사에 연락해 이 사건을 기사화하며 널리 알렸다. 백인일군들은 그녀에게 모든 한인들을 당장 해고하라는 협박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거절하며 “소수의 한인이 이 거대한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일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온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로 너희들의 이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녀의 강한 저항으로 캠프에는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후 정의감 있던 미세스 스투어드는 이웃 농장주에게 한인들을 소개해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한인들이 남가주에서 일할 수 있었다.



초기 이민들은 모이기를 좋아했다. 하와이 이민은 농장 단위로 ‘동회’를 만들고 회장인 ‘동장’을 두었다. 동장은 한인들의 대변자도 되면서 한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며 규율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는 공동적인 대의명분을 가졌다고보다는 농장 일을 원할 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려는 일종의 직장 조직이었다.

이에 비해 1903년 8월 7일 생긴 ‘신민회’는 애국과 항일이 목적인 미주지역 한인들 최초의 단체였다.

하와이 초기 이민들은 농장주 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다 오히려 옥고를 치르게 되는 일이 생기자, 나라의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느낀 한인들은 영사파견을 본국에 요청했다. 파견만 해주면 경비는 대겠다고 까지 했으나 끝내 좌절되자 스스로로라도 단체를 운영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이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군소 단체가 1906년과 1907년 사이 28개나 생겨났다.

항일정신의 성격은 같았으나 제각각이었다.

1903년 샌프란시스코의 ‘친목회’로 시작된 미주본토의 한인 단체는 1907년까지 20여 개에 달했다. 1907년 7월 16일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이준 열사가 자결하자 한인사회에 팽배한 애국 항일 정신은 일반단체까지도 독립운동을 주목적으로 만들었다. 1908년 장인환의 사의 스티븐스 저격사건이 발단이 되어 1909년 하와이와 미주 지역 단체가 ‘국민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됐다. 1910년에는 ‘대동보국회’도 ‘국민회’에 참가함으로써, 마침내 미주지역의 범한인 단체인 ‘대한민국민회’가 탄생하게 된다. ‘대한민국민회’는 명실공히 재미한인의 이권보장과 조국광복운동의 중추기관이 됐다.

### 일찍 이루어진 배경

첫째, 초기 이민들은 전통의 한복을 벗고 항해 중에 지급된 양복을 입고, 남녀칠세부동석 사상을 깨는 등 전통을 겪으며 유교적 보수성에서 벗어났다. 도미한 지식인들은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지도를 받은 교민들은 쉽게 한인단체를 결성했다.

둘째, 경제력 성장이 힘이 됐다. 당시 지급 받은 노임이 시간당 69전이라고 했으나 당시 환율은 2:1로 한화로 따지자면 1원 40전에 해당됐다. 이 금액은 한국의 실정에 비할 때 7배정도 높은 노임으로 비교적 큰 수입이었다. 노동자 중에는 5-6개월 일하고 미화 50-60달러를 모았다는 보고도 있다. 경제적 안정 심리는, 대의명분과 친선목적을 가진 단체결성에 관심을 갖게 했다.

셋째, 미국정부가 한인들의 조국독립을 위한 정치 외교적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었다. 이민과 동시에 시작된 단체의 주목적은 동포의 안녕과 조국 광복에 있었다. 단체의 분열상도 있었지만 수시로 일어나는 항일 사건으로 인해 동포들은 조국 독립을 염원하는 열정으로 단체들 간의 연합과 통일을 일궈냈다.

1903 9월23일 도산 안창호의 지도로 박선겸, 이대위, 김성무, 박영순, 장경, 김찬일, 김병모, 김동삼, 홍경술, 박승지 등이 발기인이 되어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조직된 단체다. 워싱턴가 중국인 소유 건물 지하실에 회관을 정했다. 초대회장은 안창호가 맡았다. 그 때 샌프란시스코 동포 수는 25명 정도로 인삼상인 아니면 유학생들로 생활이 곤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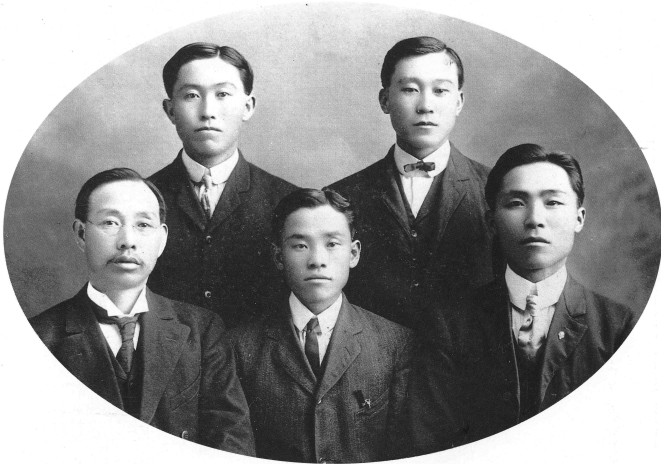
친목회는 외롭고 가난한 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얻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다. 당시 인삼상인들은 행상구역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시비가 자주 일어났다. 이에 친목회에서는 반목을 없애기 위해 인삼의 협정가격을 정하고 판매구역도 한 달에 한번 씩 바꾸도록 하였다. 한인 노동자의 노동주선도 맡아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등, 한인 생활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1904년 이후 하와이에서 동포들이 이주해 와서 회원이 49명이 되던 때, 조직과 규모를 확대개편하고 항일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립협회’로 발전했다.

## 공립협회

도산 안창호는 로스앤젤레스 부근 리버사이드에서 이강, 임준기와 함께 미국인 집주인에게 천 500달러를 빌려 한인 노동자 독립캠프를 설치했다. 전화도 2대 놓았다. 18명의 한인들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해 1개월 만에 빚을 갚은 이들은 1905년 4월 5일 최초의 정치운동기관인 ‘공립협회’를 창립했다.

한인노동자들이 35명으로 증가해 낮에는 열심히 오렌지 따는 일을 했다. 밤에는 미국인 목사를 초청해 야학을 열고 성경과 영어를

주선했다. 리버사이드의 공립협회 사업이 성공하자, 회원들은 도산에게 활동자금을 공급할 테니 도산은 노동을 그치고 더 큰 사업과 나라 일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산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공립협회회장을 맡아 2년도 안 돼 600여 명이 모이는 큰 단체로 발전시켰다.



왼쪽부터 송석준, 이강, 안창호, 뒷줄 왼쪽 임준기, 정재관

공립의 뜻은 “단결하여 선다.”라는 뜻이다. 밖으로 세계만국과 공립하여 동족 간에 상부상조하고 애국과 항일 운동이 목표였다. 입법과 행정의 견제체제를 택하여 회를 민주주의 제도 하에 두고, 민족주의 이념으로 해외한인을 단합하고 이권보장 및 배일운동을 주도하여 국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를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퍼시픽가 938호 3층 건물을 사서 1905년 11월 14일부터는 회관까지 갖춘 민족운동 단체가 됐다. 그해 11월 20일부터는 ‘공립신보’를 발행했다. 공립협회의 조직과 의미가 공립신보에 발표됐다. “공립협회의 제도가 완전한 헌법을 모방하였으니 대의원회는 즉 입법부가 되고 총회는 즉 행정부가 되었고다.(중략) 각 회의 행정 하는 임원의 과실이 있거든 입법하는 대의원이 마땅히 탄핵할 것이오, 대의원이 실

있거든 일반회원이 논박하여 피차에 서로 경계하며 서로 보호하여 원대한 목적을 기달 할 지어다.”

사업이 발전하자 로스앤젤레스, 레드랜드, 리버사이드, 오클랜드, 보이드, 락스프링스 등 6개 처에 지방회를 설립하였다. 1907년 6월 총회 발표를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291명, 로스앤젤레스에 127명, 레드랜드에 52명, 리버사이드에 150명, 락스프링스(와이오밍)에 34명 등 총 6개 도시에 654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했다.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 대 지진으로 회관이 소실되자 오클랜드 10가 416호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1년을 보냈다.

1907년 공립협회회원 김성무, 임치성, 이교담 등이 국내 지원 사업으로 천 300만원에 달하는 의연금 모집을 위한 ‘국채보상의원발기서’를 발표했다. 본국의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재정부족으로 폐간될 위기에 처하자 역시 의연금을 모아 보냈다. 1907년 5월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공립협회 총회 사무실 겸 지방회 사무소, 공립신보사를 샌프란시스코 1944 Buchanan St.에 임시로 얻어 사용했다. 그해 8월 392 오스틴 가에 집을 얻어 이전했다.

1907년 10월 9일 새크라멘토지방회가 회장 김경함, 부회장 신순만 등의 임원진으로 조직되어 새크라멘토 618 L St.에 사무실을 두었다. 1907년 10월 11일 공립신보에는 “새크라멘토지방에 거류하는 본회 회원들이 그곳에 경찰소를 정하고 이 달 5일에 공립회관을 세웠는데 삼층 벽돌집이라 집도 매우 좋거니와 자리도 우리 동포에게 편리케 놓였으며 또 그곳에 지방회를 실시하고자하여 총회에 청원하였다하니 그곳에 유하는 여러 회원의 열심히 대단한 것을 칭송할 만하더라”라고 보도됐다. 10월 19일 건관예식을 거행하였는데 총회에서는 국기와 회기를 보내고 상항지방회에서는 비단 족자에 경영하는 글을 써 보냈다.

1907년 솔트레이크 시티, 1908년에는 햄포드에 지방회가 조직됐다. 1908년 1월에는 시베리아 한인거주 지방에 김성무와 이강을 보내

치타지방에 원동지회를 설립하고 블라디보스톡 만주지방에 만주지회를 설립했다. 1908년 6월에는 새크라멘토가의 집으로 옮겼다가 8월 페리가에 집을 사서 회관을 완성했다.

1908년 11월에는 러시아 연해주 해삼위까지 지회를 확장했다. 1909년 1월에는 9개 지회에 회원이 8백여 명이었다. 1909년 미주 한인단체가 통합될 때 국민회로 합병되었다. 총 회장은 1차 안창호, 2차 송석준, 3차 정재관이 맡았다. 한편 1907년 8월9일자 신한민보에는 일부 공립협회 지원금 제공자 명단 및 금액이 실렸다.

임태호(30원), 이재수(25), 서상경(21), 최주희, 홍재성, 김종림, 박성삼(각 10원) 및 외 13명.

‘공립협회’도 발전과정에서 내부의 알력이 생긴다. ‘친목회’의 발기인이었던 장경이 도산과 뜻을 달리하여 1905년 12월 9일 캘리포니아 패사디나에서 ‘대동교육회’를 조직했다. 장경, 김미리사, 김우제 등을 발기인으로 회장은 김우제, 총무는 장경이 맡았다.

교육회의 주목적은 교육진흥이었다. 애국과 상부상조의 목적은 같았으나 만민평등과 민주정체 등 광범위한 명분을 포함하는 ‘공립협회’와는 사뭇 달랐다. 1907년 3월 2일 ‘대동교육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대동보국회’로 확대 개조됐다. 이미 회원은 5백여 명에 달하고 회비도 수천 원이 모금될 정도로 그 세가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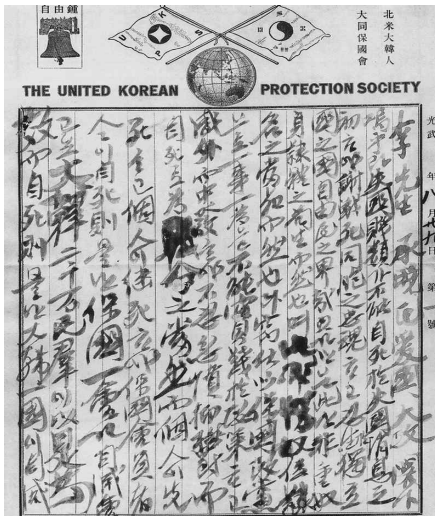
## 대동보국회

1907년 3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대동보국회는 안으로 모든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조국의 군국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2대 주의와 3대 총령을 제창했다. 2대 주의는 “천하에 공론을 환기하여



평화를 보유케 함이요, 안으로는 동포의 중심을 결합하여 한국의 안녕을 보전하려는 것"이었다. 3대 강령은, 인민의 교육확장과 실업을 일으키는 일과 자치건설이었다.

발기회원은 장경, 김우제, 이병호, 유홍조, 김마리사, 윤운호, 문양목, 최윤백, 장인환, 변창수, 김춘화, 김홍균, 송사원, 양주은, 백일규, 이면식, 방사겸, 조성학, 이학연, 박도선, 서택원, 박창운, 김필권, 이성철, 김찬일이었다. 총무는 장경, 총회장은 이병호, 백일규, 문양목 등이 역임했다. 중앙회외 지방회를 두고 초대 중앙회장에 이병호, 총무에 장경이 선임됐다.



간부 5명이 이승만에게 보낸 혈서

대동보국회는 스타튼, 프레즈노, 칼린, 덴버, 솔트레이크시티 등 5개 도시에 지방회를 설립하고 중국 상해에 까지 대표를 파견했다. 지회설치에 이어 한자월보 ‘대동신문’을 간행했다.

그러나 1907년 9월 24일 중앙총무 장경이 원동지회 설립을 위해 중국 상해로 떠나자 발전을 보지 못했다.

1907년 10월 3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웹스터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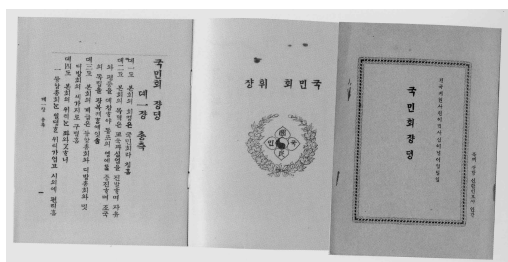
동교육회 중앙 총 회관을 설치하고 강경한 항일논조를 펴는 ‘대동공보’를 기관지로 발행했다. “의혈을 흘리지 않으면 독립할 수 없다”는 보국회의 이념과 투쟁방법은 급진적인 재미동포들의 지지를 받았다. 대동보국회 회원이던 장인환이 1908년 3월 스티븐스를 사살하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07년 이후 여러 항일 단체와 일반 단체들까지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1910-1945)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단체 통합운동이 일어난 곳은 하와이로 1907년 9월2일 24개의 단체대표 30여명이 4개조의 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켜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했다. 이어 미주 대륙에서는 공립협회 측의 안창호, 최정익, 이대위, 강영대, 안석중, 황사용, 이경의 등 6명과 하와이의 민찬호, 이내수, 강영소 등 7명이 미국 전체의 한인을 포함시키는 통합단체를 만들기 위해 실무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08년 7월에는 이승만, 박용만, 윤병구가 주동이 되어 2일에서 5일간 콜로라도 덴버에서 애국동지대표대회를 열었다. 8차례에 걸친 회의로 범미 항일단체 결성 기운이 조성되어 한인사회 통합운동의 계기가 마련됐다. 1908년 11월30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서는 노력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합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뤄져 합동발기문이 발표됐다. ‘목적과 책임이 같은 애국애족의 순결한 정신’과 ‘조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성충’으로 7항목의 합동조례를 결의하고 명칭을 ‘국민회’라고 발표했다.



국민회 헌장

1909년 2월 1일에는 하와이의 3천여 회원을 가진 ‘한인합성협회’와 샌프란시스코에 2천여 회원을 가진 ‘공립협회’가 공식적으로 ‘국민회’라

는 단일조직을 이루게 된다. 본토와 하와이 동포들은 이 단체의 창립을 매우 기뻐했다. 국민회가 창립된 날, 특히 하와이의 전체 동포들은 휴업까지 하면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고 경축했다.

천여 명의 한인들이 호놀룰루에 모여 축하식을 가졌는데 하와이 주와 호놀룰루 시 당국에서는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하와이의 기관지는 ‘신한국보’로 개칭됐다. 미주한인단체 통합에 조국의 영남지방 유림들도 축하문을 보내 격려했다.

‘국민회’는 미국 외의 해외에 산재해 있던 동포들도 조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09년 5월 멕시코에 이주한 동포들이 농장의 노예노동에서 풀려나는 때에 북미 국민회 총회에서는 황사용과 방화중 두 위원을 멕시코로 보냈다. 1909년 5월 9일 멕시코의 유카탄주 메리다 지방에 국민회가 설립됐다. 원동특파원들의 2년 동안의 노력으로 러시아령에 16개 지역과 만주지방 8개 지역에 지방회가 조직되고 시베리아 지방총회와 만주지방총회가 설립됐다.

국민회가 규모가 커가자 대동보국회도 국민회와 통합하게 된다. 이때 명칭을 고쳐 ‘대한민국민회’라 하였다. 회의 목적을 “교육과 실업을 진발하며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여 동포의 영예를 증진케 하며 조국의 독립을 광복케 함”에 두었다. 1910년 5월 10일 미주지역 민족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민회가 탄생한 것이다. 대한민국민회는 1910년 7월 3일에는 산하에 항일 항쟁을 위한 ‘애국동맹단’을 조직했다.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등 4개의 지방총회를 갖게 된 대한민국민회는 1912년 11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4개 지방총회 대표자 회의에서 중앙 총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민회는 미주한인사회는 물론 그들이 ‘원동’이라고 부르던 서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와 시베리아 연해주까지를 포함하는 해외동포 전체의 중추기관이었다. 국민회는 단순한 교민단체가 아니었다. 일종의 민족수양기관이요 독립운동기관이며 정치를 실습하는 정치기관으로 재미 동포의 보호기관으로 취직 알선을 하였고 노동조합이요 문화향상기관이었다. 사업주들은 노동력이 필요하면 국민회를 통해서 한인 노동력을 구하였고 동포의 이익과 권리를 위하여 국민회가 나서서 보호했다. 본국에서 오는 여행자나 유학생의 편의

주선하고 동포 상호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미국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주선했다.

대한인국민회는 1922년 3월 하와이지방총회가 대한인교민단으로 떨어져 나가고 북미대한인국민회로 축소될 때까지 미주 한인사회 민족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1910년부터 12년간은 재미한인 단체를 완전한 통일시키고 있었다. 4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단체로서 그 규모나 역할에 있어 우리민족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크가에 위치한 대한국민회 본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제1회 대표원 의회(1912.11.8-30)에 참가한 대표들(1912.11)" 좌에서 우로 최정익 임초 안창호 황사용 미상 박상하 박용만 강영소 미상 미상 이대위 미상 미상

## 조직

대한인국민회는 각 지방 대의원과 총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등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됐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중앙총회 밑에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의 지방총회를 두고 지방총회 관



대한민국민회 창립 축하장(1910)

하에 116개의 지방회를 두었다. 1911년 10월에 설립된 시베리아 지방총회는 한때 천 150여 명의 회원을 가졌으나 러시아의 정세불안으로 1915년 5월에 폐지됐다. 1911년 11월에 설립된 만주지방총회도 동포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동이 심해 연락이 곤란하여 1914년 7월 해체됐다. 동포들은 의무금이란 명칭으로 회비를 냈는데 1918년 이내에 도미한 동포는 한때 국민회원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중앙총회는 1913년 1월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하고 샌프란시스코는 북미지방총회가 됐다.

1913년 5월 하와이 지방총회는 하와이 지방정부로부터 사단법인의 관허를 얻었고 북미지방총회는 1914년 캘리포니아 주 당국으로부터 법인 관허를 얻었다. 1915년 초대 중앙 총 회장으로 안창호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은 박용만이였다. 중앙총회는 10년간 유지되다가 1922년 해체됐는데 이승만이 하와이 지방총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 민회 중앙총회에서 이탈해 ‘동지회’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 선포문

1912년 11월 8일 4개 지방총회 대표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대표회의를 열고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를 설립하고 결의안과 박용만이 기초한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재외한국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중앙총회 설치의의를 내외에 천명한 중앙총회 결성 선포문은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줄 정부가 없으며 법률도 없으니 동포 제군은 장차 어찌하려늘고 (중략)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그 백성의 자치력이 완전하여야 되는 것인즉 우리는 우리 사회에 자치체도를 실시하여 우리의 자치력을 배양할 것이다(생략)”라고 했다.

독립운동에 관한 일체 규모를 중앙 총회지도에 의하여 행사하기로 한다는 결의문에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해외 한인의 최고 기관으로 인정하고 자치할 것, 각지에 있는 해외동포는 대한인국민회의 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대한인국민회는 일반동포에게 의무이행을 장려할 책임을 가질 것, 대한인국민회 입회금이나 회비가 없을 것이고 해외동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지방 형편에 의하여 지정되는 의무금을 국민회로 보낼 것 등을 포함시켰다. 또 지방총회 의무금은 200달러로 정했다.



왼쪽부터 황사용, 정재관, 이상설, 최정익  
뒷줄 3번째 김종립, 4번째 송중익

1919년 3월 15일 본국에서 3.1운동 소식을 받고 3월 15일 전체 대표회의를 열고 재미동포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결의와 운동방법을 다짐하는 포고문과 결의안을 발표했다. 포고문엔 “(중략)독립선언하

전에는 우리가 국내 동포의 기밀공작과 연락이 없었던 까닭에 주저하던 때도 없지 않았으나, 오늘은 전체 민족이 일어나서 생명을 바치는 때이니 아무 것도 주저할 것 없이 대한 민족 된 자 일제히 일어나서 가진 바 생명, 재산, 기능 모든 것을 바치고 용맹하게 나아가기를 맹세하자”고 선언했다. 이어 결의안에서는 “운동의 단결과 행동 일치를 위해 동포 간에 비밀이 없을 것, 재미 한인은 미국의 언론기관과 종교기관을 통해 국제 공론을 일으키자. 재미 한인은 다른 곳 동포에 비교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즉 내외 각지 독립운동의 경제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중략) 원동에 대표를 파송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봉사하게 하고 미주와 하와이 각 지방에 특파원을 파송하여 민중 여론을 수습하며 의사를 연락하여 행동 일치를 도모하자”등을 적었다.



중앙총회 임원- 박림대, 윤병구, 한재병 (앞줄 왼쪽부터) 김종립, 이살음 (뒷줄왼쪽부터)

## 예산

대한인국민회 회원 의무금은 1909년 창립 시에는 3달러, 1913년부터 5달러, 1923년 이래 15달러였는데 50년간 수입과 지출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 1918년 1년 예산이 만 달러였는데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의연금, 애국금, 공채표로 재정모금을 하여 1918년 11월 24일부터 1920년 7월 1일까지 재정결산은 총 11만 5천 달러였다.

3.1운동 직 후인 3월 17일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의 김정진(김호의 본명)은 미국 서부 각 지방에 파견되어 독립의연금을 모집하였는데 63일간에 서부 10주에 걸쳐 63개 지방에 흩어져 있던 동

327명을 방문하여 의연금 1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 5월 26일 국민회 중앙총회 발표에 의하면 독립의연금은 3만388달러25센트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농장경영 대부호 김종립이 3천400달러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 당시 미주 한인은 누구나 대한인국민회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회원은 매년 5달러의 의무금을 냈다.

## 외교활동

국민회는 악질 중개인의 농간으로 노동조건과 임금이 불리한 여건에서 고생하던 천여 명의 멕시코 노동이민을 준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켰다. 1918년 1월 안창호가 직접 멕시코 현지에 가서 8개월간 머물며 농장주들과 교섭하여 신계약을 체결하고 실직한 한인 노동자들을 재취업시켰다. 대한인국민회는 총영사관 임무까지 대행하여 한인의 생명과 재산 및 권익을 증진하는데 앞장섰다. 1913년에는 미국정부와 교섭하여 미국에 새로 입국하는 한인이 여권이 없거나 법정 휴대금이 없어도 국민회에서 이민국에 보증을 하여 입국이 가능했다. 한국인에 관한 것은 국민회의와 교섭하고 자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신용경찰권을 얻어 각 구역마다 국민회 경찰부장을 두어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했다.

1917년 10월 29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약소국동맹회의에 하와이 국민총회에서 박용만을 대표로 파견하여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하여 제 1차 세계대전이후 한국독립문제를 국제외교무대에 올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1917년에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독일이 패전하자 윌슨 대통령은 세계 항구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할 것과 약소민족 자주권을 주창했다. 1918년 12월 13일부터 뉴욕에서 열린 약소민족동맹회의 제 2차 연례총회에 안창호의 대리인 민찬호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약소민족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결의한다. 여기에 희망을 갖게 되자 1919년 1월 18일



열리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파견대표로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목사 3인을 선정했다. 약소민족의 자결권 보장을 요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관계악화를 염려한 미국 정부가 여권발급을 불허하는 바람에 참석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1919년 2월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단원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키 위해 출발했다. 이에 대한인국민회중앙총회는 그에게 위임장과 경비 3천500달러를 보내어 격려했다. 또한 파리에 대사관까지 설치해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벌였는데 1921년 9월까지 존속됐다. 이런 일들은 일본 유학생들 2.8 독립선언, 3.1운동 등에 자극을 주었다.

서재필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승만을 워싱턴으로 파견하여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안창호명의로의 신임장을 주어 독립운동 로비활동을 개시했다. 이승만의 워싱턴위원부 경비를 부담하고 또 임시정부 경비와 임정요인의 생활비를 보냈다. 이승만, 김규식, 서재필, 정한경 등을 주축으로 하는 구미위원부를 조직 후원하여 독립외교를 강화했다.

대한인국민회가 필라델피아에 설치하였던 외교사무소는 4월 22일 한국통신부로 다시 발족했다. 서재필은 ‘한국 홍보국’을 설치하여 각종 선전문을 간행하다 기관지 ‘한국평론(Korean Review)’을 발간하여 미국사회에 친한 여론을 형성했다. 5월 16일에는 ‘한국친우회’를 결성해 미국 각지 21개와 영국 프랑스에 1개씩 설립하여 총 2만 5천여 명의 회원을 두었다.

1919년 4월에는 도산이 대한인국민회 대표가 되어 상해에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과 운영을 주도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끝에는 재미한족연합회를 조직하여 대표자 15인을 본국에 파송하여 독립운동에 협력하게 했다. 대한인국민회에서는 미국인 인사들에게 부탁 ‘한국에 대한 진실’, ‘일본의 외교와 폭력’등의 책자를 내기도 했다.

기독교 연합체도 국민회를 도와 일제의 학정을 폭로하고 미국 내 기독교인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에 참여했다.

## 위상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일본영사관측은 한인들을 간섭하려고 했지만 국민회는 이를 적극 배제시켰다. 1913년 6월 27일 남가주 리버사이드 근처 헤밀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한인국민회가 한인문제를 다루는 단체임을 미 정부가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영국인 ‘시몬’의 살구농장에서는 싼 임금으로 한인 11명을 고용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백인농부 수백 명이 정거장에 모여 한인들을 공격했다. 한인들이 가지고 간 캠핑 도구와 가방들을 땅에 던지며 당장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농장주인은 손해난 차비를 배상해 주고 한인들은 강제로 로스앤젤레스로 돌려보내졌다. 당시 가주에서는 일본인 배척운동이 심하였고 그들도 일인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당시 일본영사는 한일합방으로 한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한인들을 찾아가 농장주에게 배상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일본영사관에서는 이 사건을 미일 통상조약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국무성에 항의했다. 이에 한인들은 한인의 문제이므로 일본 영사관은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신한민보 주필을 겸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국민회 총 회장 이대위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기 전에 떠난 사람들이기에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일본공사가 한인의 사건을 가지고 미국정부에 교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도 원치 아니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브라이언 국무장관은 한인은 명백히 일인이 아니므로 한인의 사건은 한인 단체와 교섭해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출입국 수속이 몹시 까다로웠는

이 사건 후부터 1924년까지 5백 명 이상의 한인학생이나 사진결혼한 신부가 국민회의의 보증으로 여권 없이도 입국할 수 있었다. 가주 정부도 회원의 안녕을 보장하고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보장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충돌이 있을 당시 국민회에서는 1910년, 1913년, 1935년에 회원 증서를 발행했다. 진주만 사건 때는 전시 비상정책으로 일인과 구별하기 위해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원 증서’를 전체 한인동포에게 발급했다.



232 Perry Ave에 있던 국민회 자리가 Bay Bridge 공사로 인해 헐리는 모습 (1935년)

< 이대위가 미국정부에 보낸 전보공문 >

“ 국무장관 브라이언 귀하.

귀하께 드리는 바는 근일에 한인 11명이 캘리포니아 헤밀지방에 일하러갔다가 그곳 주민들에게 축출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을 일본 영사가 간섭하려고 하나 우리가 일본관사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 까닭에 본회가 그 지방주민들과 교섭하여 시비를 타협하였습니다.

귀국법을 밑에 사는 한인들은 대개 한일합방 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고 한일합방을 반대하며 해가 하늘아래 떠있는 한 일본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터이니 전시나 평시를 물론하고 미국에 사는 한인을 일인과 같이 대우하지 말며 어느 때든지 한인에게 관한 문제는 한인사회에 교섭하시기 바라나이다.

1913년 6월 30일 대한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총회장 이대위”

국무장관은 이틀 후 한인들의 요구를 수락하는 발표했다.

“한인은 일인이 아니라는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의 진보를 받았다. 그 진보에 말하기를 재미한인은 대개 한일합방 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고 한일합방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정부와 관계가 없고 일본관사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하였은 즉 이로부터 재미한인에게 관계되는 일은 공사나 사사를 물론하고 일본 관사를 통하지 말고 한인사회를 교섭할 것이다.

1913년 7월 2일 미 국무장관 브라이언”

## 파란

1918 11월 제1차 세계대전 후 승전자들이 파리 강화회의를 준비하자 대한인국민회는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을 대표로 파송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자 이승만이 ‘한국의 국제 위임통치’라는 글을, 정한경은 ‘한국의 자치론’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글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승만의 지지파들은 위임통치문제는 이 박사를 포함하는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그 와중에 3.1운동이 일어났다. 그 때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한성정부’를 조직하는데 이승만을 집행관 총재로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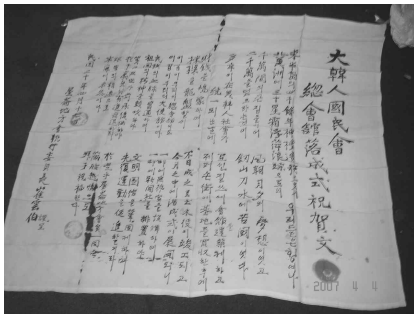
이승만은 이에 워싱턴에 구미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행정을 자의로 대행하고 공채표를 발행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령으로 수행하던 대한인국민회의 애국금수합도 정지하라고까지 요구했다. 대한인국민회는 임시정부를 후원하던 까닭에 이승만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1921년 3월 이승만의 동조자들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서 탈퇴하여 교민단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대한인국민회는 1922년 1월 중앙총회를 폐지하고 미주 멕시코 쿠바에 있던 지방회

재편성하여 명칭을 ‘북미대한인국민회’로 변경했다.

최정익이 지방총회장으로 피선이 되어 회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재정이 부족하여 업무처리가 곤란했다. 그때 북가주 스타튼 지방에서 감자농사를 하던 이순기가 감자농사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이익을 쉽게 낸다는 말을 듣고 국민회 가옥을 담보로 빚을 내어 감자농사에 투자했으나 농사가 실패하고 가옥을 잃게 됐다. 이에 일부에서 최정익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등 시비가 생겼다. 도산은 최정익을 사퇴하게 하고 모금을 통해 회관을 다시 찾았다.

### 총회관



2003 국민회관 복원과정 중 발견된 대한인 국민회관 낙성식 축하문

총회관의 위치는 샌프란시스코 232 페리가에 공립협회 회관을 1910년 10월 1일 3천 500달러에 매입했다. 1914년 6월25일 그 건물을 3천692달러에 매도하고 마켓가 ‘휴즈 퍼시픽 빌딩’으로 이전했다. 서필순이 자비로 가옥에 대한 미수금을 청산했다.

1914년 12월 28일 샌프란시스코 1053 오크 St.에 건물을 6천500달러를 주고 확장해 한인회관과 국민회관으로 사용하다 편리를 위해 마켓 St.에 국민회관사무소를 설치하고 회관은 예배당과 집회실로 사용했다. 1918년 가옥의 빚을 다 갚고 회관을 소유했는데 그것은 552명 회원의 특별연금으로 이루어졌다. 1918년 5월 16일 자 신한민보에는 552인 이름을 밝혀 그들의 공을 치하했다. 총회관 그림 위에 태극기를 꽂은 그림을 그려 놓고 건물 밑을 밟을 쓴 많은 사람들이 받치고 서있는 그림 옆에 이렇게 써놓았다.

“ 집은 3천 500원 빚 속에서 건져내어 손바닥 위에 든든히 받들고 있다. 그 팔을 보아라 태산 박석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 이 집을 건진 자는 무려 552인이니 미국 재류한인의 4분의 1이라 …… 오늘의 힘을 길러 이다음 성공을 준비할 지어다.”



1368 W. Jefferson Blvd. LA 이주한 국민회 헌당식(1938년)

1936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호를 비롯한 22명은 원탁회의를 열고 대한인국민회 부흥책을 의논했다. 그들은 임시정부후원과 청년 운동, 구제사업을 급선무로 하고 국민회 총회관을 8천 달러의 예산으로 로스앤젤레스로 옮기기로 했다. 그 결과 1909년부터 1936년까지 28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회관은 1937년 로스앤젤레스 제퍼슨 블루버드에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이 건축하면서 이전했다.



LA 총 회관에서 개최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1차 전채위원회 (1942.4.3-7)에 참가한 대표자들

< 통해 본 당시 거주 국민회 각 지방 주소>  
(1918년 8월 29일자)

대한민국민회 지방총회 사무소 419 Hewes Bldg  
샌프란시스코

북미 지방총회사무소 419 Hewes Bldg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지방회관 2115 Webster St.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지방회관 324 P St, 새크라멘토 /

스탁톤 지방회관 9 E Sonora St. Stockton, CA

로스앤젤레스 지방회관 2 Olive Ct. 로스앤젤레스

클래몬트 지방회관 P.O. BOX. 195 클래어몬트

다뉴바지방회관 P.O. BOX. 54 다뉴바

멘티카 지방회관 P.O. BOX. 177 멘티카

< 통해 본 가주 대한인국민회 주소>  
(1942년 10월8일자)

The New Korea –Published every week by  
Korean National Association

K. N. A. Address: 1368 W. Jerrerson Blvd.  
Los Angeles, CA

English Section –young Korean National Association: 1368  
W. Jerrerson Blvd. Los Angeles, CA

San Francisco –812 Kearney St. San Francisco, CA

Delano –P.O. BOX 554 Delano, CA

Reedley –1419 J. St. Reedley, CA

Sacramento –1815 6th St. 1020 3dr St.

(Reporter's Address) Sacramento, CA

Oakland- 1970 San Pablo Ave, Oakland, CA





## 확약과 업적

도산 안창호가 민족의 자주독립과 인물양성을 위해 ‘우리민족 전도대업의 기초’를 위해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단체다. 재미 한인의 인재양성기관인 흥사단의 이름은 원래 합방이전 본국에서 유길준이 조직한 애국단체 이름이다.

그러나 이미 없어진 단체지만 그 이름이 좋으니 다시 사용해도 좋겠다는 도산의 뜻에 따라 그대로 그 이름을 사용했다.

그 뜻은 ‘인민의 교육으로 전국의 사표를 흥기’하자는 의미로 정치성이나 종교성을 초연하여 대동단결한다는 본래 취지가 담겨있다. ‘흥사’라는 두 글자는 선비를 일으킨다는 의미인데, 그 목적은 ‘건전인격’과 ‘신성단결’로 인재를 양성해 민족의 독립 달성은 물론 독립 후의 국가건설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흥사의 ‘사’는 문사나 무사 둘을 뜻하는 것으로 진정한 애국자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일제 식민지 초기에서 오늘날까지 백여 년 간 이념과 조직의 체계성을 보여주는 흥사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되어 초기 이민의 정신과 힘을 집결하게 한 것은 의의가 크기에 자세히 알아본다.

## 창립 배경과 목적



연(경기도)    염만석(강원도)    민찬호(황해도)    김종립(함경도)



정원도(전라도)    조병욱(충청도)    송종익(경상도)    강영소(평안도)

시작된 산업혁명의 부산물인 제국주의 정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은 1854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나니 자본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투를 막아낼 수 없게 됐다. 마침내 귀족 투사 계급은 몰락하고 농민 출신 무사들의 지지를 받아 명치유신이 됐다. 국가 중심적인 산업의 근대화는 군국주의적 성격을 나타내게 되어 그들은 서양에서 손해 본 것을 동양에서 찾고자 했다. 일본의 대외 침략정책은 조선, 만주, 중국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을 식민지화했다. 그들의 식민지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고 민족을 말살하고 소멸시켜 종속신분 층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1910년 한반도 강점이후에는 식량 및 원료 공급지의 상품을 시장화하고 중일전쟁이후에는 인적 물적 수탈을 자행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일제치하의 항일 독립운동은 지도세력의 권력투쟁으로



1913 홍사단 창립대회

대립을 거듭하자 민주 인사들의 저항은 여러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개화운동 및 동학 농민운동, 을사보호조약 이후에는 의병투쟁과 애국 계몽운동이 일어났다. 종교와 함께 들어온 서구의 사상과 문화는 민중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서재필의 독립협회운동은 인본주의를 기초로 한 사상적 현대화의 싹을 트게 했다. 자유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지식층의 주도로 독립협회가 조직되자 도산은 평남 강서 지방에 점진 학교를 세우고 개화 계몽을 하다 한계를 느끼고 도미, 유학의 길에 올랐다. 나라의 주인이 되는 백성의 힘을 향상하고 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시켜 민중의 힘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홍사단의 창립목적은 ‘무실역행을 생명으로 삼는 충의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체덕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이었다.

## 강령과 정신

홍사단의 2대 강령은 건전인격과 신성단결이었다. 삼대수양은 체육, 덕육, 지육으로 건강하여야 지식을 발휘하므로 체육을 먼저 두었다.

사대정신은 무실역행으로 한마디로 “거짓말 없는 민족이 되자”는

. 동맹수련은 단의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정의돈수는 단의 중요한 활동이었다.

- ◆ 무실: 거짓을 버리고 허위의 사상과 습관 허례를 버리고  
진실을 찾자는 정신
- ◆ 역행: 공리공론을 버리고 한 가지 일이라도 실행하며  
노력하자는 정신
- ◆ 충의: 충실하게 의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게  
신용을 세우자는 정신
- ◆ 용감: 옳은 일에는 돌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건디고  
참으며 나약한 태도를 청산하고 주위 환경의 곤란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정신

◆ 동맹수련: 홍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나부터 먼저 고치고 민족을 고치게 하자는 주장으로 서로 격려하고 견제하여 수련의 힘을 발휘하는 단의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동맹수련 과목은 건전인격과 신성단결(변치 않고 깨어지지 않는 단결)과 사회대공의 세 가지가 있다. 문답, 입단식과 서약, 집회 출석의 의무, 동맹독서, 동맹 운동 등이 동맹 수련의 중점이다. 동맹저축과 동맹수련을 강조하는 홍사단에서는 단우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수행한 업무와 운동, 독서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다. 하루 책 한 페이지 이상을 읽고 3분 이상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에 수행한 업무와 일을 매주 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의무를 정하여 실시했다.

◆ 정의돈수: 단의 성격 중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사랑하는 것이 단결을 위한 힘의 원천으로 여겨 일반국민도 고취해야 할 덕목으로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더욱 기르도록 사랑하기 공부라는 뜻이다. 동맹저금제도를 두어 경제적 힘을 기르게 하였고 단내에 경위금 제도를 두어 단우의 경사와 환난 때 부조금을 보내게 하였다.

중에 경사나 불행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하, 위로하는 회원 간의 상부상조하는 수련이다.

단우의 자격은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유망한 인물로 일생동안 신의 있는 생활을 맹약하고 그를 준수할 수 있는 인물로 제한하여 단우 모집이 쉽지 않았다. 일상생활의 철저함이 홍사단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될 것이라는 도산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홍사단 창립이후 도산은 상해에 갈 때까지 6년 동안 단우 모집에 전력해 3.1운동 이전에 이미 150명이 됐다. 도산의 사업 중 도산이 제일 정성을 들인 사업으로 홍사단에 입단한 단우들의 신상기록이 입단번호와 함께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어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약사

20세 청년으로 독립협회운동에 가담하였던 도산은 미국유학에서 급거 귀국하여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일으켰다.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에 새로운 사상을 고취하고 ‘지식은 힘이다.’라는 신념아래 항일운동인 동시에 민주화운동, 현대화운동에 불길을 일으켰다. 비밀결사 신민회는 전국유세 강연 외에 교육 실업기관을 창설하고 청년학우회를 1909년 2월에 창설하였다. 진실한 민족의 혼을 자각함으로 진실한 독립 국가를 찾자는 청년운동이었다. 언변보다는 실행을 형용보다는 내용을 준수하는 무실역행의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육당 최남선이 중앙총무로 도산 선생을 도와 실무를 담당했다.

‘청년학우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청년운동으로 2년의 짧은 수명으로 사라졌으나 그 취지와 목적 및 운동방침은 홍사단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1913년 5월 13일 금요일, 샌프란시스코의 강영소 자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35세 도산 안창호의 주선으로 홍사단이 발

. 동지 25명 중 여덟 명의 팔도대표를 창립위원으로 정하였는데 창립위원으로는 홍언(경기도), 조병옥(충청도), 송종익(경상도), 정원도(전라도), 강영소(평안도), 김종립(함경도), 민찬호(황해도-이건도 있다), 염만석(강원도)이었다.

창립위원을 8도로 구성하였던 것은 지방색의 후환을 막으려는 뜻이었다. 각도 인사를 망라하기에 일 년 여의 세월이 흘렀는데 조병옥 정원도 강영소로 하여금 발기하여 단원을 모집하게 했다.

일일이 문답을 치르게 했고 도산이 직접 질문했다.

창립당시 흥사단 본부는 북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벙커힐 거리에 두었다가 1915년 피게로아 거리로 이전하였다.

1932년 7월에 이르러 로스앤젤레스 남 카다리나 34211번지에 대지를 사들여서 2층 유선양옥을 지어 이전했다. 1913년 12월 19일 제 1차 흥사단대회가 새크라멘토와 클레어몬트 두 지방에서 열렸다. 도산은 창립 초창기 ‘4번 단우’ 혹은 ‘전권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안건의 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 또는 권고했다.



홍사단 멤버들

1914 10월 5일 도산 선생의 담임 편집으로 등사판인쇄로 홍사 단보를 창간했다. 그 목적은 단우와 단의 연통을 도모하고 단의 주의와 정신을 부단히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제1차 대회를 1914년 12월 19일에 북방에는 새크라멘토, 남방에는 클레몬트에서 열어 50년간 해마다 거르지 않고 대회가 개최됐다. 대회의 목적은 동지로서 전 단원이 하나 되어 정신과 의사를 통일하여 단세를 굳게 하고 단의 전도방침을 크게 토의 연구함이었다. 1948년 1월 5일 미주에 있는 본부를 서울로 옮겼다.

## 단기와 단기가

1913년 창립당시 도산 선생이 고안 창정한 것으로 황홍백청의 네 가지 색으로 황색은 무실, 홍색은 역행, 백색은 충의, 청색은 용감의 뜻이다. 기머리 중심에 백색원형이 있고 원형 안에 날아가는 기러기 모양의 '사'자가 있다. 원형은 단결의 뜻이고 '사'자는 '홍사'의

. 도산 선생의 홍사단 단기가는 전진하는 홍사단의 기상도가 살아있는 것 같다.

황금같이 순결하고	열혈같이 붉었도다
청천같이 푸르렀고	백일같이 뚜렷하다
두 날개를 널리 피어	향상하고 전진하네
광명하다 이 깃발이	홍사단의 대표일세
기러기야 내 단기야	너는 나의 사랑이요
너는 나의 인도로다	영원토록 같이 하세

도산 외에도 홍사단 창립위원의 한사람인 송중익도 단기가를 만들었고 정인과 염만석도 홍사단 제1회 시집에 단기가를 발표했다.

## 사명

“한국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기초역량을 기르려 하는 것이요 그 기초역량은 곧 사람의 힘, 곧 건전한 민족성의 발현 배육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환경과 전통이 좋지 못하여 나빠진 국민성을 회복하여 우리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힘을 얻게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육성시키는 일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상적 국가를 건설하려면 그 사업을 능히 담당할만한 힘을 기르자는 것으로 그 힘은 곧 사람으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번영과 사회의 진보를 담당할 각오와 능력을 기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합하여 민족공동의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다시 기르는 것이 사명이다.”



## 약법과 조직

1913 창립당시 약법은 흥사단 약법의 기초위원 안창호, 강영대, 광림대 3인이 클레몬트 학생양성소에서 일주일간 자취하며 토론 연구하여 약법과 행정 세칙을 작성하였다. 1933년 1차로 약법을 개정하고 도산이 타개한 후 1947년 2차로 약법을 개정하였는데 성격은 창단 약법으로 회귀하고 있다.

창립당시 약법에는 “본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의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체 덕 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대업의 기초를 준비함에 있음”이라고 되어있다. 개정된 흥사단의 약법은 다음과 같다.

“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 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따라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갖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참된 길임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흥사단 운동에 평생 바치기로 이에 동맹한다.”

흥사단 단우는 통상 단우와 예비 단우 그리고 특별 단우 3종류로 구분되었다. 단우 선정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었는데 입단문답은 도산이 직접 하였다. 통상단우에게는 고유의 단우번호가 부여되었는데 자격은 연령이 17세 이상으로 허위의 언행과 나태한

없고 무실역행의 정신으로 수학하여 단결의 신의를 확보할 수 있는 자로 정했다.

재정은 단우의 입단금과 예연금, 의연금, 기부금, 적립금에 의존했는데 단우의 입단금은 20원이었고 예연금은 매계 1원이었으나 정형을 참작하여 양의 감액이 고려되었다.

조직은 입법, 사법, 행정 3부로 8인 1반을 조직하여 군대식 신속 교통제도를 채용하였다. 의식은 홍 황 2색을 무실과 역행의 색으로 단우 각자가 2색의 기념대를 두르게 하였다. 상호간의 칭호는 ‘군’이라고 하고 기장과 장식물에 2색을 쓰게 하였다.

## 사업

홍사단은 단우의 합자회사로 대동실업회사를 조직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일본인의 간장을 사서 소매물로 병을 만들어 팔다가 수만 달러의 자금을 허비하고 실패하였다.

홍사단 단우를 모집하며 접촉하는 동포에게 실업회사 조직 계획을 말하고 2만여 달러의 자본금을 모았다. 1917년에는 ‘북미실업 주식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1918년에는 자본 총액이 5만 여 달러나 되었다. 도산은 우리 민족 사회 가운데 금융기관이 성립되어 국제무역에 신용 거래를 할 만한 재단을 갖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가주 월로우스 벼농사에 3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가 홍수가 나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

도산은 친구 박영순이 벼농사 투자를 해달라고 맡긴 돈 1만 달러를 프랑스에 임시정부의 위치가 위협하게 되자 임시정부 안전 보장을 위해 썼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사람들이 북미 실업주식회사 공금을 썼나하여 법정소송을 일으켰다. 사업투자의 실패와 법정소송 등으로 결국 1929년 회사는 해산하게 되었다. 마지막 북미실업회사 정리는 김종립, 김순권, 광림대 3인이 맡아 해결하였다.

## 연보

1909 도산 선생은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일을 보는 중에 청년동지들에게 홍사단 정신을 선전하여 원동위원부를 만들었다.

1912 남가주에 클레어몬트 한인학생양성소로 가서 송종익에게 ‘홍사단 약법’의 초안을 보이고 상의했다.

1913 5. 13. 샌프란시스코 강영소집에서 각도 대표 8명과 홍사단을 창립하였다.

1915 홍사단우 제1회 시집에 단우 36명의 작품발표와 ‘홍사단 단기가’를 등사판으로 발행하였다.

1914 10. 5일 홍사단보를 발행하고 9월에 단우수는 50여명으로 증가했다. 로스앤젤레스 남카다리나 34211번지에 대지를 사서 2층 유선양옥을 지어 단소가 아주한 후 1919까지는 미주에서만 활동

1919 겨울 상해에 단소를 설치하고 입단자가 늘어 본부에 청원하여 원동위원부를 두었다.

1920년 중국의 원동위원부와 본국의 수양동우회를 조직하는 등 1931년까지는 홍사단을 알리는 시기였다.

1922 이광수가 상해에서 입단한지 얼마 안 되어 본국으로 돌아와 ‘민족개조론’을 잡지에 발표해 홍사단 기본이념이 처음 공개되었다.

1922. 2. 12. 서울 당주동 이광수집에서 수양동우회를 조직했다..

1923. 1. 16 평양에서도 동우구락부가 생겼다.

1925. 10. 11. 평양에서 합동교섭을 하여 1926년 합동된 회명을 수양동우회라고 하고 1929년 11월 23일 수양동우회와 동우구락부는 동우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탄생했다.

1926. 5. 단의 사업으로 ‘동광’잡지를 창간하였으나 1933년1월 40호를 내고 폐간되었다. 주간에는 주요한이 고문은 이광수가 맡아 많은 집필을 했다. 도산 선생이 산옹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발표했다. 동광 폐간 후 이광수 주제로 동광 총서 두 권이 발행되었다

1932 1945년까지는 중국방면과 국내조직이 강제 해산을 당하며 수난을 당했다.

1937. 6. 중일전쟁 한 달 전 일본관헌이 동우회 회원 수백 명을 검거하여 치안유지를 위하여 단체해산을 명하였다.

1945. 12. 미주에서 재미한족연합회 대표단이 본국을 심방 할 때 그 중의 단원들이 국내 동지와 의논하여 1946년 1월 5일 주요한집에서 흥사단 국내위원부를 조직하였다.

1946년 서울로 본부를 옮겨 1961년까지 활발히 활동했다.

1948. 1.5 미주 흥사단 본부를 서울로 옮겼다.

1949 봄에 국민일보를 창간했으나 재정문제로 이내 문을 닫았다.

1950 6.25사변으로 많은 동지가 희생되고 단소도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1953년 서울로 돌아왔다. 미주에 위원회를 두었다

1954. 9. 동광과 비슷한 순수한 우리말로 된 잡지 ‘새벽’이 단에서 경영하는 준 기관지로 나왔다 ‘동광’과 ‘새벽’을 통산하면 92호로서 100호 가까운 잡지를 통한 단의 문화 사업은 우리나라 해방전후를 통하여 많은 문화적 공헌을 했다.

1962. 단체등록이 취소됐다가 1963년부터 재출발했다.

## 단보

도산 선생의 담임편집으로 1914년 10월 5일 단보를 창간하였는데 간략한 등사판인쇄였다. 그 목적은 단우와 단의 연통을 도모하고 단의 주의와 정신을 부단히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이 단보에는 단의 포고문, 단우 및 행사의 소식, 교양 논설 등이 수록된 일종의 기별지였다. 1915년 8월경인 듯 달의 월간합계를 보면 독서분량 3천 2백 38장에 운동시간 97시간 13분으로 상세한 보고가 올라와 있다. 그 무렵 50명의 단우가 체, 덕, 체, 3육을 수련하며 동맹독서와 동맹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1915 9월에 나온 제1권 10호에는 도산의 문체로 보이는 ‘낙심과 절망은 곧 정신의 자살’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면 그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요, 그와 같이 죽는 수효가 많으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반도강산이 그 뒤를 의지하리오”라고 하며 “유쾌한 취미를 일으켜서 저 낙심과 절망의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 민족의 빛이 되며 표준이 되자”고 역설하였다. 도산은 단보를 통해 민족의 원기를 날로 증진시켜 민족의 실력을 날로 더욱 쌓아 나가길 희망했다.

## 정신의 계승

홍사단은 일본 제국시대에는 민족 독립운동단체로서 국권회복에 기여할 인물 양성에 노력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의 운영자금조달을 하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해방 후에는 국민 계몽단체로 금요강좌와 ‘새벽’지의 발간으로 자유와 만주사상을 고취하여 4.19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창단 50주년을 맞은 1963년부터는 한국 사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청년 학생운동으로 ‘홍사단 아카데미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지금도 90여 년에 걸친 역사와 전통의 바탕에 3대 시민운동으로 ‘민족통일운동’ ‘투명사회운동’ ‘교육 청소년운동’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미주 홍사단원 명부

괄호 안의 통상 단우 번호는 입단 순서와는 다르다.

(410부터 460번은 일련번호)

**1913 입단** / 하상옥(1) 강영소(2) 정원도(3) 안창호(4) 황사용(5) 양주은(6) 홍언(7) 민찬호(8) 황사선(9) 김홍균(10) 김병규(11) 이석

(12) 이응목(13) 박봉렬(14) 윤응호(15) 정동업(16) 윤진오(17) 마  
춘봉(18) 김관유(19) 송중익(20) 문영운(21) 강영대(22) 이건영(23)  
이영수(24) 염만석(25) 조성환(26) 정영도(27) 김순학(28) 조갑석(29)  
현승렬(30) 임준기(31) 임성기(32) 정인파(33) 김종림(34) 임초(35) 신  
달윤(36) 광림대(37) 길천우(38) 이일(39) 윤지한(40) 이운경(41)

**1914 입단** / 김병연(42) 오림하(43) 윤필건(44) 김관홍(45) 조병  
옥(46) 이인신(47) 이진(48) 김계선(49) 조종문(50) 박영로(51) 백일  
규(52) 박선(53) 김종덕(54) 박인탁(55) 박돈옥(56) 신광희(57) 박영  
순(423) 변기현(427)

**1915년 입단** / 차희선(58) 김기만(142)

**1916년 입단** / 박영직(61) 최윤호(62) 천세현(226) 정원현(448)

**1917년 입단** / 한장호(59) 최능익(60) 최재덕(63) 이락주(64) 황보  
정길(65) 최석영(66) 신현모(67) 계옥룡(68) 박일우(69) 최희송(70)  
장리옥(71) 김태진(72) 최진하(73) 한병선(74) 김영훈(75) 이암(76)  
한승곤(77) 노정민(78) 하희옥(79) 이용근(80) 양철(81) 이초(82) 손  
정도(109) 한시대(179) 임성택(272) 나진곤(421) 이창성(438) 조득린  
(449) 조명구(450) 차정석(452) 함계택(456) 허승원(460)

**1918년 입단** / 조울림(83) 조문해(84) 허진업(85) 오익조(86) 송상  
대(일명 송도경)(87) 이용선(88) 최능진(89) 김창만(90) 김기창(136)  
김기홍(410) 김동순(411) 김명순(412) 김정식(416) 강명원(420) 사덕  
순(428) 이경상(435) 이명상(436) 이명원(437) 이재수(439) 이우식  
(440) 이규하(441) 이인상(444) 허완(445) 차용환(453) 최대현(454)

**1919 입단 /** (91) 김병한(92) 곽용주(93) 양홍(94) 명일선  
(95) 황사근(96) 이원석(97) 김진규(415) 이종오(443)

**1920년 입단 /** 장병훈(98) 최봉민(99) 박영관(100) 김기후(102) 변  
준호(102) 박영제(114) 이문하(117) 김득부(119) 김여택(120) 손이도  
(131) 조진환(164)



여성의 이민의 형태는 농장의 노동자로 가는 남편을 따라서 가거나 사진결혼이 주를 이뤘다. 그 외에 여자가 미국에 온 경우는 유학생 또는 전도사였는데 그 수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첫 이민 93명 가운데 여자는 22명으로 가족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

이민을 가기 전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이 수속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민회사에서는 남자들에게는 상투 자르기를 권하고 양복도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머리를 자르라고 권하지도 않고 서양 옷도 지급해 주지도 않았다. 그들은 치마저고리에 쪽을 진 채로 하와이에 와서 4~5년이 지날 때까지도 한복차림을 고수한 사람도 많았다. 그들이 그렇게 오래 한복을 입고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농장 일보다는 취사나 세탁 등 집안에서 가사 일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03년 1월 13일부터 1905년 6월 30일까지 하와이에 온 한인 이민 총 수는 7천 226명으로 그 중에 여자는 637명이었고 아이들은



541 . 그 뒤 1910년 3월부터 1924년 5월 15일 ‘동양인 절대 배척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민 숫자는 하와이에 951명, 미국 본토로 115명이 들어와 총 1066명이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05년 이후로 이민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일본정부가 한인들의 미국 이민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정부에 1905년에 하와이 이민을 중단시키라고 한 이유는 하와이에 있는 일본 노동자들이 한인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이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하여 군사적으로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었다. 점령에 필요한 길을 닦고 한국의 쌀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들여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기에 한인이 하와이로 이주하는 것을 막았다.

1910년 대한인국민회가 미국 본토 내 한인인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자가 1999명, 여자가 22명이었다.

### 본 한인 이민 여성의 특징

1903년-1910년 : 주로 남편을 따라 오거나 유학생들이었다. 특히 공부를 위해 온 여성들은 유학을 올 수 있는 형편의 여자들로 주로 고등교육을 받은 도시에 살던 부유층이었다. 당시 8천여 명의 미주 한인 인구 중 여성은 10%를 넘지 않았다.

1910년-1924년 : 이민이 금지됐던 이 시기에 미국에 온 여성들은 가난을 피해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 신세계를 동경하며 온 용감한 사진결혼 여성이 주를 이루었다. 그 중에 미국에 와서 신식교육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젊었고 고등교육도 받았으며 미국에 와서도 독립운동 등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농장에서 일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식사와 빨래를 담당하며 맞벌이를 했다.

1950년-1964년 : GI Marriage라고 하여 미군과 결혼하여 온 한

그들을 Korean War Bride(한국전쟁 신부)라고 불렀다.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나 오빠 등 가족의 기둥을 잃은 여성들은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다. 갑자기 밀려들어온 서구화 문명 속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한 군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높은 이혼율을 보였다. 비록 자신들은 희생했지만 조국에 생활비를 보내고 온 가족을 미국으로 이주시켜 그들이 터전을 잡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60년대 후반: 고등교육을 받은 직업여성이 주를 이뤘고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지닌 도시여성들이 이민을 왔다.

### (Picture Bride)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한국이민자 수의 불과 10%만이 여자였던 초기 하와이 이민의 다수는 당연히 가정 없는 홀 아버지들이었다.



도착한 사진 신부들

고된 노동 뒤에 밤이 되어 막사에 돌아가도 편히 쉴 가정이 없고 별다른 취미가 없던 꽤 많은 수의 초기 이민들은 아편과 술과 노름으로 외로움을 달랬다. 그로 인해 노동자 캠프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자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노동의 능률은 떨어졌고 집단이민이 묶인 1905년 이후에는 새로 이민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1907년에는 개정법이 발효되어 하와이

본토로 가는 발조차 묶이게 되자 수천 명의 노총각들은 희망조차 사라져 자포자기를 하였다. 그러자 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농장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긴 당국에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혼인을 장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진혼인’이라는 새로운 혼인법이 만들어졌다.

정부당국은 사진혼인으로 들어온 여자들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고 영주권을 내주었다. 사진혼인법은 미주에 이민한 동양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남자가 본국에 있는 처녀에게 사진을 보내고 그 사진을 본 여자가 결혼을 원하면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형태였다.

사진 혼인의 효시는 1908년 샌프란시스코 일본영사관에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일본 남자들이 일본에 사는 여성들과 사진을 통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요구함으로써 시작됐다. 사진혼인은 독신총각들이 사전에 사진과 양력 그리고 생업을 기록하여 처녀에게 보내면 마음이 내킨 처녀는 자신의 호적등본과 사진으로 응답하였다. 총각 쪽에서는 사진 속의 얼굴만을 보고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여비와 함께 동의서를 보냈다. 이런 방식이 그대로 한인들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한국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경우 드는 비용은, 배 요금과 일본경유에 드는 숙박비, 보건비, 입국수수비 등을 합해 모두 70달러가 들었다. 그러나 당시 풍속은, 신랑 될 사람이 200달러정도를 신부 될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통례였다.

첫 번째로 사진 혼인을 한 사람은 1910년 12월 2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호남출신 최사라(23세)로 당시 하와이 국민회총회장을 맡고 있던 38세의 노총각 이내수와 결혼한 것이다. 주례는 민찬호 목사가 했다. 초기 사진신부로 미국에 오는 한인여성들은 영남출신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경상도 해안지구와 경유지인 일본의 요코스카항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서울출신 여성들은 제물포에서, 함경도

평안도 지방에서는 상해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왔다.

사진 신부들은 대개 머리가 명석하고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열성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사진 신부를 찾는 초기 이민 남성들은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사진혼인에 따른 문제점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이 사진신부를 찾으면서 자신의 나이와 학력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혼인으로 미국에 온 여성 중에는 미국에 가서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 남편의 실제 나이는 많고 교육수준도 낮아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일부 여성들은 그런 현실을 못 이겨 이혼을 하기도 했다.

이승만 박사가 1913년 1월 처음 하와이에 왔을 때 사진결혼으로 미국으로 왔다가 집을 나와서 노동자 숙소에서 따로 살고 있는 다수의 여성을 보고, ‘스잔나 웨슬리홈’에 기숙시켰다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1915년 3월 25일자 신한민보에는 ‘사진결혼의 이해’라는 논설에서 “남자들은 혼인할 때 …… 자기보다 승한 여자와 혼인하면 평생을 치마 밑에서 욕을 면치 못 한다”고 하여 그 당시 자신을 속이고 과분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런 중에도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불운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편을 단순 노동에서 기술 직업으로 바꾸도록 격려하는 등 진취적인 생활 태도로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 또한 더 좋은 조건을 찾아 함께 본토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도시로 이주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등 본토에서도 이민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 이민여성의 생활상



1914 사진결혼 모습(맨 왼쪽 흥언)

온 부인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이 잦아 건강이 많이 저하됐다. 일부 여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20명, 30명의 홀아비 노동자들의 밥과 세탁을 위해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고된 생활을 했다. 1903년 하와이 파하라 농장에 예를 들면 남자가 42명에 여자는 단 둘이었다. 42명의 밥을 짓고 옷을 빨고 다리는 등 여자들은 한국에서와 다른 일을 하였다.

초기 이민여성에게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사진혼인으로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한데서 오는 불화, 백인 남자들에게 받는 갖가지 모욕과 폭력에 대한 공포였다. 한인 농장 이민들에게는 세 가지의 규칙이 있었는데 ‘동포애의 강화’ ‘여성의 존중과 보호’ ‘캠프에서 부도덕한 여자를 허용치 말 것’이었다. 세 가지 규칙 중 여자에 관한 규칙이 둘이나 있었던 것은 혼인하여 온 사람이 많지 않았던 당시, 여자로 인한 문제가 많았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쌀농사를 짓던 초기 이민들은 백인들의 난폭한 협박 때문에 밤에는 일체 외출을 삼가고 여자들의 경우는 당연히 더욱 조심했을 것이다.

한국인 생활을 목격하고 통역으로 일했던 현순이 쓴 ‘하와이 유람기’에는 당시의 집 구조를 설명한 부분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주거 가옥은 목제 가옥으로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10여 개의 방이 있었다. 한방에 5-6명이 동거하게 하고 처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방 하나를 주었다 한다. 남편을 따라

## 여성의 교육과 독립정신

동반한 초기 이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교육이었다. 학교교육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조국에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었다. 1916년 2월22일자 신한민보는 ‘재미 한인의 여자 교육방침’이라는 사설에서 어머니에게 첫째 단체의 공고, 둘째 민족의 번식, 셋째 자녀에 대한 자국정신 함양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이민초기 가난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국내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 등에 여성들은 여러 번에 걸쳐 의연금 보냈다. 1919년 여성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의연금을 모집할 때는 아기를 업고 다녔다. 뜨거운 땀방아래 아이를 등에 업고 걸리며 멀리 떨어져있는 각 농장을 방문하며 모금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초기 여성들은 Ellen Stark Ford Home에서 미세스 레익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영어 및 재봉 등의 교육을 받았다. 조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스스로의 지위 향상에 애썼다. 배운 재봉기술로는 자신의 옷과 아이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



이민의 한인여성들은 자신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러다보니 서로 간에 조국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며 여성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 부인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뜻을 둔 대표 격 여성들이 모여 각 지방별로 부인회를 조직하고 그 지방 여성들은 모두 부인회에 가입했다. 초기의 한인여성들은 3.1 운동 이후 조국을 위해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칠 것도 결의했다.

대표자들은 조국의 형제들이 일제치하에서 능욕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미주의 여성들은 자신의 사치에 골몰하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을 가하면서 모든 한인 여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국광복운동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로 한인 부인회가 조직되자, 1914년에는 새크라멘토에서 한인 부인회가 조직됐다. 1917년에는 북가주 맨티카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활동한 부인전도회가 생겼고 1919년에는 중가주 다뉴바에 신한부인회가 조직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3.1 고무된 각 지역 부인회는 함께 연합할 경우 그 세력이 더 커진다는 뜻을 두고 인근지역끼리 통합, 또는 전체 연합회 등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

“미주 안에 몇 개 부인회가 있으나 그들이 합하지 않으면 힘이 약할지니 반드시 합동하여 한 개의 통일 단체를 만들고 그로써 조국 광복에 대한 우리 부녀들의 운동을 강화하자”고 외치면 1919년 5월 18일에 새크라멘토의 한인부인회와 다뉴바의 신한부인회가 먼저 하나로 합쳤다.

부인회 통고문이 발표되자 1919년 8월 2일 다뉴바,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윌로우스 부인회 대표자들이 다뉴바에 모여 합동 발기대회를 열었다. 이 연합 단체의 이름은 ‘대한여자에국단’ 또는 ‘대한부인애국단’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체가 여성들만의 힘으로 조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

캘리포니아 최초의 한인단체는 1903년 9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가 조직한 한인친목회였다. 이 단체는 1905년 공립협회로 확장되어 독립운동 및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 12월에는 친목회 발기인이었던 장경은 공립협회에서 나와 교육진흥을 목적으로 김미리사, 김우제 등과 대동교육회를 설립했다. 1908년 3월 대동교육회는 정치적 목적에 가까운 대동보국회로 확대되었다.

대동보국회 결성에 이어 1908년 5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 최초의 한인여성단체인 한국부인회(The Korean Women's Association)가 설립된다. 샌프란시스코 거주 ‘미스 레익’의 집에서 한인 부인들이 모여 조직했다.

한국부인회가 조직되던 날은 샌프란시스코의 남자 동포도 수십 명이 참석했다. 회의 진행과 ‘여자의 의무와 사회권한’이라는 주제



연설이 3시간에 걸쳐 있었다. 김미리사가 창립취지를 설명하고 집주인 미스 레익이 오르간을 치고 한국아이들이 영어로 찬미가를 불렀다. 설립취지는 자녀들의 국어교육장려, 교회사업후원, 정치시비 불간섭, 동포간의 친목증진이었다.

회장은 대동교육회와 대동보국회 유일한 여성 발기인이었던 김미리사가 맡게 되었고 대동보국회 주도인물 장경, 문경호, 이민식의 부인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중심의 재미 교포사회가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로 나뉘어 다소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기에 부인들은 부인회만큼은 정치적 시비를 초월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한국부인회는 조국에 있는 고아원을 돕기 위해 연필을 판매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조국의 얼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동포간의 친목 증진에 힘썼다.

1917년 3월29일 캘리포니아 주의 수도 새크라멘토에서 대한민국 민회 사업의 하나로 일본 물건을 배척할 목적으로 한인부인회가 조직되었다. 회장은 양계현이 맡았고 재미여성들도 광복사업에 동등한 국민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조직되었다. 한인부인회가 후원하기로 한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5월10일 조국광복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시베리아 만주까지 지방총회를 두었고 116처에 지방회가 있었다.

1919년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는 7월9일부로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왜적의 학살과 능욕을 받는 내지 동포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일본의 큰 죄악을 교정케 해달라.”는 청원서를 대한부인애국단 이름으로 내기도 하였다. 통합된 대한부인애국단이 결성되기 전이었으나 국민회 산하 활동이라는 의지아래 다 같이 통일된 부인애국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각 지방의 부녀들은 부인애국단의 이름으로



영수증

50~100

많은 300~400달러의 애국금을 모아 국민회로 보냈다. 신한민보는 부인애국단이라는 독립된 명칭으로 애국금 납부자 이름을 신문에 게재했다. 3월24일에서 7월31일까지 납부자는 약 150명이었는데 당

시 재미 부인수가 약 100명이라 하였으니 상당수가 2회 이상 납부한 셈이다.

그 가운데 10달러 이상 낸 사람이 무려 90여명이며 30달러이상의 고액 납부자는 13명이나 되었다. 애국금 모금은 재미여성들의 항일 광복운동을 위한 대동단결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인회 운동은 여자전도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자전도회는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지회를 둘 만큼 세가 확장되었다. 북가주 새크라멘토 근처에 위치한 맨티카에서는 1917년 3월5일 타지에 전도사를 파견하여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여자전도회’또는 ‘대한인부인전도회’라고 불리던 여성단체가 조직되었다. 한신애, 김중생, 최돈신, 전순희, 김원도, 강유신이 대표 발기인이었다.

한국부인전도회는 회무를 확장하기 위하여 3월 17일에는 일반 등사 기계까지 구입하며 조직을 계속 발전해 나갔다.

단체는 19세기말 한국인에게 개신교가 전파된 이후, 한국여성  
이 중심이 되는 능동적인 복음전파사업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자전도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남자와 여자는 본  
래 동등함으로 여자도 남자와 같이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도 세우고  
자선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기문을 발표했다. 단순한 종교 활  
동적인 조직이 아닌 여성의 평등을 촉구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내시고 또 여  
자를 내신 것은 남녀평등을 허락하심이라. 그러므로 지혜를 같이  
주시고 복도 같이 주사 막달라 마리아는 구주 당시에 유명한 일  
군으로 쓰시고 여왕 빅토리아는 근세 맹주의 권력을 맡기셨으니  
이를 보면 여자가 원래 남자의 아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신성한 민족 이천만 동포의 반수를 차지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도장 방 작은 천지에 갇혀 들어앉아 다만 흥분을 일삼  
으며 머리를 숙여 인류사회의 한 부속물이 되었느냐. 과연 가없  
은 일이다.(중략) ……

지금에 와서는 서로부터 동으로 밀쳐 나오는 풍조가 수천 년  
단은 문을 깨쳐 놓으매 모든 기회가 여자를 위하여 열려 남자가  
교회를 설립하면 여자도 교회를 설립하고 남자가 학교를 세우면  
여자도 학교를 세우고(중략) ……

우리 재미한인 여자는 단출한 살림에도 바느질도 안 하고 10  
년 동안 귀한 광음을 보내었으니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중  
략) ……

그러므로 맨티카에 재류하는 우리들은 여자전도회를 발기하여 재  
미한인 자매동지를 부르나니 정성이 같고 이 같은 자매동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스러운 일군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한인들에게 뿌리 깊은 유교적 사고방식이나 당시의 사회적인 인  
습에 비추어볼 때 여자전도회가 낸 위의 발기문은 획기적인 내용이  
었다. 이 발기문이 신문에 게재되고 각 집에 부인회와 부인들에게

공문이 전달되자 제일 먼저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한인사회에서 대동단결은 매우 힘들었는데 목적을 일치하여 단결을 도모함은 동포의 행복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일반 부인회가 종교적 단체에 이처럼 쉽게 호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재미동포 대부분이 교인이거나 또한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여성이 평등적인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1936 대한여자 애국단 창립 17주년 기념

초대 회장직으로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 회장인 양제현으로 선출한 것 역시 여성계의 단결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전도회는 1917년 4월 15일까지 발기자를 모집하고 5월 24일 통신선거를 통해 회장 양제현, 부회장에 김자혜, 서기 강유신, 회계 한신애, 간사 김현도를 선출했다. 그해 9월 스타튼 부근에 거류하는 17명 부인들이 많은 연보를 기부하는 등 각처에서 지원과 호응도가 컸다.

1919년 미주 내 여성단체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도회는 사업을 중단하고 1927년부터 다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시작했다.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회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종 환영회나 결혼식이 있을 때 행사에 음식을 장만해 주어 수익을 재정에 보태 1931년 결산 때는 118달러나 남아 있었다. 1931년에는 만주사변으로 헐벗고 있는 교포들을 위해 시내 각 세탁점과 가정을 탐방하여 의복을 수집해 만주로 보내고 조국의 어려운 동포를 구제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펴나갔다.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한여자 애국단은 1919년 8월 5일 다뉴바에서 창립된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민이 처음 시작된 하와이에는 1903년 1월 13일 도착한 101명을 선두로, 같은 해에 1천133명, 1904년에는 3천434명, 1905년에 2천659명 등 2년여 동안 총 7천226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15회에 걸친 이민 모집에 모두 65척의 배로 이주해 왔다. 6천48명이 남자였고 637명이 여자, 541명이 어린이였다.

그러나 983명은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고국으로 되돌아갔고, 하와이에 있던 많은 한인들은 1904년부터 미 본토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약 1천 3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철도 공사장, 어업, 광산 등에 일거리를 찾아 미 본토 서부지역으로 들어왔다. 그 외에도 농장 등의 일거리로 들어온 한인들도 많아 하와이에서 온 한인들의 숫자는 약 2천명에 이르렀다.

1905년 11월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해외한인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하와이 노동이민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고종황제의 명으로 세워진 수민원은 예산이 없어 설립 11개월 만인 1903년 10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이민개발회사도

1905 4월에 내려진 해외 이민금지령과 함께 폐업했다.

일본이 한인들의 하와이 이민을 금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하와이에 먼저 들어와 세를 형성하고 있던 일본기업가들, 노동자들이 한인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해 일본정부에 한인 이민 금지를 요청한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일전쟁으로 부족한 인력을 한국 사람으로 대치하였으나 전쟁이 끝나면서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 계속 이민금지에 대한 압력을 넣은 것은 해외 한인들의 반일사상을 금지하려는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 노동자에 대한 배척이 매우 심했다. 이와 관련 1907년 3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와이의 일본인과 한인 노동자들을 미주 본토로 이주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제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 또한 미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정부의 여권을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다. 이에 따라 1907년 11월부터는 한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해야 했다. 1910년 미국 관계당국에서 조사한 한인인구는 하와이 4천533명, 미 본토에 461명이었다. 본토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11년에 이민 온 한인은 불과 8명에 불과했다.

이민이 중단 된지 5년 후 대한인국민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국으로 돌아간 남자가 946명, 여자가 19명이었고 사망자는 45명이었다. 하와이에 계속 체류한 수는 4천187명이고 하와이 출생 자녀수는 107명이었다. 미국본토로 이주한 한인들은 철도회사나 농장에서 일할 기회가 많고 보수조건도 좋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1910년까지는 적어도 2천~2천500명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정착했다.



1922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뱃놀이 하는 오클랜드의 한인들

1918 1922년까지 197명의 사진 신부가 미국으로 왔으며 정치적 망명객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1천명이 왔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상당수가 여권 없이 한국을 탈출하여 도미하였는데 이들을 한국에서는 ‘피난학생’으로, 미국에서는 ‘신도학생’으로 불렀다. 이들은 국적이 없는 형편이므로 대한인국민회가 보증하여 입국을 허용 받았다

1921년부터는 일본의 한국통치 형태가 무관에서 문관으로 변해 한인들에게도 일본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때부터 1940년 사이에 온 사람의 수는 289명. 일본은 한인 유학생에 대한 감시를 통해 공부나 등한시할 경우 곧바로 귀국토록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5%에 달한다.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0~41년 사이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성경책을 사기 위해 온 목사 2명과 유학생 2명 등 4명이 전부였다.

1940년 외국인 등록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8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게 되는데 총 474만 1천명이 미국 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6년부터 미군과 결혼한 외국인 부인들이 도미하기 시작하고 해외주둔 미군부대 및



관계있는 사람들, 유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정착했다. 한인의 경우 1959년부터 1969년 기간에는 총 3만3천518명이 이민 온 것으로 되어있다.



1922 7월 2일 샌프란시스코 근교 Mill Valley 한인들

### 나타난 한인인구 조사 및 이민 커미셔너 미 상원 제출 자료

- ◆ 1900년 초: 남자 165명, 여자 3명 등 168명.
- ◆ 1903년부터 1924년: 남자 6천725명, 여자 675명 총 7천400명.
- ◆ 1905년에는 일본의 방해로 노동이민 금지됨.
- ◆ 1906년부터 1910년: 남자 182명, 여자 40명 등 222명이 이민.
- ◆ 1907. 3.: 이민법의 개정으로 하와이, 캐나다, 남미 등의 지역으로부터 동양인 미 입국이 금지됨.
- ◆ 1907. 5. 31: 당시 상향 총 인구는 40만 명, 학생 7만5천명.
- ◆ 1907. 6. 21: 멕시코 한인 숫자 1천명 기록.

◆ 1910 1924년: 900명 정도의 여성이 하와이나 미국 본토로 왔는데 남편이 부인을 초청한 경우나 사진결혼, 유학생 또는 망명객이었다.

◆ 1917. 12. 13: (신한민보 재미한인 통계) “가주와 가주 부근에 사는 성년자로 통계는 1천127 명이니 동부 각처에 숨어 있는 자와 부인 및 미성년자를 합하면 전체 재미한인 인구는 너넉잡아 2천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하도다.”

◆ 1920년까지 고국 향수를 못 이기고 또는 병에 걸려 귀국한 한인은 1천 명 가량이었다.

◆ 1916년 미 센서스 통계: 총인구 1억568만8천200명, 미주 대륙 한인 1천224명

◆ 1924년에서 1945년까지: 유학생 외에 아시아 이민이 전면 금지, 300명 유학생만 도미.

◆ 1930년 미국 인구조사: 한인은 하와이에 6천461명, 본토에 1천916명 등 총 8천332명, 10년 뒤인 1940년에는 8천568명으로 그때까지 미주 한인 총 인구는 1만 명도 안 되었다.

◆ 1948년부터 1950년 사이 미국에 입국한 한인은 107명이었다.

◆ 1950년에는 하와이 약 7천명, 미 본토 약 3천명 등 총 한인인구 1만 명 추정.

◆ 1950년부터 1964년 사이: 미군과 결혼한 한인여성 6천423명, 입양고아 5천348명, 유학생 또는 의사나 과학자로 미국에 왔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3천278명 등 모두 1만5천49명이 미 이민자가 됨. 이 기간 동안의 한인 이민에서 전체 숫자 중 남자는 30%가 채 안됐다.

◆ 1965년: 새 이민법(하트-셀러법) 실시. 매년 태평양 연안 국가(각 국가 당 2만 명 쿼터)에서 17만 명, 유럽국가에서 12만 명의 이민을 수용한다는 법이 통과됐다. 1975년 이후 한국에 할당인원은 3만 명으로 늘어났다.

## 이민의 귀국

이민들은 힘든 노동에 지쳐 고향을 그리워하여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다.

부인과 자식들을 두고 혼자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딱히 낙이 없었던 이들은 피곤함과 외로움을 잊으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빚을 얻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둑질을 하기도 했다.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 모은 다른 한인들의 돈을 훔쳐 사라지거나 귀국해 버리는 경우가 생겼다. 어떤 이는 농장 사람들이 모아둔 돈을 털 후 도망가기도 했다.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고국 향수병에 걸리고, 고된 노동과 낮은 생활에 회의를 느껴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병을 얻어 귀국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1905년 제국신문과 1906년 경향신문에는 미국에서 돌아오는 한인들의 기사가 자주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병에 걸려 부득불 귀국하게 되는 이민들에게 이민회사 측에서 배려를 기울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행처럼 한인사회에 번지자 미국 내 한인 대표단체 국민회의 기관지 신한민보는 1909년 10월13일자에 ‘귀국자에게’라는 사설 등 여러 차례의 글을 실어 귀국을 만류했다. 또한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눈물로 떠났던 고향에 돌아가 보니 모국 동포에 대한 실망과 실업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사람의 경험담을 보도하기도 했다.

◆ 1909. 4. 7: 귀국하고 싶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 비독립 무귀국가

독립이 아니면 돌아갈 나라가 없다. 누구든 돌아가고 싶지만은 나라 없고 집이 없으니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기다렸다 독립이 되면 돌아가고 강개한 음성으로 귀국가나 한번 불러보자.

‘            ’ “도라가세 도라가세 재미동포 도라가세 (중략) / 자유  
종을 크게치고 독립기를 높이들어 / 유진무퇴 하올직에 귀국하세  
귀국하세 (중략)

◆ 1909. 10.13: ‘귀국자에게’ - 좋은 기회를 값없이 버리지 말아  
라.

“청인은 캐나다까지 오는데 입국세로 오백 원씩을 들여서도  
온다.

이 미국은 세계에 유명한 황금세계라. 한 시간 노동이면 대한  
돈으로 엽전이 닷 냥이오, 하루 일만하면 엽전 편으로 40량이고  
한 달이면 황금을 한줌 쥐여 주노니 동양 천지에 무엇을 하여야  
이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동양 이민이 막힌 후 노동자의  
자격으로는 천금을 허비하여도 미국에 받을 붙일 수 없으나 귀  
국코자하는 자에게 특별히 권고 하노니 제발 가지 마시오. 가려  
거든 돈이나 남과 같이 좀 많이 벌여 가지고 가기를 바라노라.  
3, 4백 원을 넘기지 못하고 가는 이유가 부모처자의 정 때문이  
라 하나 결단코 경솔히 귀국하여 다시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헛  
되어 버리지 말기를 바라노라.”

## 통해 본 북가주 이민사회상

당시 한인들은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지명을 자신들이 부  
르기 쉽게 지어서 사용했다. Honolulu는 호항, San Francisco는 상  
항, Los Angeles는 나성, Washington DC는 화부, Riverside는 하변,  
Salt Lake City는 염호, Sacramento는 삭도, Mexico는 묵국. 블라디  
보스톡은 해삼이 많이 난다고 하여 해삼위라 불렀다.

◆ 1907. 9. 20: 샌프란시스코에 흑사병이 발생하였다.

◆ 1907. 10. 4: 새크라멘토에서는 청인지역에 자주 내왕을 하면  
서 항상 아름답지 못한 일이 많은 고로 그곳에 거류하는 동포들이

거류지에 내왕치 못하는 규칙을 정하였다.

◆ 1907. 10. 11: 상항에 흑사병 예방에 주의하여 경찰관리가 각 음식점을 검사하고 청결법을 시험하며 쥐를 잡는 대로 1마리에 10 전씩 주고 산다더라

◆ 1908. 1. 15: 상항부윤 텔라씨는 피선한 이후 풍기를 숙청하기에 진력하여 일인의 매음가는 청인거주지로 쫓아내어 상항 시내가 깨끗하여졌다.

◆ 1908. 5. 20: 새크라멘토에 우리 한인의 집이 3처가 있더니 그 간에 큰집 하나를 출세하여 그 안에 공립대동량회사 사무소와 미순전도서(전도하는 곳)와 여관이 모두 같이 모여 지내는 형편이 매우 아름답다 하더라.

◆ 1908. 9. 9: 본 회관에서는 왕래하는 여러 동포의 숙식을 편리케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사오니 조량하시옵. 새크라멘토 공립관 사무원 윤경학교백. 406 O St. 새크라멘토 아편 하는 동포가 있다.

◆ 1909. 2. 17: 상항 국민회관에서 이상보다 실행이 귀하다는 문제로 이대위, 정원도, 송중익 토론하였다.(당시에는 매주 토론이 있었다.) 일이 없는 상항의 한인들이 오클랜드 청인의 소굴로 와서 잡기에 빠진다.

◆ 1909. 3. 24: 오클랜드에 사는 자들은 무뢰방탕한 자들이 많다. 알라스카에 가는 선급을 다 털리고 도망한 한인들이 있어 청인 일인이 신한민보에 신고하다.

◆ 1909. 5. 26: 함경남도 문천군에 흉년을 당하여 미주에 있는 동포가 구제금을 모집하고 와이오밍의 서페리오와 래울린스의 동포들이 모금하여 보냄.

◆ 1909. 6. 2: 상항 현재 인구가 외국인을 빼고 60만인데 3년 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 1909. 10. 6: 한인의 악습을 슬퍼함-음식점에서 빚진 것들을 부끄러워하라. 회개하라.

“ 자(아편)와 붓치는 자(노름)에게 경고 하노라” - 양두학.

아편을 빨고 청인의 테이블에서 노름하는 자들에게 애끓는 호소  
“세계상에 아픈 병이 많지마는, 나라 잃고 갈 데 없는 우리보다 더할 자 없으며 슬프고 가련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지마는, 남의 노예 된 우리보다 지나칠 데는 없도다 …… 목이 마르도록 여러분께 비옵거니와 노형네가 빨고 붓치는데(노름) 해를 돌보지 않고 하더라도 특별히 부탁하니, 타국사람 속이고 외상 밥과 외상 잠이나 조금 자고 먹지 마시오. 모 지방에서는 한인이라 하면 고개를 흔들면서 돈 주고도 밥을 사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다. 개중에 말하기를 너희 한인이 전방에서 몇 원 지고 아무 여관에 줄 밥값이 얼마라 하니 어서 바빠 회개하고 신문도 사보아 사회를 아시오. 사회에서 출세하여 망한 나라를 건져서 우리 자유 복락을 누리기 비노라. 빨고 붓치는 동포들이여.”

◆ 1910. 11. 29: (대도) 한인구락부 - 상항에 재류하는 청년동포들은 돈독히 하는 뜻을 도타이 하기 위하여 구락부를 조직하고 와일니 예비뉴 28호에 신설한 구락부집에서 새 구락부 여는 예식을 행하였는데 예참한 인사가 많더라.

◆ 1913. 6. 30: 상항 인구는 현재 50만 5천652명으로 작년보다 2만3천722명이 늘었다.

◆ 1913. 7. 4: 상항 지방정부에서 놓은 기어리 St. 전차는 지난 달 26일부터 페리 정거장까지 통하였는데 첫날 수입이 1천1백 96원 75전으로 수입이 매일 증가하는 모양이다.

미국 군사들은 독립일에 굉장히 논다. 우리도 그날을 한번 보면 죽어도 한이 없겠네.

◆ 1913. 10. 13: 미주에 처음 되는 일 - “우리 북미총회에서 사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동포들에게 의무금을 5원씩 거두는데 남자들은 벌써 몇 회를 그의 의무를 다하였으되 부인 가운데서 한사람도 아직 의무 관념을 하는 이가 없더니 근일에 도부인 인성씨가 먼저 남

동등권리를 생각하고 부인중에 처음으로 의무금 5원을 내었으니 이는 미주 부인중에 처음 되는 일이더라”

◆ 1913. 11. 21: 오클랜드 시는 술과는 세를 5백 원에서 1천 원으로 올리고 내년 7월까지 396개 술집을 200개만 되게 하려한다.

◆ 1914: 상항지방회에서는 18일 토요일에 ‘재미 한인은 교훈보다 성취를 먼저 할 일’로 성취론에 손병현, 교훈론에 조병옥이 연설을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박람회에는 29개국이 참가하였다.

◆ 1915. 7. 12: 스타톤의 오진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용만을 모욕하고 9월28일 소노마선편에 하와이로 쫓아 가다가 30일 물로 투신하였다. (안창호를 추종하던 그는 호텔 방에 침입해 박용만을 저격했으나 부상만 입히고 이승만을 암살하기 위해 하와이 행 배를 탔었다.)

◆ 1916. 4. 27: 5백만 년의 진주발견 -“산호제 사람으로 스탠포드 대학 지질과 학생이 4월 20일 지질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진주를 발견하였는데 어림컨대 진주의 발생이 5백만 년이 되었더라. 장래 스탠포드 박물관에 진열하여 연구 자료를 삼으리라 하였더라.”

◆ 1916. 8. 10: 6일 맨티카 지방회에서 동지방 한인 부락을 자치를 위해 한인경찰 1인을 두기로 가결하고 동 지방 경무청에 교섭위원 문양목, 황사용, 한장호, 최능익 4씨를 선정하였다.

◆ 1916. 9. 28: 샌프란시스코 박람회 회장 안에 수족관 건축 준비/금문공원에 거주 박물관 9월22일 개막.

◆ 1916. 9.30: 상해로부터 한인 16인과 부인 및 여학생 10인이 샌프란시스코 도착하였는데 3인을 돌려보내고 11월15일에 도착한 25인중에 12인을 불합격이라 하여 환송하였다.

◆ 1917. 3.15: 거주 외국인 21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4원의 인두세를 받자는 의안 통과.

재미 한인과 차이나타운 - 차이나타운은 이미 미국사람이 우리보

먼저 알고 지옥이라고 하였다. 병신을 만드는 아편연이오 거지를 만드는 노름판이오 파락호를 만드는 매음굴이니 ……

마귀로다. 차이나타운을 끊을지어다.

◆ 1917. 3. 15: 스타톤 도박 박멸안-지방 경찰관 홀프씨는 범죄의 대부분 원인이 도박으로부터 생긴다 하여 도박에 대한 엄중한 법례 제정의견을 발표하여 시에서 조례를 제정

◆ 1917. 3. 22: 삭도지방 자치경찰원을 김찬일씨로 정하고 경무본소에 한인자치경찰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인치안에 관한 사항을 교섭하는 중 이라더라.

◆ 1917. 5. 17: 스타톤의 박영오는 합스농장의 도급을 맡고 농장주에게 돈을 얻어 고국에 여자에게 선포(배싯)를 보내고 신한민보에 배 광고만 찾아보아 마음 조이고 손꼽아 기다리던 때에 불량한 술친구 김영호의 총에 맞아 죽었는데 김영호는 9일 법정에 초심을 받았다.

(스타톤 감옥에 갇혀있던 김영호는 수염 깎는 칼로 감옥에서 7월 8일 자살했다.)

◆ 1917. 5. 24: 스타포드 26차 졸업생 4백 29인인데 의학박사 22인, 철학박사 6인이었다.

◆ 1917. 5. 24: 재미 한인은 매일 2원 50전 내지 3원 4원을 받는데 한국 돈으로 5원 6원 8원이오 한 달이면 2백 원으로 각도 지방관에 비길 수 있으므로 저축을 못하는 사람은 내지 동포의 가난을 생각치 않는 사람이다.

◆ 1917. 6. 7: 상항 장정 등록 발표-등록자 전수는 6만인데 합격자는 5천

◆ 1917. 9. 13: 스타톤 부근에 채용하는 동포 17인은 부인전도회를 위하여 많은 연조를 기부하였으므로 동 부인회는 매우 감사히 여긴다더라.

◆ 1917. 11. 8: 새로 제정한 전시 과세법-11월 2일 이후 우편물



시내편지 2전, 시외는 3전 엽서는 어디든지 2전.

◆ 1917. 11. 15: 상항 술집은 점점 감소-2년 전 2천100호, 본년 6월에는 1천826호, 현재에는 1천768호.

◆ 1917. 11. 22: 샌프란시스코 ‘썬던 퍼시픽’철도회사와 오클랜드 나룻배 ‘키우릿’류션회사의 전차비와 선세 증가 교섭-선세는 한 달에 3원에서 5원, 낫당은 10전에서 15전.

오클랜드 각처의 차비는 6전으로 키우릿 회사는 6전짜리 백동전 주조를 청원함

◆ 1918. 1. 31: 상항 일본인회는 자기네 영사관의 지령을 받아 상항 체류 조선인을 조사하였다. 남자 230인, 여자 25인, 남아 19인, 여아 20인.

◆ 1918. 3. 14: 새크라멘토 리경애, 김석은, 권영복 3부인이 지방회 통상회 국민회에 입회하여 일시 동등권을 누리고 밖으로 국가사업을 돕는 가히 공경할 만한 일시오.

◆ 1918. 3. 21: 본국편지에 돈 넣지 마시오. 검열되면 압수.

◆ 1918. 3. 21: 멕시코 메리다 대한국민회지방회는 개량 혼인법을 발표 (결혼 연령을 남자는 18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으로 하고 국민회의 혼인증서를 얻은 후에 결혼할 것 등의 법)

◆ 1918. 4. 4: 근일 상항의 거리마다 전시상황이 팽창하여 마켓 St.에 해륙군대의 행렬.

◆ 1918. 5. 24: 본항 한인 교우의 하루 소풍-“샌프란시스코 한인교우는 골든게이트 독립방초에 야외예배를 행하고 점심과 운동 유희를 하고 석양에 돌아왔다.”

◆ 1918. 8. 8: 전시의 미국은 사탕 절용 법규를 제정 실시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사탕 생산량이 평년보다 1천300만 파운드가 부족하게 되자 새크라멘토 사탕감독관은 8월1일 부터 한 주일 동안 상오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K St.에서 사탕카드를 주는데 카드를 받지 못하면 이 달에는 사탕을 살수가 없다. (코피 맛은 점점 쓰다-

8 1일부터 매 사람 당 한 달에 두 파운드를 쓸 수 있다. 각 요리 점은 아흔 번 식사에 두 파운드를 나누어 써야한다.)

◆ 1918. 8. 22: 지난 1일부터 전쟁으로 인한 전기 절용 명령에 의하여 각 상점은 밤에 전기를 철폐하고 마켓 St.에도 드문드문 전등이 서게 되어 광채 찬란하던 샌프란시스코는 컴컴하기 짝이 없다.

◆ 1918. 8. 22: 일반 외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는 미국 여행권을 휴대하기로 9월 15일부터 실시된다. 그러면 우리 동포는 이제 일본 영사관 출입을 할 필요가 없다.

◆ 1918. 8.29: 맥스웰 근처에 계신 여러분께 -“윌로우스 맥스웰 윌리엄스 콜루사 각처에 헤어져 계신 여러분께 고하옵나니 8월 29일은 국치기념일인줄을 여러분이 임의 아시는 바 이곳은 한곳에 모여서 이 옥된 날을 기념하기가 심히 어려운 곳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용진 분투하는 맘으로 같이 모여서 곁은 일을 함께 지내기를 바라나이다. 자동차가 있는 10여 동포가 운전을 해 줄 것이다 (시간은 하오 5시30분에 장소는 김종립씨 사택으로) 임시위원 윤운호, 최능익

◆ 1918. 9. 5: 미주에 다년간 유하든 리창서씨는 지금 60세여 세로 노년으로 친척도 없다.

구제할 방침은 연조를 구하니 …… 환국케 하거나 양로원에 입원시키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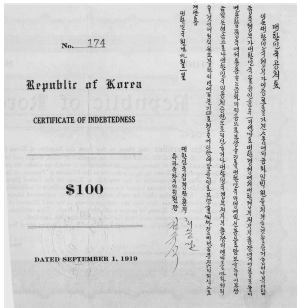
1020 3rd St. 새크라멘토 수전위원(모금위원) 리옥형

◆ 1918. 11. 21: 신한민보 창간 13주년 기념 연설 -“1906년 상항의 대지진을 만나 석판이나마 인쇄 기구를 불 속에 묻고 겨우 오클랜드로 건너가서 속사판으로 서너 호를 출판하여 겨우 우리 동포의 조난소식을 전하니 본보의 당한 경우가 동정을 재촉하였다. 광무 11년 4월부터 오클랜드에서 활자신문을 발행하다 동년 6월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들어왔다.”

◆ 1918. 12. 5: 북미 총회는 중앙총회의 훈시를 받들어 각처에

(돈 걷는 의원)을 파견하였는데 캘리포니아를 세 길로 나누어 새크라멘토로부터 각 벼농장에는 총회장 이대위씨, 맨티카와 다뉴바에는 김성권씨, 스타튼 트레이씨에는 김영훈씨를 파견.

◆ 1919. 8. 28: 8월28일 새크라멘토 지방회에서는 상의원 스벤서, 매크믹 양씨에게 전보를 보내 그들의 한국을 위하여 말한 일을 감사하였다.



발행한 공채

◆ 1919. 10. 16: 구미위원부위원 김규식박사가 샌프란시스코 국민회관에서 시국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국민회가 협력하여 공채와 애국금을 실행하라고 하였다.

◆ 1924: 북가주 스탠포드의과에서 수업하는 한영대는 특대실험생으로서 수년동안 황백흑 3인종의 혈액을 연구 하더니 금 5월초에 황인의 혈장을 백인의 혈액에 주사하여 병증을 완전 치료하여 실험의 효과를 성공하였다.

◆ 1936. 11. 14: (The Korean Student Bulletin 기사)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다리 기념식에서 한국 사람들이 상을 탔다.

◆ 1941. 4. 20: 호놀룰루에서 한족대회를 열고 ‘재미한족연합회’ 조직

◆ 1941. 12. 1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경에서 대일 선전을 포고하고 민주주의 국가 연합 전선에 참가하는 통고문을 미, 영, 중, 소 4개국에 보냈다.

◆ 1942. 4. 16: 국민청년부는 예년과 같이 상항에서 대회를 소집하여 각 지부대표와 2세 청년 56명이 모였다.

◆ 1942. 6. 25: 상항 오클랜드 재류 한인은 노인 어린이까지 백여인에 불과하고 이번 맥아더일 경축에 50여인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상항 오클랜드 한인의 총동원이다.

◆ 1942. 7. 9: 재류 한인은 7월 7일 상항 재류 중국인이 항전 5주년 기념행렬을 거행할 때에 제5위로 참가하였고 그 참가 상황은 통신을 기다려 게재할 터이다.

◆ 1942. 8. 13: 상항 오클랜드 한인 경위대는 그동안 완전 조직이 되어 27인에 달하였고 매 일요일 하오 2시부터 4시, 수요일 하오 8시부터 10시 매주일 2차씩 상항 군장고 ‘아모리 홀’에서 훈련을 받으며 소유 군인이 지장인을 찍어 거주 경위군 사령부로 보내어 군적에 등록하는 동시 한인 경위대 관허장 청원서를 거주 정부에 제출하였고 불원간 허장이 나오면 상항 오클랜드 한인경위대 또한 무장을 갖추어 가지고 나성 한인경위대와 보조를 같이 할 터이라고 한다. 남가주 맹호와 북가주 맹호가 합치면 그 성세가 더욱 커지겠고 여호 무리는 더욱 진을할 터이다.



1942 8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시청 앞 현기식 장면

◆ 1942. 9. 3: 상항 한인이 28인이 현기식에 참가한 것은 상항한인의 총동원으로 볼 수 있고 사업하는 이는 일주일 혹 2,3일씩 문

달고 온 것은 원수가 떼어 내린 우리 국기가 나성 시정청에 오르는 것을 보기 위하여 수일 영업의 이익을 희생한 것이라고 한다.

◆ 1942. 9. 17: 재미한족연합회는 8.29 로스앤젤레스 시청에 태극기를 거는 현기식에 참석한 각 지방 동포를 위한 환영만찬회를 열었다.

상항 통신원 김동우씨의 연설 “상항, 오클랜드 재류동포는 이번에 나성에 와서 현기식을 보고 몹시 기뻐합니다. 우리 2천3백만 동포가 오늘 국기 단 것을 알 것 같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순국한 선열의 영혼이 오늘 국기 단 것을 알 것 같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금일 현기식 거행은 생사에 다 같이 느끼는 일이올시다. 이왕에는 우리가 반기를 달고 국치를 기념하였지만은 오늘부터 우리는 국기를 달고 국치를 씻기로 결심합니다.”

◆ 1942. 10. 1: 상항시 당국은 공습을 피하고 차를 파킹하는 곳으로 쓰기 위하여 유니온 스퀘어 땅 아래 150만원 경비와 1년 시간을 들여 방공굴을 기착하는 준공을 하였다. 9월22일 하오 2시 승진위원회 주최로 낙성식 거행에 국민회 상항지방회에서는 청첩을 받았다. 차부인 에다여사와 백부인 캐더린여사와 김앨리스여사로 하여금 한국 옷을 입고 참가케하여 관중의 박수환영을 받았다 하더라

◆ 1943. 2. 18: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요 끝없이 계속하여 펴므로써 무궁화라고 한다.

◆ 1943. 2. 25: 북가주 상항 오클랜드에 있는 한국부인전도회는 한국광복군을 위로하기 위해 200여 원 위로금을 모아 중경으로 가는 선편에 보내 광복군 사령부에 드릴 예정이다.

◆ 1943. 12. 23(북미시보): 북가주 한인시국대회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었다. 진주만 습격이후에 북가주에 있는 한인단체는 11월 12일 상항감리교회당에서 시국대회를 개최하였다.

◆ 1946. 4. 27: 북가주 맨티카는 천여 에이커에 사탕무우 농작으로 우리동포 60여인이 집합한 큰 부락이라. 근일 교회와 국어학교

창설하고 30여인이 국민회 정신을 받들어 임시명의로 지방회를 설립하기로 작정하였다. 북미 총회에서는 4월 2일 지방회의 설립의 인준장을 발급하였다.

◆ 1946. 10. 24: 재미 상업회의소 상무부에서 남, 북가주에 방문하여 상업회의소에 존재를 알리고 박영섭, 한규동, 강영문을 월간 ‘블레턴’ 책임을 맡겼다.

◆ 1946. 11. 14: 오클랜드에 김은혜는 3833 텔레그래프 애비뉴 3층 가옥을 5만2천500원을 주고 사서 영업을 하고 리치원은 제5가에 있는 집을 5천원을 주고 사서 이사하였다.

◆ 1946. 12. 19: 최근에 돌아온 연합회대표 송종익, 김병연 양씨는 북가주 동포에게 고국 사정을 전달하기 위하여 12월27일 나성을 떠나, 송종익씨는 딜레노로 다녀오겠고 김병연씨는 그로부터 상향,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스타튼, 월넛그로부와 기타 지역을 심방할 예정이다.

◆ 1948. 2. 19: 상향에 사는 하희옥씨는 안영호씨와 그 빙모 김자혜가 경영하는 오클랜드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 1948. 3. 11: 하와이 호놀룰루에 사는 정두옥씨는 동부인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왔다. 아들 정남기하사가 작년 5월 전경무, 이한식과 같이 김포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오는 길에 동경부근 부사산에서 조난하여 정남기하사와 조난한 군인 10 명의 유해를 샌프란시스코로 운구하여 2월25일 산

부르노 군인 매장지에 안장하는 예식에 참여한 뒤 정부인은 동화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1948. 11. 4: 상향 부근 마운틴비우에 이사한 류일한씨 동부인은 새집으로 이사하여 온 후 일반 친우들과 기쁨을 같이하기 위하여 10월17일 하오3시부터 동 7시까지 하우스위밍파티를 개최하고 상향재류동포와 백인 친우를 요청하여 연향을 같이 하였는데 당시 참석한 인사가 50, 60인에 달하여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더라.

◆ 1948. 11. 25: 7년 이상 거주한 분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중앙 상무부 총무 최진하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상무부

◆ 1948. 12. 16: 한국정부대표 민희식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체류한인이 600명이 되는 로스앤젤레스에 영사관을 개설하고 120명이 되는 샌프란시스코에는 부 영사관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 1948. 12. 30: 미국은 남한정부 부흥 비용으로 1억 2천500 만 원을 지출한다고 하였다.

◆ 1951. 4. 25: 가주 고등법원에서 1913년 5월부터 32년간 내려오던 외국인 배척하는 토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 1953. 5. 2: 한국의 날로 지정하고 전 미국에서 한국전쟁에 피해자를 위하여 의복과 기타 구조 물품을 소집하였는데 각 신문의 광고와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과 각 도시 시장이 수포고하고 확인하여 수천만 달러 가격의 물품을 수합하여 한국에 우송하였다.



1882 한미조약이 체결된 후 한국정부의 친선대사 민영익 일행은 1883년 9월 2일 사절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 됐다. 민영익 일행은 영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 일본인 통역사를 두고 일행 중 유길준이 우리말을 일본말로 하면 일본인이 영어로 통역했다. 미국인 통역을 하던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온 로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유길준을 자기와 친교가 있던 모스교수에게 소개를 해 주었다.

덕분에 유길준은 매사추세츠에 셀렘 시에 머물면서 모스교수에게 4개월간 지도를 받으며 Dammer Academy에서 공부하였다. 미국에 남아서 관비로 공부를 한인 최초의 유학생이었던 그는 학업을 마친 후 유럽을 돌아본 후 귀국하였다. 그가 귀국하여 쓴 책 ‘서유견문’(서양을 방문하여 보고들은 것)은 개화기의 한국 지식층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 서광범, 박영효는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역적으로 몰리자 1885년 정치 망명객이 되어 샌프란



오게 된다. 주미 초대공사였던 박정양이 1887년 10월13일 부임하고 1888년에는 윤치호가 첫 정식 유학생 자격으로 도미하여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1891년 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절단으로 왔던 변수라는 사람으로 메릴랜드 농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변수는 그해 열차사고로 사망하여 워싱턴에 묻혀있다.

1892년 서재필은 한인 최초로 콜롬비안 대학(조지 워싱턴대학의 전신)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895년에는 첫 한인 여성 유학생으로는 에스더(김)박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입학, 5년에 걸쳐 수업하고 1900년에 귀국하여 개업의가 되었다. 서병규도 메릴랜드 농업 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김규식 박사의 경우는 고아가 된 4살부터 선교사 언더우드의 보살핌 속에 교육을 받고 1897년경에는 미국으로 유학, 1903년 로노크 대학을 졸업했다.

1902년에는 안창호가 유학생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왔으나 학업을 포기하고 한인사회 건설의 개척자로 활동을 했다. 이승만은 1904년에 도미하여 한인으로 처음 하버드 대학 출신이 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인 최초의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용만은 1904년에 도미하여 1906년 헤이스팅 대학에서 군사학을 공부하며 1909년에는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였다. 1910년에는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했던 인물이다.

그는 하와이 기관지의 하나인 신민국보 주필이면서 1919년에는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설립하여 군사적 정신고취에 힘을 쏟았다.

당시 대부분의 초기 이민들은 노동으로 생계유지에만 급급하던 때였으나 초기에 이민 온 윤병구, 안창호, 정한경, 박용만, 이승만 등의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생활과 사고가 크게 변하였다. 특히 안창호는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으나 미개한 한인들의 생활 상태와

보고 자신의 학문은 포기하고 한인들의 생활 문명화,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한인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정원에서 변소에 이르기까지 손수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에 살려면 배워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문명인으로 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강연과 훈화로 계몽하고 교도했다.

1890년부터 1905년까지 미국에 온 한인 유학생의 수는 64명이었다. 1910년 한일 합방 후부터 1918년까지 미국으로 유학 온 사람은 여행권 없이 도미하였는데 그들을 ‘신도학생’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신도학생회를 조직하기도 했는데 신도학생은 모두 5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0% 정도였다.

이들은 학업과는 별도로 재미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조국의 독립 운동을 후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1913년에는 콜롬비아 대학 한인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미진역에 있는 200여명의 학생들과 연결, 한국 책을 수집하였다. 또 강의 내용이나 전시할 한국 고유문화를 수집하여 도서관 성격의 ‘The Korean Culture Society’를 설립했다.

1915년부터 1916년까지 미국에 온 한인 유학생 수는 약 1백 명이었고 1921년부터 1940년까지는 189명 정도였다. 이들은 일본총독부 여권을 가지고 왔으며 기독교 계통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이 이뤄졌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소환이 되므로 취학 성적이 좋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5%였고 대학졸업생이 65%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학업이 끝나면 귀국하여 교육계나 종교계에서 활약하였다. 1929년 미주 한인 유학생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주 유학생 수는 미 본토에 313명(캐나다 45명 포함), 하와이 155명 등 472명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알고 있는 백낙준, 김활란, 고흥경, 장면, 한경직, 김재준, 송찬근 등이 당시의 유학생이었다.

1919년을 전후해 하와이를 포함한 미주 한인들의 전체 숫자는 약 7천 명으로 알려졌는데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1만 명이 넘지 않아 그 증가폭은 매우 미미했다.

## 단체와 그 활동

한인 유학생 단체는 1913년 네브라스카 주 헤이스팅 지방에서 박용만이 주동이 되어 만든 ‘동양한인 유학생회’로 초대회장에는 박처우였다. 샌프란시스코에는 1916년 10월 27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인학생 친목회’가 조직됐다. 1918년 8월 18일에는 중가주 다뉴바 지역에서도 학생단체가 조직됐다.

계속하여 여러 단체가 많이 생겨났는데, 이 단체들은 서로 미주 전체 한인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해 말썽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샌프란시스코 한인학생 친목회는 각 지방 학생회에 연락을 보내 1919년 9월 26일 연합회의를 갖게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자들은 한국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하여 1920년 4월 6일에 총회 결성을 위한 발기자 회의를 조직하게 되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의 발기자는 김현구, 김용중, 김려식, 명일선, 문도로씨 등이 대표였으며 윌로우스 지방에서는 최능익, 최운호, 조종익, 최능진 등이 대표였다.

드디어 1921년 4월 30일에는 ‘미주한인유학생총회’가 결성되었는데 본부는 뉴욕으로 하고 회장에 이용직, 부회장에 조병옥이 선출됐다. 1927년 3월 9일 명칭을 ‘북미 대한인 유학생회(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로 변경하였는데 255명 유학생이 거의 모두 회원으로 참가하여 전성기를 이루었다. 당시 유학생은 대학원생 60명, 대학교 125명, 예비대학 35명, 특별과 36명이었다. 1925년 3월 1일에는 국한문으로 된 한인 학생잡지 ‘라키(Rocky)’를 창간하였으나 재정난으로 1936년 제7호까지 발간하고 중단됐다.

북미 대한인 유학생회는 1945년까지 24년간 유지되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많은 학생들이 귀국하고 그 뒤 유학생들과의 연계가 없어지면서 1948년에는 해체되고 만다.

1914 신한민보에 ‘재미 한인 유학생’이라는 논설에는 “첫째, 조국의 학문에 힘쓰라” “둘째, 만가지 사업이 반드시 단순한 주의를 요구하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에 목표를 두라” “셋째, 공덕심을 가지라”라고 유학생을 독려했다.



1924 6월에 시카고에서 열린 제 2회 ‘미주한인유학생총회’

## 한인의 교육사업

초기 한인의 교육 사업은 미국물정을 모르고 온 성인들을 가르치는 일과 2세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 문화를 교육하는 일이었다.

하와이에 초기 이민 온 한인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저녁과 토요일에는 한국어학교에 가서 한글을 익혔다.

특히 초기 이민 1세들을 무지에서 깨우는 계몽운동이 필요했다. 이런 의미에서 초기 이민과 더불어 신문발행이 시작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신한민보는 한인사회의 소식을 전해주고 미주에

있는 한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지식인, 지도자들의 기고문, 사설 등을 통해 한인사회 선도 역할을 담당했다.

신한민보에 자녀교육에 관한 글에는 “자녀를 교육함은, 자유 독립을 귀중히 여기며 고상한 덕성을 함양하며, 강장한 신체를 연단하되 형질에 흐르지 말고 정신상 교육을 베풀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념을 계발하여 자중자귀를 알게 하며, 한 가지 이상 기예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의뢰하지 않게 하며 자치의 힘을 배양하여 …… (중략) 독립의 정신으로 세상을 익히고 자립하는 민족이 되게 함이라. …… (중략) 조국강토를 귀히 여기고, 우리 민족의 가장 비참한 정형을 생각하여 잊지 않게 하며, 자기가 이러한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교육에 큰 뜻을 둔 지도자들은 본국에서 신문과 잡지를 들여다 독서를 장려하며, 여러 곳에 강습소를 설치하여 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약 4백 명의 한인 어린이가 부모를 따라 하와이에 들어왔다.

1906년 9월2일 하와이 감리교회는 호놀룰루에 최초의 한인학교 ‘한인 기숙학교’를 세웠다. 그 뒤에도 많은 학교가 추가로 설립된다.

1905년부터 1925년 사이에는 미주 전역에 한인들이 사는 각 지방의 예배당, 교회마다 국어학교가 설립됐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학교의 경우는 매일 수업이 있었다. 이민들은 낮에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문을 깨우치는데 열심을 다했다. 2세들을 위한 한글 교육은 토요일, 방학 때를 이용했다.

대한인국민회는 국어학교에 매월 보조금을 주어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였다. 국어학교와 관련, 모스크바에 있던 이범진이라는 외교관은 1백 불을 기부했다는 기록이 있다. 각별히 국어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음이 분명한 그 외교관은 1910년 한일합방소식에 1911년 자결하고 말았다고 한다. 사후 그의 재산은 약 3천 달러로 그의

의해 미주에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대한인국민회로 보내졌다. 이 같은 각성 있는 지도자들의 노력과 헌신, 희생으로 60퍼센트가 넘는 문맹률이 점차 떨어져 1915년 이후에는 재미한인으로 국문 신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26 이대위 목사(왼쪽)와 샌프란시스코 한글학교

1933년 동양인 총수에 대한 취학자의 비율을 조사한 통계에서 한인의 취학률은 31%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양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1942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폭격을 기점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참전하면서 동양인들의 각국의 모국어 교육이 법으로 정지되고 만다. 한국어학교는 1944년부터 다시 시작됐다.

1906년 1월에 문경호 목사가 있던 한인 미션에서 남자 교사와 여자 교사가 야학을 열었다. 1913년 상항 지방회 학무원 강영소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베이지역의 한인 남녀학생은 30명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 15명씩 동 수였다.

써니베일의 에멀슨, 해밀턴 초급학교와 마운틴 뷰의 노웰 중학교 등에 한인 학생들이 재학한 기록이 있다. 1916년 10월 27일에는 상향한인 교회에서 ‘상향 학생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 북가주 버클리 학생양성소 설립위원중의 한 명인 백일규는 1918년 학교측으로부터 300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청년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권면하며 신청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홍보 기사를 신한민보에 매회 실었다.

그가 1918년 6월 6일 조사 발표한 ‘우리 학생 조사표’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학생 수는 초급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합쳐 22명으로 나타났다.

국어학교의 경우 샌프란시스코는 4명, 맥스웰과 윌로우스는 7명, 새크라멘토는 15명, 맨티카는 6명이었다.

1929년에는 임정구가, 1933년에는 송흥국이 Pacific School of Religion으로부터 학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931년 문덕소가 샌프란시스코 갈릴레오 고등학교를, 데이빗 신과 캐롤 우가 1939년 샌프란시스코 주니어 칼리지를 각각 졸업했다고 기록이 있다. 또 폴 양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를 졸업하였고 1934년 이기성이 새크라멘토 주니어 칼리지를 졸업하고 H.K.송이 Pacific School of Religion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Korean Student Bulletin 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코리언 주니어’ 클럽이 1929년 8월26일 형성됐다. 8월30일 정식으로 첫 모임을 열었는데, 한국 학생간의 친교와 한국 사람임에 자부심을 갖기 위해 설립했다는 목적을 밝히고 임원진도 선출했다.

1934년 The Korean Student Bulletin 은 하와이에 한인학생 수가 2천289명인데 187명이 그 해 졸업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 1936년 8월23일부터 9월2일까지는 북가주 오클랜드 밀스 칼리지에서 세계기독교학생 연맹이 열려 16개국에서 15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 모임에 한국 사람으로는 엘리자벳 리, 메리 리, 알렉산더

참석했다. 1943년 12월 버클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최봉운 교수는 Korean Reader라는 책을 발간했다. 한글 차트와 단어 간단한 문장 등으로 시작하여 지리 역사 문화 등을 다양하게 실었다. 한국어 교습을 위한 책으로 가격은 2달러였다.



1940 열렸던 한인 대학생 모임

### 한국학생 클럽

1929년 8월 26일 15명의 학생이 황사선 목사의 지도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족했다. 8월 30일 첫 모임에서 프랭크 최를 회장으로 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과 본국에서 온 유학생과 나이 차이도 많고 세대차이도 있어 새로운 클럽이 필요하였다. 클럽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젊은 학생들의 친목도모와 젊은 한국인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배워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시 ‘삭도’라고 불림)

1914 3월 12일 새크라멘토 한인학교 김홍균과 김병규씨 부인이 본국 학문과 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1917년 김홍균의 힘으로 423 T St.에 2층 가옥을 얻어 침실과 식당 등 일체 가구를 설비하고 ‘삭도 한인기숙사’를 설치하였다. 새크라멘토는 노동의 중심지로 청년학생이 이곳에 많이 모이는데 기숙사가 없어 문제가 되던 중 김홍균이 설립하고 최능익이 기숙사 관리를 하였다. 학생들에게 음식도 공급하여 근심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게 하였으며 겨울부터 봄까지 일이 없을 때에는 기숙사 비를 외상으로 해주었다.

일이 바쁜 여름에는 농장에 나가 일을 하여 겨울동안의 기숙사비를 갚게 했으며, 이곳에 들어 올 때는 꼭 공부하기로 작정하여야만 했다. 처음 기숙사에 모인 학생은 여섯 명이었는데 어학교습 방법은 교회를 빌어 교사를 책정하여 몇 시간씩 가르치고 입학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은 공립학교에 입학시켰다.

1918년 2월2일 지방회 내에 한국어학교를 설립하고 교사 조진환씨를 선정하여 학생 5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934년에 이기성은 새크라멘토 주니어 칼리지를 입학하고, 1935년에는 김창호가 새크라멘토 주니어 칼리지에서 미네소타 칼리지로 전학을 갔다.

## 스탁톤

1932년에 스탱톤에 사는 젊은 한인 학생들이 ‘Orbit Circle’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1933년 ‘Orbit Circle’의 새 임원에는 회장 헨리 리, 서기 에스더 김, 회계에는 필립 박이 선출되었다.

## 기숙사 양성소

1918 1월 신한민보에는 “우리 국가의 책임이 무거운 줄로 깨닫고 자기의 몸둥어리를 반만큼이라도 희생하고자 하는 이는 버클리 학생양성소로 오시기로 작정하되, 먼저 계약금 10원을 6월 30일 이전에 보내고 그 나머지 1년 숙식비 100원은 입학할 때 가지고 오거나 그 이전에 보내도 무방하다”라는 공고가 실려 학생을 모집했다.

근처에 있는 버클리 대학과 1개 공립 중학교, 3개 사립중학교 및 그 지역 소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었다.

버클리 양성소 설비를 완성하고 1918년 1919호 에디슨 St.에 2층 집을 세내어 9월 10일 문을 열었다. “모든 기구를 완전히 설비하고 10일 문을 열어 기숙생을 받아들이는 데 청원을 제출한 학생은 9인이오 장차 올 사람이 더 있다.”라고 하였다.

1918년 10월 12일 버클리 양성소가 개설 예식을 가졌다. 버클리 학생 양성소의 설립은 북미 총회 10년간 교육사업의 처음 있는 일로 북미총회 간부와 동소 직원이 이날 하오 8시에 열린 개설예식에 참석했다. 설립위원은 백일규였다.

버클리 양성소의 설비금은 학생의 기숙사비 백 원을 포함하여 3백 원을 예산하였는데 물가의 상승으로 설비위원 임정구가 5백 원을 요구하였으나 북미총회에서는 35원만을 증가시켜 주었다.

### 신한민보에 나타난 북가주 관련 학생기사

◆ 1906. 1. 8:

◆ 1907. 11. 8: 새크라멘토 한인 교회당에 야학을 설치하고 서양 교사를 청하여 영어와 작문을 교수한다더라

◆ 1909. 1. 20: 선생 없이 영어 배우는 책 - 다 없어지기 전에 50권을 보내시오. 발행소 공립신보사

◆ 1913. 8. 1: 토마토 농장을 하는 김원택씨의 두 아들 연성과 용성은 네브라스카에서 공부하다가 7월 27일에 쉰니베일로 돌아왔다.

◆ 1913. 10. 3: 쉰니베일은 우리한인 농업의 근거지로 한인이 끊이지 않아 학생이 많이 모여 공부를 재미있게 하므로 우리는 그 학생의 씨 명과 학급을 이 아래에 기록하여 전도의 희망을 두고자 하노라.

구연성 중학 3년급, 김용성 2년급, 강영각 2년급, 정장손 2년급, 이보패 소학 5년급, 허순복 4년급, 허순덕 3년급, 이보슈 2년급.

◆ 1916. 11. 1: 상향학생회의 첫 모임 -“상향은 거주대학에 이웃하여 한인대학생의 재류가 점차 증가하여 코리안스튜던트 클럽의 조직체가 응결하였다. 지난달 27일 하오 8시 본향 한인예배당에서 제1차 회식을 거행하여 친목회의 뜻을 보였었다.”

◆ 1916. 11. 9: 맨티카 한인학교는 그 동안 정지가 되었다가 지난달 31일에 개학하였는데 교사는 강원서씨 부인이다.

◆ 1917. 5. 10: 맨티카 재류동포 전체는 한흥국어학교 유지를 위하여 기명액 150원 중 30원이 견혀 5인을 뽑아 위원회를 조직하고 동교에 관한 일을 수시로 협의하게 하였다. 교사의 월봉은 매삭 15원을 지출하기로 가결하였다.

◆ 1918. 1. 24: 상향 한국어학교 설립준비

상향 지방회 당국자는 31일 학교 개교식을 거행함에 각 성도의 내왕 편리를 위하여 파인 St. 최정익씨 사택에 정하고 교사는 백일규씨와 그의 부인 강엘리스씨를 선정하였다.

상향에 구체적 국어학교 설립이 처음임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본월 31일 정식 개교식을 거행하리라.

◆ 1918. 3. 17: 새크라멘토 기숙사 방학예식 -하오 8시 30분 방학예식을 거행하였는데 동포 50여인이 출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실업가 맹정희씨는 학생장려를 위해 20원을 기부하였다.

◆ 1918. 5. 13: 화학 실습-가주 대학교 3학년에 다니는 황진남씨는 방학 후 산타크루즈 산에 올라 네 주일 동안 광산학의 험화 측량을 실습하고 상항으로 돌아왔다.

◆ 1918. 6. 6: ‘우리학생 조사표’에 미국 전 지역의 학생 수를 조사하여 발표.

이중 북가주 한인 학생(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

샌프란시스코 22명, 샌프란시스코 국어학교 4명, 맥스웰과 윌로우스 7명, 새크라멘토 15명, 맨티카 6명, 맨티카 국어학교 6명, 메리스빌 5인.

◆ 1918. 11. 21: 교사 출타로 오래 정지했던 샌프란시스코 한인 국어학교는 11월21일부터 열 터인데 교사는 학생 변준호가 맡았다.

◆ 1924: 조지 강이 스탠포드에 다니면서 한인학생회 일을 했다.

◆ 1926. 8. 23: 맥스웰에 사는 송덕영의 조카 송낙근이 샌프란시스코 Bible Training School에 다니려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 1927: 알렉산더 박은 버클리에서 주요섭과 신영철은 스탠포드에서 공부하고 있다.

◆ 1928: E. C. 조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S.F. Theological Seminary) 에 공부하러 왔다.

◆ 1947. 8. 24: 남녀학생 33인이 본국으로부터 상항에 도착하여 각주에 있는 전문학교와 대학에 가서 각종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려고 한다.

## 클레어몬트 한인 학생양성소

대한인국민회가 운영하고 안창호가 힘을 기울였던 남가주 클레어몬트 한인학생양성소는 클레어몬트 대학촌 안에 있던 ‘Club House’라고 부르던 한인 학생양성소였다. 어학보습 교육기관으로 한인유학생 숙소구실도 하였다.

학생밴드도 구성되었는데 틈틈이 음악을 연주하는 기술을 익히고 연주회도 연 것으로 알려졌다.



1917 클레어몬트 학생 양성소 학생 밴드부

1911년 10월 14일 대한인국민회에서 돈을 내서 마련했고 처음에는 10명의 정치 망명객과 유학생이 합숙을 하였다. 1911년부터 1917년까지 초기 한인학생들의 여관이었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영어를 배우는 곳이었다. 여름에는 2세 어린이들에게 우리말과 우리 글을 가르친 배움의 전당이었다. 처음 양성소 일에 관여한 사람은 방화중, 이순기, 강영대, 임두화 등이다.

1917년에는 강영승과 장이육 등을 교사로 대한인 유년하기 국어 강습소를 설치하여 한인자녀들에게 국한문과 도화 및 창가를 가르쳤다. 한국에서 105인 사건으로 피신해왔던 광림대가 묵었으며 도산의 부인은 이 양성소 옆에 살면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했다. 그곳에 살던 한인들이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며 1917년 자연히 문을 닫았다.



한인 학생 양성소에 머물던 학생들

## 한인 졸업생 명단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했겠지만 신한민보에 나타난 기록으로 그 시대의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다녔으며 언제 누가 졸업을 했는지 알아본다.

1931년 문덕소, 플로렌스 하, 헬렌 신이 샌프란시스코 갈릴레오 고등학교를 졸업

1932년 조용철,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

1934년 정기원,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

H.K.송, 퍼시픽 스쿨 오브 Religion

1936년 제임스 박,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

이정대, 스타튼의 College of Pacific

주요섭과 신영철, 스탠포드 대학

1939년 폴 황,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칼리지 졸업(B.A.)

김과 폴 조, University of California  
프랭크 조, University of California 메디칼 스쿨  
데이빗 신과 캐롤 우, 샌프란시스코 주니어 칼리지

<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졸업생 명단>  
1927 알렉산더 박, 1932 이종선, 1933 로라 송, 헨리 문, 이원규,  
1934 김재훈, 1935 프랭크 최.

<버클리 Pacific School of Religion 졸업생 명단>  
1916 윌리엄 헨리 용만, 1918 주근희, 1929 임정구, 1930 송흥국,  
1931 전영택.  
1946년 3월 28일 슬라노 소학교 졸업생 5명 중에는 김탁 목사의  
2녀 문희양과 김석준 씨의 딸 재넷이 있었다.

## 한인의 교과서 편찬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는 1911년 6월 10일 초등 국어교과  
서 상, 하 두 권을 편찬하고 1917년 2월 8일 국민 국어과정 상, 중,  
하 세 권을 편찬했다. 대한인교민단이 국민독본 상, 중, 하를 1923  
년에 편찬했다. 미주에서는 대한인국민회 북미 지방총회가 1909년  
11월 2일에 국민독본을 편찬하고, 1921년 6월 2일에 초등국민독습  
상, 중, 하 세 권을 편찬했다.

## 미국의 소리

미국에 와서 대학에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은 고국과의 연락이 두  
절되면서 독립투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항일 정보 선전의 절

역할을 했던 방송 ‘미국의 소리’등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모여들었다. 상항감리교회 김하태 목사는 이 방송의 편집 및 송출에 참여하면서 독립투쟁에 참여한 동포들에게 교회가 유익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장학사업

1907년 7월17일자 샌프란시스코 공립신보에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립협회에 학무비를 내어 충괄해야 한다.”고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공부를 권하려고 공립협회에서 학생회를 조직했으나 재정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을 알리고 장학 사업에 관해 실었다.

“백 사람이 각자 50전씩 내면 50원이라. 50원을 가졌으면 학생 3, 4명을 공부시킬 것이요, 천 명이 협력하면 3, 40명은 교육할 터이다” 라고 하며 “1, 2원 자비 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이라 할 것은, 우리 한인 중에 다른 사람 공부 잘하는 것이 곧 내가 공부 잘하는 것과 같다”고 장학금 모집을 고무시켰다.

공부할 학생을 공립협회에서 공천하여 택하고 이들을 학무부의 규칙에 따라 교육한 다음 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 조국으로 돌아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광복사업에 매진토록 하자고 역설하였다. 9월25일에는 교육이 재정문제로 구애받지 않도록 ‘상항 공립협회 찬성금 모집 취지서’를 본국의 매일신보사와 교회 및 매일신보 지사에 찬성금을 내어 달라는 모금운동을 벌였다. 찬성금을 매일신보사에 기탁하여 환송케 하는 방법으로 하고 학무부의 관장 하에 선발고사를 치루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주었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 25세 이하로 신체가 건강하고 열성을 가진 정직한 사람”이었다. 시험은 영문 작문 70자 이상 90자 이하로, 영어문답과 그리고 국한문 작문은 백자 이상 150자 이하로 하였다.



한문을 국문으로 번역도 해야 했는데 선발된 학생은 졸업까지 교육부에서 학금을 지출하고 졸업 후에 제약은 없었다.

1908년 8월 26일에는 공립협회의 방화중, 이순기, 강영대, 임정구 등 10명이 발기하여 로스앤젤레스 클레어몬트 지방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공립학교로 학비는 없고 기숙사비만 1년에 75원, 반년에 42원을 내면 됐다. 학생들은 공립협회 학무부 명의로 1908년 9월부터 학생을 모집하였다. 1911년 9월 초순에 준공이 되어 10월14일에는 내, 외국 인사를 많이 초청하여 낙성식을 하였다.

1955년 1월부터 북미 대한인국민회가 국내에서 학비 곤란으로 취학하지 못하는 고학생들의 교육을 장려할 목적으로 서울정치대학 학장 유석창과 연락하여 매년 1200달러를 보냈다.

1957년 5월 9일에 재미 한인 사회의 유지인사들이 중가주 리들리 지방에 모여 우리민족의 민주주의 발달과 고등교육장려를 위한 ‘한인재단’을 설립하였다. 비정치적, 비영리적 조직으로 가주 정부의 관허를 얻고 도미하는 유학생을 지원하였다.

유망한 학도의 보증과 학교와의 연락과 장학금을 주선하며 경제적 후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과학적 교육적 지식 개발에 필요한 연구와 국문 또는 영문 출판을 후원하고 교육적 자선적 행사를 후원할 목적이었다.

조직은 이사부와 집행부를 두고 그 안에 재정, 학무, 연구, 사교, 출판의 다섯 위원부를 두어 일을 분담하였다. 회원은 1천 달러 이상의 기본 재산이나 부동산을 기증하는 인사를 평생회원으로 하였다.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을 기증하며 봉사하는 인사를 명예회원이라 하고 평생회원과 명예회원을 합한 전체를 재단의 정상회원으로 하였다.

재정은 기부와 원조로 충당하게 되는데 설립초기 리들리의 김형제 상회가 기부한 10만 달러의 부동산이 기초가 되었다. 그 부동산에서 첫 해에 수입된 7천 달러와 회원의 기부금 2천4백 달러로 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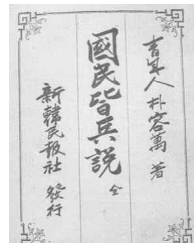
장학경비를 감당하였다. 이 재단의 설립에는 김호와 김원용이 혁혁한 도움을 주었다.

◆ 영한사전-1910년 3월 2일 이민동포 영어교육의 필요와 요구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원익이 저작하고 대한인국민회 학무부에서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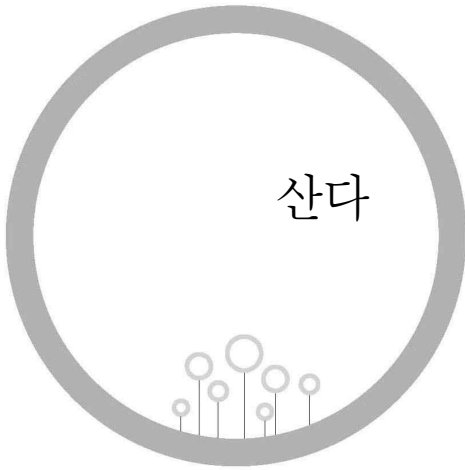
◆ 독립정신-1910년 3월 28일 미주 한인의 교양을 위해 미주에서 이승만이 저작하고 대동공보사에서 출판했다.

◆ 국민개병설-1911년 4월 10일 군인양성을 장려할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용만이 저작하고 신한민보사에서 출판했다.

◆ 한국경제사-1920년 2월 8일 교양의 필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일규가 저작하고 신한민보사에서 출판했다.



◆ 한국의 실정(The Truth About Korea)-1919년 7월1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국내의 독립운동을 선전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출판했다.



한인교회는 1903년 하와이에 온 첫 이민들에 의해 시작됐다. 존스 목사의 권유처럼 하와이 이민 자체가 주한 미 선교사들이 자신이 담당할 교회 신도들에게 권유함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민을 시작한 셈이었다.

하와이 초기 이민은 기독교가 성했던 평안도지방에서 많이 왔다. 도시에 살았지만 가난하고 소외당한 계층들은 서구 문명에 대한 동경심으로도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며 믿어야 사는 줄로 믿었다. 1903년에만 하와이에 온 한인들 중에 본국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 4백여 명에 이르렀으며 전도사가 30여명이었다. 이들은 향후 2,3년간 이민 온 8천여 명의 한인들에게 열렬히 복음을 전했다.

하와이 도착한지 6개월 만인 1903년 7월 4일 김이제전도사의 인도로 목골리아 사탕수수농장에서 첫 예배가 열렸다. 같은 해 11월 10일 하와이 호놀룰루 시에 홍승하 목사가 최초의 한인교회를 설립했다. 교회는 고된 노동 속에 지낸 한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같은 언어를 가지고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서로 위로할 수 있

유일한 장소였다. 또 교회는 이런 특수한 이민사회에서의 사명을 십분 깨달아, 한국어, 역사, 무용 민요, 미술 등 전통문화를 2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을사보호조약과 한일 합방을 계기로 망명객과 유학생들이 미국에 다수 들어왔다. 이들은 한인사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느라 애썼다. 그러나 순수 교회의 역할과 조국 독립운동의 구분이 없었고 지도자들 간에 독립운동의 노선도 각각 달라, 교회 내에서 혼선과 갈등을 빚어 교회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교인들 간에 난투극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고 심지어 법정소송까지 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한인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독특한 결속력으로 교육과 문화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1903년부터 1950년대까지 15개의 교회가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데 노동인구의 이동이나 분열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10개 교회가 없어져 5개 교회만이 남게 됐다.

조국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교회는 이를 위한 모금에 앞장서게 된다. 그 명칭은 애국금, 혈성금, 국민부담금, 독립금 등으로 교회마다 각기 다르게 불렀다. 교인들은 교회 헌금 외에도 거의 의무적으로 노동 임금의 다소를 조국광복을 위해 희사했다. 상해임시정부의 자금은 거의 미주 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3년 교회가 선 이후 1945년 조국에 광복이 올 때까지 미주지역 한인교회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모은 자금이 300만 달러를 초과했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초기 한인 교회는 한인들의 안식처이며 독립운동의 요람지였다. 또한 교회에 모인 한인들은 서로 소식을 나누고 미국사회와 연결되는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 한국인연합감리교회

(San Francisc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1903 9월 23일 안창호, 이대위 등 10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망명인, 유학생, 인삼상인 등 다양한 신분의 한인들이었다. 당시의 샌프란시스코에는 25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904년 4월 18일 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 선교부의 주선으로 교인들은 오클랜드에 집을 얻어 합숙했다. 1904년 9월 5일 도산 안창호는 한인의 단결과 친선을 위해 친목회를 만들어 한인끼리 서로 연결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각 가정을 순회하며 예배를 하였는데 1905년 10월 8일에 이르러서는 한인전도회를 조직하게 된다. 문경호 전도사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하여 Ellis St에서 주말마다 예배가 계속 되었고 교인은 약 50명이 되었다.

전명운, 장인환, 최정익, 김성권, 전성덕, 문양목, 정재관, 정원도, 박윤화, 장나득, 윤혁, 하상옥, 조성학, 김성모, 허승원, 임치정, 문경호, 방화중, 이강 등이 초창기 교인들이었다. 1906년 1월 7일에 5명이 침례를 받았다. 1906년 6월에 감리교단에 가입하고 방화중전도사가 담임했다. 그 후 동부 행 학업을 연기하고 동포 구호, 계몽, 전도 사업에 헌신한 양주삼 전도사가 교회를 맡게 되는데, 그는 이덕 목사와 남감리교회 선교부 감리사 액튼 목사의 협조를 얻어 정식으로 1906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인 감리교회를 설립한다.

교회 위치는 2350 California St 에 있는 삼층 개인주택을 빌려서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예배와 3층은 교인들의 숙소로 정했다. 그곳에서 밤에는 영어를 가르치며 친교와 전도의 장소로 사용했고 25여명의 한국인이 모였다. 1907년 10월에 교회를 2123 Bush St. 3층 주택 건물로 이전했다.

1908년 3월 23일 교인인 장인환과 전명운이 스티븐스를 저격 암



한인 감리교회 초기 교인들 1915년 8월 1일

. 교회에서 독실하고 모범된 품성을 보여 온 장인환과 전명운의 애국적 행동은, 이 교회를 창립초기부터 구국과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만들었다.

1907년 7월 13일 ‘한인연합교보’를 발행하던 것을 1908년 12월 20일 그 체제와 명칭을 바꾸어 월간잡지 ‘대도’를 창간하였다. 미주와 본국에 있는 교우와 동포를 위한 잡지로 미주에서 한글로 발행된 첫 발간물이 됐다. 매월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전도, 교양, 고국 소식을 전했다. 잡지가 항일사상 고취에 중점을 두자 선교부에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다고 반대했다. 재정곤란으로 정간하게 됐다.

이 잡지의 주필은 양주삼, 윤병구, 이대위가 역임했다. 대한민국민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던 이대위 목사는 1915년 2월 4일 1053 Oak st.에 위치한 대한민국민회 소유 3층 건물의 아래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자체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자 부인선교회에서는 교회건축운동을 시작하였다. 마침내 1930년 6월 1일 1123 Powell St.에 교인들의 헌금과 선교부의 보조금으로 교회건축이 완공됐다. 헌당식에는 200여명의 교인과 일반 한인들이 모여

순간을 맞았다. 1940년대 북가주에 거주하던 동포들은 미군에 입대를 하였는데 상항감리교회에서는 6명이 징집에 응했다. 1959년 감리교 태평양 선교연회 재단법인에 소속되었던 본 교회를 독립재단 법인으로 등록키로 결정하고 감리교회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의 동의를 얻었다. 1959년 9월 19일 재단법인 샌프란시스코 한국인 감리교회로 명의변경 등기신청을 제출했다. 이 신청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승인을 얻어 1960년 4월 14일 한국인감리교회 명의로 변경되어 정식 등록되었다. 이와 동시에 본교회의 재산 소유권이 태평양선교연회재단에서 본교회로 이전되었다. 1968년 9월 교회 명을 상항한국인 감리교회로부터 ‘상항한국인 연합감리교회’로 변경했다. 1994년 5월15일에 3030 Judah St. San Francisco, CA 94122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교단 선교부의 보조금과 교인들의 헌금으로 세운 이 교회는, 샌프란시스코와 근교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했으며 이민의 거처가 되기도 했다.

역대 교역자는 양주삼 전도사(1906-09), 윤병구 전도사(1909-10), 이대위 목사(1910-28), 황사선 목사(1928-42), 김하태 목사(1942-45), 임두화 목사(1945-48), 양주은 전도사(1948-49), 김하태 목사(1949-53), 안병주 목사(1953-60), 송정률 목사(1960-77), 차원태 목사(1977-88), 유석중 목사(1988-99), 박한규 목사(1999-2001), 김진호 목사(2001-2003), 김택규 목사(2003-현재) 등이다.

◆ 1907년 공립신보에는 매번 교회 광고가 났다. “본 회당에서 매 예배일 오후 두 시에 반 예배회로 모이며 밤 여덟 시에는 청년회로 모이며 매 예배 3일 저녁 여덟 시에는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 1일 2일 4일 5일 저녁마다 야학을 시키며 또 회당 안에서 교우의 유숙도 편리케 하오니 한인동포는 조량하시옵. 상항한인회당 감독 리덕 양주삼 고백 2350 California St. 샌프란시스코”

◆ 1912년 3월 대도(교회 월보): 스타튼 허리상점의 주인 허승원,

양씨는 본교회 전도비에 대하여 매삭(매달) 2원50전씩 내기로 작정하였으니 감사하다.



1930 유학차 도미한 안익태를 위한 환영회를 연 상항감리교회

### 한인(연합)감리교회

1914년 6월 5일 조성학, 문원칠 두 사람의 주선으로 문원칠의 집에서 당시 남감리교 순회목사인 황사영목사 인도로 첫 예배를 보았다. 그러나 1912년 3월 상항한인감리교회 월간지 ‘대도’에는 “본 교회 청년회에서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오클랜드감리교회청년회에서 매삭 2원50전씩과 부인회에서 64전을 보내었으니 그 열성을 감사하노라”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미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문원칠은 7가와 8가 사이의 웨스턴 길에서 작은 식료품상을 하고 있었다. 개인집도 달린 이 상점에서 예배를 보았던 것이다. 당시 남감리교 순회목사였던 황사영목사는 1912년부터 새크라멘토, 스타튼, 걸트, 멘티카, 로스엔젤레스, 멕시코등을 순회하며





1914 오uckland에 세워진 오uckland 감리교회

있었다.

1917년에는 태평양 신학교에서 수학 중이던 임정구 전도사를 교역자로 청빙하여 목회를 하게 하고 예배처소를 조성학의 개인 집으로 옮겨 이 장소에서 6년간 예배를 드렸다. 1922년 2월8일 전도사 임정구의 주택으로 예배소가 이전했는데 이때 교인이 20여명에 달해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전도사 임정구는 1929년 감리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1929년 1월에는 남감리교 선교부와 교섭을 벌여 3월2일 감회사 데이빗의 주례로 임정구목사와 노신태전도사를 택하여 교회를 설립했다. 오uckland 한인감리교회는 남감리교회에 정식으로 소속된 교회로 발전했다. 임정구 목사는 54세를 일기로 1939년 작고하기까지 22년간 시무했으며 그의 딸 캐더린 임은 11년간 교회 반주자로 봉사했다.

임정구 목사 이후에는 거의 매년 담임 목회자의 이동이 있었다. 박용학 목사는 2차 대전 당시 두 번이나 군대 징집을 당했고 샌프

오클랜드 감리교회에서 목사와 부목사를 하던 김창수 목사는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나중에 군의관이 되어 한국에까지 갔다. 해방되던 해 임두화 목사가 동 교회에 약 일 년 간 있었다. 그러나 후에는 몇 년간 목회자가 없었던 공백 기간이 왔다. 다음에 부임한 이진묵 목사는 태평양 신학교 학생 목사로서 특히 새크라멘토 선교활동에 열심을 다하여서 교인 중 많은 이가 새크라멘토에서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1938년 웨스터가에 집 한 채를 얻고 완전한 예배당을 갖추어 그 해 12월20일 헌당식을 거행하니 이것이 처음으로 갖게 된 교회당이 었다. 1941년 7월에는 520 헤리슨 St.로 이전해 전성기를 이룬다. 그 장소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인 주인이 강제 수용되는 바람에 건물이 빈 일본인 감리교회였다.

◆ 1948. 3. 11 신한민보: 오클랜드 한인목사 주택중수 경비결산.

“오클랜드 한인목사 주택중수 경비는 총계 1만 5백 22원 50전인데 그 가운데 감리교 총회에서 5천 원을 주고 담보액 5천 5백 22원 50전 중 2천 8백 22원 50전은 교인들이 현금으로 모아 내고 2천 7백 원은 매삭(매달) 50원 변리 22전씩 더해서 갚기로 하였다.”

그 교회를 1950년 주정부가 고속도로 확대방침에 의해 2만 4천 달러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에 매매가 이뤄졌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1951년에는 359맥아더 블루버드에 건물을 구입하여 헌당식을 가졌다. 교인 수는 많을 때는 70명, 적을 때는 12명에 불과했다. 1959년에는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후 3525 Kansas St.에 있는 다른 교회를 빌려 쓰다가 1984년 6월27일 현재의 자리 737 East 17th St에 있는 교회를 55만 달러에 구입하여 8월5일 입당 예배를 드렸다. 8월12일 주일에는 창립70주년 기념예배를 보았다.

도산 안창호의 사촌인 안영호와 부인 안조안은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 교회여성회 활동이 특히 활발했다. 회원들은 1달러에

7달러50센트까지 특별회비를 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백인교회, 중국교회, 필리핀교회 등에 만두를 만들어 팔아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으로 옷과 선교기금을 꾸준히 보내기도 했다.

◆ 1946. 12. 5: 수입-독립금(120원) 의무금(112원 50전) 신문대금(30원)보조금(75원) 국민회창립 기념금(16원 50전) 3.1금(28원) 낸디 난민구제금(53원) 큐바동포 구제금(30원) 오클랜드 적십자 지부의연금(20원) 인구세(11원) 임창영 박사의 교육회의연금(26원) 상조금(12원) 이상 합계 534원 지출-534원

1948년 4월 25일 열린 여성회 모금 디너에는 상항감리교회가 \$15, 양주은 부인 \$15, 오클랜드 중국교회 \$19.50, E. H. Kim \$58, 안조앤 \$36, Helen Kim \$34.50 등의 기부금이 있어 총 238달러85센트가 모금됐다. 당시 은행구좌는 Bank of America에 있었고, 여성회가 모일 때면 10명에서 16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재무는 안조앤이 맡았다는 기록이다.

역대 시무 목사는 황사용 목사(1914-17) 임정구 목사(1917-39) 이진목 목사(1940-41) 장기형목사(1941-42) 박용학 목사(1941-42) 김창수 목사(1942-43 상항 부목사 겸직) 박용학 목사(1943-44) 김태목 목사(1944-45) 임두화 목사(1945-46) 이진목 목사, 장기형목사, 김창수 목사(1947-1971) 천병욱 목사(1971-1972) 김광진 목사(1973-1988) 김종원 목사(1988-1999) 김현일 목사(1999-2001) 김무영 목사(2001-현) 등이다.

현재 교회주소 737 E. 17Th St. Okland, Ca 94606

## (삭도라고 부름) 한인교회

1907 10월 11일자 공립신보는 “새크라멘토에 공립관이 신설되자 상향한인회당 전도사 양주삼씨가 공립회관 안에 한방은 미순으로 정하고 매 예배일에 예배를 행하며 전도케 하겠다고 하니 우리 한인사회에 좋은 일이더라”라고 새크라멘토 교회의 시작을 알렸다.

10월 18일 기사에는 “금월 13일 오후3시에 처음으로 미순에서 예배를 행하였는데 한인 참석한 이가 20인이요 미국 손님이 18인이며 감독 리덕박사가 요한복음 15장 4절 뜻으로 영어강도하고 전도사 양주삼씨가 한어로 번역하매 전회가 대단히 감동하였으며 감리교회 부인전도회 회장되는 부인도 기쁜 것을 표하여 연설하였다 하며 불구의 한인 전도사도 책정하며 야학도 실시한다는데 아직은 정인표 김유택 양씨가 전도한다더라”고 적었다.

◆ 1907. 11. 8: 새크라멘토 한인 교회당에 야학을 설치하고 서양 교사를 청하여 영어와 작문을 교수한다더라.

◆ 삭도에 전도-본월 4일 주일에 본 교회 목사 이대위씨가 새크라멘토에 리응목씨의 려관에서 동포들을 모으고 전도하였는데 장차도 매주일 모이기로 정하였다더라.(1912년 2월 대도)

◆ 1913. 7. 13: 새크라멘토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날로 도덕심이 배양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며 매주일 오후에 모여 예배를 보고 주일날 밤마다 토론하며 예배 3일 밤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재미가 많다더라.

◆ 1914. 7. 16: 새크라멘토에 잇는 동포들은 교회를 더욱 확장하고자 지난달 마지막 주일에 연조를 모집하였는데 재정이 87원 50전에 달하였고 당일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

◆ 1917. 12. 6: 삭도 한인 예배당 감사일 예식을 거행.

“삭도통신에 의하면 한인예배당은 지난달 29일 하오 7시30분에 감사 기도와 예식을 거행하였다 1.기도-주석 이인신 2.기도-김홍

3.독창-감사가(이부인남조) 4.연설-최능익 5.합창-여학생 양제희 김요한 6.연설-누구나 7.독창-사덕순 8.폐식.

삭도 한인기념 예식은 금년이 처음인데 겸하여 금년 같은 예 없는 대풍작을 얻었음으로 당일 출석한 남녀동포 50인은 예식의 순서를 마친 후에 다과를 나누며 여흥의 연극을 꾸며 매우 재미로운 상황을 보였다더라.”

### Stockton( ) 한인감리교 미션

상항감리교회 월간잡지 ‘대도’1912년 2월자에는 ‘스탁톤 전도서’라는 기사를 실었다. “1912년 1월 21일 주일에 본 교당 청년회전도국장 강영소씨가 스탱톤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며 신성원씨의 여관으로 예배소를 삼았는데 전도의 재미를 많이 보았고 장차도 매주일 모이기로 정하였다더라.”

스탁톤 거주 한인들이 1924년 10월 콜로라도가의 한 건물을 사서 미주에서 첫 번째로 한인 자체교회 예배당을 설비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해 11월 5일 김탁 목사의 주도로 헌당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한인들이 노동조건과 형편에 따라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자 교인이 없어져 1936년 2월 미션을 폐지하였다. 이때 예배당 건물을 팔아 달라노 예배당 건축비로 기부했다.

### 마운틴 비유 감리교회

마운틴 비유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다는 것은 찾을 수 없었으나 교회모임에 참석하였던 기록으로 이미 1915년에 마운틴비유에 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915. 8. 19: 교회광고-한인감리교회의 계삭회 일자는 다음과 같음

(8월 29일) 스타튼교회(9월 19일) 마운틴 비유(9월 26일) 오  
클랜드 교회 (10월 3일) 상항교회 (10월 10일) 장로사 윌리엄 액톤  
근계 (년환회 10월 13일)

## Manteca( ) 한인감리교 미션

1916년 2월 22일 신한민보에 의하면 맨티카에 교회를 세우는 예  
식이 있었다. ‘2월12일 예식거행 교우 60여인 참여’라는 제목하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사탕무 농사로 인하여 60여명이 모인 큰 부락인데 그들은 거의  
다 일찍이 계명을 받은 교인이라 복음전파에 몸을 바친 전도사 황  
사용씨가 감리교회 지방교회를 설립하고 2월 12일에 개막식을 거행  
하였으니 이는 맨티카 지방에 처음 되는 좋은 일이라 스타튼 부근  
동포와 상항 한인목사 이대위씨와 북미 총회장 강영소씨는 청첩을  
받아 그 예식에 참여했다.

1916년 맨티카 지방 전도사 황사용씨는 산호제 시중에 모인 연  
환회에서 목사로 승등되어 맨티카 교우전체는 10월 25일 하오 7시  
반에 황목사 환영회를 열었다. 남녀교우 60여인이 출석하였다. 1917  
년 10월 2일에는 감리교 미션을 설립하고 예배당을 설비하였고 맨  
티카 예배당 건축 수전의원 최능익씨는 상항한인예배당에서 75원  
연금을 모집하였다.”

1917년 12월 6일 ‘맨티카 예배당 건축 준비’라는 제하의 기사

“김경보씨는 광 25척, 땅 1백 척을 십 년 한정으로 기부하고 또  
식수까지 공급하여 백 명은 넉넉히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곧 짓는  
다. 경비는 6백 원이 들며 건축위원회 임원은 건축비중 3백 원이  
모집되기를 기다려 공사에 착수할 것이다. 지난 달 25일 예배 후에  
2백여 원의 연금을 모집하였고 총 교회 감사도 얼마 돕기를 허락하  
였다. 북가주 한인이 공동으로 세우는 집은 맨티카 한인 예배당 건



1916 세워진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처음이니 북가주에 거류하는 일반은 다 같이 동정을 기우리라. 회계는 김원택과 김필권이고 수전의원은 최능익이라 하더라.”

1918년 9월22일 헌당식을 가졌으며 황사용 목사의 주례로 5년 동안 예배하였다. 맨티카에 세운 한인교회는 북가주 한인들이 힘을 모아 직접 건축한 최초의 건물이다.

### 교회 관련기사

#### ◆ 한인연합교회보 발간지 취지서 (1907년 7월 19일 공립신보)

“(중략)단체가 있는 대로 각각 회보를 발간하여 서로 교통하며 서로 합동하며 서로 연구하여 경쟁하는 시대에 능히 걸음을 같이하여 나아가 복락을 도모하는 고로 신문과 잡지를 대왕같이 존귀히 여기며 사부같이 사모하며 음식 보담 더 소중히 여기며 한때 밥을 거르더라도 신문은 거르지 못하느니 교회 또한 그러한지라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면 각 교회 연합보가 있으며 총회에 총회보가 있고 각 예배당에 일보와 월보가 있어 천하가 한집 같고 만리가 지척 같은지라 …… 슬프도다 미국에 있는 우리 대한인 교회는 그렇지 못하도다. 교당이 34처에 널려있고 교인이 4백 명이 되는데 일폭만한 기관보가 없어 서로 교통함이 막히며 서로 권위함이 결핍하여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

본보를 위하여 의연금을 낼 분은 상향회당 전도사 양주삼씨와 방화중씨에게로 송금할 것.

본보 임시 사무소는 상향한인교회당내 로 정함. 1909년 7월 13일 받기인

장로교회 조사 방화중, 감리교회 전도사 양주삼, 미이미교회 전속당 이정래

한인연합교보임시사무소 2350 California St. San Francisco, California”

◆ 1917. 3. 15 신한민보: 북가주 한인감리교 지방연회가 3월9일 하오 2시30분 샌프란시스코 오크 스트리트 한인 예배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감독 램버트 감회사 액톤, 한인목사 이대위 황사용, 지방전도인 황사선 임정구, 지방대표자 샌프란시스코-박을용 하상옥, 맨티카-최능익 한치홍, 스타톤-신성원이었다.

◆ 북미한인교회공의회

1917년 12월 27일 중가주 다뉴바 한인 예배당에 모여 북미한인공의회를 조직하였다. 목적은 북미한인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1.전도방침 연구 2. 북미한인교회보 발행 3. 각 교회형편을 공의회에 보고할 것 4. 각 교회가 매년 1차 이상 사경회를 하기를 권면 5. 각 교회가 재정담당하기를 권면 6. 교인이 이사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통보 7. 미주 교인이 주일 잘 지킬 방침 연구. 1918년 1월 2일 북미한인교회 회장 이대서 서기 한승곤

◆ 미주학생선교회와 미주한인학생원동선교부

1919. 7. 17 기사: 미주학생선교회가 생긴지 1년4개월이 됐다. 이 단체는 국민회 중앙총회와 임시정부 등의 명령과 지도를 좇아 동포의 진상을 세계에 소개하고 각 종교단체에 교섭하여 도덕적 원조를 얻기를 힘쓰는 단체다. 회원의 수는 130명에 달하고 선교회 사무확장을 위해 캘리포니아 지방 위원은 한승권 목사로 북방을 맡게



차정식씨로 남방을 맡게 했다. 선교회 이름으로 한국독립운동의 자세한 내력과 한국의 현상과 국민회총회의의 주장하는 바를 자세히 기록하여 영문으로 출판하여 각처 선교회와 종교단체로 보내어 이름을 밝히고 동정을 구하며 한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편지 5천장을 썼다.

◆ 1942. 10. 8 신한민보: 북가주와 중가주 한인교회주소

Korean Woman's Missionary Society / 1966 San Pablo St.  
Oakland, CA

Korean M.E. Church / 1123 Powell St. San Francisco, CA

Korean M.E. Church / 520 Harrison St. Oakland, CA

Korean M.E. Church / P.O.Box 1014 Delano, CA

Korean M.E. Church / P.O.Box 623 Danuba, CA

Korean Presbyterian Church / 1419 J St. Reedley, CA

## 지역 초기의 교회들

◆ 1903년 11월 3일 홍승하 목사의 인도로 '한인전도회'가 호놀룰루에서 정식교회로 발족하니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

◆ 1905년 2월 10일 호놀룰루에 한인성공회가 창립되었다.

◆ 1906년 초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방화중전도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마포삼열 목사와 나성에 한인장로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1929년 김중수 목사가 부임함으로 완전한 한인 자치교회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시작됐다.

◆ 1915년 5월 16일 산타아나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1915년부터 1917년 까지 노회에 연락하여 리차드 목사의 지도로 설립한 미션이다. 농업 일에 종사하는 이일형이 한인 노동자들을 위해 설치한 캠프 안에 예배당을 차린 형태였는데 홍치범 전도사가 시무하다가 3년 만에 폐지하였다.



한인사회는 인구도 그리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했음에도 언론, 출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별도의 언론사는 없었지만 여러 신문이나 잡지 발행에 단체나 기관에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 모든 출판물은 한인들을 계몽하고 항일운동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었고 한인들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서로 소식을 교류하는 매체로 그 소임을 충실히 했다. 미주에서 발행한 신문들은 미주지역 뿐 아니라 본국 및 해외 각지에서 환영을 받아 한국에 까지 우송하는 한인들의 민족지가 되었다. 비록 여러 군데 흩어져서 노동을 하지만 신문을 통해 흩어진 사람들의 소식과 고국의 사정을 알고 힘을 얻었으며 유일한 대화 창구가 신문 등 인쇄물이었다.

### (The Korean News)

안창호가 창립한 샌프란시스코 한인공립협회의 기관지로 1905년 11월 20일에 창간됐다. 1907년 귀국한 안창호는 국내에서 신민회를



광무9년 1905년 11월 발간

공립신보는 신민회 기관지 대한매일신보의 국외 자매지 구실을 하였다. 공립신보는 인쇄시설이 없어 송석준 집필 하에 회원들이 손으로 써서 등사로 매주 1회 발행하였다. 1907년 4월 26일에 주자를 구입하고 활판인쇄로 제2권 1호부터 국문으로 지면이 선명해졌다.

“오늘부터 새 활판에 새로 출간하는 새 신문을 보고 새 지식을 발달하며 새 사상을 활발하며 …… 우리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의 복 누리기를 천만 축수하노라”라고 활자로 신문을 처음 발행하며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후에 4단 4면으로 격주 간행하다가 1907년 5월31일부터는 주간으로 매주 수요일 간행됐다.

국내에서 전개되는 일제의 침략행위를 미주지역을 비롯한 각 지역에 널리 알리고 불법성을 규탄하며 독립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인의 당면한 교육과 실업진흥, 독립전쟁의 준비 등을 강조하는 기사와 논설을 게재하는 등 애국, 계몽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1907년 11월 15일부터는 7단 4면 체제로 바꾸어 간행했다. 지면은 논설, 협회보, 본국소문, 외보, 별보, 기서, 광고로 나뉘어 있었다. 논설란에는 한인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르치는 교육, 실업을 장려하는 글이 실렸다. 협회보에는 총회와 지방회 회원의 동정과 회의 결과 보고 재정공개 등의 기사가 실렸다. 잡보에는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소식, 본국소문에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알려 조국을 잊지 않게 하고 대한제국 말기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판단력을 기르게 했다.

외보에는 세계정세의 변화를 실어 국제적 안목을 지니게 하였다. 기서는 미주한인은 물론 본국이나 해삼위(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나 축하할 일에 대해 자유기고를 하게 하였다. 광고란에는 공립협회 관계 광고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상업광고나 주식회사 주식모음 광고, 기숙사 학생모집 광고 등이 다양하게 실렸다.

서판 인쇄본 1호는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레드랜드와 본국의 평산, 진남포 등 6곳에 지사를 두고 발간하였다. 1907년 10월 26일 공립신보 확장 취지서에는 근대국가에 있어서 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문명케 하는 정치, 법률, 군대, 경찰, 상업, 농업, 공업, 통신의 8요소를 다 아울러 교육하는 것이 신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제의 탄압 때문에 언론이 자유롭지 못함을 한탄하고 내외각처에 지사를 설립하고 보급에 힘썼다.

1907년 일본이 ‘광무신문지법’을 공포하여 한국 신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인 발행신문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였다. 발행 부수가 3천 500 내지 4천부에 달했으며 창간 후 3년 동안 1만 2천 118달러 44센트의 대금과 원조금이 수입됐다. 1908년 3월 18일자 74호부터 국내에서 압수처분을 받아 1월 29일자 114호까지 18번이나 압수되고 신한민보로 개칭된 후에도 55차 압수를 당하였다.

공립신보는 1908년 8월 12일에는 본국 소재 지사는 모두 폐쇄되고 미주와 러시아령 14개 지사만 남게 되었다. 1909년 1월 30일까지 3년 2개월 동안 117호를 발행한 후 2월 10일부터는 국민회의 기관지 ‘신한민보’로 탈바꿈한다. 공립신보의 주필은 방화중, 임치성, 송석준, 정재관, 최정익이었고 식자인은 방화중, 임치성, 이교담, 김형필이었다.

(The New Korean World)



1907 대동공보

1907 10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간한 대동보 국회의 기관신문이다. 발기인이자 중앙회 상의원인 애국적 여성 김마리사가 중심이었다. 1907년 10월 18일 공립신보는 대동공보 발간에 대하여 “상향한인대동보 국회에서 기관보를 발행하

는데 신문이름은 대동공보라 하고 주자는 아직 사용치 못함으로 붓으로써 속사판에 박아 우선 제1호를 출간하였으니 회원의 열성은 치하하기를 마지아니할 뿐 아니라 언론 필법이 강개격절하고 공정 유리하여 일반 동포의 문명을 선도하니 우리 미주에 있는 사회가 이같이 진보되는 것은 진실로 감사할 바이더라”라고 보도했다.

대동공보는 1호에서 14호(1907년 11월 14일)까지는 필사 석판인쇄로 하다가 1907년 11월 21일부터는 국문 활판으로 인쇄했다. 사장에는 문양목이, 주필로는 최영만이 취임하였고 미국 14곳, 한국 11곳, 중국 1곳에 발매소를 설치했다. 그 해 12월 5일 재정난으로 정간하였으나 새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재미교포들로부터 의무금을 받아 다시 발간했다. 그러나 25호까지 발간하고 경영난으로 다시 이듬해 4월 9일 정간했다. 그 뒤 복간되어 1909년 1월23일까지 발행한 후 2월10일부터 신한민보와 합했다. 최영만외에 장경과 문양목이 주필로 일했다.

## (Korean Evangel)

교단의 지원을 받아 미주와 한국 및 원동 지방에 흩어진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교육을 목적으로 출판했다. 1908년 12월21일 출판했던 미주 최초의 한글 월간잡지로 결코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출판했던 것은 아니다.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회건설을 꿈꾸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실어내는 역할을 했다.

통신부란에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인사회의 소식을 전하고 교계소식을 전했다. 주필은 이대위로 매월 1회 간행하였으며 대금은 미화 15전, 6개월 선금은 80전, 1년 선금은 2원50전으로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까지도 우송했다. 대도 제1권 1호에 초대 주필 이대위는 발행축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道)라’ 하셨으니 우리 동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며, 이 월보가 날로 진보하여 우리 이천만 인민에게 대도를 주시어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노라”라고 했다.

대도 발행 목적은 “도덕에 합당한 글을 저술하여 도덕심을 배양하고 교육상에 유익한 글을 저술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학문의 유명한 문제를 역술하여 동포의 문학 진흥을 발달시키며 재미있고 볼만한 소설을 저술하여 동포의 의량을 확충케 하며 실업에 요긴한 서적을 역등하여 동포의 실업을 장려케 하며 교회와 세계의 소식을 전하여 동포의 안목을 넓히고저 하오니 유지제군은 우리의 월보를 위하여 동심합력 하기를 바라노라”로 되어있다.

대도는 문필가를 양산해내고 미주 및 여러 한인사회의 의식을 증진시키는데 공헌을 하였고 논단과 성경공과, 교육, 도덕부 난에서는 설교와 가르침을 주었다. “누구든지 물어 볼 말이 있으면 다 물으시오. 대답할 것은 다 대답하겠소”라고 선전을 한 ‘문답편’도 있었다. ‘세계소식’란에는 당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교회소식’

감리교회 재단 소식 등 교회에 관한 소식을 실렸다. ‘동포소식’년에는 상항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소식과 공부하러 가는 학생, 사망 결혼, 병원 입원 등의 소식이 실렸다.

그 뒤 주필은 양주삼, 인쇄인은 전성덕이 맡았으며 인쇄소는 공립신보사, 발행소는 미국 상항한인감리교회당이였다. 월보 값은 매 권에 50전, 반년에 80전, 1년에 1원 50전이었고 본국에도 보내주었는데 50전을 받았다.

또 대도에는 ‘문명의 인민품격에 있다’(최정익), ‘그리스도교와 문화’(박용만), ‘북미합중국헌법’(양주삼), ‘미국농민의 규모와 진취’(백일규), ‘미술의 필요’(이중찬), ‘태극기설’(백일규), ‘공예교육의 필요’(윤병구) 등 여러 분야의 글이 실려 한인들을 위한 총체적인 교양잡지 역할을 했다. 3년 동안 출판이 계속됐다.

### (The New Korea)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는 공립신보와 대동공보를 인계하여 1909년 2월 10일 기관지 신한민보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1909년 1월 27일 공립신보에는 “본보 명칭

을 고쳐 내월부터 ‘신한민보’라 개칭하겠기로 일차 정간하고 5호 활자를 새로 배치한 후 2월 10일에 차호를 발간하겠다.”고 공고했다.

2월 10일 사설에는 공립신보와 신한민보는 “그 목적도 하나요 처소도 하나요 그 조직도 하나요 체제도 하나”라고 했다. 또한 “글자

같이 우리 대만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국민이 신보”라고 하며 “본보를 사랑하여 읽으시는 모든 군자들이어, 나타심을 버리시고 진발력을 새롭게 하시며, 겁나심을 버리시고 강강력을 새롭게 하시며, 의퇴심을 버리시고 자주력을 새롭게 하시며, 노예심을 버리시고 독립심을 새롭게 하시오”라고 했다.

진보우익 내지 중도 합작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동포의 문맹퇴치와 성인교육에 힘쓰고 동포들의 애국정신을 고취시켰다. 국권회복에 관한 기사가 많이 게재되고 국내소식도 많이 실어 국내외 항일민족언론을 선도하고 해방 후에는 남북통일과 민족의 자유 행복을 추구했다.

캘리포니아지역의 교포의 생활상과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며 1주일에 한 번씩 발간했다. 3.1운동 이후 3월 20일부터는 격일간으로 발간하여 고국과 해외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일제 당국의 감시와 간섭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발간되어 자유롭게 항일운동과 독립운동 기사를 다뤘다. 이 때문에 공립신보와 신한민보는 연해주와 북간도의 교포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신한민보는 국내에서도 유입되어 애독되었는데 일제에 의해 자주 압수됐다. 1910년 이후 일제치하에서는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될 때까지 한국인의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 두 신문이 창간된 이후에도 제약으로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해외에 신한민보만이 완전히 자유로운 위치에서 한국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신한민보는 3.1운동 이후 일제시대와 독립운동사 연구와 우리나라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근대사상사, 문화교류사, 이민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처음 6년은 활자를 사용하다 1915년 3월 11일부터 이대위가 발명한 인터타입 기계로 식자하였다.

주필은 정재관, 최정익, 이항우, 강영대, 박용만, 이대위, 김현구,





발명한 식자기

, 백일규, 신두식, 흥언, 서정익, 최진하 등이었고 영문 주필은 김용중, 박상엽, 전엘튼이었다. 식자인은 김형필, 김종임, 정도원, 전성덕, 최응선, 김영필, 윤성현, 한귀동, 유필립등이었다. 편집겸 발행인은 최정익으로 발행소인 신한민보

사는 2928 Sacramento St.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했다. 특히 이대위, 백일규, 흥언은 신문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1909년 12월 남가주 레드랜드지방의 안석중, 이원길이 신한민보사 가옥건축 취지서를 발표했다. 재미한인사회의 신문을 유지할 방침은 가옥 신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30달러의 기부금을 낼 5백인을 모집했다. 같은 해 10월 1일 거주 동포들의 모금활동은 좋은 성적을 얻어 샌프란시스코 패리가 232호의 가옥을 3천 500 달러에 매입하고 건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1910년 런던에서 체류하던 이항우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5월 4일부터 신한민보를 편집하고 영문판을 설비하였으나 과도한 경비로 폐지하고 최정익이 다시 집필하였다.

1911년에는 네브라스카 한인소년병학교를 세운 박용만이 주필이 되었다. 신한민보는 경비부족으로 여러 번 정간을 하였는데 6개월 이상 신문을 못 낸 적도 있었다. 1917년 10월 26일 식자 기계의 변동을 위하여 419 마켓 St. 데이빗 휴스 빌딩(Hewes Bldg)에서 신한민보 일을 본 적도 있다.

신한민보는 국민회 대표회담의 결의에 따라 1942년 1월1일자부터 제 4면을 영문난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편집과 식자는 국민회

담당하였으며 ‘청년한국인의 공식 간행물(Official publications of young koreans)’이라고 표시했다. 1945년 해방 때까지는 물론 6.25사변을 전후한 시기까지 꾸준히 간행됐는데, 창간 이래 변함없이 항일민족주의 입장을 지키고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 달성에 최고목표를 두었다. 조국 독립운동의 정책에도 독립 전쟁론과 실력 양성론을 제시하여 상호 보완토록 했다. 1946년 3월 21일에는 한글 타일췌팅 기계를 주문했다.

◆ 1909. 6. 23: 본국에서 본보 127호와 대동공보 33호를 치안방해라 압수하였는데 본보 압수는 장인환의사의 합전(모금 계산서)을 게재하였기 때문이다.

◆ 1914. 12. 5: 학생영문보에 대하여 도와주신 동포에게 감사하오나 이제 가장 민망 되는 일은 그 수요가 많치 못함으로 만일 더 들어오지 않으면 학생영문보를 계간 할 수 없는 즉 필경 그 돈을 도로 보내주어야 할 터인데 ..... 이왕 도우신 성의를 끊을 것이 실로 가석하리рода. 침위 동포는 십시일반의 힘을 도움기를 경요. 학생영문보 사무원 백일

< 통신기서 조례>

1. 일체 통신기서를 환영함
2. 주장과 논조는 본회 주의 정책에 모순되지 안이함을 요청함
3. 기서의 자수는 1천자 이내로 함
4. 통신은 정확한 사실을 요하며 발생의 일자 지점과 목적 및 이유를 밝히 쓰기를 요함
5. 통신기서의 문자를 산삭하는 권은 편집부에 있음
6. 통신기서는 중앙 상무부 총무에게로 보내며 반드시 기서인의 성명 주소를 밝히 기록할 일
7. 통신기서가 2항과 6항에 위반되면 게재를 허락지 아니 함
8. 게재하지 않은 통신과 원고는 신문사 통례에 의하여 본인에게 돌려보내지 아니함

특파원이었던 한산교는 만주를 여행하면서 바다 건너 국민회 지부의 활동에 관해 보고했다. 이것이 대한인국민회의 주간신문이며 공식기관지였던 국민보(The Korea National Herald)의 시작이었으며 박용만과 김현부같은 훌륭한 편집자가 있었다.

##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간된 주요 신문

### 독립(Korean Independence)

조선민주혁명당 미주지부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에서 1943년 10월6일 창간된 주간신문이다. 조선민주혁명당은 김원봉 등 재중국 좌익 독립운동 단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발기인은 김성권, 변준호, 최능익, 김강, 이경선, 신두식, 김혜란, 최봉운, 황사용 등이었다.

매주 수요일 발간된 신문은 국문 3페이지 영문 1페이지로 나오다가 국문2페이지 영문2페이지로 간행되었다. ‘독립’이 창간된 무렵은 종전 후 피식민지 민족들의 지위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우리 민족도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해야 할 중대한 시기였다. 그러나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독립운동단체간의 갈등이 거부의 중요한 구실이 됐다.

‘독립’의 창간호에는 어떠한 특수한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태어난 대변자가 결코 아니고, 이 신문의 기초가 되는 정신과 철학은 ‘공평무사’ ‘무편부당’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사설, 국내소식, 전쟁소식, 해외소식, 광고문과 다양한 기고문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1945년 9월부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북한의 김일성과 스탈린에 대한 찬양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며 1946년부터는 김일성 찬양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부터 대부분의 기사가 북한위주로 쓰기 시작하여 결국 미국정부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견제 강화로 1955년 12월 폐간됐다. 기독교 사회주의, 진보적 좌익과 극단적 좌익을 대변한 신문이었다.

### (The Korean American Times)

동지회는 1921년 7월 2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주사회 최대의 한인단체인 대한인국민회와 반목과 협조를 거듭하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북미시보는 1943년 2월에 북미지역 동지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한인동지회 북미총회가 발행한 주간신문이다. 1946년 2월 15일 식자기를 주문하고 사업을 확장했다. 북미시보는 영문난도 만들었는데 우리 일반 동포에게 보다는 “대외 선전 상 외국인에게 우리의 정형을 만 분의 일이라도 알리고자 함이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했다. 보수우익을 대변한 신문으로 1946년 12월 15까지 발행했다.



미주 한인은 망명, 도피 또는 유학으로 비교적 계획적이고 자발적으로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시적인 체류나 망명이 끝나면 언제든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하고 살았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그들은 문학의 모습이나 연극의 모습을 빌어 갖가지 천대와 멸시를 받고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글을 쓰고 연극을 했다. 조국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가 주어졌던 초기의 이민문학과 예술세계를 돌아보는 것은 이민역사에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미주 한인 이민자의 문학작품은 사용된 언어 즉, 국문과 영문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다. 그러기에 미주 한인문학을 한국문학으로만 다루기엔 무리가 있다.

당시 대부분의 문학 발표무대는 신한민보였다. 당시 대한인국민회는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던 유일한 기구였고 신한민보는 미주지역 한인공동체를 대표하던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였다. 자연히 대부분의 미주에 살던 지식인이 신한민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삼일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나 반성 역시 신한민보를 중

이루어졌다.

또한 문학의 내용이나 주제도 ‘교육과 실업의 진발, 자유평등제창, 동포의 영예증진, 조국의 독립과 광복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다 송실대 조규익 교수의 노력으로 초기 이민 문학이 빛을 보게 됐다. 신한민보에 발표된 글들을 피 묻은 신음이라고 말하는 그는 “누렇게 바랜 채 바스러지는 신문지 쪽과 너덜거리는 책갈피 속에 눈빛 시퍼렇게 살아있던” 작품이라고도 표현했다.

현재 남아있는 한인 이민 작품은 수백 편의 시가와 수십 편의 소설 및 희곡이다. 일부 작품들이 영문으로 쓰여 한국 문학 범주에 넣기가 애매해 보이나, 영문 작품도 표기만 그럴 뿐 상당부분 주제 의식 등장인물이 한국의 것들임을 들어 조규익 교수는 우리문학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포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연극은 해방 전 미주 한인공동체의 문예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 한인공동체의 정체성 확립과 정서적 결속에 큰 기여를 했다. 아직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은 분야로, 이 장에서는 조규익 교수의 책과 여러 참고 문헌 및 신한민보를 통해 적어도 생각과 사상에 구속 받지 않았던 초기 이민의 문학과 예술세계를 돌아보기로 한다.

신세계의 체험의 차이는 이민들의 갈등의 요인이자 문학적 형상화를 자극하는 원동력이나 문학적 원형으로 작용하였다. 초창기 국문문학은 이민문학의 중요한 부분이면서 영문표기 이민문학을 연결시켜주었다. 구세계에서 탈출한 주인공이 신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좌절의 체험들은 특히 소설에서 이민문학의 공통점이다.

Gary Pak의 *A Rice paper Airplane*과 김난영(초기 이민 비행사 한 장호의 부인)의 *Clay Wall*은 좋은 예이다.

전자는 죽음을 앞둔 주인공 김성화가 조카뻘인 용길을 만나 험난했던 과거를 술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그의 욕망은 일제 세력에 대한 반항과 항일투쟁을 거쳐 하와이까지 오게 되었지만 일본인에서 미국인으로 바뀌었을 뿐 그를 압제하는 세력은 여전히 참담한 비극으로 부각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리고 하와이로 전전해 온 혁명가 김성화. 다시 조국으로 귀환 하고자 하는 꿈은 실현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휴먼스토리이다.

창작시점은 해방 후이고 서술자의 발화시점은 1928년 2월이다.

김난영의 *Clay Walls*도 마찬가지로 이민 1세대 주인공 혜수가 신세대에서 겪는 시련과 투쟁과 좌절을 그려내고 있어 이 작품은 단순히 혜수라는 주인공의 개인사가 아니라 한인 이민 전체의 역사적 서술서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며 신세계에 적응하는 것은 구세계로 귀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결국 귀환의 꿈을 이루지만 일본제국 주위에 의해 파괴된 구세계는 이미 신세계로 바뀌어 있었다.

다시 복귀한 신세계(지금의 구세계)로 복귀한 미국에서 이전보다 혹독한 시련을 받으며 작품후기에 마지막 부분에서 작자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구세계의 현실을 제시하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어

포기하고 그냥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한인 이민들의 강요된 선택을 결론으로 내놓는다. 즉 해수가 몸담고 있던 진보개혁 한인회를 남한정부에서는 공산조직으로 낙인찍혀 그녀는 남한으로 갈 수가 없다. 다른 것은 다 놓아도 구세계 귀환의 거점으로 삼고 있던 광산의 땅마저 공산치하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남북한으로부터 모두 배척받던 한인 이민들의 곤경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그려내고 있으며 구세계의 귀환도 신세계의 적응도 동화도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쉽지 않았던 이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초기 이민문학은 소재 주제 구조가 자서전적 경향이었으며 그것은 이민 첫 세대들에 의해 영문으로 쓰인 단행본 규모로 첫 장르였다. 초기 이민 아시안 중에 세 명의 소설가를 뽑자면 강영길, Richard E Kim과 김영익으로 세 명 모두 한국 사람이라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1936년 7월 19일자)는 보도했다.

## 가

초기 이민의 시기에 건너온 한인들의 경우 농민, 노동자 등이 대부분이어서 전통문화나 생활 속에 노래로 부르던 전통시가를 지속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신한민보를 주도하던 지식인들도 구미의 시 양식론을 이용하긴 했으나 창작에 있어서는 전통시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20년 중 후반에 국내문단의 문학운동의 하나로 시조 부흥론을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펼쳤는데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운동이 있었다. 1918년 이후 창가나 국문 시 모 집광고를 통해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국문시 운동을 전개하려던 신한민보는 전통시의 구조를 영미시의 이론을 원용하여 합리화하고자 노력했다.



본국에서 많이 불리던 노래 형태인 창가는 미주 한인사회가 동포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도입한 장르로 국권회복의 의지와 실항의 서러움을 노래로 표현하였다. 시가에 있어서는 이민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전통장르를 노래한 인사들과 새로운 실험을 통해 변용을 시도한 인사들이다. 그러나 내용이나 주제가 무엇이든 결국은 구세계에 대한 그리움과 일본세력에 대한 노여움과 회복에 대한 공통된 염원으로 표출되었다.

< 공립협회창립 기념노래(시가)>

이날이여 협회창립 된 날일세

우리동포 공합하야 단성립 하였고나

깃뿐날 깃뿐날 공립협회 창립한날

우리들의 노래소리 한곡도로 넘혀보세

◆ 1914. 7. 30: 이달 26일에 본항(샌프란시스코)에 재류하는 한 인문인 시객들이 금문공원에 있는 스트로베리산상에 재회하여 시회를 열었는데 금문공원에 있는 화초와 금조들이 비로소 주인공을 만났다는 풍설이 있다더라.

◆ 1914. 8. 6: ‘한국문풍월’경연대회가 ‘꽃’을 시제로 열렸다. 31장에 달하는 글이 들어왔는데 그중 당선작이 다음과 같다

\*1등 샌프란시스코 일녀사: 비단같이 곱고 맑은 향내 없으면 봄바람에 피어도 누가 사랑하겠노 \*2등 다뉴바 손건: 봄빛을 사랑하고 희고도 붉었으니 빙긋이 웃는 태도 그 누가 물들었노, \*새크라멘토 리안: 붉은 입순 반 열고 능히 나비 부르니 소리 없이 우셔도 네 마음을 뉘 아노, \*씨니베일 구연성: 고운 얼굴 숙이고 아침이슬 찬나뉘 수물 밑에 숨어도 향내조차 그 길로.

◆ 1915. 2. 24: 서적광고

국한문책-초등식물학(30전) 헌법요의(37전) 대한지지(42전) 국가사상(27전) 대한역사(70전)

- 십삼도 유람기(일절 40전) 국민개병설(50전) 국민독본(형  
견두경 1원, 종이뚜경 80전) 영어독학(25전) 군인수지(1원) 동국위인  
최도통전(매권에 35전) 신한민보사 고백

◆ 1918: 미주 창가모집

1. 보통 4절 이내 2. 후렴을 겸하면 3절 이내 3. 순국문으로 요구  
함 4. 창가의 명목을 요구함 5. 신구조간의 다수를 요구함 6. 작자  
의 성명이나 별호를 요구함 7. 기한은 1918년 8월 10일로 정함.

Korean Song Publishing Office 212 Marchesault St. 로스앤젤레스

◆ 1948. 6. 17: 본보 주필 홍언씨는 중국의 항일시기 각 신문에  
기재한 논설과 시를 출판할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6월 10일 상항에  
전왕하여 수일 체재하다가 13일 나성으로 회환하였다.

도산이 지은 노래도 수십 편이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의 애국  
가와 거국가 그리고 흥사단가가 유명하다. 거국가는 도산이 1910년  
4월 망명하기 전에 망명을 예시하며 지었다. ‘거국행’ ‘한반도작별  
가’ ‘간다간다 나는 간다’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노래는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소개되었고 이후 국외 동포사  
회로 번져나가 1915년11월 11일자 미주 신한민보에도 소개되었다.  
4절로 이루어진 이 노래가 민족사립학교에서 애창되자 조선총독부  
에서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거국행 신도’라고도 불린 이  
노래는 암암리에 전국으로 퍼져 골목마다 유행가처럼 울려 퍼졌다.  
여기서 신도란 하와이를 일컫는다.

도산은 변함없는 애국심을 노래한 우리나라(6절), 우리 국토에 대  
한 절절한 사랑을 노래한 한반도가(6절), 독립을 노래한 단심가(1  
절),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학도가(4절), 흥사단 전과를 위한 항해  
가(4절), 민족교육 학교에서 많이 불리어진 혈성대(7절), 동명성왕,  
을지문덕, 이순신의 빛나는 업적을 노래하여 애국심을 자극하는 격  
감가(4절)등의 노래를 만들어 애국정신의 사상을 심어주었다.

한편 1936년 안익태가 작곡한 ‘대한애국가’의 작사 “동해물과 백

.....”도 도산이 지었다고도 하는데 윤치호가 했다는 설이 더 많은 것은 당시 신한민보에 윤치호 작사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 (총 4절)>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일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 할지나  
그 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지니  
나간다고 설어 마라 나의 사랑 한반도  
(이하 생략)

<홍사단가>

조상 나라 빛내려고 충의 남녀 일어나서  
무실역행 깃발 밑에 늠름하게 모여드네  
부모국아 걱정 마라 무실역행 정신으로  
굳게 뭉친 홍사단이 네 영광을 빛내리라

<단심가>

(공립신보 3월 11일 - ‘우리 한국의 앞날’로 3시간 50분 연설 뒤에 끝맺음 한 가사)

어여 지야 어서 가자 모든 풍파 무릅쓰고  
문명계와 독립계로 어서 빨리 나아가자  
멀망과에 든자들아 길이 멀다 한탄 말고  
희망가를 굳이 꽃고 실행 뜻을 높이 달아  
부는 바람 자기 전에 어야 지야 어서 가자

< >

( 1918년 8월 8일 -미주지방에 산재하는 동포들이 도산 선생의 방문환영을 위해 지은 노래로 찬송가 162장에 맞추어 불렀다.)

- |               |             |
|---------------|-------------|
| 1. 즐겁도다 오늘날에  | 귀한 선생 만났세라  |
| 길고 오랜 장마 날에   | 청천백일 빛이 난 듯 |
| (후렴) 선생을 선생을  | 오늘날에 모셨세라   |
| 높은 덕을 사모하여    | 한 곡조 노래하세   |
| 2. 경애롭다 우리 선생 | 충의 열성 간절하사  |
| 모든 곤란 모든 풍파   | 날로 길이 받았고나  |

시가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반영한 소설들이 주를 이룬다. 소설이 시가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계몽에 가장 유용한 장르로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주제의식으로 나타난다. 일제 항의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던 본국과 달리 미주지역은 표현의 강도 면에서 자유를 누리며 현실의 목적의식을 마음껏 담을 수 있었다.

재미한인 1세대들의 작품은 삼일운동 이전이 소설은 주로 낭만적 애국주의가 주제의식이고 삼일운동 이후의 소설들은 계몽의식과 애정 등 인간심리나 현실문제의 추구 등이다.

신한민보에는 매호 빠짐없이 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서적들에 대한 광고가 실리곤 했는데 북미 소년서회나 태백서관 서점 등이 책들을 수입하고 광고하였다.

3.1운동 이전의 소설작품은, 순수한 전쟁을 통하여 애국정신과 방법을 보여주고자 했던 ‘애국자 성공’, 전쟁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애국정신을 형상화 하려했던 ‘털혈원앙’, 애국과 사랑의 두 축을 중심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에 따르는 고통의 과정과 식민지적 현실과 당위성을 묘사한 ‘남강의 가을’, 일본군에 잡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남편과 아버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난처난처’등이 있으며 남녀의 결연담과 첩보담이 하나로 합쳐 전대되는 ‘옥란향’은 긴박감과 긴밀한 짜임새가 소설적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한민보에 실린 해방 전 작품은 대략 30편으로 3.1운동 이전의 소설들은 20작품에 가깝다. 3.1운동 직전부터 1920년 말까지 2년여 동안 소설작품은 실리지 않았고 순수 창작소설이 1921년부터 등장했다. 1941년 이후 해방까지의 기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3.1운동 이후의 소설은 차분한 계몽의식과 함께 애정 등 인간의 심리나 현실문제에 대해 추구하였다. 작가로서의 전문성보다 한일합방으로 손상된 자존심을 보상받으려는 지식인들의 욕망을 소설형식을 빌려 쓴 것이 3.1운동 이전 작품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하려 한 것이 3.1운동 이후의 경향이다.

한인들이 겪은 문화적 충격의 하나가 애정모벌이다. 작자는 작품 속에 그것을 드러내며 나름대로 어떤 모델을 제시하려는 의욕을 보여준다. 민족적 현실에 본국의 소설문학과 현지의 새로운 체험을 통해 쓰인 소설은 3.1운동이후 해방 전 작품은 모두 13작품이다.

투쟁정신과 애정윤리가 미적으로 드러난 작품은 ‘고향의 꿈’ ‘동지’ ‘무덤에 정을 붓쳐’ ‘원정대’ ‘돌 먹는 사람들’ ‘새벽길’이다. 전통적 애정 모벌의 변이와 지속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적 본질을 탐구한 작품은 ‘사랑하는 누님께’ ‘자유혼인’ ‘현미경’ ‘해당화’등이다. ‘특이’는 인종적 편견과 빈부격차등 사회의 모순에 비판적 주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채로운 것은 본국의 문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향의 ‘사랑의 빛’과 ‘탈선의 최후’등 종교소설이 나온 점이다.

조규익 교수는 ‘해방 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이라는 책을 통해 초기 이민들이 쓴 소설 작품들이 본국에서 등장한 소설 못지않게 작

지냈다고 보아 다각적 평가를 거쳐 우리문학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909. 8.25: 재미동포 중 유지제씨가 사회지식을 발전하기 위하여 ‘소년서회’를 성립하고 각항 서적을 출판하기로 하였는데 우선 내지(본국)에서 압수당한 서적 중 ‘금수회의록’이란 소설을 본사에 위탁하여 출판하였으니 동포는 다투어 구람하시기를 깊이 바라노라.

◆ 1914. 8.25: 정치학에 고명한 안국선씨가 저술한 ‘금수회의록’은 이상 소설로 볼수록 재미있고 국문으로 만들어 보기가 쉽다. 당시 한국에서는 압수당한 책으로 가격은 한 권에 25전이다.

## 및 연극

본국과는 달리 미주사회의 한인들은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희곡이나 연극을 주도한 인사도 역시 신한민보의 핵심인 동해수부(홍인)이나 백일규였다. 이들은 한인사회의 연극을 주도하였으며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소규모 연극들이 공연되기도 했다.

연극을 지탱하는 두 요소는 긴장과 갈등이며 그 표현은 모방과 보여줌이다. 연극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의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시나 소설이 간접적이라면 연극은 직접적이다. 미주 한인 지도자들이 동포들로 하여금 애국의 정신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연극보다 더 효율적인 장르는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한일합방후의 팽배하던 항일정신과 복수심이 3.1운동 이후 자신들의 현실과 내면을 직시하고 삶의 모습이나 문제점을 연극으로 성찰하려 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10년대의 것이 ‘반도영웅’ ‘동포’, 20년대의 것들은 ‘시대의 희생’ ‘열혈’ ‘우리나라 만세’ ‘초로인생’ 등이며 30년대 작품으로는 ‘돈만 아는 세상’ ‘열세집’ ‘타향의 30년’ 등이다. 또 40년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작품으로는 ‘무궁화’ ‘한국청년 전디공작대의 비장한 연극’등을 들 수 있다. 작품의 성격으로 보면 10년대의 작품에는 완벽한 승리를 통하여 일본을 징계하는 내용들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한일합방의 충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년대의 작품들에는 3.1운동의 회고와 반성, 식민지하의 빈궁이 그려있고 30년대에는 조국애, 이민생활의 애환이 나타난다. 40년대에는 급변하는 시국을 반영하듯 투쟁적 성향으로 바뀐다.

‘반도영웅’과 ‘동포’는 ‘신편인극’과 ‘신무대’의 장르표지가 붙어있는데 이 말은 당시 한인사회에 실제로 무대에 올려진 작품임을 나타낸다.



항일이나 독립에 대한 주제를 다뤘던 연극

## 공연된 연극

◆ 신한민보 1914년1월1일자에서는 1913년 12월 24일 밤 한인교회에서 거행된 ‘구주탄일경추예식’에 관한 소식을 전하며 당시의 분

이렇게 전하였다. “희대(연극)에서 노름하는 일을 할 때에 죄인이 회개하는 일과 교인들이 면류관을 받는 일과 외국사람이 전도하는 일 같은 재미있는 일이 많았으며 내빈은 남녀동포 다수가 참석하였더라.”그 기사 다음에는 연극 ‘신무대’의 내용이 요약 제시되어 있다.

ㄱ. 숙성한 교우의 훌륭한 정성, ㄴ. 그리스도 군병의 찬송하는 소리, ㄷ. 아름다운 성도의 영광이 찬란한 월계화관, ㄹ. 마귀의 눈물 (제1막 마귀의 눈물, 제2막 맹회두의 불행, 제3막 가정의 파락, 제4막 천사의 날개), ㅁ. 백인 전도사가 한국말로 전도, ㅂ. 청인 전도사의 청어 강도.

◆ 북미지방총회 총부회장 취임식이 1914년 2월28일 본 총회관 내에서 열렸는데 여흥순서로 연극이 공연됐다. 신한민보는 3월5일자에서 본향(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녀동포들이 일제히 참석하였고 취임식을 행한 후에 여흥으로 ‘신무대 태극기’라는 하는 연극을 재미있게 구경하고 다과를 나눈 후 동 12시에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또 동 신문은 이 연극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신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신한민보는 몇 차례에 걸쳐 연극에 관한 기사를 신고 있다.

◆ 1914. 9.10: 연극의 희문이 풍속개량과 정신고취에 필요함 인류사회의 동작하는 모습을 글로 쓰고 말로 전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감동하기 쉽게 하며 재미있기 쉽게 함이라. 문명한 나라 사람들은 미술의 능력으로 연극장을 화려하게 하여놓고 인민을 즐거워하게 하여 마음을 활동케 하니 연극은 보통 교육의 한 부분이라.

◆ 1916. 2. 8: 단기 4249년 경축기념일과 대한인국민회 창립 제7회 기념식 기사

이번 예식은 연극에 힘을 많이 들인 고로 시간을 경제하기 위하여 예식은 간략하고 엄숙함을 주장하여 인하여 폐식하고 제2식을



제2식을 맡은 홍언씨가 ‘반도영웅’이라는 연극문제를 내어 걸고 국민무대를 열어 놓는다. ‘반도영웅’은 연극의 이론과 창작에 이르기까지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는 홍언의 작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이다.

제1막 불쌍한 노인, 제2막 기특한 차돌이, 제3막 내가 누구뇨, 제4막 애정과 전쟁.

◆ 1929. 5. Korean Student Bulletin: 중가주의 리들리 연극팀의 오페라 공연 / 8살부터 15살로 사이의 10명의 소녀와 5명의 소년으로 구성된 리들리 연극팀이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만원을 이룬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Life Like Morning Dews’라는 오페라를 공연하였다. 잘 지도된 연기와 아름다운 노래는 많은 공감을 주었다

◆ 1943년 11월11일자: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에서는 10월 31일 뮤지컬 웨스티발을 열었다. 프랜시스 황, 베틀리, K.리. S 리, H. 김 외에 5명의 독주와 프랭크 리가 성가대와 함께 하였다.

## Peter Hyun 활약

1924년 17살에 미국에 온 피터 현은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디애나의 De Peuw 대학에서 철학과 연극예술을 공부했다. 1930년 매사추세츠 극장에서 열린 하계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열정을 키운 후 뉴욕시 극장 무대담당 보조 매니저로 일했다.

그 극장이 문을 닫자 캠브리지에 ‘The Studio Players’ 극단으로 가서 1931년 10월 입센의 ‘When We Dead Awaken’으로 데뷔했다. 12월에는 ‘Shaw’s Great Catherine’을 연출하고 1932년 2월에는 체콕의 작품 ‘Uncle Vanya’를 그리고 4월에는 ‘Qintero Brothers’ Fortunata’ 를 연출했다. 압도적인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한 배우들이 그의 연출을 거부하는 일이 생기자 그는 커다란 충

입는다. 하와이로 돌아온 그는 카와이에서 ‘Cane Fire’를 찍으며 자신이 직접 역을 맡고 배우가 된다. 1933년에는 코네티컷 하트포드에 있는 극장의 무대 매니저로 있었다. 1935년 ‘New York Federal Theatre’에서 연출한 ‘Ferdinand The Bull’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어 ‘New York World’s Fair’에서 테잎으로 상영되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얼에서도 연출을 한 그는 1930년과 1940년대 극장에서 몇 명 안 되는 소수민족의 한 사람으로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평생 자신을 따라붙은 ‘차이나 맨’이라는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주류사회에 아시안 그리고 코리언의 재능을 알리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는 초기 이민의 애환을 그린 ‘만세’와 ‘In The New World’ 2권의 저서를 남겼다.

## 화

남가주의 할리우드는 영화의 본고장으로 일찍이 도산 안창호의 장남 필립 안이 배타적인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한국인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1936년 미 영화계에 진출하여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TV 시리즈 ‘쿵후’에서 신비의 무술을 가르치는 소림사 도사 역을 맡았다. 이 시리즈는 방영기간이 4년을 넘었다.

그는 아버지 도산 안창호가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을 위해 중국과 한국에 나가 있어 만아들로서 가정을 돌보아야 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로 빌딩 청소로 접시 닦기로 신문배달로 막일을 하며 아버지를 원망도 했다. 그래도 “너만은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며 USC에 재학 중일 때였다.

마침 영화사에서는 USC 풋볼 팀이



안의  
할리우드 별자리

영화 제작에 엑스트라를 모집 중이었는데 필립안도 면접 실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복도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대다 마침 그 옆을 지나던 감독 Lewis Milestone과 부딪혀 그 순간 그의 영화로의 길은 열리게 되었다.

중국인 역을 맡을 조연배우를 물색 중이던 감독과의 만남으로 그는 그의 처녀 작품인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제작한 ‘Anything Goes’가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세계대전 당시 미국사람들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쟁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는 영화에서 동양인 적군 역을 도맡아했다. 목소리가 좋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 필립 안은 오디션을 통해 발탁되어 단역으로 시작하였으나 미주에서 대표적인 동양계 배우가 되었다. 40여 년간 헐리웃에서 3백여 편의 영화와 TV에 출연하였다.

그는 1905년 3월 28일 LA에서 출생했는데 미주 이민 한인 2세 중 제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사병으로 입대하여 태어난 나라에 충성을 하였다. 평생을 총각으로 지낸 그는 파노라마시의 명예시장으로 20년간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를 하였으며 한국과 월남전에 미군을 위문하러 전쟁터를 찾은 유일한 한인계 배우였다.

1978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는 가난과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 넘어 초기 이민에 희망을 준 위대한 한인 2세였다. 1984년 11월 14일 로스앤젤레스 헐리웃 명성의 거리(Walk of Fame)에 작고한 필립 안의 별을 붙이는 행사가 화려하게 열렸다. 톰 브래들리 사장은 그 날을 필립 안의 날로 선포했다.

◆ 1959. 1. 29: 대한인국민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안창호의 아들 안 필립이 기념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영국 런던으로 활동사진을 만들러 갑자기 가게 되어 기념식에 참석 못하게 됨을 유감이라 했다.

## 용

◆ 1937 12월11일 한국의 전설적 무용가 최승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하였다.

◆ 1948. 3. 25: 고국 가무 연주단 ‘조선 무용단’8인이 상항에 안착하자 한장호, 황성탁, 이용준이 오클랜드와 상항 유람을 시켜 주었다. 각 지방을 순회하며 연기하였다.

## 음 악

◆ 1914년 샌프란시스코 한인 학생 밴드 11명이 제 5회 국민회 기념식에서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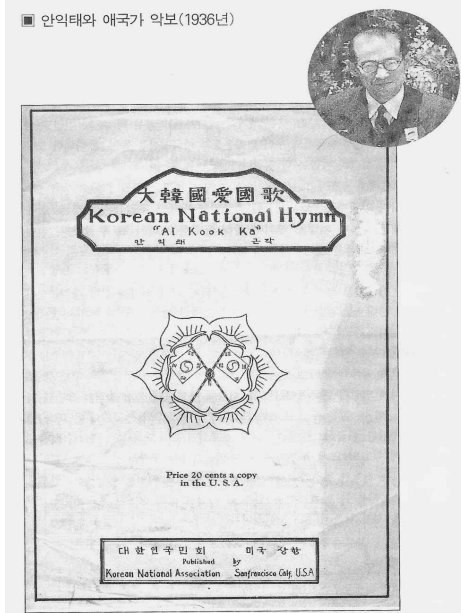
◆ 1936년 3월 26일 애국가의 탄생: 일본 동경에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평양에서 고별 연주를 끝낸 안익태는 1930년 초 음악연구 차 미국에 당도하였다. 미국에서 첫 주일 예배를 상항감리교회에서 드리며 예배시간에 첼로 연주를 하여 교인들은 큰 감명을 받았다.

당시 고국을 그리던 사람들은 감격으로 스코틀랜드 민요에 “동해 물과 ……”로 시작되는 가사를 붙여 애국가를 다함께 불렀다. 안익태는 이때 이 불멸의 애국 가사에 한국의 혼에서 흐르는 음률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애국가를 작곡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감격과 영감이 그 동기가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 1933년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 학생들은 한 달에 한번 음악 프로그램을 갖고 음악과 합창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1933년 11월 23일 8시 반에는 뉴욕 500 Riverside Dr.에서 안익태의 첼로 리사이틀이 열렸는데 입장료는 1불50전이었다.

◆ 1933년 12월 24일 시카고대학에서 열린 11개국의 동양학생대회에서 김매리의 가야금연주가 인기를 모았다.



애국가 악보

◆ 1936 3월 26일에 5년 전에 미국에 와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던 음악가 안익태가 ‘대한애국가’의 작곡발표가 있었다.

◆ 1954년 4월 9일 본국으로부터 봉숭아합창대 일행 38명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에 사흘 동안 유숙하고 인근각처의 초청을 받았다. 7세부터 12세까지 여아 22인과 남아 3인으로 미국 방문 목적은 한국전쟁 고아들과 그들의 교육을 위하여 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으려는 것이었다.

뉴욕 시카고 대도시를 돌며 2백 27회 공연을 하여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 19일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일주간 묵으며 다시 각처의 초청을 받았다.

◆ 1958년 2월 2일 남가주 버뱅크시에 잔 바로 공회당에서 음악가 안익태씨가 버뱅크 교향악단을 지휘하였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각 도시에서 교향악 지휘자로 명성이 높았던 그는 전 미주와 하와이에 순회 공연하는 중이었다.

## 육

◆ 1933년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한인 학생간의 농구 친선게임이 연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1947년 4월 19일 보스톤시에서 제51회 마라톤 경주를 하였는

한국서 온 서윤복씨가 1등 상을 받았다.

◆ 1948. 5. 27: 신리치군 허니문에서 손바람을 내어-“국민회 상  
항 지방회 지방위원장 신달윤씨 동부인의 3자 리치군은 결혼 후 허  
니문에서 돌아와서 뉴욕 캐나다 각지를 유람하며 6개월이나 감밀한  
시광을 보내는 가운데 도처 링 싸이드에 권투선수와 시합하여 누차  
승리를 얻어 대환영을 받고 5월 9일 상항에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  
고 있다더라.”

◆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이순기  
씨의 외아들로 한인 2세인 새미 리박사가  
미국대표로 출전한 10미터 하드 다이빙에  
서 유색인종으로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  
였다.

◆ 1952년에 출전한 올림픽에서도 새미  
리는 금메달을 받았다. 그는 의사이기도  
하다.



번 올림픽 금메달을  
받았던 새미 리

## 및 사진

도산 안창호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던 선각자였다. 사진술이 미흡  
하던 시대 수많은 사진을 남겼다.

◆ 1914. 10. 22: 사진교수광고-사진 박는 법을 배우시기 원하시  
오?-여섯 달이면 영업 할 만치 또 나와 같이 남을 가르칠 만치 미  
술에 재미도 붓고 돈도 많이 벌게 가르치는데 교수비는 다만 50원/  
활동사진 만드는 법을 배우시기 원하시오?-내게로 오시오. 유명한  
‘포토폰레이’를 가르치고 교수비는 2백 50원, 활동사진기계 한 벌 2  
백50원, 사진사 배병헌, 통신번지는 신한민보사

◆ 1914. 11. 19: 본 항에 유하는 사진사 배병헌씨는 중국사람  
5,6인으로 작은 단체를 성립하고 본 항 스타톤 골목 942호 집에 사

설치하고 활동사진술을 중국인에게 교수.

미국상항 화려 사진관-본인이 만든 본국 경치 포스트카드 판매

◆ 1918. 6. 20 (신한민보): (칼러 필름이 처음 시판될 때) 사진채색은 살빛과 같이도 할 수 있으며 사진 박을 때에 꽃을 찾던지 꽃밭에서 사진을 박았는지 꽃과 같이 색채를 낼 수도 있으며 값은 사진 한 개에 25전에서 원까지, 필름 채색은 한 개에 1원으로 10원까지 받으오니 동포는 시험하여 보시오.

사진사 허학. 9 E. Sonora St. 스타톤

◆ 1918. 7. 18: 사진기계 휴대법의 엄중-상항 세관은 사진기계 휴대를 절대 금지하여 위반하는 자는 간첩죄로 잡아 1만원 벌금 또는 2개년 금고에 처할 것이다.

◆ 1942. 10. 8: 재미 한족 연합회 집행부는 라성 한인 경위대의 팔병식과 상항 한인 맥아더일 행렬의 참가와 및 이번 8.29 현기식에 백인 모든 활동사진을 합하여 완전히 만들기 위하여 10월 4일 할리우드 활동사진 회사의 사진사를 청하여 교정을 더하였고 오래지 않아 완성이 되면 이를 가져 각 지방 동포에게 보일 예정이라더라.

◆ 1957년 12월 15일 워싱턴 D.C. 국립미술박물관에서 한국고대미술전시회를 개최하여 대인기를 일으켜 첫날 관람객이 일만 인이라. 이 전시회는 한미 양국인사들 사이에 여러 달 동안을 두고 준비하여 미국인 선택위원들이 한국에 가서 감정하여 고대미술품 금관, 불상, 조각, 도자기 등 187점을 가져왔다. 8개 도시 미술박물관에서 18개월 동안 수백만 미국시민들에게 한국 고대 문화와 민족 예술의 극치를 실컷 자랑하고 1959년 7월 17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 문화

1943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창순, 이창희를 중심으로 정치성을 배제한 교육, 문학, 과학을 위주로 하는 ‘한미문화협회’가 창립되었다. 미국 사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고문으로 추대되었는데 이 중에는 엘버트 아인슈타인도 끼어 있었다. 그는 한미문화협회의 장학기금 분과 명예분과 위원장이었다.

이 단체의 목적은 한국문화를 포함한 동양문화를 미국사회에 전파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관련된 논문과 서적을 번역해 각 도서관에 분배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미국 대학교에 한국 도서실이 생겼다. 1943년 5월 4일 미국대학 중에 하와이 대학이 제일 처음으로 한국 도서실을 설치하고 1년 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생겼다.

## 자서전

◆ Peter Hyun

\*Man Sei!(만세)

1906년에 태어나 한국 탈출과 중국 상해로 건너가 상해에서의 삶, 중국 상하이에 살다가 1924년 17살 때 하와이로 이민을 와서 살 때까지 17년간의 자신의 이야기를 쓴 자서전이다.

\*In The New World -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만세’에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썼으며 이 책에서는 어른이 된 후의 이야기를 쓴 자서전이다. 독립운동과 목회에 투신했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 미국 이민으로서의 첫 걸음, 미국에 적응하는 삶 등은 초기 이민자의 삶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1930년 1940년대에 동양인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차별 받던 시기에 미 주류사회에서 많은 연극을 연출하였다. 연극 연출로 뉴욕과 보스턴 등지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았음에도 배우들의 보이콧으로



정든 극장을 떠나야 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연극에 매달려 성공한 그는 그가 받은 인종차별로 30년간을 고민했다.

그러다 그 이유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무시와 자기의 문화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공포에 기인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결국 미국사회에 한인이 되는 길은 ‘문화의 결혼’이라고 말하는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문화를 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익혀 후세들에게는 차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부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 Charr, Easurk Emsen

1918년 4월 5일 차이석이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에 ‘The Golden Mountain’을 펴냈다.

◆ Koh, Taiwon: The bitter fruit of Kom - pawi

◆ 백인덕: September Monkey

◆ 유일한: When I was a boy in Korea

◆ Lee, Mary Paik: Quiet odyssey

Korean - American Author

◆ 강영길(1903 - 1972)

1903년에 북쪽에서 태어난 그는 동양이민금지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18살에 오직 4달러를 가지고 뉴욕으로 갔지만 그는 서구문명을 배우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학교를 다니며 하우스보이, 웨이터, 접시 닦기, 식품점 점원 등을 했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마치고 하버드대학에 입학하였다.

1933년에 ‘The Grass Roof’ 와 ‘East Goes West’를 썼다. 한국동란 중에 남한군으로 참여하였다. 강영길은 인종갈등과 반민주적 강요에 강하게 반대하며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만 오천 권의 책을 서울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 한국 대학도서관으로 보냈다.

필벽여사는 “강영길은 뛰어난 작가이며 교수로 동양의 가장 총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중의 하나이다.”라고 칭찬하였다. 강교수는 구겐하임 상과 여러 유럽문학상을 받았다.

◆ Kim, Richard E: The martyred - 창씨개명을 하게 된 일제치하의 탄압을 고발하는 내용

◆ 김난영: Clay walls

◆ Jones, George Hebert는 한인들의 초기 이민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다.

‘Koreans Abroad’ ‘The Koreans in Hawaii’ ‘Koreans in America’



한인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왔다. 초기 이민선이 오기 전 들어 온 인삼장사들이 있었으나 극소수였다. 이민 온 사람들은 거의 배우지도 못하고 영어도 못했다. 이들은 자연히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노동을 생계로 삼고 농장, 철도 공사장, 광산 어장 등에서 일했다.

각종 채소농사와 사탕무 농사를 지었다. 과수원이나 벼농사의 경작을 처음에는 주인에게 소득의 일정량을 분배받는 소작농을 하다가 후에는 자작농을 하게 되었다. 포도 복숭아 참외 등 과일 따는 일을 많이 했는데, 도시에서는 음식점 상 시중을 들거나 가정집에서는 집안일을 맡아보았다. 1916년부터 동포의 농사가 확장돼 북가주 맨티카에 27명의 동포가 1400에이커의 사탕무 농사를 지었다.

북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와 콜루사, 우드랜드, 맨티카에서 동포들이 벼농사를 시작해, 1918년에 윌로우스 동포들의 벼농사 농토 면적은 4천 3백 에이커에 달했다. 수확은 2십 2만석이나 되었는데, 그때 쌀 한 포대의 공정가격은 4달러 25전으로 수입은 93만 5천 달러

달했다. 1919년에도 수확이 30만석에 달하여 벼농사에 큰 기대를 걸게 되었다. 농사는 여전히 풍작이 예상되었으나 전쟁 후 쌀값이 폭락하고 갑작스런 흉수로 인해 수확을 못하자 한인들의 경제는 치명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다른 대책이 없었던 한인들은 벼농사를 계속하지 못하자 대부분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상업으로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채소가게, 담배 가게, 이발소, 세탁소, 노동주선소등을 운영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지역에서는 세탁소를 많이 경영했다. 1929년경에는 경제공황이 몹시 심했다. 농사로는 스타톤의 감자 농사와 맨티카의 사탕무 농사, 새크라멘토의 벼농사 소작, 썬터벨리의 일년 감 농사, 중가주의 포도, 참외, 수박 농사들이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라 경제가 나아지자 동포 중에 큰 사업가들이 나오게 됐다. 전쟁 후 일반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한인들의 수준도 나아졌다.

그들은 돈을 벌어 많은 액수를 독립자금으로 냈다. 지금의 액수로 환산을 하면 어머 어마한 액수를 나라를 위해 바쳤다. 대한민국 민회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미주 동포들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을 합치면 가격만도 3백만 달러를 초과하였고 수백만 달러의 사업체를 가진 큰 사업가도 있다고 했다.

해방 후에는 벌여놓은 돈을 가지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영업을 해 조국에서 남은여생을 보내려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해방 후 군정 시절에는 입국의 자유가 없어서 애를 태웠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민의 귀향이 더욱 곤란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단념했다.

## 신한민보를 통해 본 노동과 경제

신한민보는 한인들에게 각 지역 한인들의 소식과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논설, 사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동을 권장하고 실업을 일으키자는 글을 많이 실었다. 농장의 한인들의 상태를 전해 주며 격려하던 신한민보를 통해 당시 한인들의 경제 상태와 노동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 1908. 7. 22: 미국에 있는 동포는 공수(빈손)로 한국이 불가하니 재정이나 학문 둘 중의 하나를 달성치 않으면 귀국하지 말라.

◆ 1908. 9. 16: 미주 한인의 간략한 역사 외에 앞으로의 일할 방향을 계몽한 논설/미주의 한인들이 환국 하는 것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은 것을 경히 보지 말라. 사업을 영구히 하라. 한밭은 미국에, 한밭은 한국에 놓지 말라.

◆ 1908. 9. 23: 논설 ‘노동사회에 권한’/왜 우리 노동자들은 천대받는가? 남의 나라는 단체가 있고 우리는 단체 행동할 단체가 없다. 비록 육체노동을 하더라도 틈틈이 공부하길 바란다.

◆ 1908. 10. 21: 논설 ‘실업이 금일의 급무’/조선이 망한 것은 실업을 숭상하지 아니하여서다. 미주 동포는 실업에 주의하지 않고 다만 1일 1원 75전, 시간당 25전 하는 것에만 주의하니 산업이 생기지 않는다. 실업을 일으키라. 모두 참여하라.

◆ 1909. 2. 17: 일이 없는 상황의 한인들이 오클랜드로 와서 청인의 소굴에서 잡기에 빠진다. 이를 통분히 여긴다.

◆ 1909 3. 24: ‘신용을 지킬 일’/오클랜드에 모여있는 한인들은 무뢰방탕하여 청인에게 알라스카 어장에 가기로 약조를 하고 선금을 가지고 도망하여 청인과 일본인이 가끔 본사로 와서 탐문한다. 약조대로 하는 것이 사람의 행실이고 선금을 쓰고 도망하는 자는 도적이니 빨리 뉘우쳐 동포의 면목을 더럽히지 말고 신용을 완전히

가하다.

◆ 1909. 4. 7: 논설 ‘비독립무국가귀’ / 독립이 아니면 가히 돌아갈 나라가 없나니라. 미주에 있는 동포가 귀국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나라와 집이 있고 없는 것을 구별치 못하는 것으로 단언하노니 나도 귀국 할 날은 바라고 귀국할 날이 있으리라. 타인보다 믿지마는 다만 오늘은 아직 시기가 아니니 청컨대 미주에 있는 우리 동포는 장검을 들고 감개한 소리로 귀국가를 한번 불러보세. ‘도라가세 도라가세 재미동포 도라가세(중략) …… 유사무생 하올때에 귀국하세 귀국하세.’

◆ 1909. 5. 5: 재미동포가 해삼위에 태동실업회사 발기 (자본금 25,000원 / 1000주 25원 / 1주) / 자, 재미동포는 특별한 자질을 가진 자로 상공실업의 막대한 세력을 보이리라.

◆ 1913. 10. 24: 거주 한인 노동 전도 / 지금 거주에 있는 7,8백 명 한인 동포의 생활은 노동에 있으나 1915년 샌프란시스코 만국박람회로 각국 노동자가 증가하여 금년 7월경에 거주에 들어온 외국인 수가 17만 명이다. 이제 곧 파나마 운하가 준공되면 그 역부들도 필연 거주로 돌아오게 되어 노동자가 많아져 한인들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거주에서 동양인 배척문제가 심각하여 우리 한인들은 신과 진실로 일을 하되 노동은 임시생활로 여기고 한푼이라도 저축하여 완전한 농업이나 상업을 경영하여 실업을 잡으라.

◆ 1914. 1. 1: 실업가 자본가에게 / ‘서로 협동하여 실업을 일으키자.’

◆ 1914. 6. 11: ‘미주 동포의 경제상 전도’ 논설 / 생존경쟁시대에 기운을 피고자 하면 경제를 일으키자. 백만장자 청인이나 일인의 부자들도 다 집에서 돈을 가져와서 된 것이 아니니 우리동포들도 사업을 시작하자. 거주 남방에 굴 따는 동포가 1백 명은 되니 50원씩이라도 5천 원이요, 새크라멘토에 합스(밀보리) 따는 때도 1백 명은 모이니 40원씩이라도 4천 원이요, 다뉴바 포도철에 1백 50명이 50

7천 5백원이니, 그곳에서 버는 돈만 합해도 매년 1만 6천 5백원이니 그 외 각처에서 합하면 2만원으로 회사는 매년 하나씩 설립할 수 있으니 동포들은 합심하여 금년 합스와 포도 딸 때 시험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 1915. 10. 28: ‘실업을 주의하라(주목하라)’ / 실업은 실력의 어미, 실력은 인류의 혈맥이다. 실업 실력을 길러 놓은 뒤에야 실지 사업을 이룰 기회가 있을지니 공사간 행복을 위하여 실력 기르기를 각각 주의함이 곧 우리 한족의 급선무라 하노라.

◆ 1916. 8. 3: ‘노동계에 고함’ / 노동은 재미한인 생활의 단목으로 열린 길이라 우리는 노동으로 살아가나니 노동이 아니면 사업도 없고 생활도 없다 하노라. 노동이 아니면 단체도 없고 학계도 없고 내 나라에 돌아 갈 수도 없고 이 나라에 있을 수도 없나니 노동은 우리의 낙관이요 행복이라 노동을 보호하며 노동을 유지하라

◆ 1916. 8. 24: ‘노동 문제 주선’ / 한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주선하고 도망을 가거나 사기를 치니 노동 주선이 위기 상황이다. 노동 주선을 험잡꾼들이 장악하고 10에이커를 맡고 2-3에이커는 으레 은닉하여 동포가 정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을 하면 매를 주고 쫓아낸다. 노동자간에 단결이 안 돼 세 사람만 모이면 뼈죽거리고, 싸움이 생기면 보따리를 싸고 헤어지니 노동주선자는 재정손해에다 신용의 손해를 보아 노동주선이라 하면 도망을 가니 자연히 파락호가 권리를 잡는다. 미국 사람은 신용을 생명같이 여겨 맨티카 양찬관(식당)은 노동 주선자 조동호가 도망한 후에 한인을 거절한다고 한다. 지금 가주에 노동계를 돌아보건데 단결력이 영성하여 노동회를 세울 수도 없고 버려 두자니 재미 한인 장래에 큰 근심이니 북미 총회에서 간섭해 달라.

◆ 1916. 11. 9: ‘전쟁시대의 미국경제와 미국의 장래 - 전쟁 후 가주는 어찌될꼬 / 미국 경제가 뜻밖에 이와 같이 풀려 금년 일년을 아무 일 없이 지낸바 새크라멘토 콩 농장과 각 처 버 농장은 장래

적지 않으며 노동방면으로 말하여도 매일 공급이 보통 2원 50전 이상이니 우리가 이때에 자본을 만들지 못하면 다시 이러한 기회가 없다 하노라.

◆ 1916. 11. 16: 하와이 한인은 일인의 쌀 간장을 먹지 말어라. (우리가 일인 간장을 먹어) 일인을 주는 돈이 1년에 20 만원에 이른다.

◆ 1916. 11. 23: ‘이상하다. 우리 한인은 왜 장사를 못하나뇨’ - 자본이 없는가/ 지식이 없는가, 공동력이 부족함인가. 아라사 사람이 비웃어 말하길 청인이나 일인은 담배장사라도 하거늘 저것들은 남의 품이나 팔고 마니 이상한 백성이라 하더라. 샌프란시스코 그 굉장한 시장에 한인은 무 배추를 갖다 놓은 식물점 하나 없고 하우스보이로 거의 늙어 가니 마땅히 국민경제가 있을 우리가 세계적 경제까지 있을 우리가 영업적 행위에 어린아이가 되고 그 어찌 실패를 면하며 그 어찌 멸망을 면하리오. 미국사람이 일인을 그렇게 몹시 미워하지마는 일본 상업에 가는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은 금전의 세력이라.

◆ 1916. 12. 21: ‘한인 상업 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공급’ - 식물상점을 목덕/ 새크라멘토와 스타튼 부근에 체류하는 동포는 식물상점을 경영하며 상항 방면은 중국인 시가에 고공상점에 식물상점을 겸하여 경영한다 하니 이 두 가지 계획이 다 해롭지 않은 계획이라. 새크라멘토 일본인 상점에서 금년 일 년간 한인의 식료품을 공급한 것이 3만원이라 하니 우들랜드의 이순기씨의 6백 에이커 벼 농장의 일년 식료품 통계가 수천 원이라 기타 월로우스, 델라빈, 콜루사, 빅스의 벼농장과 맨티카등 12곳 농장을 합치면 3만 이상이 될 것이니 일인의 매매는 끊고 북가주는 새크라멘토 남가주에는 쌀타아나에서 자영 농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각 농원에 헤쳐 주어도 이익을 볼 것이다. 각 농장 모든 식료품값이 상항보다 3배가 비싸다.



동포에게 최후로 한마디 말을 더 권하노라. 백 원이나 50원이 실로 많은 돈이 아니니 영업에 마음만 있으면 사람마다 한 고본(주)을 살지오. 나중 결과는 직접으로 이익을 취하고 간접으로 동포의 경제를 늦추어 오늘날 곤란한 형편을 벗어날지라. 그 무엇이 해로워서 빨리 도모치 않나.

◆ 1917. 12. 13: 실업 보호 문제 / 재작년에 비로소 북미 총회에 실업부가 성립되어 총회와 각 지방에 실업부원을 두고 각처 동포의 실업의 쇼당을 조사 보고케 하였다. 실업상 주의 할 것은 1.토질을 검사하고 2. 교섭을 주의하고 3. 계약서 작성에 주의하라.

◆ 1918. 1. 24: 실업문제 1등 당선자 발표-제목은 ‘재미한인의 실업을 어떻게 발전할까?’

1등 시카고 동우(이름없이 응모) 상금 15원-4년제 실업기관을 조직하자. / 2등 헐리웃 로웰(곽립대) 상금 10원-주식회사 조직, 은행설립, 동맹 저금회 조직하자. / 3등 네브라스카(정한경) 상금 5원-4년제 대학을 나와서 실업하자. 농업, 화학, 지리학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2-3년 제 대학을 나와 일하는 방법으로는 부기 회계 자동차 기계학이 있다.

◆ 1918. 5. 30: 한인의 황금시대-이 기회를 잃지 맙시다 / 미주에 건너온 우리 한인이 십 년 동안 노동으로 수천 원 이익을 얻었다 하여 귀국하는데 십여 년간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던 우리 동포가 그 자유정신은 어디다 두고 홀연히 원수의 굴혈로 들어가는가. 오늘날 황금시대에 처한 우리 미주동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업장군의 능력을 다하여 자본을 넉넉히 모은 후에, 장차 평안도로 돌아가던지 경기도로 돌아가던지 하지 말고 어서 바빠 만주를 경제력으로 정복하여 장차 우리 족속의 국가기초를 열어 놓읍시다.

## 도

뚫고 중부로 뺏어나가는 유니온 퍼시픽철도 공사는 한없는 동양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농장의 힘든 생활은 면했으나 여름에는 녹초가 되고 겨울에는 동상이 걸렸다.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 근처의 철도는 거의 한인이 부설했다.

◆ 1905.: 당시 Union Pacific Railroad 와 Southern Pacific Railroad 에서 대륙횡단 철도 부설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 2만 명 모집

◆ 1905. 3.: 철도 대리인이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서 문석홍이 경영하는 한성여관에 사무소를 차리고 5천명을 목표로 인부를 모으려고 하였다.

◆ 1906. 12.: 솔트레이크 리치가 36호에 박제순이 감호여관 개업

◆ 1907. 4. 26: Salt Lake 철도일 일당은 1원 35전에서 1원 55전으로 인상

◆ 1907. 6. 21: Salt Lake 철도일 주선하는 리재수의 말에 의하면 모여든 한인 90여명이 일이 힘들지 않고 수입도 좋다.

◆ 1907. 7. 26: 덴버에서 철로 노동자 구하는 광고로 광고주는 한인의 큰 복덕방이라며 제일 일 많고 품삯 많은 곳이 철로 일이다. 철로일; 1원 50전-2원 50전(1일) 숯 굽는 일과 돌 깨는 일은 2원25전이고 숯 굽는 일은 도급하면 3-4원 이상이다.

◆ 1907. 12. 27: 네바다주 철로역장에서 한인 70-80명 일하다가 감원되어 새크라멘토로 오다

◆ 1908. 1. 15: Fresno에 전기철로신설 3년 공사 300-500명 고용 일당 1원 40전부터 시작

◆ 1908. 2. 5: 철로 일하는 동포의 고생하는 모습을 그렸다.

“눈은 산같이 쌓이고 북풍은 칼같이 부는데 빈들 집 찾간에서 자며 ……”

◆ 1908. 2. 26: 주선책임 신순만이 3-40명 모집 월  
급은 30일 다 일하면 33원

미 철도국 통계에 따르면 철도근로자 평균 임금은 85원

◆ 1908. 10. 7: Salt Lake 웨스턴 퍼시픽 철로회사 일 재개 한인  
3-40명 일함. 몇백 명이라도 더 고용할 것임.

◆ 1908. 12. 9: 웨스턴 퍼시픽 철도회사 대리인 박영준 이재수가  
인부 220명 모집 공가는 1일 1원 45전

◆ 1909. 2. 10: ‘철도 인부 모집 / 동양인 배척하여 일 못하고 한  
탄만 하는 동포여 오라’

백 명 이상을 모집하는데 50명 가량이면 시작하고 상항에 있는  
동포도 다수 하니 기회를 잃지 말고 상항국민회관으로 오시오. 공전  
은 1원 60전 (40전은 먼저 주고 나머지는 녀 달 후에 준다) 만일  
매일 받으면 1원 30전. 일하는 시간은 매일 10시간이고 일터는 태  
평양 연안으로 상항에서 16마일 떨어진 Ocean Shore 철도 회사인데  
상항에서는 차비 없이 내왕한다.

상항 한인 국민회의 영업부 허승원과 김응규.

2928 Sacramento St. San Francisco, Cal

철로역사가 몹시 순조롭다. 십장이 한인에 매우 친근하다

◆ 1909. 1. 13: 네바다주 데이톤의 철도역사에서 일하던 동포 16  
인이 화재를 만났다.

◆ 1909. 2. 17: 오션쇼우 철도 회사에 동포 30여명이 모이다.

◆ 1909. 4. 14: 오션쇼우 철도 역사를 일공이(하루 품삯)이 1원  
40전으로 허승원 김응규가 계약하였다

◆ 1909. 6. 23: ‘철도 역장 변환’신설한 오션쇼우 철도회사는 본  
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 역부에 공전을 더디 주므로 SP 철도회사와  
수십 명 동포가 계약하였다. 캐스밸리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주대학  
에서 고학하는 이대위가 여름방학동안 사무를 담당하여 김응규에서  
이대위로 사무인을 변경하였다.

◆ 1909. 7. 14: 레익 학생 정희원이 철로에서 주경야독

◆ 1909. 9. 22: 시원스러운 일 - 오션쇼우 철도역장에서 일하던 동포가 그 공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을 주선하던 허승원씨가 중간에서 수삭(여러 달) 고통을 당하다가 그 회사 주식증서를 받아다가 은행에 전당 하였던 것을 반값에 방매하여 동포의 공가를 한 푼도 영축없이 주게 되었다니 상쾌하고도 다행한 일이더라.

◆ 1910. 1. 31: 콜로라도주 프로메로 석탄광 개스 폭발, 백 여명의 사망 중에 한인 9명 사망

◆ 1917. 7. 5: CMS Paul 철로회사; 1일 10시간 2원 47전 Grace Montana에 있는 회사

## 어장

알라스카 어장에서는 연어잡이가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다. 북가주에 살던 한인들은 연어 통조림공장 인부로 나서 알라스카로 떠났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한 달에 1백 6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받았다. 혹독한 추위에 잡아온 연어를 씻고 칼로 토막을 내는 일을 할 때는 추위에 손가락이 다 짓무르고 갈라졌다. 일이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다. 알라스카 생선통조림 공장의 근로자 합숙소에 가면 퇴색한 벽에 틀림없는 한국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다고 한다.

◆ 1907. 4. 26: 알라스카는 매우 춥고 중국인, 일본인이 고기잡이 갔다가 죽고 병든 이가 많으므로 역군이 가려하지 않아 선금을 3-40원씩을 주고 모집하는데 속아서 일하러 가지 않기를 당부한다.

◆ 1907. 11. 8: 알라스카 생선잡이 간 한인 귀환 / 백락범, 이춘일, 정길현, 양금성, 김명수, 박기순, 하영숙, 박가현, 김현진 등 10명이 샌프란시스코 도착

◆ 1908. 4. 8: 알라스카 노동 모집 / 김길연 백락범(상항) 문원철

( )이 모집하였는데 김길연이 선불을 주고 작정한자를 문원 칠씨가 또 선불을 주어 데리고 가려하다가 일이 안 되자 청인이 수효가 안 찬다고 문씨 부자를 배에 실었다. 김길연 백락범씨가 모집한 사람이 50명이 넘어서 오늘 출항했다.

◆ 1908. 2. 26: ‘알라스카 인부 모집’

고가: 150원(작년에 가서 배운 이는 180원) 기간: 5개월(다른 곳은 7개월)

다른 곳은 일급 달을 내왕하는데 본인이 주선하는 곳은 다섯 달이면 내왕하고 작년에 일인과 같이 갔던 사람 돈을 찾지 못하고 손해가 많았으나 본인 등은 신실한 보증이 있는 고로 한푼 낙제 없이 출급할 터이니 가기 작정하시면 선급도 주오니 근일 동양인 배척으로 노동도 귀한 때에 이같이 편한 일에 큰돈도 벌고저 하시면 이 기회를 일치 마시옵.

3월 그믐 안으로 상항에 내임 하시옵. 2월 26일 모집인 김길연 전명운 백

◆ 1908. 9. 16: 알라스카 어장 노동자 귀향/1908년 4월에 갔던 50여명이 5개월만에 9월에 귀향하였다. 김길연의 배에 탔던 25명 명단을 발표하고 백락범씨가 영솔하는 배도 곧 도착한다 하였다.

◆ 1908. 9. 23: 알라스카에 갔다 오던 중 양택용은 잡기로 번 돈을 날리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 1908. 11. 11: 알라스카에 갔던 이들이 편히 돌아옴: 정완삼, 최군신, 현승걸, 립중호, 문영수, 문원칠, 정원서, 박종걸

◆ 1909. 2. 17: ‘적한의 간사한 계교’-손병서라는 자가 씨애틀에서 차병관씨에게 알라스카 제조 노동에 가기로 하고 선금 30원과 차씨 몸에서 35원 절도

◆ 1909. 9. 15: 알라스카에 갔던 2인 귀향

◆ 1909. 9. 19: 샌프란시스코 공립회관에서 알라스카 어장에서 일하고 온 한인 환영회 개최

◆ 1909. 9. 29: ‘ ’ 알라스카에 갔던 리만화씨가 고역을 견디지 못하고 기나이 어장에서 황산수를 삼키고 목숨을 끊어 류성균, 정순재, 송재봉 3인이 그곳에 매장하였다. 알라스카어장에 갔던 14인은 무사히 귀환하였다.

◆ 1914. 10. 1: 알라스카에서 무진 고생한 동포 3인 귀향

◆ 1917. 5. 24: 알라스카 어업 배에는 총 150명이 타고 있었는데 침몰로 인해 29인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하였다. 이 사고로 한인 노동자 3인 사망하였다.

### Idria에 Quick Siver(수은) 광산

수은은 몸에 아주 좋지 않은 물질로 일을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많았다. 전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였는데 초기 한인들은 몸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수은 광산에서 일했다.

◆ 1907. 9. 13: 수은광산이 호황이다.

◆ 1909. 6. 2: 오십여 년 전에 개광하여 청인만 부리다가 1907년 프레스노 한인을 처음으로 청하였다. 박도선 김채석씨 등 45인이 응하였다. 프레스노에서 60리가 되는 산꼭에 있는 Idria Quick siver Mining에서 약 20명의 한인이 신용을 얻으며 일하고 있다. 첩첩산중 적막한데 외로운 나그네의 비참하여 …… 화답하는 자 없다. 이곳에 한인이 일한 후로 백인 노동자와 멕시코 노동자가 시기하여 서로 쟁투지경에 이르면 감독과 십장이 한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극히 사랑하여 그들의 자애한 은혜에 감사하다.

◆ 1909. 5. 19: 수은 광산의 한인들 협회에 연금(한영호, 강창헌, 엄성철, 김지경, 리봉운)

◆ 1917. 6. 7: 임금인상-작업시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었고 음식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다

이민들은 와이오밍에 슈피리올의 석탄광산에서 많이 일했다. 1908년 8월 23일 신한민보에는 Rock Springs 탄광과 한인 수십 명이 계약한 내용이 실렸다. 한인은 무제한으로 환영하고 1일 8시간 일에 1월 80-90전하던 것을 3월 10전에서 40전으로 올려주었다.

석탄 씻는 일은 한 톤 당 21전하던 것을 26전으로 석탄 캐는 일은 50전에서 63전으로 인상하여 주었다. 이런 노사합의로 잘하면 하루에 4-5원 벌이가 되었다. 최의성은 1906년 하와이 마우이 농장에서 일하였다. 1907년 12월 와이오밍 팍 스프링스 탄광에서 일하던 그는 석탄채굴 중 굴이 붕괴하여 당시 2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909년 6월 와이오밍에 Savery 석탄광산에서 일하던 이태석은 중산을 입어 같이 일하던 한인들이 도왔다는 기록이 있다. 1918년 노동주선인이 신문에 낸 광고에 의하면 8시간 바깥에서 일을 하면 4원 40전이고 굴 안에서 일을 하면 5원 42전이었다. 석탄 캐는 일은 시간 당 매 톤에 77전이고 나르는 일은 매 톤에 49전이었다.



## 조국을 위해

### 만든 주요 사업체

#### 실업주식회사

1908 김사옥, 김종립, 정원도, 김영일, 황사용, 이재수, 오진국 등 31인이 합동하여 “식산흥업에 근본하여 농상공을 불문하고 내지 혹 외국에 적당한 곳이 있으면 곧 실시하여 우리 국민의 실업계에 표준을 짓자”라는 기치로 설립한 회사다. “내외의 동포는 수백 원을 아끼지 말고 모여 10년, 15년 후에 수억만 원 재정을 정리하면 우리의 잃었던 산림광산 철도권을 다 찾을 것이요 국가의 자주독립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하며 주주를 모집했다. 자본금 2만원으로 8백 구좌에 각 주권 25원으로 목적은 부의 축적과 조국의 광복에 두었다. 이렇게 설립된 아세아실업주식회사는 그 사업을 대한인국민회가 주관하게 되고 원동 독립군 근거지를 만들기 위한 군사운동의 부대사업으로 이어져 태동실업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다.



사무실에는 정원도와 김영일이 책임을 지고 프  
레즈노 연합공립관에는 김사옥과 김종립 담당하였다.

1908년 3월18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방화중씨 등이 “내지(한국)  
동포가 외국인에게 토지 팔아먹는 악폐를 금하고저” 권업주식회사  
를 발기하고 자본을 모집했다.

1909년 4월 53개조의 규칙을 정하고 5월5일부터 주식금액 모집광  
고를 내고 자본금 총액을 5만 달러로 정하고 매주 50달러씩 1천주  
모집을 시작했다. 사무실을 샌프란시스코 국민회관 안에 두고 임시  
재무를 김영일로 하였다. 회사설립의 목적을 “아라사, 영지, 오소리  
등지에서 농상 등 실업을 경기 진흥하여 이익을 도모함”에 두었다.  
북미 대한인국민회는 이 회사를 통해 원동에 독립군 근거지를 만들  
려고 하였다. 만주와 연해주 지방에 국민회 특파원으로 파견된 정재  
관으로 하여금 ‘봉밀산현’에 미간지 2천430에이커를 사서 개간하게  
하고 만주와 아령에 있던 가정 200호를 이민시키려 했다. 그러나  
마적의 행패로 이루지 못해 사업은 실패하고 경비만 3천 달러 소모  
하고 말았다.

### 한미 무역회사

1910년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영만이 한국산 상품으로 무역할  
목적으로 회사를 조직하였다. 자본금 총액은 2만 달러로 하고 매주  
10달러씩 2천주를 목표로 했는데 250주를 모집했다. 최영만은 1910

7월12일 만추리아 선편으로 한국화물 수입을 위해 귀국하였다. 그러나 한일 합방 후 최영만은 도미허가를 얻지 못하여 회사는 실패하고 말았다.

1910년 2월9일 남가주 레드랜드에 사는 동포들이 안석중의 주선으로 회사를 조직했다. 자본금 총액은 3천 달러로 매주 50달러씩 60주를 모집하여 농업에 투자했다.

### 허·리 상회

1911년 10월에 허승원과 리순기가 합자하여 북가주 스타톤에 잡화상점을 열고 각 농장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였다. 이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한인 상점으로는 처음 상점이었다.

### 한인 농업주식회사

1915년 1월1일자로 자본금 1만 달러에 1주당 10달러씩 주식을 팔았다. 사장 안재창, 회계 최경오, 서기 신형오.

### 연합식산회사

1920년 11월12일 윤병구, 김종립, 홍종만, 정몽룡이 발기하여 북가주 윌로우스지방에서 연합식산회사를 조직하였다. 사장 윤병구, 부사장 겸 재무 김종립, 이사 홍종만.

## 실업주식회사

1917 1월20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직하여 1927년까지 10년 동안 주로 북가주의 벼농사에 주력한 홍사단 단우들의 회사였다. 도산은 한인의 자본으로 회사와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민족기업을 일으켜 국제무역에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당초 미국 경작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에서 벼농사가 호황이던 시기에 착수한 사업이었다.

처음 두 해 동안은 상당한 이익을 남겼으나 1920년 북가주의 벼농사가 실패한 뒤 홍작에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실패했다. 경제적 실력양성론에 입각하여 홍사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수익사업이었다.

발기자는 도산 안창호, 사장에는 경제에 밝은 임준기를 선임하고 총무에 송종익, 재무에 정봉규를 위촉하였다. 맹중호, 김인수, 김사원, 조성화 등이 가입하였고 자본금 총액은 9만5천 달러인데 매주 1백 달러씩 950주를 두 번에 나누어 모집했다.

제1차에 4만5천 달러와 제2차에 5만 달러를 모집하였다. 당시 10만 달러에 달하던 자금은 원동(중국)으로 이전하면 20만원의 가치가 되므로 도산은 그곳에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한 중 두 나라의 민간 자본을 증대하여 큰 사업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1920년 벼농사 실패 후 윌로우스 농장에서 3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이순기의 송사에 걸려 자금이 동결되었다. 월부로 매수하였던 굴밭을 잃어버리고 당우에게 대여 받았던 자금도 상환이 불가능 하자 사업이 쇠퇴하여 결국 1927년 문을 닫았다. 1929년 김종립, 김순권, 광림대가 회사정리를 맡았는데 매주에 15전 1리 6모 씩 돌려주었다. 홍사단 사업으로 1932년 또 한 번 흥업회사를 계획하였는데 실행을 보지 못했다. 1938년에는 홍사단 단원들이 ‘대동실업주식회사’를 세워 참수이 등 도매업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몇 년 후 문을 닫

말았다. 한편 이외에도 여러 주식회사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1918년 5월19일 신한민보에는 다음과 같은 발기자 모집광고가 실렸다.

“은행채 보상 발기자는 매 명 6원을 내는 자로 오백 명을 모집하기로 작정한바 처음 22인을 제 1회로 잡고 그 다음 22인을 모아 제 2회를 만들고 그 후에는 차례로 이와 같이하여 발기자 모집권한을 양여 할 터이오니 뜻이 같은 여러 동포께서는 속히 응모하여 발기자 모집에 힘쓰기를 바라나이다.

수전소는 북미 총회 사무소: 419 Hewes Bldg. 샌프란시스코”

그 외에도 하와이 한인농산주식회사 (1911년3월), 네브라스카 한인농업주식회사(1914년4월),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유한주식회사(1925년3월)가 설립됐던 기록이 있다.

## 신한민보에 나타난 한인 자영업

- ◆ 1906: 새크라멘토에 우경식이 한인 처음으로 여관을 열었다.
- ◆ 1907. 7. 14: 대화상점 - 샌프란시스코 1714 포스트 St. 식물품 일체 직수입가게
- ◆ 1907. 12. 6: 공립협회 회원 한명여 씨가 상항 1605 Franklin St.에 식발점(이발소) 개설 개업광고 - 백인들이 동양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지 아니하는 고로 우리 동포가 매양 보기 싫은 일본인에게 가서 이발하는 것을 기탄하여 본인이 이발소를 개설하고 광고하오니 원근불계하고 내임 하시면 정밀하게 이발하여 드리오리다.
- ◆ 1908. 11. 25: Sacramento에 윤경학 허섭씨가 리관일씨의 여관을 사다.
- ◆ 1908. 12. 25: 우리전방에 남자에 부속한 물품이 많이 있을 뿐더러 상항에는 우리 전방과 같이 싸게 파는 집이 없으니 한인들은

시험하여 보시오. 대접도 빠근히 하시오. Dobrin's 2020  
Fillmore St. 샌프란시스코

◆ 1909. 10. 27: 대한 경처 포스트 카드-독립문, 경복궁 대궐, 서울 남대문, 천제단, 옥탑과공원, 평양애련당, 대한지도, 미국지도 이상 8가지-3장에 5전 1다즌(12장)에 15전 50장 이상은 한 장에 1전 씩 미국상향신한민보사 내 떠블 유 아이 에스

◆ 1911. 10.: 허승원과 이순기가 스타톤에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가게를 열었다. 농작물 판매가게로 농기구 등 농사에 필요한 상품을 판매한 잡화상점이었다.

◆ 1912. 2.(대도): 썬크라멘토에서 그로서리상점을 하던 김순권씨는 그 소유상점을 김장연씨에게 팔았다.

◆ 1913. 6. 23: 본인의 영업하던 소년서회를 다시 주원씨에게 전매하였사오니 전자에 본인과 거래가 있는 동포는 속히 기별 하시옵. 상향 흥언 1712 Broderick St. 샌프란시스코

◆ 1913. 11. 21.: 선우탄씨가 오클랜드에 상점을 개설했다.

◆ 1914. 4. 2: 양복점주 전득부 태극기 광고“태극기 사 가시오.”-한국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본 양복점에서 여러 가지 국기를 만드오니 사가시오. 태극기를 명주로 만든 것의 값은 일원이요. D. B. Chun 2115 Webster St. San Francisco Cal.

◆ 1914. 5.21: 상향동포 사업진흥-3인의 양복 달이기 사업 흥함. (전득부, 신한, 양주은)

◆ 1914. 10.22: 상향 Webster St의 여관주인 전득부는 여관을 우흥태와 Idria에 사는 정동호에게 매매

◆ 1914.: 샌프란시스코에서 1905년 공립신보 주필을 하고 국민회 통합에 큰공을 세운 최정익은 타이티섬과 만주로 진출하여 인삼장사를 잘하고 1915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가 1919년 한국으로 돌아갔다.

◆ 1915. 2. 11: 상향에 정씨의 세탁업. 김씨의 연초점.

◆ 1915. 3. 25: 만들어둔 기호 코레아라하고 영자로 양전에 수놓은 것을 75전씩에 방매할 터이니 원하시는 이는 속히 청구하시오. 몇 개 없소이다.

리사무엘고백, 3316 Fillmore St. 샌프란시스코

◆ 1915. 6. 10: 상항의 동포영업 - ☆ 엑스포지션 인 음식점 - 전득부 2701 Sacramento St

☆ 한인 이발점 - 신한, 신성칠, 853 Clay St ☆연초상점 - 주원 698 Grant Ave

☆ 한인여관 - 정동호 2115 Webster St ☆한인 양복세탁점 - 황사선 1248 Mason St

☆ 소년서회 - 서필순 2212 1/2 Pine St

◆ 1915. 9. 2: 한국서 새로 온 북어를 매질음에 50전으로 정가하여 발매하오니 속히 청구하시오. 남의 위탁임으로 선금으로만. 주원고백 698 Grant Ave. 샌프란시스코

◆ 1916. 5. 11: 학생보 제2권 1호가 발간되었는데 고명한 논설과 재미스러운 소설이 많사오니 누구시든지 구랍하심을 바라옵. (대금 25전) 백일규 신한민보사

◆ 1916. 8. 3: 오클랜드 문원칠씨는 근일 오클랜드 중국인 시가 부근에 이발소를 개설.

◆ 1916. 10. 26: 상항 중국인 시가 853 클레이 St. 한인 이발점 신성칠씨 단독 영업

◆ 1916. 10. 26: 신달윤씨 Stockon에 커피숍 열어.

◆ 1916. 11. 30: 새크라멘토 물산진흥회와 잡화상점과 및 각 대표자는 25일 대회를 열고 연합하여 동양사람 각 소 상점에 물건을 팔지 말자고 의결하였다더라.

◆ 1917. 3. 8 재미한인 사업 조사표 (자본총액 / 매월수입 / 매월이익)

<상항> 윤학 - 여관, 세탁소, 풀우름 6백원 / 1백65원 / 65원, 신성칠

- 5백원 / 2백원 / 1백원, 황사선 - 세탁소 3백50원 / 1백60원 / 70원, 하상옥 - 세탁소 3백원 / 1백20원 / 50원, 임정구 - 세탁소 1백50원 / 6십5원 / 2십5원, 최용호 - 풀우름 연초점 2천5백원 / 4백50원 / 1백50원, 주원 - 연초점 5백원 / 4백원 / 1백원

<오클랜드> 조성학 - 이발소 목욕탕 6백원 / 2백원 / 80원, 문원철 - 이발소 2백원 / 70원 / 30원

<매리스빌> 전득부 - 양찬관, (식당) 풀우름 1천5백원 / 6백50원 / 3백원

◆ 1917. 3. 15: 새크라멘토에 동계구락부는 개인영업에서 실업형태로 한인 공동체 자본을 모집.

◆ 1917. 8. 23: 상항 중국인 시가 762 클레이 St. 문장근 이발소를 안경오가 사서 개업

◆ 1917. 10. 18: 3월 15일에 개업한 여관광고 - 상항에 오시는 한인은 같은 값이면 동포여관을 찾아오시오. 상항 한인 여관주인 박용하 고백. 2115 Webster St. 샌프란시스코

◆ 1917. 11. 15: 박용하씨 소유 상항한인여관을 워싱턴에 재류하던 안영렬씨가 사서 개업

◆ 1917. 12. 6: 상항 클레이St.의 안경오씨의 이발소를 황찬일씨에게 매매, 박연씨는 오클랜드에 이발소 신설

◆ 1918. 1. 24: 상항 박학문씨는 517 퍼시픽 애비뉴에 ‘로블깽히’란 양찬관을 열었는데 번창한다.

◆ 1918. 2. 14: 김수권, 리규하 양씨는 본월 초순 상항 559 헤이스 St.에 세탁업 신설.

상항 한인여관을 팔려하오니 ..... 본 여관에 짐작을 맡기신 이는 속히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본 여관 번지를 빌어 통신하시던 이는 속히 그 통신번지를 고치시옵소서. 상항한인여관주인 안영렬 고백

◆ 1918. 3. 21: 맨티카 실업 조사표 - 김경보 양주은 양씨는 2월부터 양찬관업을 개업.

세탁업을 여전히 계속

◆ 1918. 5. 2: 리발 목욕 세탁-씩 잘하여 드리오리다. 1920 3rd St. 새크라멘토 리옥형 고백

◆ 1918. 5. 24: 스타튼에 사는 김중학씨가 문양목씨의 여관을 사서 6월1일부터 새로 개업.

트레이시에 사는 김성권이 런치를 파는 신달윤이 하던 양찬관(식당)을 사라고 광고하였다.

◆ 1918. 6. 13: 매리스벨 통신-김승관씨의 양찬관과 방사겸씨의 여관은 영업이 날로 번창하여 매삭(매달) 순이익이 3백여 원에 달한다 하더라.

◆ 1918: 하기 방학중에 학생들이 노동하도록 노동기간을 늘이라. 북가주 각과원에서는 과실 성숙시기에 있어 노동자가 결핍하여 때맞추어 따지 못하고 또 일기가 몹시 더워 과실을 썩혀버릴 염려가 있다더라.

◆ 1918. 7. 25: 스타튼 한인여관은 김중학씨의 손에 넘어간 후 1천 원을 들여 일체 규모를 개량하여 ..... 여행자의 공급추진을 성실 근면히 함으로 영업이 점점 번창하여진다.

◆ 1918. 8. 29: 이발 썩 잘하시는 우리 동포 한 분을 원합니다. 공전은 원하시는 대로 드릴터이다. 1원에 75전씩이나 유숙비 외에 적반식이나, 월급으로 매주일 15원으로 17원 50 전까지 드리면 유숙비는 자담할 터이오. 이발소 주인 신한. 1118 Stockton St. 샌프란시스코

◆ 1918. 10. 24: 태평양무역주식회사에서는 명태를 한국에서 들여와 백 근 이상을 주문하면 한 근에 25전. 상항 331 밋데리 St. Pacific Trading Co. 샌프란시스코

◆ 1918. 11. 21: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황사선과 이견영이 중국인 시가 부근 1126 그랜트 애비뉴에 동서양 식품점을 열고 백미(쌀)는 도매를 한다더라.



◆ 1919. 10.: 장회사 광고-‘왜적의 장을 먹지 마시오’본사에서 처음 제조한 장은 맛이 그다지 좋지 못함으로 여러분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 다시 제조한 장은 맛도 달거니와 빛도 아름다우니 청구하라.’고추장은 큰 통에 75전, 간장은 큰 통에 5원75전

◆ 1920년대: 한인 경영 호텔 20여 개 이상으로 추정.

◆ 1922: Uncle Sam’s Restaurant 이라는 서양식당 오픈. 상향 30가와 차이나타운 근처에 백인 상대로 햄버거스테이크 등의 메뉴로 요리는는 중국인, 웨이츄레스는 필리핀과 한인 총 6명이 일하였다. 이 식당은 유학생, 독립지사 등이 꼭 찾는 곳으로 양주은씨가 1963년까지 총 40년간 경영했다.

◆ 1942: 보험대리 광고. 치과의사광고. 의사 한영대, 한유선

◆ 1942. 1. 22: 오클랜드 지방회로서 전시 부담금을 먼저 내기로 한 것은 각 지방회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일이다.

◆ 1942. 4. 16: 근일 나성 새크라멘토 상황과 및 그 부근에서 상업과 농사하는 일인들이 적 국민수용소로 옮겨감을 인하여 식물상 점과 찬관 여관과 및 농장의 빈자리가 많음으로 경력만 있으면 적은 자본을 가지고 사업처를 얻을 수가 있고 농장은 농사경험을 가진 자에게는 정부에서 그 경비를 공급한다하더라.

◆ 1942. 10. 8: 푸라이 쿡과 웨이터를 구합니다. -본 찬관에서 컴비네이션 푸라이 쿡과 웨이터를 겸해 할 이를 구하며 월급은 매삭 1백 2십 오 원을 드릴 터이오니 누구시던지 원 하시거든 잔김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P.K.Lunch 26 E Main St. Stockton, CA

◆ 1943. 3. 4: 미용소 사시오. 쏘니아 코리언 뷰티 살롱 1103 Powell St. 샌프란시스코

◆ 1946. 10. 17: 정덕근 의사는 샌프란시스코 916커니 스트리트 샌티넨 빌딩 402호에 ‘카이로 프랙틱’의원을 개업.

음식과 서양 집일에 익숙한 사람을 백인에게 소개해 주는 노동주

이창순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 신장개업

◆ 1946. 10. 24: 재미상업회소 상무부에서 남북가주에 방문하여 상업회의소에 존재를 알리고 박영섭 한규동 강영문에게 월간 ‘블레턴’ 책임을 맡겼다.

◆ 1946. 11. 19: 스타튼지방 실업조사표-김요한(찬관) 치과의원 (박성호 이유일) 이군태(이발소) 김영년(연초점)

◆ 1948. 1. 22: 샌프란시스코 퍼시픽St.에서 찬관(식당)을 하는 전득부는 1월초에 찬관을 팔고 정양중이다.

◆ 1948. 4. 1: 상항에 사는 변기현씨는 커니 St.과 잭슨St.에 있는 인터내셔널 호텔을 사서 신장개업을 하였는데 장래가 매우 유망하다고 한다.

◆ 1948. 11. 25: 자동차 판매광고-누구든지 한국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가시려면 본 회사로 통지하십시오. 따지 그라이슬러 디 쏘토 폴레마울 여러 자동차가 있고 또한 추력을 본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시면 디츄로일에 가서 가져와야 되고 값은 에프 오 비 디츄로일 팩토리 프라이스로 살 수 있습니다. 류일한회사 고백,

Korean Motors New Lhan Company US Representative 659 Folsom St. 샌프란시스코



1917            1919년까지 북 캘리포니아(북가주)에서는 벼농사 경기가 매우 좋아 농사를 짓는 한인들은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그곳에서의 농업은 한인들의 생활터전이었고 독립자금의 근원지였다. 하루 10시간 이상 뜨거운 땀약벌에서 농사를 지어 수고한 보람으로 농업이 기반이 되어 북가주 교포들은 차츰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한인들은 묵묵히 일을 잘하고 품행이 좋아 백인들의 신용을 얻어 그 동안 일인에게 주던 일을 한인에게 넘겨주곤 하였었다.

1920년에는 세 개의 농장도 세워지고 한인들은 자본을 있는 대로 농업에 투자하여 일확천금을 꿈꾸었다. 그러나 1920년에 발생한 대홍수는 북가주 일대의 벼 농장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경작하던 벼농사는 한 부대의 수확도 없이 전부 손실되었다.

하루 10시간 이상 땀 흘려 일한 보람도 없이 한인들의 손해는 수십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 또한 1차 세계대전 이후 쌀값 폭락까지 겹쳐 한동안 전성기를 구가하던 한인들이 활발했던 농업 전성기는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된다.

## 나타난 북가주 한인들의 농업 관련 기사

◆ 1912. 3 ( 실린 내용): 스타톤 ‘허·리·상점’은 근일 또 5백여 에이커 되는 농장을 더 얻어 농사를 시작하였다 하니 우리 동포의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같이 광장됨에 무한한 희망이다.

◆ 1913. 6. 23: 스타톤에 김린수 박가현 김기만 리석원씨가 이백여 에이커 감자농사를 하였는데 감자의 결실도 잘 되었고 시세도 좋아 매 박스에 일원씩에 팔았다하니 기쁘다.

◆ 1913. 7. 22: 양권씨의 합스농장-새크라멘토 근방에서 합스파는 일을 주선하는 권사선, 권영태 양씨의 농장에 동포가 50명 가량 모였다.

솔타나파에서 참외 농사한 박승철씨의 말을 들은즉 금년농사는 지금 필하였는데 순이익이 1천 4백 원가량이라 하더라

◆ 1913. 8. 1: 새크라멘토 등지에 합스(밀보리)밭을 맡아 놓고 동포 50인 가량을 주선하오니 8월 7일 안으로 오시오. 합스 주선인 김윤택 고백. 1511 4Th St. 새크라멘토

◆ 1913. 8.: S.O.Kim과 K.S.Lee가 콜루사 카운티에서 천 달러를 7%의 이자를 주고 빌려 70에이커에 농사를 지었다. 이것이 처음 백인 농장주와 한인이 계약을 맺은 처음 기록이다.

◆ 1913. 9. 26: 콜루사 근방에서 벼농사하는 이두형씨가 상향교회에서 농사지은 벼이삭 몇 개를 보였는데 한국 외에는 제일 잘된 벼와 같아 실업이 흥하기를 바라노라

◆ 1913. 10. 13: 씨니베일의 도마도 농작/씨니베일 광야에 한없이 널려 일 년 풍작을 자랑하던 도마도가 심한 더위에 말라죽으나 한인의 농작은 큰 손해가 없을 듯하다더라. 씨니베일은 농업의 근거지이고 유학생도 많다.

◆ 1914. 4. 9: 장 이 양씨 20에이커의 참외농사

◆ 1914. 7. 23: 본인이 삭도 근경 커스문지방에 금년에 다시 합

도급을 맡아놓고 첩위 동포제위께 미리 알게 하오니 금전에 주의하시는 이는 8월10일 께 일제히 다 오시기를 바라나이다. 합스 주선인 김준화고백 1327 4Th St. 새크라멘토

◆ 1914. 8. 6: Cosumme에서 밭일 할 사람 구하는 광고-박명오, 임치호.

우리 동포의 농업-금년 벼농사 호황 김종립, 마춘봉 등이 7백 에이커에 경작하다.

◆ 1914. 8. 27: 농부의 대 운동-새크라멘토 부근 각 지방에 있는 농부들의 대표자들은 한 단체를 조직하여 8시 동안만 일 시키자는 법률을 반대하기 위하여 장차 본 향에 회집하여 대 운동을 거행할 터인데 본향 큰 거리로 모여 순행할 예정이라더라.

◆ 1914. 11. 12: 메리스빌에서 벼농사하는 이준기가 화재로 집과 재산을 잃다.

◆ 1915. 4. 8: 북가주 월넛그로브 통신에 의하면 30여 동포가 그곳에서 아스파라거스를 묶는 일로 일당은 일원 삼십 전에서 삼 원 까지로 아직 할 일이 있다.

마운틴 뷰에 이병호씨는 김성전씨와 함께 20에이커에 도마도를 심고 김원택씨와 김채환씨와 더불어 헤이 250에이커와 사탕무우 50에이커를 심었다.

◆ 1915 5. 13: Biggs의 벼농사/박량래, 최봉술이 160에이커에, 이진섭, 강국보, 임지성등이 90에이커에, 김장연이 320에이커에 경작했다.

◆ 1915. 8. 17: 맨티카에서 13일부터 무우 캐기를 시작하였는데 잘 버는 사람은 매일 5원 이상을 벌 수 있으나 일꾼이 없어 매우 근심이라 하였더라.

◆ 1916. 2. 22: 가주 맨티카에 사는 한인 60명이 자본금 재산 만여 원으로 1300에이커의 땅을 빌려 사탕무우 재배를 시작했다.

◆ 1916. 6. 23: 윌로우스, 테일로스빌, 우들랜드는 새로 경작하는

토지가 비옥하다.

◆ 1916. 8. 10: 가주의 본년 쌀 추수는 84만석에 이른다. 미국 단위로는 4백18만 브셀로 1브셀은 우리나라 두말 한 홉 남짓하니 어렵컨대 84만석이 된다.

◆ 1916. 8. 17: 맨티카 무 캐기 시작: 잘 벌면 하루 5원

◆ 1916. 9. 21: 스타톤 감자와 안연(양파)호황. 작년의 3배 경작으로 작년 감자농사에 실패한 교포가 올해 감자농사를 계속하였으면 한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감자 1포 1원75 전, 안연양파 1포 1원 50전

◆ 1916. 9. 28: 한인들이 스타톤에 감자와 씨니베일 1년 감에 투자하다가 최근에는 벼, 무, 사탕무, 콩 농사로 이동하여 230에이커를 가졌다. 벼농사로는 재미한인 벼농사의 원조 김종림이 윌로우스에 280에이커를, 맹정희 합동농원이 140에이커, 임지성 합동농원 80에이커, 콜루사의 음대영, 임선봉이 110에이커, 우드랜드의 리순기, 백인 2인이 함께 640에이커를 경작했다.

◆ 1916. 9. 28: 한인들이 쌀 경작을 위해 우드랜드와 콜루사, 라이브 오크 등에 총 1400에이커의 땅을 빌림

◆ 1916. 10. 26: 가주 벼농사 성적에 따르면 동포들의 큰 성공을 거두었다. 벼농사 면적은 새크라멘토 밸리 평원이 6만3천 에이커, 샌호킨 평원이 3천5백 에이커.

◆ 1916. 11. 1: “일인이 동양인으로 벼농사 면적을 많이 갖자 연합회에서 동양사람 벼농사를 금지하기로 작정했다. 한인을 일인 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고 토지가 없으니 의견서가 통과되면 의견서를 가지고 연합회에 참여하자.”

◆ 1916. 11. 16: 각 농원의 노동자 부족으로 태평양 벼농사연합회는 노동자 부족으로 동양인을 배척하여 일을 주지 않으려던 것을 잠시 정지하였다.

◆ 1916. 11. 23: 윌로우스 벼농사의 수확 / 맹정희, 신광희, 마춘

, 김순학의 130에이커 합동농장 수익이 1천여 원에 이르고, 임지 성과 이진섭의 80에이커 수확 순이익 4백여 원에 이른다. 그러나 메리스빌에 거주하는 음대영는 벼농사에 실패해 5백60원을 손해보 다.

◆ 1916. 12. 7: 맨티카의 12곳의 사탕무 농작 수확의 개황 - 국민 회의 지방회 실업부원 염만석의 보고에 의하면 신경황등 8인이 300 에이커에 순이익이 2백 원, 문양목 등 7인이 300에이커의 순이익은 1 백50원, 염만석등 3인의 1백30에이커에 순이익은 2백 원으로 각각 분배했다. 사탕시세가 점점 올라가 3대 회사가 맨티카에 들어와 경쟁하니 한 번에 큰 수가 생기지 않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몇 해를 더 계속하기 바라노라.

사탕무 가격 - 사탕무 경작자가 1913년부터 1914년까지 운동을 계속한 결과로 1톤에 5원 40전이나 전쟁으로 8원25전 내지 10원까지 올랐다.

◆ 1917. 3. 1: '새해의 첫소리' - 동포생활 진도.

재미동포의 생활은 앞에는 노동, 뒤에는 농업의 두 길이 열렸다. 무릇 농업은 우리 동포의 가장 손익은 실업인바 작년 성적으로 말 미암아 맨티카, 스타튼의 사탕 경영이 거의 2천 에이커에 달하였으며 테일로스빌의 6백 에이커와 빅스, 윌로우스 각 처를 통계하면 2 천 에이커에 이르고 새크라멘토 콩 농사 노칸의 참외농사 오레곤 채소농사, 유타 아이다호의 무와 사탕 농사도 또한 그러하니 이상 각 농장의 시세만 가산하여도 십여 만 원이오 경작 비는 수십만 원 이라 십년 동안 사업이 없는 우리 동포가 3십 만원 자본으로 농업을 시설함이 그 어찌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 남 북가주 각 농원의 매일 아홉 시간 일급이 보통 2원50전이니 우리 동포의 금년 생활전 도는 무궁한 낙관을 가졌고 재미 한인의 생활이 항상 이같이 곤란 한 가운데 있지 않을 지로다.

◆ 1917. 3. 8: 스타튼과 맨티카의 한인들이 3천920 에이커 대규

사탕무우 재배.

◆ 1917. 4. 19: 새크라멘토 합스 농사 합동하여 265 에이커

◆ 1917. 4. 26: 거주 한인 농사가 점차로 확장되는데 김종립 씨는 작년에 많은 이익을 얻어 금년에는 북가주 테일로스빌과 윌로우스 양 지방에 경지면적이 2천 85에이커에 달하여 ‘백미대왕(Rice King)’의 칭호를 받았다.

Taylorville - 김종립 1030 에이커, 박영순 240, 이진섭 150, 황명선 80, 임지성 80, 백신구 65, 윌로우스-맹정희 250, 신광희 100, 김두호 80 (이상 단위 에이커)

◆ 1917. 9. 13: 한인들 사이에 농장에서 알력이 있는데 대한 훈계의 글을 실었다.

◆ 1917, 10. 24: 새크라멘토 김홍균씨 빈스 농장은 수확총계가 2만5천 원 이상으로 예상.

◆ 1917. 11. 8: Taylorville 김종립은 3-4만원 순수익 예상, 윌로우스의 맹정희 1만원, 신광희 5,6천 원 예상.

◆ 1917. 12. 6: 명년인 1918년 거주 농사의 풍작이 예상되는데 새크라멘토 김홍균씨 통신.

◆ 1917. 12. 27: 농사에 대하여 한마디-과연 농업을 할 만한 시기/농사하는 자들은 첫째 세계 시장 형편을 잘 살피고, 둘째 세금을 내야하고, 셋째 그 농산물이 식료품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할지라.

◆ 1918. 1. 10: 실업성적보고서에 의하면 김종립이 제일 크게 농사를 지었는데 2사람이 합자하여 1030 에이커에 벼농사를 짓고 4만 1200 석을 추수하였다.

◆ 1918. 2. 21: 금년 우리 동포 벼농사 경작자의 참 좋은 전도/백 근 한 포대에 한 근에 4전으로 공정가격 표준/벼농사 한 에이커에 평균 40석을 잡아 한 근에 사전이면 한 에이커 수입이 1백 60 원 이라. 그 속에 경작비 80원을 제하면 매 한 에이커에 80원의 순



얻었다. 벼농사가 유망하여 수년 전 까지 겨우 5원하던 토지세가 지금은 20원 내지 25원이다. 땅 얻기가 어려우니 대자본의 합자가 필요하다.

◆ 1918. 4. 11: 금년 일인의 벼농사 면적 1만8천 에이커

◆ 1918. 4. 11: 캔탈롭 따러 오시오 - 30명 요구. 참외를 실어 주기까지 하고 매 박스에 17전

◆ 1918. 5. 2: 전쟁에 발흥한 캘리포니아 사업으로는 제1에 벼농사요 제2에 수수요 제3에 조선업이요 제4에 기름기 있는 콩들과 그 다음에 일반의 광산이라.

◆ 1918. 6.20: 콩밭 매러 오지 마시오. 매시간 40전을 받는다고 광고하였는데 빌립비노(필리핀사람)가 한 시간에 35전을 받기로 약조하여 일이 틀어졌으니 그리 아시고 오지 마시오. 스타톤 김성대

◆ 1918. 6. 20: 가주의 농업 - 금년 성적 어떠할꼬 / 작년에 농업이 성공한 이유는 전쟁 중에 농산물 수요가 늘고 동남 각주가 흉년이 들어서다. 금년 가주의 농업이 팽창하여 경작지 면적이 갑절이 늘었고 자본이 넉넉지 못한 우리 동포들도 실력 이상의 자본을 꾸어대어 벼농사, 콩 농사 기타 사탕무우 일년 감 농사를 경영한 고로 한인의 돈은 농원에 들어가 잠겨있다. 가주는 지금 노동 부족으로 학교의 개혁을 연기하고 멕시코에서 부족한 노동자 1만 2천명을 조건적 수입하려하고 공금을 3원 50전에서 4원 25전으로 올릴 터이고 수확기에 들어가면 5원을 주어도 일군을 얻어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시의 농업은 투기적 사업이라 이른바 투기적 사업은 장래시세를 바라고 큰 자본을 던집이니 이는 노름과 같은 일이라 요행 바로 들어맞으면 1조에 백만 금 부자가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빈손만 떨어 쥐고 나서나니 대개 농업은 담력이 없이는 못할 일이라 그러나 근년이래 우리가 많은 경력이 있고 작년 풍작으로 자본이 넉넉하여 굉장한 기구를 가졌으니 기후의 변경이 없으면 대전란 중결의 영향이 있을 지라도 결단코 타격을 받지 않을지라.



1912년 북가주 쉐니베일에서 농사짓던 한인들



1919 Golden Gate Park

◆ 1918. 7. 4: 28 시작하는 콩밭 매리 오시오. 열 시간에 3원 75전. 스타튼 김경보

◆ 1918. 7. 11: 금년 말은 포도(건포도)의 수확은 약 80만 톤으로 작년에 비해 약 1만 톤이 증가될 터이라

◆ 1918. 8. 1: 콜루사 벼농사 현황-미국인 소유 총 면적 1만 에이커에 3분의 1은 물이 부족하여 수확의 희망이 없고 동양사람이 윌로우스와 테일로스빌에 버린 땅을 3배로 확장한 것은 잘 되어 한 에이커에 50포대를 예상한다.

◆ 1918. 8.22: 가주 벼농사 예상-가격 1천3백 만원 가주 웨스턴 벼농사 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 가주의 출산미는 약3백만 포대를 수확할 것으로 정부의 공정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1천 3백만 원에 달할 터이다.

한국 동포들의 쌀농사 면적 총계는 4천만 평인데 순수익만 70-80만 달러이다. 1913년 캘리포니아 토지법 수정안이 오는 봄 주 의회에 제출될 터인데 일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3년 리즈를 10년으로 연장 할 것을 운동한다.

◆1918.10.10: 폴로린 지방의 포도업자들은 이번 비로 참혹한 손해를 보았는데 가주대 농과교수와 새크라멘토 상업회의소가 연구하여 시럽과 사탕을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살아 날 길을 열었다.

◆ 1919. 1.17: 쌀 경작 물 값이 에이커 당 \$7에서 \$8로 큰 폭으로 올랐다.

◆ 1919. 2.: 에이커 당 \$18의 Canal System(농작지에 수로를 연결하는 방식)이 완성되었다. ‘벼농사의 왕’크로스가 2만 2천 에이커에다 관개시설을 하였다. (1917년 11월 5일 시작)

◆ 1919. 3.22: 45인의 콜루사 한인들이 독립을 위해 싸우다.

◆ 1919. 6.21: 윌로우스 시 Glenn Company가 쌀 생산의 리더로 4만5천 에이커 소유

◆ 1919. 7. 17: 쌀값이 \$4.75에서 \$5로 오름

◆ 1919. 8.28: 통신에 의하면 휠랜드에서 합스 따는 여자들의 한시간에 35전 공금이 만족치 못하다고 하고 40전씩 달라고 동맹 파공함으로 회사주인이 허락하였다.

◆ 1919. 10. 9: 계약과기를 당한 크게 농사짓던 사람이 미국 ‘쌀의 왕’ 크로스에게 \$375,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북가주의 벼농사가 풍족하여 애국금이 4만2천955달러에 이르렀다. 최다 액이 3천 4백 달러 낸 사람이 1인이요, 3천 달러 1인, 1천 달러가 7인 그 밖의 매 평균은 3백50달러였다.

◆ 1920: 농업확장과 실패-북가주 일대에 산재한 한인의 금년 벼 농사통계는 7,990에이커인데 소출의 평균예산이 140만 달러로 예산하고 십분병작(소작하여주고 농장주에게 10% 이익 분배를 받는 소작농)이 9,760에이커에 소출이 17만 달러로 예산하였다. 그러나 11월 초승에 추수를 시작하면서 비가 연속 내려 만여 에이커의 벼를 타작하지 못하니 그 손해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사업이 대 타격을 받았다. 과거 5-6년 동안 한인들이 갖은 고생 끝에 황무지를 개척하여 옥토로 만들었던 벼농사를 그 이후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씨니베일은 한인농업의 근거지로 당시 토마토는 씨니베일 광야에 한없이 널려 풍작을 자랑하였다.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직장을 찾으러 많이 몰렸다.

## 33인의 치열했던 삶



일제의 압박을 피해 이민, 망명 또는 유학으로 온 초기 이민들은 농장에서, 알래스카 어장에서, 철도 공사장에서, 수은광산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았다. 그런 중에서 학업을 계속해 의사 또는 박사가 되는 이도 있었으며, 사업을 크게 일으키기도 하며 오로지 조국 의 독립만을 생각하며 생애를 바쳤다. 이들은 모두 더 나은 한인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뛰었으며, 독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귀국하는 날짜가 하루라도 빨라지리라고 믿어 조국만을 지향하며 열정적으로 살았다. 초기 이민을 온 한인들은 이민의 관문이었고 중심지였던 샌프란시스코에 살았거나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초기 이민치고 샌프란시스코와 관계없이 산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 쏘니아 선우 씨와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 이민백주년 기념 사업회 일을 맡았던 민병용 씨는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기록을 남겼다.

그들의 인터뷰내용과 국가보훈처의 자료, 신한민보, 그리고 여러 문헌에 나타난 초기 이민의 애국적 삶과 업적을 재조명해본다.

## 최초로 법학박사를 받은 강영승(1888- 별세)

1888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17세였던 1905년 하와이로 이민 왔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유난히 높았던 어머니 황 마리아와 누나 강혜원, 동생, 그리고 미국에 오기 직전 결혼한 부인 강원신이 함께 왔다. 강영승은 신체검사 중 눈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민국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3주 가까이 온 가족은 이민국이 있던 샌프란시스코 ‘엔젤 아일랜드(천사도)’라는 섬에서 기다려야 했다.

더구나 이민국에서는 17살짜리 남자 혼자 나머지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다고 보아 돌려보낼까 하는 심사를 했다. 어머니는 실크 등 가진 것 중 값나가는 것을 주고 사정을 하여 통과되었다. 하와이에서 17살의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 공부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수재였다. 시카고 해밀톤 법과대학에서 ‘증거를 세우는 규칙’이라는 논문으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법학박사가 된다. 그때 미주 한인들은 이승만 박사, 정한경 박사 그리고 강영승 박사를 셋을 ‘미주의 3박’이라고 불렀다.

공부를 끝내고 변호사개업을 하려고 시험을 보려하자 동양인은 변호사 시험조차 볼 수가 없었다. 황인종이고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시민권을 신청하여도 동양인에게는 내어주지 않았다. 10년의 공부가 수포로 돌아가자 그것은 강영승만의 고통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려온 온 가족의 슬픔이었다. 다시 농장 일과 포도 따는 일을 하다 장래가 없는 듯하여 1920년 큰 도시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과 모욕의 세월 속에 지내다가 이대위 목사의 권유로 지방에 다니며 선교활동을 폈다. 부인 강원신여사는 대한여자애국단 제3대 총부 단장을 지냈고 누님 김혜원은 초대애국단 단장을 지냈다

1921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미주한인을 위한 봉사와 독립운동에 전념하고 신한민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아 미주

대동단결에 힘썼다. 원래 의사가 되려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후에 동양의학을 배워 부인의 권유로 한의원이 되어 인술봉사를 50여 년 했다. 1972년 ‘Oriental Medicine in Modern Practice’라는 의학서적을 펴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면서 기독교연합한방원의 특별의술지도를 맡았다.

### 창설한 강원신(1887-1977)

평남 평양에서 태어나 1904년 강영승과 결혼하고 1905년 5월 도릭 선편으로 남편 가족과 하와이로 왔다. 하와이에서 노동을 하며 남편 학업 뒷바라지를 했으며 남편이 시카고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게 되자 시누이 강혜원과 함께 남편의 학업을 계속 뒷바라지했다. 캘리포니아주 다뉴바로 이주하여 포도농장에서 일하면서 집에서 손으로 빨래하는 세탁일로 생계를 삼았다.

1919년 3월2일 다뉴바 지방에서 강혜원, 한성선, 김경애 등과 함께 신한부인회를 결성하고 회장으로 선출되어 한인 부녀자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미주 항일민족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의 민족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했다. 그해 5월18일에는 각 지역 한인 부인회를 통합시켜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와 합동발기문을 선언한다.

8월2일에는 다뉴바의 한인장로교회에서 미주 내 여성단체인 다뉴바 신한부인회와 월로우스부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인회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하고 한인사회의 통일 운동기관 대한여자애국단을 창설했다.

대한여자애국단 창설 후 재무 및 제3대 총 단장을 역임한 그녀는 동지들과 매월 3달러의 단비를 수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하며 외교선전 군사 활동을 후원했다. 일본간장을 먹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여 어떤 때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일본간장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는 검사원노릇까지 했다. 미주 내 한인동포 자녀들을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조국의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비행학교 감독을 지낸 곽립대 (1884-별세)



1884년 경기도 한 지방에서 출생하였다. 1911년 수양동우회 105인 사건에 관여되어 5년간 옥고를 치르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안창호와 손잡고 재미동포를 규합하여 흥사단을 조직하는데 주력하였다. 1913년 11월에는 상해지방 국민회 신입회원이 되어 국민회 일을 도왔다. 1920년 1월 시카고에서 노백린을 만나 독립군 양성을 계획하고 그 해 2월 북가주 윌로우스에 비행학교를 창설했다. 곽립대는 비행학교 감독이었는데 노백린이 떠난 후에도 계속 비행학교에 남아 있었다.

1926년경부터 미국의 곽립대는 흥사단이 조선 독립의 투사 양성 또는 민족의 실력양성 이후에 혁명을 단행한다는 입장은 미온적이라고 지적, 직접적인 혁명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파리 평화회의 대표로 활약했던 김규식(1881-남북)

경남에서 출생하여 1897년 미국에 유학을 와 로녹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1904년 프린스턴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1905년 귀국하여 '경성청년회' 총무를 맡았고 경신학교 교감과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겸임했다. 1913년 중국으로 가서 해외민족운동에 앞장섰다.

1919년 3월 상해 임시정부 한국대표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에 가서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무





그치고 말았다. 임시정부 수립 후 의무총장과 학무총장으로, 9월에는 구미 위원부 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그 뒤 미국에 다시 와서 공부해 1923년 로녹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24년 중국 상해와 사천에서 교수를 하고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었다. 1945년 귀국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위원장으로 피선됐다. 1952년 공산당에 납치되었다가 신병으로 별세하였다.

1989년 정부에서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최초의 여성단체 한국 부인회 회장을 지낸 김미리사(1880- 별세)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다. 19살에 딸 하나를 두고 과부가 되었으나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 신앙을 가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한다. 중국으로 유학을 하여 4년간 신학을 공부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유학 왔으나 미주한인과 함께 공부를 접고, 샌프란시스코에서 1905년에서 1910년까지 활발한 국권회복을 위한 조국 독립과 한인사회 계몽운동에 몸 바쳤다.

김미리사는 당대에 보기 드문 인테리 여성이었다.

1905년 12월 9일에 조직된 ‘대동교육회’와 그것이 개편 확대된 ‘대동보국회’ 25명 발기인 중 유일한 여성이다. 기관지 ‘대동공보’간행에 중심인물이었다. 본국의 제국신문이 재정난으로 휴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의연금을 모아 보냈다.

1908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의 한인 부인단체 ‘한국 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았다. 처음으로 조직한 여성단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르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느라 부단히 애썼다. 그는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애국 애족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안북도 선천에 민족적 사업의 하나로 ‘대동고아원’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불쌍한 고아를 거두고 양육하여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신념을 대동보국회가 중심 사업으로 택해 많이 도왔다. 부인회, 국민회 그리고 신문사일에 너무 열중하다 과로로 뇌일혈이 생겨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결국 그 후유증으로 거의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1910년에는 캔사스시티로 가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교역자 양성 신학교 스캐리트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12년 미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서는 배화 여학교에서 사감으로 재직했다. 그는 미주에서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1920년 이후 국내에서 여성교육 운동을 이끄는 데 건인차 역할을 했다. 한국근대사에 높이 평가받아야 할 위대한 여성 민족지도자다.

### 정신을 이어간 문필가 김성권(1875-1960)



1904년 29세의 나이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왔다. 천성적으로 노동이 맞지 않아 고생하자 이를 본 친구 강영소가 하와이 애와농장에 조그만 점포를 하나 내주었다. 농기구와 음식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러나 외상값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1908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와서는 미국인 가게에 점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고향 경주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동생 둘을 불러 들였다. 초기 이민에서는 매우 드문

1913년 12월5일 38세 때 29세의 김혜원을 하와이에서 데리고 와서 이대위목사의 주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했다. 농장일과 점원 일을 하며 흥사단 사업에 깊이 참여했다. 톰폭 농장에서 일을 하다 비로 인해 농토가 다 떠나려가자 포도밭이 많은 다뉴바로 이사했다. 부인과 함께 포도 따는 일을 하였다.



김혜원 묘비

3.1운동 후 1919년 8월5일 다뉴바에서 대한여자애국단이 조직되었다. 당시 34세였던 부인 김혜원이 초대 총 부단장으로 여성운동에 앞장서자 이 일에 적극 협조해주었다.

김성권은 어려서부터 미국에 오기 전 까지 한학을 공부한 전형적 선비요 문필가였다. 그는 미국에 와서 흥사단에 들어 도산 정신을 구체화 해나가며 글로 한인사회에 희망을 주었다.

정부에서는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증언한 김원용(1896-1976)

서호 김원용은 중국 상해에서 1917년 5월 유학으로 미국에 왔으나 처음엔 학업은 미룬 채 애국운동에 가담했다. 오하이오의 대학에 재학 중인 1920년 4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인학생 총회 결성 회의에 발기인 대표로 참가했다. 1923년부터 7년간은 미국 중서부와 동부지방에서 생업에 힘쓰며 독립운동 후원을 위한 지방조직 결성에 노력했다. 1930년 6월 미주대표의 사명을 가지고 재미한족연합회에 참석하고 독립운동강화 촉진을 위한 각 단체 연락사무

말아 봉사하였다.

1931년 하와이 대한인 교민단의 기관지인 국민보의 편집인이 되었다. 이승만이 동지회 재정을 충당하려고 교회재산과 교민단 회관을 매각하려하자 이에 반대, 이승만 중심체제를 중단시키고 민족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인단체 결성을 위해 애썼다. 그 일로 이승만과 사이가 소원해졌다.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국민회에서 보증한 여비와 관련, 이승만과 갈등이 일어 법정까지 가게 된다.

천 달러가 넘는 재판 경비를 그를 알고 돕는 한인들이 지불해 줬다. 당시 김원용은 위협을 느껴 한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총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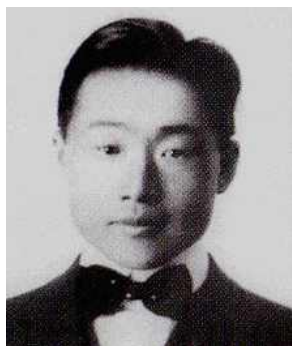
김원용은 자신의 역대 임무를 한인사회 조직을 단합하고 모든 역량을 독립운동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알았다. 1941년에 결성한 재미한족연합의 중추가 됐으며 해방 후에는 초대입법의원 및 법제사법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김형제상회에서 출자한 50만 달러 가치의 부동산으로 한인 장학 사업을 만들어 1968년까지 총 30만 달러를 수여했다. 1946년 12월에는 남한과도입법위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북미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을 거쳐 1957년에는 한인재단 총무 겸 재무로 봉사했다.

‘해방조선’과 ‘재미한인 50년사’를 저술했다. 특히 1950년대에 8년간 자료 수집을 거쳐 쓴 ‘재미한인50년사’는 그의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중가주의 부호 김호씨의 재정적 도움으로 가능했던 이 책은 미주한인 역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65년에는 김형제 상회의 김형순, 김호, 송철 등과 함께 한인회를 결성하였다. 애국애족운동으로 초기 이민의 모범이었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왕으로 불린 큰손 김종립(1884-1973)



당시 ‘Rice King(쌀의 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한인 중에 가장 많은 농토를 가지고 경작을 하여 큰돈을 벌었다. 그는 번 돈으로 한인 사회 도처에 필요한 곳은 물론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였고, 비행학교를 설립해 모든 재정을 뒷바라지한 통이 큰 사업가였다. 1916년 당시 월로우스에서 4천3백 에이커에 벼농사를 지었는데 연 수입규모가 백만 달러가 넘었으며 당시 캐딜락 차를 가지고 있었다.

1918년 1월17일 신한민보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김종립 씨 기계 사라고 200원 기부-‘가주 한인 벼농사의 거액으로 치는 테일로스빌에 사는 김종립 씨는 일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와서 총회관을 심방 하던 때에 본 년도의 1저의 식자기를 사라고 2백 원을 기부하였소. 처음 이 안을 통과할 때에 미한인 실업가 중에서 각각 얼마씩 차금하기로 정한 바 씨가 이일에 대하여 얼마의 차금을 담당할 것은 믿었거니와 이와 같이 거액의 재정을 기부할 것은 바라지 못하였소. 대저 2백 원의 기부는 저 미 한인의 십년 기록을 세웠다 하오. 씨가 금년에 얼마의 큰 이익을 있었다 하지만은 이러한 거액을 끄내 내어 노음이 그의 기가 매우 신신한 것은 아직 천지제일이라고”

그는 1918년 3월10일 맥스웰시 백인에배당에서 백 엘리스와 결혼하고 썸크라멘토 근처 테일로스빌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로연을 가졌는데 부호답게 결혼경비를 5천 달러를 썼다고 한다.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으로 월로우스에 비행기학교를 세우려는 노백린을 도와서 1920년 비행기 학교에 2만 달러를 내놓았다. 또한 매달 3천 달러씩



묘비

, 교사의 월급지급 등 운영비용을 냈다. 당시의 화폐가치로 보면 대단한 액수다. 또 1920년에 6월22일에는 실제로 비행기를 구입해 와서 학생들을 실습하게 하였다. 또 당시 김종립은 대한인국민회의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한 번에 가장 많은 의연금인 3천4백 달러를 기부한 사람이기도 했다.

북미시보 1946년 2월15일과 3월1일자는 김종립이 북미시보를 위하여 식자기 주문한 것과 김종립의 자녀 결혼을 보도했다. ‘김진원군과 김로스야의 결혼식 성황’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기사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단체와 함께 북미시보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김종립에 대해 보도했다. 김종립은 정몽룡, 송철과 더불어 북미시보의 확장위원으로 일했다. 김종립이 이루어놓고 그로 인해 추진되었던 독립운동의 업적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외교위원으로 애국한 김현구(1889-1967)

충북 옥천에서 출생해 양정학교와 보성중학에서 신학문을 익히고 계몽운동단체인 자강회 회원이 됐다. 유학으로 1909년 4월에 미국으로 와서 박용만의 군사학교인 헤이스팅 소년병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1918년 오하이오 콜럼버스 대학에서 정치와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사학위를 받았다.

1919년 1월 북미 대한인국민회 임명을 받고 신한민보 주필로 일했다. 콜럼버스대학 시절에는 학생회에서 발행한 ‘소년한국(Young

Korea)’ 책임졌다. 이 책은 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격려하는 내용이였다. 1920년 샌프란시스코 학생대표로 학생총회 발기자회에 참석했고 박용만이 결성한 대조선 독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군사통일회의 운동자금을 조달하는데 앞장섰다.

1927년 4월 구미위원부의 임명을 받고 1929년까지 대미 외교 사무에 일했다. 1929년 11월 하와이에 대한인교민단 일을 보며 국민보 주필을 겸했다. 1941년 하와이 대한인국민회대표로 해외 한족대회에 참가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방위원장이 됐다. 1944년 주미외교위원부 외교위원으로 선출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51년 1월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3만’으로 알려진 ‘우남 이승만’ ‘우성 박용만’ ‘검은 정순만’의 전기를 저술해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사 연구에 기여했다. 정부에서 195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초대단장 김혜원(미주 1886-1982)



미주 최고의 여성운동가였던 김혜원은 가족과 함께 1905년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했다. 한인으로는 최초로 미주에서 법학박사가 된 강영승의 누나다. 하와이에서는 재봉틀을 사서 바느질을 하고 어머니와 올케는 세탁 일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빨래를 빨아서 풀을 메기고 데려주면 셔츠 하나에 5센트를 받았다.

셋이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50달러를 벌었는데 동생의 학비를 보내고 나면 근근이 살았다. 바느질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신랑 될 사람이 공부를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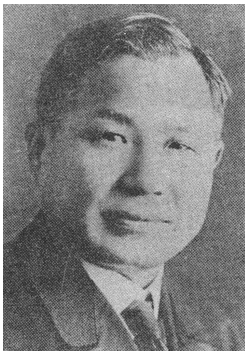
19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1913년 이대위목사 주례로 김성권(홍사

이사장 역임)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바느질을 하여 가사를 돌보았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결혼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병원에 갔다. 캘리포니아주 다뉴바로 이사한 뒤 올케 강원신과 포도농장에서 일하고 농장일 하는 사람들의 밥을 지으며 여성독립운동에 참가한다.

1919년 3월2일 다뉴바 지방에서 신한부인회를 조직하고 미주 내 각 여성단체를 통합하여 8월5일에는 다뉴바의 한인장로교회에서 다뉴바 신한부인회, 로스앤젤레스 부인회 친애회,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부인회, 윌로우지방 부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인회 합동 발기대회를 개최. 대한여자애국단을 창설하고 초대 총 단장으로 선임됐다.

1930년 이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대한여자애국단의 사업과 흥사단 대한인국민회의 민족운동을 적극 후원했다. 1940년 다시 대한여자애국단 제8대 총 단장으로 선임되어 임시정부와 국민회의 재정을 적극 원조했다. 동포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려 애쓰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비행학교를 설립한 노백린(1875-1926)



계원 노백린은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뛰어나 주위로부터 장군감이라고 칭송을 받았다. 고향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상경하여 1895년 정부에서 뽑는 전국의 수재 120인에 뽑혀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간다. 이갑, 유동열, 윤치성과 일본에서 경응의숙을 졸업했다.



해에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의 정변이 일어나고 친일당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하자 정부에서는 유학생들에게도 역당의 누명을 씌워 학비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뜻을 더욱 굳게 먹은 노백린은 더욱 면학하여 1898년 합성학교를 졸업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1900년 귀국하여 민영환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윤치성 등과 같이 육군 참사에 임관되어 한국 무관학교 교관으로 후진양성에 정열을 바쳤다. 1904년 노일전쟁 때 장군은 관전사가 되어 만주 등지를 시찰하고 육군무관학교장, 육군연성학교장 등 군의 요직을 역임하며 국군육성에 진력했다.

1907년 8월1일 한국군대 해산이라는 치욕을 맞자 군대의 적을 버리고 교육계에 투신하여 보성학교 교장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피혁사업과 식료품점, 금광, 철공소 등의 사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군사침략과 마찬가지로 위협시되었던 경제침략을 막는 민족산업 진흥을 위해 애썼다. 국권을 잃은 것을 탄식하던 그는 안창호, 이갑, 신채호 등과 신민회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고향 송화에는 광무학당을 설립하였다.

1908년에는 김구 등과 같이 해서교육총회를 조직하였고 1910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해 6월 박용만과 하와이에 국민군단을 창설하고 300 여명의 독립군을 훈련시켰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를 통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군인출신이던 그는 독립운동 노선도 전투를 통해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독립전쟁론자였다.

임시정부에서 이동휘에 이어 제2대 군무부 총장에 임명되었으며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이동휘, 김규식과 함께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선발되었다. 그는 앞으로의 전투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고 믿고 1920년 2월 20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공군양성을 위한 비행사양성소를 북가주 새크라멘토 근처 윌로우스에 설립했다. 부호 김종립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에 힘입었다.

1920 1월 전 국민에게 광복군 전투대열에 참가를 당부하는 군무부 포고 제1호를 발표하는 등 미주지역에 거하면서도 광복군의 전투를 지원하는데 혼혈을 기울였다. 1921년 7월 월로우스를 떠나 상해로 돌아왔다. 당시 임시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독립운동 노선 차이 등으로 네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 문창범을 중심으로 하는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정부, 박용만, 신채호를 중심으로 하는 북경의 군사 통일회, 이동휘를 중심으로 하는 한인 사회당,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유지파 등이었다. 미국에 있던 이승만, 김규식, 노백린이 상해로 떠난 데는 분과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922년 6월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지명으로 국무총리로 추대되어 1924년 4월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용감한 군인인 동시에 지조와 열정의 독립 운동가였던 그는 1925년 1월22일 상해에서 52세로 병사했다. 장군은 죽을 때까지 한국군복을 착용하여 한국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고수했다. 장군의 묘지는 상해 만국공묘에 안치되어 있다가 1993년 임정요인 유해 봉환시 국내로 옮겨졌다. 1962년 3월1일 건국공로 대통령 장을 추서했다.

### 책 간행에 힘쓴 문양목(1869-1940)



1894년 동학 난에 적극 참여했던 문양목은 반봉건·반외세를 일찍이 깨우친 지식인이었다.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중 기울어 가는 국운을 비통하게 여기며 1905년 하와이 이민선을 올라탔다. 1906년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대동보국회를 결성하고 중앙회장이 되고 동회의 기관지인 대동공보사 사장 겸 발행인을 지냈다. 스티븐스가 망언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를 항

위해 갔던 한인 대표 4명중 한 명이다. 스티븐스를 만나 발언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페어몬트 호텔 로비에서 그를 구타했다. 장인환, 전명운이 스티븐스를 저격하자 두 사람 후원회를 결성했는데 그는 후원경비 조달 및 변호사 교섭 등을 담당했다. 장인환 재판을 ‘독립재판’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의 독립의지 및 일본의 침략만행을 미 국민과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 공헌했다.

1910년에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박용만의 ‘국민 개병설’등의 책을 냈다. 1912년 신한민보 주필로 선임된 후에도 박용만의 ‘군인수지’를 발간하는 등 항일투쟁에 필요한 책을 출판하여 독립운동을 측면 지원했다. 1911년 2월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에 당선되어 군인 양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시베리아와 만주지역에 지방총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한인 반세기를 기록으로 남긴 방사겸(1881-1955)



평양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방사겸은 1903년 23세에 첫 이민 배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했다. 노동만 하자니 희망이 없어 공부에 뜻을 두고 샌프란시스코에 왔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기숙사에는 10명 정도가 유숙하였는데 그곳 모임에 온 안창호를 만나 독립운동 일을 하게 되었다.

장경과 함께 페사디나로 가서 대동교육회를 조직하고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등지에 지방회를 조직했다.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한인이 많아지자 총회는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지고 명칭도 대동보국회로 고쳐졌는데 이 단체 소속 순찰대원으로 일했다.

하반에 사는 중국 사람들에게 인삼을 팔아 수천 달러를 벌었으며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다. 사진혼인으로 맞이한 부인 방살로매는 18세 때 간도에 살면서 1백30리나 되는 회령까지 나가 사진을 찍어 35세의 노총각 방사겸에게 보냈다고 한다.

1915년 미국으로 떠나려던 방살로매는 일본 관헌에 붙잡혀 못 오게 되고 방사겸은 오클랜드의 가정집에서 머슴으로 일을 하며 샌프란시스코 선창으로 나가 1년 내내 기다렸다. 1916년 3월18일 상항 한국인감리교회에서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북가주 새크라멘토에서 살다가 스타톤에 정착하여 호텔과 식당을 경영하며 돈을 모았다. 83에이커를 사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홍수애다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쌀값이 폭락하여 큰 손실을 안았다. 그 뒤 다시 20년 이상 식당 경영으로 일어난 방사겸은 해방된 조국의 정치가 잘못되자 이를 몹시 속상해했다. 딸 다섯에 아들 다섯의 10남매를 잘 키우고 1955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별세 전 3년 동안 일기형식으로 미주 한인 사회의 반세기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 소년병 학교를 설립한 백일규(1880-1962)



약산 백일규는 미국 유학을 목적으로 이민을 와 1905년 5월에 하와이로 들어와 이듬해 8월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1907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동보국회 설립 시 발기인이었으며 1908년 3월 발생한 스티븐스 사건에 장인환, 전명운 두 의사 후원회 회장을 맡았었다. 1909년 7월에는 네브라스카에서 박용만과 함께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였다. 1918년 기주 대학에서 경제과를 마치고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주필이었던 그는 1918년 8월에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신  
한민보 주필로 임명된 이래 16년 동안 신문을 통한 항일운동을 전  
개했다. 1919년 4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으로 당선되어 미주  
본토, 하와이 멕시코에 있는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총 지휘했다.  
1920년 2월 ‘한국경제사’를 출판하였으며 1926년 2월 북미 대한인  
국민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어 8년간 봉사했다.

1934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 제3행서 재무위원으로 군자  
금을 모집해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1943년에는 조선민족혁명당 미  
주지부 기관지 ‘독립’의 사장 겸 총무로 활동했다. 해방 후 1946년  
에는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의 ‘국민보’주필로 2년간 활동했다. 로스  
앤젤레스 공원묘지에 있던 유해는 2002년 9월 대전국립묘지로 이장  
됐다. 정부는 199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홍사단에 몸 바친 송석준(1865-1907)



평북 의주 태생으로 그에 대한 공적은  
당시 홍언의 남긴 글로 잘 알 수 있다.  
“동년 四月 十八日에 상항(샌프란시스  
코)에 대지진이 폭발하여 상항(샌프란시  
스코)지부가 화염에 들어갈 때에 공립회  
관을 또한 불속에 묻고 겨우 문부 존안  
을 구하여 창황히 오클랜드로 건너가서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속사관에 조난

한 정형을 인쇄하여 각처에 소식을 통하니 하와이 오아후 에와 친  
목회에서 글을 보내어 위문하는 동정을 표하였다. 공립협회는 이  
같은 큰 재난을 만난 후에 회무 발전을 쉬지 아니하고 동년 七월에  
다시 석판신문을 간행하더니 동년 八월에 광무 황제 폐하께서 재미  
한인의 조난을 민휟하셔 홀금을 하사하시니 이는 재외 한국 여민이

내국 정부의 보호를 받던 때라. —치한 정성으로 성은을 느끼며 홀금의 여액을 공립협회에 부쳐 다시 공립관을 건설하나라. 공립관이 다시 의연히 오클랜드에 건설된 후에 내지 각 사회에 교섭을 통해 내지 자강회 총간부에서 글을 보내어 서로 제휴하기를 요구하니 이는 해외 한인단체가 내지 정당으로 더불어 성세를 연락 하던 처음이라. 일반 동포가 더욱 힘을 아울러 공립협회의 위망을 높이며 광무 十一年 四월에 비로소 공립신문에 활자를 사용하니 동포의 열정이 진실로 극도에 달하였으며 당시 주무자의 힘이 또한 피곤하여 총회장 송석준 씨가 병석에 누워 회무와 출판기관을 총할 주선하다가 마침내 오클랜드 공립회관이 다시 상항(샌프란시스코)으로 옮기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무 十一年 五月 十七일에 세상을 떠나 로스앤젤레스 공립매장지에 유해를 묻으니 해외 한인단체에서 몸을 바쳐 간력을 다하다가 인하여 그 몸을 희생한 사람은 오직 송석준이라 송씨는 원래 대영웅, 대호걸이 아니로되 동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단체를 위하여 충성을 다함이 가히 공경할 인물이요. 병든 베개에 누워 붓대를 잡고 국궁진체하던 형용이 모든 사람의 참통한 마음을 주어 당시 사람이 위하여 애감한 눈물을 뿌리더라. 때는 공립회관이 다시 상항(샌프란시스코)으로 옮겨 들어와서 모든 회무가 차차 정돈이 되더니 중도에 돌연히 총회장의 재상을 당하여 정부회원의 애통함이 다만 옛일을 느끼며 전도 진행이 자못 막연하더니 부회장 정재관 씨가 총회사무를 대관하여 —체 회무가 의연히 정돈이 되며 모든 규모의 극비함이 찬연하여 가히 볼 만하더라. 이후로 공립신보는 점점 확장하여 내지와 원동 각처에 三 四千장 신문을 발행하니 융희 원년 九월에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동포들이 비로소 글을 보내어 통신을 연락하고 익년 二월에 내지 부인사회에서 공립신보를 찬성하기 위하여 내지 각처에 추지서를 돌려 의견을 청하며 매일신보사에 수전사무소를 설치하니 이는 해외 한인단체가 처음으로 내지 각 사회에 신앙을 퍼던 때이라. 융희

, 곧 기원 四千二百四十년 十월에 상항(샌프란시스코)에 재류한 유지인사들이 대동보 보국회를 조직하고 남방 각처에 지회를 설립 하며.....” 정부에서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자금 조달 역을 맡았던 송중익(1887-1956)



재판정에서의 후원, 후원경비 조달, 변호사 교섭 등을 담당하면서 미 언론 등에 일본의 침략야욕과 한국의 독립 필연성을 인식시켰다.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흥사단 발기대회에서 8도 대표 중 한 명으로 동 단체의 재무와 이사부장직을 역임했다. 또 도산이 공적활동을 하는 중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는데 애썼다. 도산에게 가장 힘이 됐던 사람 중 한 명이다.

1919년 대한인국민회 독립운동자금 재무로 임시정부 건설의 경비를 조달했다. 1917년 안창호와 함께 북미실업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주식금 9만5천 달러를 모집하여 쌀농사 이익으로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27년 문을 닫고 만다.

1919년 대한인국민회 재무로 독립운동자금과 임시정부 경비조달에 힘썼고 건축위원으로 1938년 총 회관을 낙성하는데 헌신했다. 1941년 미주 내 모든 단체를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조직에 집행부위원이 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과 외교 및 선전사업을 추진했다. 1944년 주미외교위원부의 외교위원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1945년 조국이 광복되자 재미한족 국내파 건단의 재무가 되어 40년 만에 조국 땅을 밟게 된다. 1956년 신병으로 별세했다. 자손들이 기념사업으로 그의 호를 따서 우강장학재단을 세웠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한글 월간잡지 ‘대도’를 발행한 양주삼(1879-납북)



샌프란시스코가 대지진을 만나 어려웠던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왔다. 그는 장차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을 하는데 뜻을 두고 공부를 위해 동부로 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그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봉사심은, 당장 한인들에게 필요한 구호 및 계몽의

일을 지나쳐 갈 수가 없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기로 한다. 그의 노력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정식으로 한국인 감리교회가 설립되어 한인들에게 선교하고 조국 독립을 위한 애국애족정신을 심어주었다. ‘대도’라는 한글로 된 최초의 월간지 잡지를 발행하여 전도 및 교양, 고국과 세계소식을 전해주었고 야학을 시작했다. 교회에서 3년여의 봉사를 한 후에야 동부 밴더빌트 대학에 들어가 문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1912년에는 예일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1915년 본국에 돌아가 그해 결혼을 했다. 시베리아와 만주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다. 1922년에는 다시 도미,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기독교 입문’등 성경을 소개하는 글들을 많이 썼으며 기독교 대한감리교회가 출발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한국기독교서회 총무로 기독교 출판 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대학과 신학교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교육에 애썼다. 해방 후 한국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 적십자사 총재로 활약했는데 1950년 한국전쟁당시 북한공산군에 납치된 이후 소식을 알 길이 없다.



## 50년간 보관했다 기증한 양주은(1879-1981)



1879 5월25일 개성 인삼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첫 번째 이민 배에 올라 하와이에 왔다. 당시 배 값과 식비 등을 합해 이민 오는데 드는 비용 100달러를 사탕수수밭 농장주가 미리 지불했는데, 일이 시작되면 매달 임금에서 제하여서 삼년에 갚도록 했다. 양주은은 그 계약대로

삼 년간을 일한 후 1906년4월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대동보국회와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1940년 초 맹호군의 대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대동보국회 새크라멘토 지역 대리회장으로 활동했다. 1913년 흥사단 창설자 8명중의 한사람으로 흥사단 가입번호가 6번이다. 양주은은 1908년 스티븐스 저격사건의 산 증인이다. 그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페리 항으로 나갔던 사람이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동양인은 총을 살수가 없어 장인환은 같은 집에 사는 백인의 총을 갖고 나왔고 전명운의 총은 장난감 총이라는 것, 그러나 법원 기록에는 진짜 총으로 되어있다.

양주은은 사건당시 그 자리에 있던 자기가 재빠르지 못해 스티븐스가 쓰러졌을 때 땅에 떨어진 서류가방을 줍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일본영사관에서 챙기기 전에 만일 우리가 가졌더라면 그 안에 있었을, 한국과 관련한 비밀 자료를 입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1920년까지 새크라멘토에서 농장주에게 수확의 10%를 받는 소작농으로 벼농사와 갖가지 작물을 재배했다. 1920년대 말 임시정부 수석 김구로부터 재정부족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고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금모집에 앞장섰다. 1941년 말

맹호군을 창설하고 1942년 2월 정식 인준을 받아 내었다. 맹호군의 상향대원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 30가와 차이나타운근처에 ‘Uncle Sam’s Restaurant’이라는 식당을 내서 백인상대로 돈을 많이 모았다. 햄버거와 스테이크 등을 메뉴로 하였는데 요리는 중국인이었고 종업원은 필리핀 한인 등 총 6명이었다. 1963년까지 40년간 한 식당을 경영했다. 그는 사진기를 구입해 독립유공자들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겼고 누구보다 먼저 1920년에 차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1913년 이대위 목사 주례로 사진신부 이제현과 결혼하였는데 그녀는 후에 대한여자애국단 단장을 지냈다.

양주은은 1909년 설립된 국민회 두 명의 설립자중 한 명이었으며 상향 한국인감리교회를 세운 초기 교인이다. 70년 이상을 그 교회에 다닌 평생 교인이었다. 이승만은 결혼 후 돈이 없어 3개월간 그의 집에 머물렀으며 김규식도 수개월간 그의 집에 머물렀다. 수백명의 유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 주었으며 수천 불을 독립자금과 교회활동에 기부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서류와 1909년부터 모은 국민회의 기관지 신한민보를 50년간 보관했다가 서울 국립도서관에 모두 기증하여(1961년) 미주이민사회를 연구하도록 했다. 1974년 국민훈장모란장을 본국정부로부터 받았다. 1997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평화회의 한국대표를 지낸 윤병구(1882-1949)

서울에서 출생하여 구한말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신자가 되었다. 서울에서 선교사 통역관으로 활동하다 하와이 이민들이 목사 파송을 요청하자 목회를 하려고 도미하였다. 하와이에서 신민회와 ‘애바친목회’를 결성하고 1905년 이승만과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 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1906 ‘시사신보’를 창간했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했다. 1909년 샌프란시스코 상향한인감리교회에 전도사로 취임하여 2년간 시무했다. 191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지방 외교관으로 임명되어 미국인 사회에 한인의 입장을 선전하는 사무를 담임하였다. 파리평화회의 대표로 피선되어 미국 언론 관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독립을 설명하고 호응을 얻었다. 미국정부에게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하는 청원서 작성위원 3인 위원으로 서재필에 의해 임명되었다.

1920년 대한인국민회 회장으로 피선되어 당시 4천여 명의 회원을 이끌었으며 임시정부에 2-3천 달러의 독립자금을 지원하였다. 1929년 뉴욕에서, 1939년에는 리들리 한인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유엔평화회의에 비공식적인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1949년 2월 이승만대통령의 초청으로 귀국해 외무부와 공보부 고문으로 취임하였고 연희전문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정신을 실천하며 산 윤응호 (1880- 별세)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난 윤응호는 일본군의 식량을 만주로 실어다 주는 일을 하면서 외국에 대한 견문이 넓어졌다. 1904년 24세의 나이로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왔다가 마침 황제의 명을 받고 이민 현지사정을 알아보려 왔던 윤치호를 만나 공부할 것을 권유받았다.

1906년 8월23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국민회와 흥사단에 가입하고 70여 년을 도산 안창호 정신으로 살았다. 윤응호의 단번은 15호로 덕, 체, 지의 삼육과 일종 이상의 기술을 가져야 살 수 있다는 도산의 뜻을 기려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그의 부인이



1915 윤응호의 결혼식

김도연은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던 중, 미국에 가있던 친구의 중개로 윤응호의 사진을 받아 미국에 오게 됐다. 주로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벼농사를 종사하면서 농장 주인들에게 수확량의 10%를 받는 소작농을 했다. 풍년이 들면 큰 이익을 보았지만 그 외에는 겨우 먹고만 사는 생활이었다. 10년 넘게 벼농사 일에 매달린 후에는 달라노 지역으로 가서 수박, 참외, 감자, 목화 등의 재배하는 일을 했다. 1936년부터 1965년까지 30년간 달라노에 있었는데 한때는 채소가게를 열기도 하였다. 스티븐스 저격사건 후 장인환 재판관 관련해 통역으로 이승만이 동부에

서 왔다. 그러나 이승만이 자신은 기독교인으로 살인 재판의 통역을 맡을 수 없다고 하자 윤응호는 문양목과 함께 이승만을 공원으로 불러내어 설득한다. 그러나 결국은 주먹다짐까지 오가게 되어 그 뒤로는 이승만과 평생교류가 없이 지냈다. 부인 김도연은 1919년 대한여자애국단 창립 후 50년이 지나도록 대한여자애국단 월례회는 꼬박꼬박 참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응호는 남가주 초기 이민 제1호로도 불려진다. 50년간 윤응호 부부는 한인사회와 관련한 각 단체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해 몸 바친 산 이강(1878-1964)



황산에서 출생하여 7세 때부터 17세까지 한문을 배우고 기독교감리교회에 입교하였다. 1903년 미주개발공사에서 모집하는 이민에 응모하여 하와이로 가서 1년 영어를 배우고 미주 본토로 왔다.

안창호와 는 고향에서 면식이 있었으나 미국으로 건너가 친숙한 사이가 되어 평생을 조국 광복과 교육에 바쳤다. 학교를 들어가려고 학비마련을 위해 아스파라거스, 합스 등을 재배하는 7개월 농장 일을 하고 백 달러를 벌었다. 그러나 안창호를 만나 그의 권고를 학업을 포기하고 미주한인지도에 나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와 더불어 공립협회를 조직하고 공립신보의 주필이 되어 미주교민의 생활향상을 계몽하였다.

리버사이드에서는 거들떠보지 않는 한인들의 일감을 구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려고 매일 길 청소를 했다.

어느 날 관심을 보인 미국인이 사정을 듣고 노동 주선소 차릴 돈을 빌려주어 리버사이드로 오는 한인들은 언제든 일을 하게 만들었다. 1907년 대한인국민회 원동위원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신민회를 조직하고 매국자를 숙청하는데 힘을 썼다.

안중근의사 이등박문 저격 후 변호사를 주선하고 자금을 모아 재판을 후원하였다. 중국 예배당에서 ‘한국현상과 교육형편’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다 일제에 체포되어 남대문형무소에서 3년을 복역하였다. 다시 상해로 가서 7년간 항일 운동을 전개하고 1946년 환국하여 흥사단 심사부장이 되었다. 1948년 계명학교를 세우고 남산고등학교 교장을 겸임하였다.

1962년 정부로부터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다간 이대위(1878-1928)

평양에서 출생하여 기독교 학교인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목적으로 1903년 미국으로 왔다. 190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와 더불어 친목회를 조직하고 한인사회의 생활개선운동에 앞장섰다. 1905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와 미주 최초의 민족운동기관으로 항일운동과 동족사랑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립협회를 조직



하여 활동했다. 1906년 12월6일에는 상향한인감리교회를 창립하여 동포들의 구호사업과 교육 계몽운동, 직업알선 등의 일을 수행했다.

1908년에는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1916년 UC 버클리를 한인 최초로 졸업하고 태평양 신학교도 나왔다. 같은 해 상향 한인 감리교회 내에서 미국 내 한국어 출판의 효시인 ‘대도’라는 주보를 발행하여 매부 본국과 세계의 정세를 전달하는 한편 기독교 복음전도 및 교포교양에 공헌했다. 1906년 지진으로 폐허가 된 샌프란시스코에 양주삼전도사를 초빙해 구호사업 교육계몽 건강관리를 갖 문을 연 교회를 통해서 수행했다. 후임 윤병구 전도사가 목회를 하고 UC 버클리 재학 중이던 이대위 목사는 1911년8월 3대 담임으로 취임했다. 이 교회는 예배 친교 봉사 외에 애국운동의 본산지가 되었다.

1909년 2월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버클리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10년 2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한일합방이 되자 그해 7월 애국동맹단을 조직하고 일본 왕에게 합방을 강력히 반대하는 서신을 보냈다. 국권회복을 위해 각 지방에 독립군 양성소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

. 미국으로 망명해 오는 애국지사와 신도 유학생들을 위해 신원 보증을 서거나 이민국 수속을 위해 대변인을 자처하며 헌신했다. 1911년 상향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1913, 1915, 1918년 세 차례에 걸쳐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회장이 되고 6월에는 신한민보 주필이 되었다.

캘리포니아주 해밀에서 한인노동자들이 동양인 배척으로 쫓겨난 사건이 생기자 주미일본공사가 해외한인들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며 뛰어들자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한인사회에 간섭행위를 못하도록 요청해 허락을 받아내었다. 1914년 4월 대한인국민회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정을 받아 망명자치정부의 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당시 입국한 유학생들의 이민국 입국서류를 보면 모두 샌프란시스코 1053 Oak St에 David Lee (이대위 목사)의 주소로 간다고 되어있다. 유학생들은 지참금(\$100)을 보여주어야 했고 한 달에 \$50의 재정지원이 보증되어야 했다. 이런 일로 도움을 청하는 유학생을 이목사가 다 거두어 주었다. 또 질병으로 인해 입국심사에 걸린 사람에게는 50달러와 편지를 보내,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그 뒤 입국하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1915년 3월에는 국문자모를 몸소 만들고 독창적인 ‘인터타입 한글식자기’를 발명하여 신문에 활자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 식자기는 1915년-1970년까지의 신한민보를 제작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국민회 북미 지방총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그는 대한독립선언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1921년 김규식, 송헌주와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외교와 독립선전활동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 샌프란시스코 초창기 사회에서 이대위목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그는 자신의 50평생의 절반을 재미동포와 함께 했다. 그는 또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통역을 맡아하면서 국민회총회장으로 사진결혼으로

없이 오는 신부들의 신원보증인과 이민 수속의 대변인이 되었고 결혼식 주례는 도맡아 했다. 그 시대 샌프란시스코에 유학한 학생 수는 500여명이었고 70여명이 사진결혼신부들이었다.

이대위 목사는 성격이 강인하고 결심하면 늘 실행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상항 한국인감리교회 송정률 목사는 교포사회나 겨레의 장래를 위해 가장 실질적으로 몸으로 직접 봉사한 사람으로 도산 안창호만큼 훌륭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17년간 목회 하던 교회의 새 건물이 세워지기 2년 전 1928년 6월 17일 과로로 인한 폐병으로 49세에 별세했다. 1928년 6월 22일 사이프러스 묘지에 그의 시신이 묻힐 때 전 미주 동포는 물론 멕시코, 하와이 한인까지 깊이 슬퍼했다. 2005년 국립묘지에 천정되었다.

1995년 정부에서는 건국헌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걷기 위해 발로 살았던 이범영(1892-1982)

1913년 20세의 나이로 유학차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로스앤젤레스, 다뉴바,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60년을 오로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3.1운동이후 다뉴바에서 국민회 지방회장을 지내며 200여 한인들을 모아 대회를 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독립금을 거두었다. 혼자 서 한인이 사는 곳이면 찾아가서 독립금을 거두어서 이승만에게 보냈다. 포도장사 하던 것도 소홀히 하고 일 년 내내 한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녔다.

싼타바바라, 임페리얼벨리, 로드아일랜드, 맨티카, 스타튼 등으로 다녔다. 다뉴바에 사는 최학선이라는 사람은 400달러를 내고 다음에 벌어서 또 400달러를 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등 당시 한인들은 독립자금 내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름을 하던 사람도 돈 통을 따로 두고 돈을 모았다가 이범영이 가면 내 주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자금이 걷히는 대로 워싱턴에 상해임시정



연락하고 구미 외교선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에게 보냈다. 이승만의 최 측근으로 1954년 10월 진해에서 열린 아세아반공연맹 창설을 도왔다. 부인 이 메리가 당시 서울에 있던 남편에게 미국에서 뷰익차를 보냈는데 이범영은 그 차를 타고 다녀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선교와 봉사로 일관한 임정구(1886-1939)

1886년 평양에서 태어나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평양에서 닥터 노블에게서 침례를 받고 서양문물에 눈을 떴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1905년 하와이로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 그는 1914년 버클리 대학에 입학하고 그해 결혼도 하였다. 1917년 졸업과 동시에 교회에 봉사하기 시작하여 북가주의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스타튼, 맨티카에서 선교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맥스웰, 윌로우스, 트레이시에서 미션이 시작됐다.

그러나 농사에 의존하던 한인들의 농사가 흉작이 되자 맥스웰, 윌로우스, 맨티카를 떠나게 되자 새크라멘토, 스타튼, 오클랜드를 선교의 중심으로 선교하였다. 1917년 오클랜드 담임목사로 대한민국 민회 회장에 당선 된 그는 한인사회에 교회지도자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자로 활약하였다. 1927년 버클리에 있는 태평양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임정구 목사는 오클랜드교회에서 1938년까지 봉사하였다.

그는 한인들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북가주 산하 여러 한인교회를 다니며 쉬지 않고 봉사하는 가운데 건강을 많이 잃었다. 1939년 12월28일 기력이 쇠진한 가운데 선교와 봉사와 교육으로 일관한 일생을 마감했다.

## 최초의 단체 상향친목회를 조직한 장경

1903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이대위와 함께 미주 한인단체의 효시인 친목회를 조직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인사회의 생활개선운동을 펼쳤다. 1905년 일제가 한국과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해외 유학생의 양성, 서적의 출간, 신문의 간행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 패사디나에 대동교육회를 조직하고 총무로 선임됐다.

1907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일규, 문양목과 함께 대동교육회를 대동보국회로 개편하고 중앙총무가 된 그 해 7월 일제에 의해 강제 체결된 정미 7조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한인들의 쫓겨난 것을 추구했다. 동년 11월에는 상해지방연회를 조직하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다져놓기도 했다. 기관지 ‘대동공보’를 창간하여 민족정신과 국권회복운동을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19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 친일파 스티븐스에게 저항한 정재관(1880-1930)



별호는 해산(海山)으로 황해도 재령 출신인 그는 1902년 안창호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1904년 공립협회를 창립하였다. 1905년 11월 기관지 공립신문을 창간하고 발행인이 됐다. 1907년 4월 신민회가 서울에서 창건되자 여기에 가입했다. 스티븐스의 망언에 항의를 간 한인대표 4명중 한사람이었다.

1909년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활동하고 공립신문을 신한민보로 바꾸었다. 그해 4월 헤이그 밀사였던 이상설과 함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재로대한인국민회’를 도왔다. 1909

10월 이등박문 처단계획이 대동공보사에서 수립될 때 안중근을 지원했다. 1919년 3.1운동 직전 만주와 노령에서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러시아에서 ‘독립부인회’의 조직을 적극 지원하였고 “한인사회당” 군사부 위원으로 수청일대의 빨치산 고려인 부대 조직, 지도 사업에 마지막까지 분투하였다. 풍한서습으로 죽으면서 신체를 화장하여 달라고 유언하여 빨치산 일동은 정재관 동무를 통나무가지 불속에 장례하고 그곳을 정재관 골이라고 기념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조직한 정한경(1891-1985)

정한경은 어린 나이에 박용만의 삼촌이 되는 박장현이 고향에다 세운 대학교에 다니면서 신학문에 눈을 떴다. 1904년 14살의 나이로 새 학문을 배워보고 싶어 하와이로 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왔다.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내려 한인교회에서 접시 닭기와 음식을 만드는 일을 1년간 하였다. 처음 도산이 정한경을 만났을 때 “정군은 보통사람이 아니니까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고 미국신문에 논설을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라”며 25전을 주며 격려했다는 일화가 있다.



네브라스카 대학에 입학하여 정치학을 공부하고 박용만을 만났는데 한인사회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계기가 됐다. 소년병학교를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1918년 독일이 항복하여 세계 제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미주 각지에서 모인 재미 한인전체회의가 열리고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할 대표로 이승만, 민찬호와 함께 그도 선출됐다. 그러나 미 국무성이 ‘한국은 나라가

참석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프랑스행은 좌절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도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했으나 그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구미위원회 유럽대표로 파리에 체류하도록 하였다. 워싱턴에서 이승만 박사, 홍언, 현순목사, 정한경 박사 등이 상해임시정부와 국민회의 구미위원회 위원으로 대미외교를 담당하였다. 정한경은 태평양연안 및 뉴욕거주 교민들을 중심으로 파견된 김규식과 함께 '신고려회'를 조직하고 외교활동을 벌였다.

1919년 2월25일 이승만과 함께 윌슨 미대통령을 비롯한 강화회의 각국대표들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노스 웨스턴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하고 1921년 워싱턴 D.C.에 아메리칸 대학에서 이승만 박사 다음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구미위원회 사무총장, 파리 약소민족회의 국가대표, 워싱턴 군축회의 상해임시정부 대표서기,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다. 그는 영문으로 된 4권의 책을 저술한 학자였다. 'Korean Treaties'(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들을 모아놓은 책), 'The Oriental Policy of The U.S.A'(일제의 한국지배 선전이 미국에 준 영향에 대한 책), 'The Case of Korea'(한국 실정을 다룬 책), 'The Russians Came to Korea'를 저술한 학자로 해박한 지식과 두뇌를 미국과 미국사회를 움직여 독립 쟁취에 노력을 기울였다. '북미합중국의 동양정책'과 '평화회의'등의 글을 저술하여 한국 독립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한국사정'을 영문으로 발행하여 일제의 침략야욕을 지적하였다. 1919년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 1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한인친우회를 조직하여 한인들을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임시정부 구미위원회 위원으로 대미외교를 담당하였다. 그는 유일하게 도산 안창호, 우남 이승만, 박용만을 만나고 그들의 사상과 뜻을 떠나갔다. 그러나 정한경박사는 평생동안 국민회, 홍사단, 동지회 등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했다. 그는 한국은

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여야만 대한의 독립은 가능하다는 외교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로부터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미주후원회를 조직한 최능익(1889- 별세)

1889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나 1916년 조국의 독립과 항일 투쟁을 목적으로 미국에 망명했다. 북가주 윌로우시방의 대학에 재학한 그는 1920년 4월 그 지역 대표로 학생총회 결성대회에 참가하여 총회결성 발기자회를 조직하고 미주한인학생들의 친목과 항일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자신이 거주하던 윌로우스에 마침 한인 비행사 양성소가 설립되자 학생으로 입소했다.



5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군대교련을 받으며 항일투쟁의지를 굳혔다. 1939년에는 중국피난민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1941년에 2월에는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를 조직하였다.

1942년 5월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됨에 따라 1943년 1월 조선혁명당 미주지부로 개칭하고 9월 기관지 ‘독립’을 창간했다. 그 후 미국 내 모든 단체를 통합한 재미한족연합회로 통합하여 활동했다. 이승만의 동지회가 재미한족연합회를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외교위원부를 설치하자 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임시정부의 주미외교위원부 개조 인선작업에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정치학과를 창설한 최봉운(1914-2005)

교수는 1914년 평북의주 출생으로 학생시절 성경학교와 수양회를 개최하여 한글을 가르치는 등 문맹퇴치와 민족정신 고취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청산학원을 졸업하고 1938년 도미했다.

UC Berkeley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Worl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학생회에서 부인과 함께 미 서부지역 간부를 지냈다. 버클리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는데 한국어과를 개설할 만한 예산이 없어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며 버클리대 한국어 프로그램 창설에 참여했다.

진주만 사건 이후의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의 통역자로 일했으며 편지 등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되었던 맹호단에 참여하였으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Mission St.의 Armory Building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당시 학생으로 참여했던 그는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50여명,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해방 후 한국에서는 미군정시 공보부 차장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창설에 참여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초대학과장을 역임하였다.

버클리지역에 처음으로 한국식당 ‘The Korean Inn Restaurant’을 열었는데 당시 베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식당이었다. 필름 웨스티벌 등 많은 모임이 그곳에서 열렸다. 현재까지 의도적으로 미국시민권을 받지 않았다. ‘Koreans in America’등의 이민관계 책을 저술하여 후세들에게 이민의 실상을 알려주었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발전에 27년간 봉사한 최진하(1889-1967)



출생하여 유학을 목적으로 1916년 9월 미국에 왔다. 이듬해 1월 북미대한인국민회 총무로 임명돼 국민회 발전과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노력했다. 1919년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의 군사 및 외교활동을 적극 후원했다.

1921, 1923, 1924, 1935년 등 총 회장으로 여러 번 당선되어 단체 발전과 독립운동후원에 몸을 바쳤다. 1936년 6월에 국민회 부흥과 개량에 힘을 쏟았고 이듬해 1월 중앙상무부 총무로 당선됐다. 조국이 광복 될 때까지 외교사업과 국방후원, 한인동포의 전시 안녕보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편성을 후원했다. 1950년 2월 이후에는 북미대한인국민회 총무와 신한민보 주필을 겸임하였으며 국민회 발전을 위하여 27년 동안 봉사했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미주 공군부대 창설에 기여한 한장호(1893-1994)

평양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한장호는 일생을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샌프란시스코 근교 밀벨리에서 100세에 사망하였다. 19세에 일제의 압박에 못 이겨 할아버지가 챙겨주는 돈과 옷을 가지고 한 밤중에 부모에게 작별인사도 못하고 도망을 하였는데 다시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1913년 상해로 가서 민족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기 위한 여비 마련을 위해 2년을 그곳에서 일했다. 1916년 샌프란시스코 앤젤 아일랜드에 도착하여 상항한인감리교회 이대위목사의 도움으로 이민수속을 밟았다. 1916년에 3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총 회장을 역임했다.

북가주 멘티카로 이주하여 농장인부로 일하던 중 같은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삼성, 오박만, 성복수등과 더불어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1919년에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에 비행기 학교에서 교습을 받고 비행사가 됐다. 그 후 한국최초의 한국 독립군공군부대(Korea Independent Air Force)를 창설하는데 기여하였다. 비행조정법 등 구체적인 기술교육과 비행훈련을 받고 전투에 필요한 전폭기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기관 등에 재정적 후원을 요청하였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1920년 2월 윌로우스에 노백린이 한인비행학교를 세우고 김종립이 비행기 5대를 구입하자 이곳에 교관으로 임관했다. 50여명의 학생들에게 비행술을 가르치면서 항일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한장호의 생각은 비행편대를 구성하여 도쿄로 폭탄을 싣고 날아가 폭격함을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1942년에 미국의 두리틀 장군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승인 받았던 방법으로 미국의 비행단이 도쿄를 습격한 후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계획과 같다. 이런 비슷한 계획을 한장호는 1919년에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

1921년 6월에는 네브라스카 헤이스팅스에 있는 박용만의 소년병 학교에 참여했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의 아들 Dr. Richard는 아버지 한장호가 박용만의 군사학교에 동참하고 있을 때 네브라스카의 헤이스팅스에서 태어났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의대를 나온 그는 스탠포드대학에 있었으며 의학 관련 essay를 써서 여러 번 상을 받았다. 1949년 심장병수술에 신기술을 발견한 선구자로 의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부인은 폴리처상 후보에 올랐던 ‘토담(Clay Walls)’을 쓴 김난영이다. 심장전문의 의학박사로 미 주류 사회에 널리 알려진 그는 이제는 은퇴하여 현재 가족사 관련 글을 집필 중에 있다. 아버지의 소장품은 USC 의



Korean Heritage Library 기증되어 현재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5개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헬멧 등 아버지가 사용했던 비행장비는 샌프란시스코의 Historical Society(on Mission)에 기증했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문장의 대가였던 홍언(1880-1951)



‘동해수부’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던 홍언은 서울에서 출생했다. 문예에 소질이 있던 선비로 공부를 목적으로 1905년 하와이로 이민 왔다. 1906년 하와이에서 ‘자강회 월보’와 1907년 하와이 24개 단체를 합쳐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한인합성신보의 주필이 되었다. 또한 ‘신한국보’주필이 되어 동포들의 실력

향상과 교육 장려를 위해 노력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와서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부회장으로 봉사했으며 1908년부터 4년 동안 신한민보 주필로 일했다. 신한민보에 동해수부라는 필명으로 시가와 글을 계속 기고하여 미주한인들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주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913년 창립된 흥사단의 8도 대표 중 경기도 위원이었다.

화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하여 국민회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20년 6월 구미위원부 화교위원이 되어 중남미 화교들을 방문하여 기금을 모았다. 1922년 6월 샌프란시스코로 귀환하여 국민회 순행위원으로 캘리포니아 각지를 순행하며 국민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원조를 청했다. 1924년에는 김현구, 최진하와 함께 ‘이문화’라는 문예창작그룹을 조직하여 문학 활동을 펼쳤다. 조국의 국권회복과 민족교육, 문맹퇴치운동, 애국사상고취를 위해 노력했다. 별세하

전까지 십 수 년 간 신한민보 주필로 봉사했다.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수십 년 봉사한 황사선(1885- 별세)



1885년 10월18일 평북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형 황사용 목사의 집에 살면서 일찍 기독교영향을 받았다. 성실학교와 성실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선생을 하면서 애국모임인 신민회에서 활동했다. 일본경찰에서 잡으려 하자 중국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상

하이를 통해 1913년 4월21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미국정부로부터 비공식 승인을 받은 대한인국민회(KNA)대표인 이대위목사의 보증으로, 여권 없이 미국에 왔으나 입국이 가능했다. 원래 업랜드라는 곳에 가서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어 북가주 스타튼에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갖은 고생 뒤에 형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 Mason St.에 양복점과 세탁소를 겸한 가게를 열었다.

1915년에 전도사가 되고 1920년 목사 안수를 받아 상향 한국인감리교회에서 1920-1928년에는 부목사로, 1928-1942년까지 14년간은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교회는 1930년 한인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1123 Powell St. 자체 건물을 마련했다. 대한인국민회 회장과 흥사단 단장으로 있었다. 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유학생과 정치 망명객에게 도움을 주고 직장을 알선했다. 수십 년에 걸친 교회 봉사, 은퇴 후에도 매일 통일을 위해 기도는 미주 한인 사회에 큰 힘이였다.

흥사단 회원 단우 번호가 9번인 황사선 목사는 1924년 사망한 첫

부인에게서 2남 1녀, 폴과 엘리자벳과 메리를 얻었고 1932년 재혼한 부인은 자녀 없이 사망했다. 세 번째 부인은 3.1운동에 가담하여 옥고를 치른 애국여성 황옥석이다. 그 사이에 딸 프란시스를 얻었다. 황 목사의 집은 늘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황 목사는 생활을 위하여 옷도 만들고 수선도 하며 세탁도 하는 세탁소를 운영하였으며, 은퇴 후에도 그 일을 계속하며 어려운 한인들을 도왔다.

황사선의 아들 폴은 황 목사가 1913년 미국에 온지 4개월 만에 출생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를 졸업하고 1943년에는 해군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의료진으로 일을 했다. 홍사단에서 활동했던 신대운의 딸 루스 신과 1943년 결혼하였다. 폴은 홍사단 단우 1번이었던 하상옥의 아들 그리고 최봉윤과도 오랜 친구이다.

### 선교에 바친 황사용

1904년에 미국에 온 그는 일생을 선교 사업에 바쳤다. 1908년 아세아실업주식회사를 창립하여 한인의 실업을 장려하였다. 1909년 5월 멕시코에 이주한 동포들이 농장의 노예노동에서 풀려나는 때에 북미국민회 총회에서는 황사용과 방화 중 두 위원을 멕시코로 보내 실정을 알아보고 돕게 하였다. 5월 20일경 유카탄주의 프로그레소항에 도착하였는데 그것은 한인노동자들이 발을 들여놓은 이래 처음 가는 한인이었다. 처절한 노예의 삶 속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피맺힌 신음을 하던 그때 그들이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었다.



구름 떴처럼 모여든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얼굴은 시커멓게 갈라지고 손바닥은 갈기갈기 갈라지고 다리는 가시에 찢려 상처투성이였다. 도착한 그들은 1909년 5월 9일, 멕시코 노동계약 만료일 3일을 앞두고 조국도 버린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을 위해 감격스러

유카탄주 메리다지방에 국민회를 설립하였다. 대다수의 사람이 농장에 묶여있어 참석 못하고 16개 농장에서 대표 70여명이 참석하였고 창립회원은 305명에 달했다. 이 숫자는 멕시코이민자의 3분의 1 정도로 가장과 호주들의 숫자였다. 그는 또한 원동특파원이 되어 2년 동안의 노력으로 러시아령에 16개 처소와 만주지방 8개 처에 지방회가 조직되고 시베리아 지방총회와 만주지방총회가 설립되었다. 1909년 12월18일에는 샌프란시스코 북미지방총회장 되었다.

1916년 10월26일 산호제에서 목사가 되어 북가주 한인 남미이민 교회의 지방목사가 되었다.

1917년 9월6일 성경전문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달라스텍사스에스엠 대학에서 4년간 공부를 했다. 미주한인 선교를 위해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일생을 선교에 바치고 초기 이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다.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냈다.



, 백일규, 최정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선조들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다. 어떤 분은 당시의 신문을 1호부터 모아 보존하였다가 남겨 두었고 어떤 분은 자서전을 어떤 분은 사진을 남겨 두었다. 특히 소니아 선우와 민병용 같은 분은 첫 이민이 살아 계시는 동안 인터뷰를 통해 그 분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 놓아 훗날 사료로 사용되게 했다. 특히 자서전은 한 인물의 일생을 통한 당시 사람들이 살던 모습과 시대상,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자연스레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록물이다. 사람은 가도 글은 영원히 남아 이민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905년 하와이에 이민 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다 다음해 샌프란시스코로 왔으나 1906년 대지진으로 직장을 얻지 못했다.

새크라멘토로 가서 17년간 농장 일을 했다. 사진약혼을 하고 9년

1923년 5월 15일 샌프란시스코로 온 사진신부를 맞았다.

미국에 도착한 신부 노정순은 농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겨울에는 일이 없어 놀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남편에게 무엇이든 기술을 배우길 바랐다. 노신태는 친구에게 125달러를 빌려 3개월간 사업을 배우는 학교에도 갔으나 마땅한 사업을 찾지는 못했다.

그 후 오클랜드에 있는 친구가 하는 이발소에서 이발하는 기술을 배워 1926년에 이발사 면허를 얻고 오클랜드 7th St.에 가게를 열었다. 이 때 이발 요금은 75센트를 받았는데 가게 세로 \$40을 내고 집세로 \$12.50을 내면 끼니가 어려웠다. 이렇게 되자 한동안은 오클랜드 감리교회 임정구목사의 도움으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는(지금의 웰페어와 같은) 돈을 타서 생활했다. 당시 노신태 가족이 먹었던 음식은 배추 국과 밥이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후에 이발소가 잘 되어 1941년에는 하루에 35-45달러를 벌었다. 돈을 모아 오클랜드 항에 도착하는 선원들을 위한 공중목욕탕을 차려 많은 수입을 올렸다. 1942년에는 딸의 이름으로 호텔까지 샀는데 당시에는 시민권자 만이 건물을 살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1945년에는 한 달 수입이 2천 달러나 되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노신태는 오클랜드 감리교회 전도사가 되어 목사가 없는 동안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도 했다. 대한인국민회 회원으로 독립운동과 한인사회에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 김

도라 김의 아버지 염만석은 1904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당시 철로 공사가 한창이던 유니온 퍼시픽 철도공사장에 일을 하였다. 그의 어머니 김향신은 사진신부로 1920년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배의 제일 밑창을 타고 왔는데 배 멀미로 사방에 토하고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중 몇 명은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적십자사 한인여성회 일원으로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아버지 염만석은 1913년 안창호가 창립한 흥사단의 창립위원 8명 중의 한 사람으로 각도 대표 중 강원도 대표를 맡았었다. 평생 흥사단원으로 있던 그는 샌프란시스코 퍼시픽과 커니 길 코너에서 담배 가게를 하였다. 미스터리라는 사람과 동업으로 ‘Lee’s Lunch’라는 식당도 같이 운영했다.

차이나타운에 잭슨과 커니 코너에 있던 이 식당에서 아버지는 일주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다. 식당 코너에는 하와이에서 온 총각들이 서성했는데 돈 한 푼 없는 이들을 김치와 불고기로 대접했다. 1924년부터는 이민이 폐지되어 학생만이 유학을 올 수 있었을 때 돈 없이 유학 온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며 자기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게 했다. 당시 한인감리교회는 한인들이 모이는 유일한 장소로 오크 St.에 세를 들어 있었는데 교회 월세는 25달러였다. 아버지는 1937년 메이슨가에 4유닛으로 된 빌딩을 매입했다. 동양인은 건물을 살 수 없으므로 그는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서 샀는데 이곳에서 태어난 딸이 성인이 된 21살이 되어서야 집 명의를 옮길 수 있었다. 그 건물을 산 것은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건물을 산 것이었고 도라 김은 한국인으로는 첫 번째 집을 산 사람이 됐다.

1950년 골든게이트호텔을 인수하여 가족이 경영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으로 봉사하던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삼일절 기념식을 주관했다. 당시 서한나라는 여자는 차이나타운 YMCA 원장이었다. 도라 김은 1921년 3월16일 북가주 맨티카에서 태어났다. 오클랜드의 링컨 초등학교와 샌프란시스코 진 파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공부했다. 만년 학생으로 나이 60이 넘어서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공부했다.

1942 탐과 결혼한 그는 주정부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였다. 도라 김의 동생은 한국휴전 회담 때 통역관으로 1954년까지 일했다.

194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인시험을 통과하고 부동산중개업자가 되었다.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아버지가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였다. 1976년에 둘째아들 탐 김과 함께 상향한인봉사회 창립위원으로 노인들의 식사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도록 하였다.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내고 식단에는 김치를 매일 넣는 등 미주에 사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더운 식사를 제공하는 큰일을 했다.

한인회관에 규칙적으로 근무하며 청소년 프로그램과 한인사회의 대변인으로 법정통역과 취업알선의 일을 하다 1986년 환갑에 은퇴하였다. 1979년에는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전문 여성 클럽의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로부터 상을 받았다. 딸 진수영이 ‘Doing What Had To Be Done’이라는 도라 김에 관한 자서전을 1999년 출판했다.

미국명이 줄리아인 박준섭은 1895년 6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엄한나는 미국본토에 들어온 최초의 한국여자였다. 아버지 박정숙은 러일전쟁으로 각기 외세를 등에 업은 조정의 인물들의 세력다툼으로 혼란스럽던 구한말 왕실 책임자로 있었다. 초기 기독교인이었던 박정숙은 미국과 가까이 지내며 외세를 물리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해 박 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임신 중인 그의 부인을 먼저 미국으로 보냈다. 임신한 몸으로 한 달 넘게 뱃길에 고생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이민국은 만삭



여인을 바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았으나 아기를 낳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추방명령을 내렸다. 염씨는 후에 1903년 최초의 이민 그룹에 끼어 하와이까지는 왔으나 샌프란시스코 친지 집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은 보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 부인과 함께 하와이로 온 아버지는 신장염으로 온지 미국 온지 얼마 안 되어 곧 사망했다. 어머니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추방됐다. 박준섭은 샌프란시스코 동양인 빈민촌에서 자라면서 생계를 위해 접시 닦기 등 온갖 고생을 했다. 로웰고등학교를 다니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였는데 학업에 열중하여 프린스턴대학원에서 신학과 영문학을 졸업하게 됐다.

프린스턴 대학 신학과 최초의 동양인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그는 1923년 장로교 목사안수를 받고 유니온데일 포스터시 장로교회에서 시무하며 북가주 포스터시 고등학교 교장직도 겸했다. 그의 나이 65세가 되어서야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1966년 은퇴할 때까지 필라델피아 던켄스빌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한 그는 인종차별과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인간애를 늘 강조했다. 은퇴 후에도 커뮤니티 봉사를 해오다 1981년 던켄스빌에서 사망하여 그곳 한인 타운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 (메리 백)

부모를 따라 1905년 다섯 살의 나이로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 집을 뺏기는 바람에 하와이로 이민을 왔다.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 드렸던 아버지 백신구 목사는 초기의 선교사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일본에 의해 허물어져 가는 나라와 집을 떠나 가족이 공짜로 배를 타는 조건으로 1년



미국으로 왔다.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하루에 50센트를 받았다. 백광선의 형제는 10명으로 인종차별과 배고픔으로 슬프고 힘든 삶을 살았으나 아버지의 믿음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았다. 리버사이드 소재 감귤농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일하는 30-40명 홀아비들의 밥 짓는 일을 했다.

백인과 같은 동네에 살 수 없어 철도길 옆에 닭장 같은 판잣집 방 1칸에서 살았는데 그것은 1850년대 철도공사 일을 하던 중국 사람들이 살던 곳에 살았다. 땅바닥에 자며 취사에 방해가 된다며 어머니는 긴 머리를 잘랐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아침식사를 5시에 먹이려 3시30분이면 일어나 준비했다. 백 메리도 항상 3시에 일어나 점심 도시락까지 준비해 주어야 했다. 일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오후 7시에 저녁식사를 대려면 어머니는 종일 부엌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메리는 회상했다. 메리는 아기 돌보기와 불 때기 등으로 어머니를 도왔다. 그의 부모는 캘리포니아 주 클레어몬트, 윌로우스, 콜루사, 다뉴바 등으로 이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광산에서도 일했다. 한때는 새크라멘토에서 감자농사를 짓고 홀리스터에 살 때는 남의 집일을 하였다. 당시 미국사람들은 소의 내장은 먹지를 앓았는데 그것을 얻어다가 국을 끓여 먹었다. 클레어몬트에 살 때는 손빨래를 집에서 하는 것으로 살았는데 백인들이 상대를 안 해 주어 백메리는 오빠와 선생님들에게 가서 애걸을 하여 일을 가져왔다.

1913년에 불황이던 시절 스타톤에 가서 감자농사를 지었다. 후에 ‘백미왕’이라고 불리게 된 김종립이 농사지은 감자를 가지고 스타톤시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한 자루에 10센트라 해도 팔리지 않았다. 농사지은 수고한 보람도 없이 하나도 팔지 못하자 속이 상한 그는 강에다 모두 쏟아버리고 빈 자루로 돌아왔다. 그 다음해 그곳을 떠나 산호제에서 80마일을 가면 있는 Idria 수은 광산으로 갔다.

하루에 \$5씩 받았는데 1차 대전이 시작하려던 전쟁초기라 수요가 많았다. 아버지는 이가 빠지고 혀가 까맣게 되고 눈이 나빠지는 등

건강이 나빠져서 윌로우스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교회를 하었는데 두 세가정이 함께 매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당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자신도 글을 몰라 자식들을 국어교육을 시키지 못하였다. 미국에 온 사람들은 아나하임으로 이사하여 야채가게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으나 증권에 투자하였다가 1929년 폭락하자 망하였다.

메리백은 샌버니토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1919년 윌로우스에서 이홍만씨와 결혼하고 세 아들을 두었다. 메리백의 남편은 한인으로는 최초로 당시 미국 ‘벼농사의 왕’ 크로스와 10%의 계약을 맺었다.

크로스의 농사를 지어주고 수확의 10%를 얻게 되는 소작농이었다. 그는 3개 캠프에 1백여 명을 고용하고 4천500에이커 경작지를 맡는 등 활발한 농장사업을 펼쳤다.

1920년에는 풍작을 이루었으나 추수할 때 홍수와 1차 세계대전 후 쌀값이 폭락하여 벼농사를 포기하였다. 유타 주에서 사탕무를 재배하였으며 그곳에 한글학교를 시작하였다. 1921년 로스앤젤레스의 애나하임으로 이주하여 야채장사를 11년간 하였고 엘몬테에서는 오렌지, 레몬, 아보카도 등의 농사를 지었다.

메리 백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당시 농사짓는 사람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5-35센트로 10시간씩 일을 했으며, 1차 세계대전 후에는 75센트 내지 1달러로 올랐다. 1920년대의 생활비는 월 \$10-\$15가 필요했으나 전쟁 중에는 물가가 올라 \$25는 있어야 했다”고 회고했다.

농장, 세탁, 청소 등의 일로 돈을 모아 마켓을 경영하기도 했다.

1995년 2월 14일 알츠하이머를 앓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On Rock 양로원에서 별세하였다. 시신은 화장하여 로스앤젤레스 잉글우드 공원묘지 남편 곁에 묻혀있다.

1918 2월 2일 평남 대동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8년 20세 되던 1903년에 하와이로 이민한 조부(선우 탄)를 찾아왔다. 당시 일본 도쿄 유학 중이었는데 ‘조선독립운동 서클’이란 지하운동에 가담하여 일본경관의 감시대상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왔던 것. 그의 미국 입국은 대한인국민회의 보증으로 가능했다.

미군에 입대하여 복무기간을 마친 그는 워싱턴대학, 스탠포드대학에서 공부하였다. 미국 중앙정보부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통역관을 지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일본어 강사를 하며 정치학 박사 과정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교포 2세 소니아를 만나 결혼하였다. 시애틀로 이사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며 미국대학에 한국어과를 처음 설치하였다. 한국 역사, 한국문화, 한국문학까지 가르쳤다.

젊었을 때 인종차별을 받아 아파트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 충격이었다. 이후 그는 평생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권운동에 몸 바친다. 그의 장모 신경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커니 호텔’을 경영했는데 그 호텔이나 인근에 머무는 군인들에게 자주 밥과 김치를 대접했다고 한다.

선우학원은 골든게이트 공원 옆 콜 St. 코너에서 ‘후드 랜드’라는 식품가게를 경영하였고 흥사단에서 열심히 일했다. 사상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그는 한때 모국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샌프란시스코 부시와 그랜트 코너에 위치한 ‘몰든 호텔’을 매입해 경영하기도 했다.

그 뒤에는 인근에 있는 3층짜리 빌딩을 매입하는 등 사업에서의 성공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는 버클리 태평양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리트에 위치한 트리니티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다. 그 뒤에는 미조리 주의 센트럴 감리교 신학교에서 29

가르쳤다. 주요저서로는 ‘Korea: A Political History in Modern Times’와 ‘아리랑 그 슬픈 가락이여’의 다수가 있다.

1915년 7월 5일 도산 안창호의 첫째 딸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1939년 샌디에고 주립대에서 사회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고교기숙사 카운셀러로 있었다. 1942년 12월 한인 2세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미 해군 소위로 입대했다. 동양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불합격이 되었다가 다시 응모하여



2007 4월 안수잔과 필자

합격이 되었다. 수잔은 1943년 3월27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74명중에 한 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여성의 몸으로 자원입대해,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기교관으로 임관되어 한국의 독립지도자의 딸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다고 화제가 되었다. 당시 도산의 세 자녀는 모두 군대에 있었는데 안수잔은 해군대위, 안필립은 육군사병, 그리고 안필영은 해군사병이었다.

안수잔은 Women Appointed for Voluntary Emergency Service의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첫 여성 포격술 장교가 되었다. 특히 해군특수부대 대위 때는 남자장교들의 전용물이던 전투기사격을 가르치던 첫 동양계 여성장교였다. 1945년 예편과 함께 워싱턴 D.C.의 National Security Agency의 민간정보요원이 되었다. 1959년 사직할 때까지 국가안전보장국(NSA)에서 동양계 여성으로 3백여 명의 민간

지휘하는 비밀정보 분석가로 미국에 공헌하였다. 미국인 해군준위와 결혼을 하였다.

부친이 설립한 흥사단 단원이었고 미주한인 광복단체인 대한인국민회 회원으로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The New Korea’의 영문편집을 맡기도 했다. LA에서 지금은 작고한 영화배우였던 오빠 안필립(작고·영화배우)과 함께 ‘문 게이트’라는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였다. 3·1여성동지회를 이끌며 도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살고 있다.

미주 한인이민 1세기를 기념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상’을 2003년 3월 수상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회고한 ‘Willow Tree Shade’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라는 영문판 자서전을 출판하기도 했다.

안창호의 사촌동생 안영호는 12살이던 1905년 먹을 것이 없던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안창호의 편지로 미국이 한국보다 살기가 낫다는 것을 알고 이주하기로 하였다. 나이가 어려 일은 못하고 한인 거주지 안에 미국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다. 한 달에 \$6을 내면 먹여주고 재워주었고 약 12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8살부터 14.15세까지의 아이들이었다. 15살에는 양복점에서 남자 옷을 만드는 재봉 일을 배웠다.

바지 만드는데 6개월, 코트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려 배우고 안원구라는 한국 사람이 하는 양복점에서 일을 했다.

1915년 샌프란시스코로 왔다가 여기저기를 다니며 농사일을 하였다. 트럭을 가지고 농장에서 과일과 야채를 사서 가게에 파는 일을 하였다. 북가주 Isleton라는 곳에 아스파라거스를 사러 갔다 새크라멘토에 살게 됐고 거기서 1925년 안 조앤과 결혼을 하였다.

포도밭을 샀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2만 5천 달러를 잃었다. 홍수가 나서 한때는 벼농사로 수만 달러를 번적도 있으나 김종립과 다른 한인들과 함께 투자했던 자금을 다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오클랜드 감리교회에서 부인과 함께 오래 봉사도 하였다.

(Charr, Easurk Emsen)

1894년 평양에서 태어난 차이석은 1904년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의료선교를 펴려던 목적으로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350명의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 제물포를 떠났다. 일본에서 550명의 일본인을 더 태우고 호놀룰루에 도착하니 일요일이야 하는데 토요일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으나 배가 너무 빨리 와서 하루를 벌었다고 생각했다는 고백을 했다. 아버지는 당시 큰돈인 15달러를 주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라고 했다. 하와이에서 배로 7일이 걸리는 본토로 가려면 30달러의 배 값과 일 달러의 수고비가 있어야 했다

6개월간 농장에서 일을 하고 1905년 6월 26일에 ‘미국으로 들어 오는 문’이라고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닥터 드류의 도움으로 메디칼 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노스비치 근처 Filbert St.에 황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 지냈다. 안창호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 Van Ness에 가까운 Post St.에 있는 집에서 숙식을 하며 집안 =일을 해주는 ‘School Boy’일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불을 때고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낮에는 학교에 다니는 일이었다. 토요일에는 대청소를 하였으며 일주일에 2달러를 받았다. 북가주 Vacaville에서 자두와 복숭아, 배를 따는 일을 하고 하루에 1불 15센트를 받았다. Malaga에서 포도를 따서 한 쟁반에 2센트를 받고 Fresno에서는 포

따고 1박스에 3센트를 받았다. 리버사이드에서는 오렌지를 따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여 학교를 다녔다.

호텔버스보이 접시 닦는 일을 했다. 신한민보의 type-setter로 일을 하고 레익 타호 호텔에서라도 일을 했다. 샌프란시스코 국민회 일을 보던 중 선교사 맥킨을 만나 미조리주에 있는 Park College에서 공부하고 1923년 졸업하였다. 1918년 4월 군대에 징집되어 의무관으로 있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서도 자원하여 1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 복무했다. 3.1운동이후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일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고 미국교회에서 수차례 강연을 했다. 늘 못 잊어 하던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지 19년 만인 1931년에 Townsend St.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 내렸다. 이발학교에 1000시간을 일하고 2 달러에 이발 면허를 얻고 차이나타운에 이발소에서 일했다.

의사가 되어 고국에 돌아가 의료선교가 꿈이었으나 이발사가 되었으나 옛날 의사가 없던 시절에는 이발사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옷도 같은 하얀 가운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이 아니면 미국에 거주 할 수가 없던 당시 유학생이던 부인과 결혼했다. 1932년 당시 음악학교를 다니던 부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워싱턴으로 자신이 군대에 복무하였으며 부인이 이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 그러자 이민국은 부인에게 아이를 낳은 후 6주 후에 미국을 떠나도록 추방명령을 내렸다. 아이를 낳자 앤젤 아일랜드의 이민국에서 부인을 인터뷰하러 나왔다. 같은 종족이랑 결혼하려고 유학생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은 연방정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당시 미국여자랑 결혼을 하는 것은 주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군 관계자와 학교에서 알던 모든 영향력 있는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원을 청했다. 그 사람들은 항의서신과 도움을 청하는



워싱턴으로 보냈다. 부인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체류를 보장하는 편지를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 일이 연유가 되어 차이석도 것처럼 거절당했던 시민권을 받게 된다.

1918년 4월 5일 그는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며 자서전인 ‘The Golden Mountain’을 펴냈다.

## 이민이 남겨놓은 흔적



초기 이민 또는 유학생들은 일제의 지배로 기울어 가는 조국의 운명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그러나 결국 경술년에 치욕스런 한일합방이 일어났다. 이후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탄압을 받게 되고 언론과 행동이 자유로웠던 해외에서 활발히 독립운동이 전개됐다.

특히 미주지역은 조국과 엄청난 거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사실상 해외 독립운동의 대부분을 뒷받침하고 앞장섰던 곳이다.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다. 해외 각처에는 오매불망 조국을 잊지 못하고 그 장래를 염려하며 눈물과 땀을 흘렸던 애국선열들의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의 흔적과 역사적 장소는 우리에게 점점 잊혀간다.

그것은 아마 후대로 이어지는 이민들의 삶 자체가 피곤하고, 이 사회에 뿌리 내리는데 전심전력한 나머지 이민역사를 챙겨둘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유적지 곁에 사는 사람들조차 그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제 이민 1백년을 넘어선 이때, 한번쯤은 초기 이민들의 유적을 되돌아보고 사정이 허락한다면, 그 중에 가능한곳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간직하고 물려주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역사는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될 때, 그 실감과 의미를 더하며 훗날로의 계승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미주지역 유적지 중에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지역, 중가주, 남가주의 주요 유적지를 알아본다.

### 샌프란시스코 지역

1903년부터 하와이에 왔던 초기 이민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그 다음해인 1904년부터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하와이 또는 해외에서 오더라도 미국 본토로 들어가려면 샌프란시스코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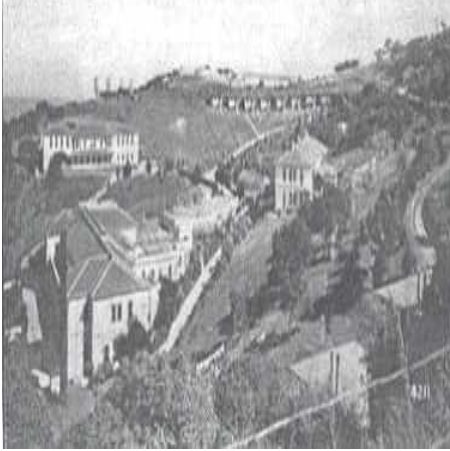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는 일 년 중 대부분의 날이 맑고 선선해 마치 조국의 가을 날씨를 연상시키는 곳이었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대우도 하와이보다 뛰어나고 직업의 선택도 다양하여 자연스레 한인들은 이곳으로 모여들게 됐다. 따라서 이곳은 한인들끼리의 모임, 기관, 단체 등도 제일 먼저 형성되고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운동의 최고 중심지가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미주 한인들의 첫 친목회가 생긴 곳이고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곳이다. 처음으로 여자부인회가 생겼으며 미주 한인의 대표기관인 북미대한민국민회의 총회관이 1938년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장인환 의사의 의거도 이곳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곧 국내외 항일운동의 기폭제 역할이 됐다.

이런 의미로 샌프란시스코가 해외 우리 민족 유적지 1호 도시로

것은 당연하다.

◆ 천사 섬(Angel Island) - P.O. Box318, Tiburon, San Francisco, CA 94920



입국 장소였던 엔젤 아일랜드

현재는 Angel Island State Park으로 캘리포니아 주 공원이 되어있다.

하와이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이민과 유학생들이 질병검사를 비롯해 실질적인 입국검사를 하는 이민국이 있던 곳이다. 오랜 뱃길 여행으로 병이 나가거나 전염병이 있으면 미국 입국이 거절됐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천사섬 안에 있는 수용소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이역만리 먼 길을 배를 타고 와서 신체 검사에 걸려 돌아가야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몇 달을 걸쳐 항해, 겨우 물에 닿았는데 곧바로 되돌려 보내지는 이의 심정으로 보면 이 섬은 천사의 섬이 아니라 악마의 섬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천사섬은 원래 1850년대부터 미국의 군사 요충지였다. 군사 기지들이 구축되어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적지 않다. 1905년 이민국 건물이 천사섬 안에 건설되기 시작하여 1910년부터 본격적인 이민국 업무 활동을 보다가 1940년에 폐지됐다.

◆ 공립협회 회관 자리 - 938 Pacific Ave. San Francisco.

세계 만국과 나란히 서서(공립) 동족 간에는 상부상조하고 애국하며 항일운동을 할 목적으로 1905년 11월4일 선 공립협회가 있던 곳

. 미주 본토에 처음으로 회관을 갖춘 것인데 실질적인 미주 한인사회 대표기관 역할을 했다. 여기서 공립신보 신문도 발간했다.

안창호, 송석준, 정재관 등이 활동하던 이곳은 현재는 개인 주택이 들어서 있다.



있던 자리(현재모습)

◆ 페어몬트 호텔 - 950 Mason St. San Francisco, CA 94108



페어몬트 호텔

1908년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가 장인환에게 저격당하기 전에 머물렀던 호텔이다. 그는 조선을 위해 일하여야 할 조선의 외교고문이었다. 그런데 샌

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후 한국에 유익한 일이 많아 양국관계가 점차 친밀해지고 있으며 한인들은 일본을 환영한다.”는 망언을 했다.

이 기사를 본 한인들은 격분했다. 한인들은 상항 한국인연합감리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표를 뽑아 스티븐스를 만나 항의하고 그의 친일 행각을 규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티븐스가 머무는 페어몬트 호텔로 공립협회 회원 2명과 대동보국회 회원 2명으로 구성된 한인대표 4명이 찾아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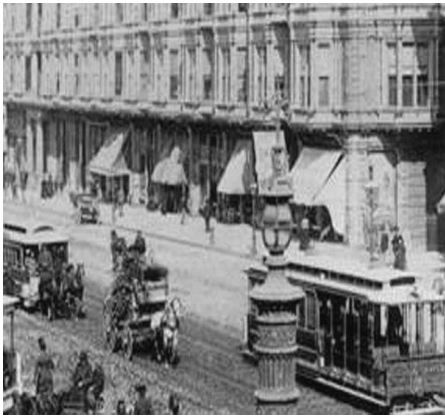
스티븐슨은 동양인들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전갈을 받고 일본

은 줄 알고 로비로 내려왔다. 한인 대표들은 그의 발언 내용을 비판하고 항의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유익한가, 어떤 한인들이 일본을 환영한단 말인가, 당신은 왜 한국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일본을 위해 일하는가” 등등. 그러나 스티븐슨은 자신의 발언에 잘못된 것이 없다는 버텼다.

여기에 화가 난 한인 일행 중 한 명이 로비에 놓인 의자를 들어 스티븐슨에게 내려치자 나머지 세 사람도 손으로 그를 쳐서 그의 얼굴에 피가 나고 부상을 입게 됐다. 호텔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한인대표들은 그 이유를 큰소리로 설명했다. 이 일로 출동한 경찰관들도 한인대표들의 의분을 이해해 연행 등을 삼가고 귀가를 종용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면 머무는 이곳엔 지금도 페어몬트 호텔이 그 자리에 서있다

◆ 팔레스호텔 -2 New Montgomery St. San Francisco, CA.94105



1875      팰리스 호텔

현재 웨라톤 팔레스호텔 자리로 1883년에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 일행이 머물렀던 곳이다. 1888년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 일행도 도착하여 6층 840호에 묵었는데 귀국 길에는 6층 433호에 묵었다. 1906년 대지진과 화재로 불에 탄 것을 1909년 신축하였다.

1875년 문을 연 팔레스호텔은 개장 당시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7층짜리 호텔로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었다. 한인 일행이 왔을 당시 그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엘리베

타고 있던 박정양 일행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일화가 있다.

◆ 페리빌딩



1935 페리 빌딩 모습

장인환의사와 전명운의사가 스티븐스를 그 앞에서 저격했던 페리빌딩은 당시 모습 그대로, Embarcadero St. 그 자리에 있다. 앞으로는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장차 대규모 쇼핑센터로 변모할 예정이다. 호텔 로비에서 한인들에게 맞은 스티븐스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일정을 예정보다 서둘

렀다. 워싱턴 D.C.로 가려면 페리 빌딩에서 배를 타고 오كل랜드로 건너가 오كل랜드 역에서 동부 행 기차를 타야했다. 그러나 그의 일정을 알아챈 장인환, 전명운 의사가 페리빌딩에서 그를 기다렸다.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 10분 세 발의 총성이 울렸고 총에 맞은 스티븐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인 25일 사망했다.

◆ 사이프러스 공동묘지-1370 El Camino Real Colma, CA 94104

현재 Cypress Lawn Cemetery & Memorial Park 이라고 불리는 이 공원묘지엔 많은 한인들의 묘가 있다. 장인환의 유해도 한국으로 이장되기 전 이곳에 묻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초기 이민



현재 Cypress 묘지

사망하면 주로 이곳에 안장되었다. 고 이대위, 양주는 옹의 묘가 남아있었으나 이대위는 국립묘지로 이장되었다. 지금도 이민 후손들이 영면하는 곳으로 많은 한인들이 묻혀있다.

◆ 상항 한인연합감리교회 - 1123 Powell St. San Francisco



상항 한인 교회

1903년 9월23일 안창호 이대위 등 망명인, 유학생, 인삼상인 10명이 ‘신민회’를 조직하고 첫 예배를 드렸다. 후에 정식으로 감리교회가 된 이 교회는 미주 본토에 생긴 첫 교회로 대지진 후 동포 구호사업과 계몽사업, 독립운동의 근원지였다.

이 교회에서 발간한 잡지 ‘대도(大道)’는 미주에서 한글로 발행된 첫 발간물로 미주와 본국에 있는 교우와 동포들에게 전도와 교양을 기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1930년 6월1일 1123 Powell St.에 교단 선교부의 보조금과 헌금으로 교회건축이 완공됐다. 처음으로 자체 건물을 갖고 200여명의 교포들과 교인들이 모여 헌당식을 가졌다. 대한민국민회 활동을 후원한 이 교회는 미주지역의 초기 한인 인사들 중 안 거쳐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인사회와 교계의 중심지였다.

1994년 교회가 이전을 할 때,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교회 건물을 유적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시 사적보존위원회 공청회까지 열리는 등, 교회 측과 보존협회 측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선교사명을 우선과제로 하여 건물을 매각하고 현재의 샌프란시스코 선셋 지역으로 이전했다.

현재는 이 자리는 ‘광명도현옥제궁전’이라는 중국인의 절로 사용되고 있다. 3030 Judah St. San Francisco, CA 94122로 이전한 상항



2003년 이민 1백주년과 더불어 창립 1백 주년을 맞았다.



세 들어 살던 홍사단 자리의 현재  
1914 Lyon St. San Franci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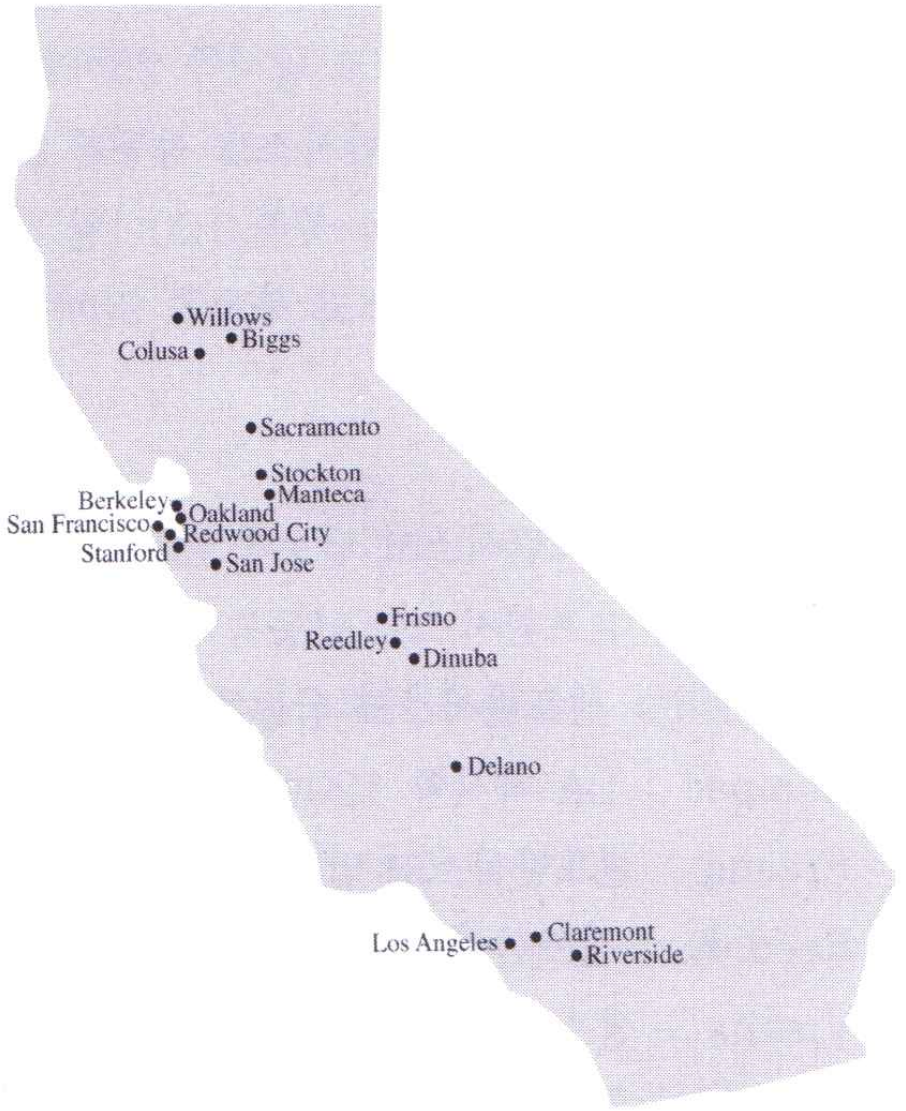
◆ 홍사단 창립 자리  
1914 Lyon St. San Francisco

홍사단은 도산 안창호가 민족의 자주독립과 인물양성을 위해 ‘우리민족 전도대업의 기초’를 위해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단체다.

## 이민 터 잡았던 곳



본국에서 미주 본토로 온 초기 이민들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 먼저 도착했다. 이곳을 중심으로 일터를 찾아 주로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로 다들 뿔뿔이 흩어져 나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따는 일을 하였다. 북가주에서는 벼농사와 무 농사 등을 지었고 중가주 남가주에서는 주로 과일 농사를 지었다. 이민초기 한인들이 주로 거주했거나 활동했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도시들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초기 이민이 정착했던 곳

1 1.6093km

< >

Colusa: 샌프란시스코 북쪽 100마일  
Manteca: 샌프란시스코 동쪽 70마일  
Marysville: 새크라멘토 북쪽 30마일  
Taylorsville: 새크라멘토 북쪽 100마일  
Tracy: 샌프란시스코 동쪽 60마일  
Turlock: 샌프란시스코 동쪽 100마일  
Redwood City: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20마일  
Sacramento: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90마일  
Sausalito: 샌프란시스코 북쪽 5마일  
Sunnyvale: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35마일  
Stockton: 샌프란시스코 남서쪽 25마일  
Walnut Grove: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80마일  
Willows: 샌프란시스코 북쪽 120마일  
Woodland: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90마일

<중가주>

Delano: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250마일  
Dinuba: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190마일  
Hanford: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200마일  
Lompac: LA 북서쪽 120마일  
Fresno: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150마일  
Reedley: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180마일  
Visalia: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180마일

< >

Claremont: 로스앤젤레스 동쪽 25마일

Santa Ana: 로스앤젤레스 남동쪽 25 마일

Upland: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120마일

Redland: 로스앤젤레스 동쪽 60 마일

Riverside: 로스앤젤레스 동쪽 65마일

# 눈으로 보는 이민사



1882. 5. 22                    체결(1883년 비준)
1883. 9. 2                    친선대사 민영익 일행 12명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착륙
- 펠리스 호텔(현재의 웨라톤 펠리스 호텔)에 유숙
- 유길준은 남아 매사추세츠에서 공부하고 유럽을 돌아 본 후 ‘서유견문록’을 저술하여 한국사회 개화에 기여
- 1885 갑신정변의 주역 서재필 서광범 박영효 정치 망명객으로 도미
1887. 10. 13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부임(샌프란시스코 경유)
- 1888                        최초의 정식 유학생 윤치호 도미
- 1890                        주미공사관에 부임한 이채연 서리공사의 아들이 탄생
- (미주에서 출생한 첫 한인)
1896. 11. 2                이민국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신 할 한국이민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 됨

1898. 5. 11 팔기 위해 한인 호놀룰루에 도착
- 1899 인삼상인 5-6명 샌프란시스코 및 하와이 도착
1901. 1. 9 첫 번째 한인 이민자 피터유가 홍콩 마루라는 일본 배를 타고 하와이 도착
- 1902 하와이 사탕수수 재배자 데셀러가 노동자모집을 위해 한국 방문
1902. 6. 30 12명의 한국남자가 하와이에 왔다.
10. 14 도산 안창호가 부인과 유학차 샌프란시스코 도착
11. 16 대한제국정부에서 이민문제를 전담할 수민원을 설립
1903. 1. 13 최초의 하와이로 이민 온 101명 호놀룰루 상륙  
\*남자 56명, 여자 22명, 아이들 23명
7. 4 한인 이민의 최초 예배를 김이제 전도사 시작  
(하와이 오하우섬 모쿨리아 농장)
8. 7 최초의 한인단체 '신민회' 조직(하와이)
9. 23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주 대륙 최초의 한인단체인 상향한인친목회 조직(안창호)  
워싱턴 St. 소재 중국인 소유 건물 지하실 사용.  
당시 한인 총수는 약 25명
1905. 2. 6 박용만 샌프란시스코 도착  
태프트 가쓰라 조약-루즈벨트 행정부의 육군장관 태프트와 가쓰라 타로 일본 정부대표가 만나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는 조약을 맺었다.(루즈벨트의 사유문서에서 1924년에 발견)
10. 8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이 한인 전도회를 조직하였는데 후에 상향감리교회가 됨
10. 27 샌프란시스코 938 퍼시픽가 공립협회 회관 건립

### 건관식 거행

11. 2           마지막 이민선 하와이에 도착한 후 한국인 이민 금지됨  
                  \*1903년 이래 총 65척의 배로 약 2년간 7226명 이민  
                  일본은 한국과 5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이민 관련 수민원과 개발회사도 폐지 11. 5 샌프란시스코 한인친목회를 미주 최초의 한인 정치단체인 공립협회로 창립
11. 20           공립협회가 미주 최초의 한인 신문 주간지 공립신보창간 (편집장 송석준)
12. 5           만추리아 선편으로 호놀룰루에서 한인 8명 샌프란시스코 도착
12. 9           남가주 패사디나에서 대동교육회 설립.
1906. 1. 9       하와이에서 미주 본토로 이주 시작  
                  알라메다 선편에 한인 5인 호놀룰루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착
1. 12           시베리아 선편에 한인 4인 호놀룰루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착
3. 29           만추리아 선편으로 한인 22인 호놀룰루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착
4. 12           소노마 선편으로 한인 19인 호놀룰루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착
4. 18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으로 인해 공립협회 빌딩 전소. 한국인 사망자는 없었음.  
                  본국 매일신보에서 \$592.23의 구호금 도착.  
                  본국의 임금으로부터 온 구의금 \$1900이 한국인에게 나누어짐.



공립협회를 가주 오클랜드로 옮김

5. 29 한인 70인 호놀룰루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착  
7월초 양주삼 목사 오클랜드로 도착하여 상향한인 감리교회 시무  
중국인, 일본인, 한인의 자녀들이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
8. 2 한인 52인 호놀룰루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착
9. 17 차이나 선편으로 한인 12인과 알라메다 선편에 한인 8인이 호놀룰루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착
11. 8 - 12. 29 코리아 선편 한인 52인, 싸이베리아 선편 74인, 차이나 선편 7인, 코리아 선편 59, 알라메다 선편 4인 호놀루루에서 샌프란시스코 도착
12. 16 상향감리교회 설립(미국 본토 최초의 한인교회)  
1907. 1. 2 알라메다 선편으로 한인 16인 호놀룰루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착
2. 4 한인 22인 호놀룰루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착
2. 20 Gentleman's Agreement(신사협정) -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일본인에게 더 이상 여권을 발급하지 않기로 함  
일인이나 한인이나 하와이로 이민 온 사람들이 본토에 들어갈 수 없었다.
3. 2 샌프란시스코 대동보국회 설립
4. 26 공립신보 사무실을 오클랜드에서 상향으로 다시 옮김
7. 19 고종황제 퇴위, 순종황제 즉위
10. 3 샌프란시스코 대동보국회 대동공보 창간
1908. 3. 21 스티븐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와 인터뷰(3월 25일 사망)

3. 23 , 장인환 의사, 상항에서 친일 외교관 스티븐스 암살
4. 9 대동공보(The New Korea World) 25회를 마지막으로 재정난으로 폐간
5. 23 샌프란시스코에 미스 레익 집에서 미주 최초의 ‘한국부인회’ 창립  
회장 김마리사 서기 장경 부인으로 발기인은 이민식, 신윤희, 문경호, 장홍범, 박창은씨의 부인
1908. 6. 17 공립회 회원 두 사람이 중가주 Hanford에 경찰소를 설립
10. 21 상항 연합감리교회에서 Great Way(대도) 발간  
샌프란시스코 한인 남감리교회 월간 대동보 창간(주필 양주삼 목사)
1909. 2. 1 샌프란시스코에서 초기 재미한인 통일기관으로 국민회 창립. 후에 대동보국회가 합쳐져 대한인국민회가 되었다.  
\*국민회 총 회관은 1909년-1936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1937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전
2. 10 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 창간(주필 최정익)
5. 5 샌프란시스코 국민회관을 사무실로 하고 태동실업주식회사 조직
1910. 3. 21 런던에서 이항우 샌프란시스코 도착하여 신한민보영문판 책임
5. 10 샌프란시스코 국민회와 대동보국회가 대한인국민회로 통합
6. 29 1891년 2만 5천 달러를 주고 구입한 워싱턴 DC에 주미공사관 건물을 5달러에 일본에 양도
8. 29 한일합방.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동포들 공동회

10. 1 샌프란시스코 232 페리가에 국민회관 건물을 3천 5백달러에 구입하고 신한민보 건물로 함께 사용
10. 26 오전 9시 안중근이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이등박문사살
- 1910 - 1918 대한인국민회의 청원으로 미국정부가 여권 없는 한국의 망명객들을 국민회보증으로 입국시켜주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으로 입국한 한인 541명)
11. 28 최초의 사진신부 최사라 하와이 도착 (이내수와 결혼)  
\*사진신부(Picture bride)란 사진만을 통해 먼저 이민해 온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미국에 온 여성을 지칭 (1924년 11월까지 이루어졌다.)
- 1911 아시아의 이민금지법(중국, 일본, 한국 등)  
1911년부터 1916년까지 미국전체에 아시아인 배척 운동이 만연
10. 14 남가주 클레어몬트에 한국학생훈련소 설립
11. 1 허승원 이순기 합작으로 스타톤에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시작한 잡화상점 시작
1913. 2. 24 본토로 들어오는 학생의 이민은 허락.
3. 1 소득세제도 정식 선포(하와이 노동자 교포들도 세금내기 시작)
5. 13 샌프란시스코 232 페리가 국민회관에서 도산 안창호가 ‘홍사단’ 창립
5. 19 캘리포니아 주법 통과 “The Alien land Act”  
캘리포니아에서 외국인은 농장지의 땅을 사거나 3년 이상 땅을 빌릴 수 없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세를 얻을 수도 없어 임시

캠프를 설치하고 일했다)

- 6. 4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국민군단 조직
- 1914. 6. 5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창립
- 6. 25 샌프란시스코 페리가에 있던 국민회관 마켓가로 이전
- 1915. 3. 샌프란시스코 북미국민회 총회장 이대위가 인터 타입식자기를 발명하고 신한민보를 간행하였다. (신한민보 발행 책임 - 이대위)
- 1916. 3.10 상해로부터 사진결혼 9명, 다시 ‘신도학생’이라고 불리던 유학생 34명 샌프란시스코 도착
- 7. 13 상향한인학생 친목회 조직
- 9. 30 상해로부터 남자 16명, 부인 10명 샌프란시스코 도착
- 10. 27 상향한인 교회에서 ‘상향 학생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
- 1917. 1. 20 흥사단에 의해 북미실업주식회사 설립
- 3. 8 맨티카와 스타튼 두 지방에서 한인들이 3천 9백 에이커에 무 농사 지음
- 4. 26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벼농사 확장  
김중립 2천 85에이커의 쌀농사를 지어 ‘쌀의 왕’ 또는 ‘백미의 왕’으로 불림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으로부터 이민 금지
- 1918. 1.8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제창
- 1. 24 상향 한국어학교설립 (31일 개교식 준비)
- 3. 2 중가주 다뉴바에서 The New Korean Women’s Association 설립
- 8. 18 중가주 다뉴바에 The Korean Student Association 조직

9. 22 맨티카에 한인교회설립
1919. 1. 20 고종황제 서거
3. 1 한국에서 3.1운동 일어남
3. 17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김호를 특파원으로 각 지방에 보내어 독립 의연금 모집. 김호는 63일간 63개 도시를 순방하고 1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1919. 4 일본 상품 불매운동 시작
5. 26 샌프란시스코 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집계한 독립 의연금 3만 3백 89달러
1919. 10 하와이 2907명의 한인이 \$34,034,05의 독립자금 모금
10. 11 샌프란시스코에 한인을 사랑하는 미국인 천 명이 모인 가운데 정한경이 한인친우회 조직
- 1920 미국에서 난 외국인 자녀가 시민권이 있어도 그 이름으로 땅을 사지 못함
1920. 2. 20 캘리포니아 주 윌로우스에서 흥사단원이고 '쌀의 왕'으로 불리던 김종립의 도움으로 광림대 노백린이 한인 비행사 양성소 설립
1920. 11 풍작을 이루던 북가주의 벼농사가 11월 초순 장마로 인해 농사짓던 한인들이 벼농사는 재기를 못하게 됨
12. 미국 인구조사에서 미주 대륙 한인인구 1천 2백 24 명 집계
1921. 4. 30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주한인유학생회 결성
1924. 5.15 'Oriental Exclusion Act'(동양인 배척법) 동양인 이민에 대한 차별법안 통과로 동양인의 이민이 중단되었다. 유학생만 입국이 가능하였는데 학업

필하면 즉시 귀국해야 했다. 동양인의 귀화도 금지되어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다.

1926. 6. 장인환의사 샌퀸틴 감옥에서 18년의 형을 살고  
나옴.
1928. 1. 18 북가주 스타튼 지방 한인들이 공제회를 조직하고  
필요한 경비를 서로 도왔다.
1929. 8. 26 샌프란시스코 코리언 주니어 클럽 결성
1930. 1. 1 북가주 스타튼 지방 한인공제회 사업이 발전하여  
저축금이 4천 3백 달러가 되었다
1930. 5. 26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의사가 사망하자 사회장  
으로 거행하고 콜마 시에 있는 사이플러스묘지에  
관장
1931. 9. 18 만주사변 (일본 관동군의 만주에 대한 침략전쟁)  
발발
1937. 4. 17 상향한인감리교회 건물을 쓰고 있던 대한인국민  
회가 로스앤젤스로 이사
12. 11 한국 무용가 최승희 샌프란시스코 공연
1939. 9. 1 독일의 폴란드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0. 4. 20 재미 한인 8개 단체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모여  
한인 통일대표기관 한인연합위원회 결성(이 기관  
을 통해 외국인 등록법에 ‘일인’이 아닌 ‘코리안’  
으로 등록)
- 1941 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참가
1941. 12. 22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해외한인 연합위원  
회가 로스앤젤레스에 맹호군을 창설하고 캘리포  
니아 민병대에 부속
1942. 5. 10 샌프란시스코 승전기념 미국의 날 퍼레이드에 처  
음으로 한인 참가

- 5.30 오كل랜드 한인들 한인 경위대를  
구성
1943. 1. 6 한인국방경비대 맹호부대 샌프란시스코 지대 편  
성대원은 양주은 신달윤 등 39명으로 교관은 황  
사선 목사 아들 폴 황이 맡았다.
1943. 8. 29 캘리포니아 주 ‘한국국기의 날’ 선포 (나성 시청  
에서 한국국기 게양 식 거행)
1945. 4. 25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들은 승전을 앞두고  
UN 평화회의.
- 1945 제 2차 세계대전 끝남
- 1948 주한 영사관 설치
1949. 6. 14 주 상향영사관 개설(초대 영사 주영한)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1950. 9. 15 주 상향 총영사관으로 승격(초대 총영사 주영한)
1952. 4. 17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외국인에 대한 토지 배척법  
안 위헌 판결  
집과 땅을 살 수 있게 되자 중가주 북가주에 수  
천 에이커에 달하는 벼농사 과수원 묘목원을 경  
영하는 교포기업들이 생기기 시작
12. 24 외국인에 시민권 부여하기 시작  
(Oriental Exclusion Act 폐지)
- 1953 한국전쟁 종전
1953. 5. 2 샌프란시스코에서 제 1회 한국의 날 제정되었다.
1965. 12. 26 샌프란시스코 한국인 교민회 창설  
(미주 최초의 한인회)



## 중부 이민 이야기

다뉴바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2백마일 떨어진 작은 도시다.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북쪽으로 2백마일 떨어진 곳으로 가주(캘리포니아)의 중심에 있어 자연히 중가주라고 부르게 됐다. 이 두 도시의 간격은 6마일로 리들리는 현재 1천218명만이 살고 있지만 초기 이민시기에는 캘리포니아의 주요 과일 농업도시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뉴바의 경우는 당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일 농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인구도 17만명에 이르며 35개 이상의 과일 가공농장과 저장고, 포도주 생산업체가 있다.

리들리와 다뉴바는 과일 농장지대로 일 년 내내 일손이 바쁜 곳으로 여름에는 포도와 복숭아 수박 등을 땀고 봄, 가을, 겨울에는 다음해 농사준비로 바쁜 곳이다. 1909년부터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초기 이민 노동자들이 중가주로 모여들었다. 1919년 조국에서 삼일운동이 발생하자 이 지역의 한국여성애국부인회가 다뉴바에서 1920년부터 매년 3.1절 기념퍼레이드를 다뉴바 메인 L. St.



연중행사로 가졌다. 태극기를 높이 들고 걸으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중가주는 초기 이민의 중요한 도시로 당시 신한민보에는 많은 지면을 중가주 지역에 할애하여 보도를 하였다.

프레즈노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로 있는 차만재 박사의 연구 발표 논문 및 신한민보 그리고 기타 문헌에 나타난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 중가주의 이민을 알아보기로 한다.



1920 삼일절 기념행진에 참석한 다뉴바의 한인들 어린이들과 적십자 회원들



그들은 매년 3월 1일 다뉴바 메인 L. St.에서 기념퍼레이드를 가졌다.

## 이민의 모습

리들리와 다뉴바에 있는 189개의 한인 선조 무덤에는 이름과 연도, 날짜가 한글, 영어 또는 중국어로 표시되어있다.

발견된 묘비 중 가장 빠른 연대는 1906년이다. 리들리와 다뉴바

곳의 묘지에서 각각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부터 한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묘비 중에서 가장 늦은 연대는 1994년. 비교적 최근의 묘비이지만, 다들 초기 이민들이 묻힌 곳이다. 차만재 박사는 초기 이민들이 묻힌 무덤의 묘비는 모두 189개라고 밝혔다.

성씨로 구분해 볼 때, 김씨가 59명(31%), 이씨가 30명(16%), 박씨가 17명(9%)이다. 1960년에 10명이 사망해, 한 해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숫자였으며 60년대인 1960년부터 1969년까지 45명이 사망했다. 평균수명 60내지 70세를 감안하면, 이들은 1920, 1930년대 농장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볼 수 있다.

1938년에는 리들리에 11가족의 한인들이 살았던 기록이 있다.

대부분의 한인 가족은 4명 내지 5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이었다는 것이, 리들리에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기억이기도 하다. 또 189명중의 3분의 2가 독신으로 살다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민당시 독신이었던가 끝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한때 리들리에만 단기체류, 이민 2세 등을 포함해 한인 인구가 5백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농장 등에 일하는 1차 농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인근 도시 가까이 형성된 과일 가공업 단지 등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를 리들리에서 살았던 한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해 인근 한인들이 모두 모이는 피크닉이 있었다고 한다. 적어도 1백 명 넘게 모였다고 하니, 당시로선 한인들끼리의 모임 중에서 매우 인기 있고 가장 규모가 큰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

한인들이 리들리에 도착했을 때 일자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다른 민족계와 일자리 경쟁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당시의 사회풍토는 동양인을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초기 이민 한인들은 거의 전부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연히 한인들은 말이나 기술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노동인 농업에 종사하게 됐다. 192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리들리에 30여 개의 한인소유 노동자 숙소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농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 자영업에 한인들이 진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기록에는 당시 다뉴바엔 호텔 3개가 한인들의 소유였다는 것이다.

농장에서 하는 일은 대개 계약직이었다. 농사일이 있는 동안 고용기간을 정하고 일을 하였는데 시간당 임금이 25센트 정도였다. 당시 한 달 생활비는 10달러에서 15달러. 요즘의 기준처럼 8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 수입이 2달러였다. 일은 힘들었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겠다.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한달 생활비가 25달러 이상으로 경충 뛰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한인 노동자들과 고용주간의 분쟁도 일어나곤 했다. 당시의 일간지 ‘더 다뉴바 센티널’은 1910년 8월 25일에 발생한 사건을 ‘한인 얻어 맞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 내용은 “Y.S.Kim이라는 한인과 고용주 J. T. Godman 사이에 임금문제로 설전이 있었다. 김씨가 갓맨에게 욕을 하자 갓맨은 김씨의 머리에 농기구를 던졌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법정소송으로 번져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리들리, 다뉴바의 초기 이민 경제를 얘기하면서 김형순과 김호는

빼 놓을 수 없는 큰 사업가들이다. 이들은 ‘김형제 상회(The Kim Brothers Company)’라는 상호의 회사를 만들어 과수원, 묘목사업, 식품포장사업을 했다. 특히 털 없는 복숭아 ‘넥타린’의 특허를 획득해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 당시 두 사람의 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50년대에 백만장자로 이름이 났다고 한다.

김형제 상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2백여 명이었으며 과일수확기에는 일하는 사람의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이 두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 중 숙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다. 한편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면서 이 회사에서 일한 김영중과 송철은 ‘The K&S Jobber’ 라는 도매상을 차려, 김형제 농장에서 나는 과일을 소매상에게 연결하는 사업을 펼쳤다. 이들은 이 사업으로 성공했으나 김영중은 동부 하바드 대학으로 공부하러 떠났다. 송철은 계속해 사업에 매진하여 ‘송스 포장회사(Song’s Packing Company)’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같은 이름으로 해 내려오고 있다.

이 두 회사가 리들리와 다뉴바 한인사회의 주요한 경제 원동력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뿐 아니라 송철은 동지회를 지지해 이승만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도왔고 김호와 김형순은 국민회를 도와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 김호는 김원용을 재정적으로 도와 ‘재미 한인 50년 사’를 쓰게 했다. 1959년 리들리에서 출판된 이 책(513페이지)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재미 한인 역사 기록이다. 만일 김호 같은 재력가가 이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 초기 이민의 소중한 역사적 사실이 영원히 가려졌을 것이다.

김형제 상회가 소문이 나자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미전역에서 한인학생들이 몰려들어 일하기를 원했다. 김형제 상회는 1962년에는 한인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수한 학생들을 뒷바라지하기도 했다.

한인들의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는 교회였다. 교회는 교인들 뿐 아니라 일반 한인들의 생일 파티, 결혼식, 장례식 등 거의 대부분 모임의 장소, 그리고 한인사회의 주축이었다.

1919년 12월 14일에는 지역 한인들을 통괄적으로 포함시키는 한인회 성격의 모임이 발족됐는데 초대 회장에 조소앙이 선출됐으며 가장 회원이 많았을 때는 3백5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모임은 1923년 해산되지만 한때 ‘동지’라는 회보성 잡지를 발간했다.

1919년 조국에서 삼일운동이 발생하자, 이 지역의 한국여성애국부인회가 다뉴바 시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매년 3.1절 기념식을 가졌다. 그런가하면 항일운동의 하나로 일본 간장 안 먹기 운동을 시작해 미주 전역의 한인사회로 이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 1913. 7.18: 다뉴바 포도 따기 호황/동포 수백 명에게 민찬호 목사가 밭에 와서 전도. 다뉴바에서 복숭아는 7월 20일경에 따고 포도는 8월 15일경에 딸 터이니 이전에 강병림씨가 유하던 곳이니 원근 간에 노동을 하러 오시는 동포는 찾아오라.

여관주인 립성택의 광고

◆ 1916. 8. 31: 복숭아 팩킹 포도 따는 일-금년 다뉴바 포도는 근 10년 이래 처음으로 잘되어 일거리가 많다. 타운 근처에 노동주 선소로 오시오.

Weddle Place R. F. D. No Box 90 B Dinuba 노동주선인 김병규

◆ 1942. 2. 12: 김용호가 다뉴바 포도농장 가지치기 일할 사람을 구하다

◆ 1946.11. 21: 딜라노에 재류하는 한시대씨 동부인의 4자 유창군은 최근 그 동창생 백인 청년 한사람과 같이 메인 St.에 런치 겸 아이스크림 ‘폴방’을 신개업 하였는데 상당히 고객이 많고 전도가 매우 유망하다더라. 딜라노 통신

◆ 1948. 6. 10: 중가주 김형제 상회의 웨어하우스 재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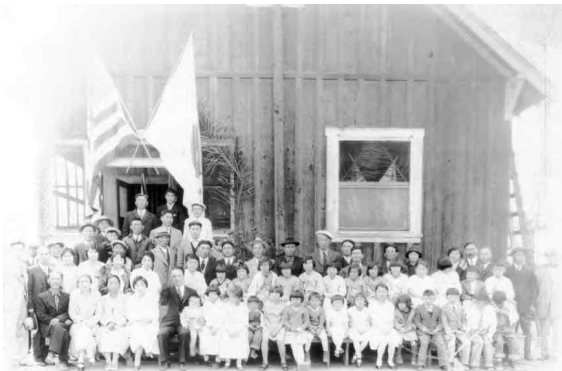
김형제 상회의 웨어 하우스는 작년 여름에 화재를 당하였고 최근에 다시 건축하여 불원간 낙성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일반 친우는 위하여 축하한다더라.

◆1948. 6. 17: 증가주 김형제 상회의 재건축 필역

재미한인 중 실업가의 일원으로 증가주 리들리에 있는 김형제상회는 큼직한 지대에 팩킹하우스를 7만 이상을 들여 건축하여 오든바 거의 필역이 되어감으로 7월초에 팩킹을 개시할 예정이라 한다.

## 교회

### Dinuba( )한인 장로교회(1912 - 1958)



1930 2월 다뉴바 교인들

1912년 9월 다뉴바 지역의 한인들이 장로교회 선교부에 연락을 취하자 노회에서는 라플린 목사를 파견하여 한인 미션을 설립하고

이치완 전도사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한 것이 그 시초였다.

다뉴바 한인 장로교회는 리들리 한인 장로교회와 더불어 1910년대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포도와 복숭아를 따며 살던 한인 농장 노동자들이 마을을 붙이고 사는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몸은 노동으로 지쳐 있어도 교회에 오면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 나라 잃은 슬픔을 곱씹으며 살던 사람들이 주일에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던 곳이다. 이들은 고된 노동으로 번 돈 중에서 일부를

내어 기꺼이 독립금과 국민회 의무금으로 냈으며, 2세들의 한글 교육에도 적극적이었다.

일 년 중 여름과 가을에는 포도, 복숭아, 수박을 따는 일로 바쁘고 나머지 계절엔 심고, 가꾸고, 다음 수확준비에 쉴 틈이 없었다. 1909년부터 한인들이 하와이나 상황을 거쳐 이곳에 왔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단한 노동이 끝나면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되새기며 폭음을 하는가 하면, 재미로 시작한 노름판이 점점 커지기도 했다.

이를 걱정한 다뉴바 지역의 한인들은 교회의 필요성에 공감, 미 북장로교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또 그 해 8월5일 이곳에서는 역사적인 ‘대한여자애국단’이 출범했다. 1912년 10월 15일에는 오우가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건축하여 12월23일에 이르러 헌당식을 가졌다.

1913년 8월22일부터는 일주일간 부흥회를 가졌는데 1백여 명씩 집회에 모이는 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17년 3월8일에는 목사실을 별도로 건축하는 등 교회는 체제를 잡아가며 발전을 계속한다. 1918년 3월 2일에 다뉴바의 여성단체인 신한부인회가 결성되었다. 1920년 2월 25일에는 더 이상 ‘미션’이라 하지 않고 장로 교회로 승격되어 한인들이 정식적인 교회를 가진 셈이 됐다.

1920년부터는 다뉴바 주요 거리인 L가에서 3.1 독립만세 기념 퍼레이드를 매년 열고 민족의식을 고취해 나갔다. 교회에는 한때 리들리 지역 노동자들도 와서 예배를 보는 등 교인수가 증가했으나 1950년대에 이르면서 이곳의 한인들이 대부분 다른 지방으로 이주, 교회 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교회는 1958년 2월4일에 문을 닫고 말았는데 교인수가 많던 때는 1백 50명이었고 적던 때는 15명에 불과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다뉴바 경찰국 건물이 들어서 있다. 역대 교역자는 이치완, 홍치범

전도사, 라플린, 한승권, 송병순, 이살음, 구왕도, 김형태, 김형일, 최종섭 목사 등이다. 포도와 복숭아를 주업으로 하던 한인 노동자들

정신적 고향과도 같던 다뉴바 한인 장로교회는 1912년부터 1958년까지 존속했다.

### Reedley( ) 한인장로교회



1938 리들리 교회와 교인들

1919년 2월 리들리 지방에 한인 거주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생긴 교회다. 정확한 주소는 1408 1/2 J St. 으로 14th St.과 이 만나는 곳이다. 한인들이 전성용의 주택을 예배처소로 정하고 남 감리교 순행전도사 임정구를 청하여 예배하다가 김형제 상회의 가옥을 얻어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1920년대에는 4, 5백여 명의 한인들이 다뉴바와 리들리에 거주하자 남 감리교 선교

부는 1922년 3월26일 그 동안 모이던 한인들의 예배 모임을 한인감리교회를 승격시켜 출범시켰다. 그런데 1936년6월 한국 내 감리교회에서 신사참배가 문제되면서 급기야는 리들리 감리교회까지 이 영향이 파급됐다. 중가주 지역 한인들은 당시 일본간장 안 먹기 운동을 벌이고 애국 독립 성금을 열성적으로 보내고 있던 바치고 있던 때였다. 교인들은 본국에서 신사참배를 수용한 감리교회에 분노, 감리교단에서 탈퇴를 결의하게 된다.

교회는 감리교단에서 장로교단으로 이적하고 리들리 한인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38년 10월에는 교인의 수가 50여명에 달하게 되자 제대로 된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김호, 김형순씨가



J St.    교회를 건축할 만한 대지를 기부하고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 자체 건물의 교회를 세웠다.

교회 내에는 ‘고려학교’도 설립해 한글, 한국전통무용 등 2세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이민의 정착을 도왔다. 또 교회는 그 앞에 농민 숙소를 지어 어려운 한인을 도왔다. 교인수가 많을 때는 60여명이고 적을 때는 22명 정도였다.

포도, 복숭아, 오렌지, 사과, 자두, 수박 등을 재배하는 농장지대였던 이곳은 교인의 대부분이 농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럼에도 조국 독립운동에는 그 어느 곳 이상으로 열성을 보였는데, 항상 이런 일의 중심에 교회가 위치했다. 어린이 교육 장소, 결혼식 등 한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1912    증가주의 한인들

교회 건축을 끝내고 1939년 3월1일에 가진 헌당식에는 장로교 본부 총무 페인 박사를 초청 하고 1939년 4월16일에는 샌호킨 노회에 정식 가입, 미 장로교 소속으로 첫발을 디딘다. 6월7일에는 한인장로교회 설립의 예식을 갖고 리들리 한인장로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기도 하였다. 김형제 상회의 재정적 도움이 교회발전에 큰 도움을

. 역대 교역자는 권중흡, 마준홍 전도사, 임정구, 한석원, 송현영, 리살음, 윤병구, 리기준, 김종성, 김형일, 최종섭이 목사로 수고했다.

한편 다뉴바 장로교회와 리들리 한인장로교회는 조국 광복을 위해 뜻을 같이 했으나 해방 후에는 대립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뉴바 지역엔 이승만을 지지하는 동지회 사람이 많았고 리들리에는 도산을 지지하는 국민회 사람이 주축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상적인 차이가 심한 반목의 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1952년 12월 리들리 한인장로교회는 교회부지에 사택까지 신축한 상태에서 한인들의 이주로 교인이 줄어 폐하고 말았다. 교회당 건물은 그대로 있으나 현재는 타민족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 1919년 2월에 창립된 이 교회는 1938년 10월 김호, 김형순이 J St.에 대지를 기부하고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 자체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 Delano( )한인 감리교회

1930년 2월10일 델라노 한인들은 한석원 목사를 초빙해 첫 예배를 드렸다. 그 후 감리교회 선교부와 접촉을 가진 끝에 그해 6월13일 감리사 데이비드의 주례로 교회를 설립하였다. 1936년 3월5일 김탁 목사가 선임된 후에는 문 단은 스타튼 교회 건물을 5백 달러에 기부 받았다. 또 교인들은 헌금을 모아 예배당 등을 신설 또는 보수하고 그해 9월6일 헌당식을 가졌다.

1954년 10월1일에 예배당을 클린톤 St.으로 이주하여 교회의 규모를 줄였으나 한인수가 급격히 줄면서 1958년 6월에 문 단았다. 교인수가 많을 때는 70여명이었고 적을 때는 10여명에 불과했다고 전해진다.

역대 교역자는 한석원, 김탁, 이기준, 김형일, 김하태 목사.

## 한인감리교

1917 9월10일 피아블로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감리교 미션을 설립하고 기숙사 안에 예배당을 설치하였다. 우흥태 전도사가 시무 하다가 2년만에 폐지하였다

### 롬폭(Lumpoc) 장로교회(1907-1918)

1913년 2월27일에 롬폭 지방 거주 한인들이 김성오의 농장 캠프 안에 예배당을 설립했다. 노회에서 라플린 목사를 파견하여 한인미션을 설립했다. 민찬호 전도사가 부임해 5년 동안 예배를 계속하다가 폐지됐다.

## 사업체

### 식물건제 회사

1920년 9월20일 리들리에서 김호, 오충국, 김탁, 안상학, 김일환, 송헌주, 전성용의 발기로 회사를 조직하였다. 자본금 총액을 2만 달러로 정하고 매주 1백 달러씩 2백 주를 모집하였으며 각종 채소와 과실을 건제해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 김형제 상회(Charles & Harry Kim)

1921년에 김호(Charles Kim)와 김형순(Harry Kim)이 세운 회사다. 이들은 농촌생활을 위해 리들리 지방에 자리를 잡은 사업가들로 농산물 운송과 중간 도매상을 하는 한편 주택정원의 묘목상까지 겸하였다. 넥타린 복숭아를 개발해 특허품을 미국 전역에 판매했다.



KIM BROTHERS      앞  
김호(왼쪽)와 김형순

‘그랜드’와 ‘썬 그랜드’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크게 인기를 끌어 많은 수익을 올렸다. 김형제 상회는 6곳에 5백여 에이커와 40만 달러의 과일 포장 시설, 10만 달러의 묘목상 시설을 갖췄던 것으로 알

려졌다. 당시 매년 수입이 1백만 달러를 초과했다니 초기 한인의 가장 성공한 사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 상회

딜라노 지방에 한시대가 4백 에이커의 포도농사를 짓는 농장을 가지고 회사를 조직하였다. 자식들이 같이 농업에 관심을 가져 한때 자산이 48만 달러에 이르렀다.

## 학교

◆ -1927년 9월10일에 해동국어학교를 설립하고 국어를 가르쳤다.

◆ 다뉴바-1928년 4월8일에 고려학원을 설립하였다.

◆ 달라노-1930년 7월14일에 태극학교를 설립하였다.

◆ 달라노-1946년 6월6일자 신한민보에 따르면, 달라노 소학교에서 5월28일 열린 방학예식에는 98명 학생 중에 5명의 한인 학생이 있었다. 그 중에 김탁 목사의 딸 문희양(13)과 김석준씨의 딸 제넷양(14)이 우수학생 연사로 뽑혀 졸업생 연설을 해 천 여명 청중의 칭찬을 받았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17. 6. 14: 다뉴바 지방회는 기부금 250원을 모집하여 다뉴바 한인국어학교를 설립하고 4일부터 생도 11인을 모집하여 3반을 나누어 국어를 교수한다.

◆1917. 9. 6: 다뉴바 지방은 포도시기를 위하여 각처 동포가 모였고 중앙 총회장 안창호씨와 지방 총회장 이대위씨가 이곳을 심방한 때 8월 29일 국치일을 당하여 2백여 명의 동포가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 1918. 8. 18 한인학생친우회가 다뉴바에서 결성되었다.

◆ 1942년 학교 졸업생: 루터 한, 피터 김, 주니어 오, 중가주 딜라노 고등학교 졸업. 글로리아 백, 중가주 베이커스 필드 주니어 칼리지 졸업

## 주요 인물들

호(1884 - 1968)

태어난 한사 김호는 본명이 김정진이다. 1912년 중국으로 망명할 때 김호로 개명하여 국경을 통과하였다. 한성학교(경기도 전신 1회)에 다니며 신식 교육을 받고 어머니를 따라 정동교회에 다녔다.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 이화, 영흥학교와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에서 신학문을 가르쳤다.



조국을 떠날 때까지 가르쳤던 대성학교 독립사상과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여 일본국기 불계양(국기를 높이 달지 않는) 운동을 전개해 1912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일제에 의해 폐교됐다. 김호는 이 학교를 떠나 조국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상해에서 3년간 차를 운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돈을 모아 미국 행 여비를 마련해 1914년 7월25일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처음에는 노동을 하였지만 생활이 여유에 따라 재미한인사회의 모습과 조국의 독립에 늘 관심을 쏟고 애국애족 사업을 늘 후원하였다. 1919년 국제적 외교활동을 위해 노동 사회개진당을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였다.

1919년 3.1운동이후 샌프란시스코 국민중앙총회의 특파원이 되어 미주 서부지역을 2개월 동안 순회하며 만 달러 이상의 독립자금을 수집하였다. 이 기금은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정에 절대적인 한 몫을 하였다.

1920년 중가주 리들리로 이사하여 김형순과 동업으로 김형제 상회를 설립하였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많은 독립자금을 보내게 되며

본토로 이주한 한인과 유학생에게 직장을 제공하였다. 그는 자두와 복숭아를 접종한 넥타린(털 없는 복숭아) 개발에 성공한 인물이다. Le Grand와 Sun Grand 상표로 넥타린을 미 전국에 공급하게 되는데 6개 농장 5백 에이커에서 나오는 넥타린이 모자라 못 팔 정도였다고 한다.

수백 명의 한인을 고용하였으며 과일 포장회사를 차려 도매상에 공급하였다. 성수기에는 120대의 트럭이 동원된 사실로 그의 사업 규모가 어마했음을 알려준다. 1937년 북미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에 선출되었고 1945년, 1949년에도 다시 총회장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한인사회를 이끌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한인 국방군 편성계획을 미 육군사령부에 제출하고 로스앤젤레스에 한인국방경위대 맹호군을 창설했다. 1936년 6월에 단체 부흥 운동에 참가하여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제도를 개량하고 1937년 1월 제 1차 중앙집행위원장에 당선되어 북미 한인사회를 위해 활동했다. 전 미주의 한인 정치단체를 통일한 1941년 재미 한족연합위원회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1942년 로스앤젤레스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1942년 8월29일 국치일에 로스앤젤레스 시청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주선하여 전 미주 한인들을 감격하게 하고 흥분에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또한 월간잡지 ‘한국의 소리’를 발간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홍보하였다. 1944년 한족연합회는 워싱턴 DC에 외교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김호는 김원용과 함께 외교위원에 선임됐다. 1945년 임시정부는 김호를 연합국회의 대표자로 선임해 국내로 불러들이고 1946년 12월에는 남한과도입법위원으로 피선되기도 했다.

김호는 1949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아 활약했다. 1957년 5월 리들리 지역 한인재단을 설립하고 단장으로 봉사했다. 사망 후에는 리들리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2003년 9월 대전국립묘지에 이장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타운 중심부인 Western과 3가(225 S. Oxford Ave LA)에 2007년 문을 연 Charles H. Kim Elementary School / 김호 초등학교 100년 미주 이민 역사상 최초로 한인의 이름을 딴 미국 공립학교

### (1886 - 1968)



1886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1901년 배재학당을 졸업했다. 영어를 잘 하여 인천세관에서 첫 번째 한인 통역관으로 1년을 일하다 수민원 통역관 시험에 합격했다. 1903년에 첫 이민선의 통역으로 미국에 온 그는 사탕수수농장에서 통역관으로 11년간 하와이에 살았다. 초기에 통역관 5명중의 하나로 겨우 19살이던 당시 한 달에 75달러씩이나 되는 높은 임금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시간당 10센트를 받던 시절 그는 법정 통역에다 한인들의 책임자일 등 여러 일을 하여 한 달에 4백 달러를 벌었다.

1909년 한국으로 돌아가 한덕세와 결혼을 하고 중국 상해에서 살았는데 일본정부가 통역관이 되어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고 체포될까 두려워 새벽 한시에 상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왔다. 샌프란시



이민국에 3개월을 잡혀있었다. 1913년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직장을 잡을 수 없어 고등학교에 들어가 6년을 다녔다. 학업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며 독립운동 후원을 했다.

1921년 리들리에서 그의 친구 김호와 김형제 상회를 시작했는데 특히 그의 능숙한 영어는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넥타린’과 ‘김복숭아’를 최초로 김호와 개발하였는데 리들리에서 재배했는데 김복숭아는 크기는 복숭아보다 더 크고 씨는 작은 과일이었다. 그는 중가주의 농장지대에 전설적인 인물이 됐다. 작은 나무를 \$1.25에 사서 일 년 후에 \$2.50에 팔았다. 보통 나무들은 75센트였다. 한인학생들을 시간당 \$1.40으로 후하게 주면서 일부러 고용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일은 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아리랑 노래만 부르기도 했다. 그는 땅을 한 에이커에 2백-3백 달러에 사서 천 오 백에서 2천 달러를 받고 팔아 이익을 남겼다. 기독교인이었던 김형순은 리들리 교회를 설립하였고 나라를 찾기 위해 중경에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했다. 한인학생과 고아와 노인, 그리고 모든 한인들을 돕기 위해 한인을 위한 장학제도를 처음 마련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희사했다. 1950년 대 한인 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국민회 사업에 열성을 다했다. 1962년 1백40만 달러에 사업체를 팔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봉사 일을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1만 달러를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관 건립에 내놓기도 했다. 딸 영옥이 김호의 아들 경한과 결혼하여 김호와는 사돈지간이 되었다. 1974년까지 매년 750달러씩 한국고아원에 송금하였으며 시민권을 받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았다. 1977년 92세로 사망한 김형순은 국민회장으로 장례를 지냈으며 김형순 부부의 묘지는 그들이 세운 리들리 한인묘지에 있다

(1896 - 1986)

전북 금산에서 태어나 선교사가 세운 전주의 신흥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산의영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11년 이승만의 연설을 듣고 감격, 철저한 이승만 추종자가 되었다. 모교인 신흥학교에서 수학, 물리학을 가르치다 1916년 상해로 출국 미국으로 망명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만난 것을 계기로 평생 독립운동과 독립자금을 대며 이승만을 도왔다. 벼 농장, 포도밭 일을 하다 UCLA 와 남가주대학에서 공부하며 김용중과 농작물 위탁 판매 사업을 벌였다. K&S Jobbers(김 송 위탁판매소)를 설립하고 중가주 다뉴바에 과일포장회사도 설립했다.

37세에 UC 버클리를 졸업한 그는 1929년 대한인동지회 북미 총회를 결성할 때 로스앤젤레스대표로 참석하였다. 로스앤젤레스 대한인동지회 회관 마련에 중주역할을 하였고 ‘북미시보’발행에도 참여하였다. 동지회와 북미총회 재무와 총회장으로 활약했다.

한인 2세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을 주장하여 1972년 남가주 무궁화한국학교를 설립했다. ‘Song’s Packing’ 회사는 초기 이민이 노동으로 큰 타운을 이루던 다뉴바에서 한인들의 생활터전이 되었다. 이승만이 하야, 하와이로 이주하자 송철은 여러 번 이승만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동지회는 침체됐다. 정부에서는 199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1920           딜라노에 한시대와 그의 가족은 The Hanka Enterprise Company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하와이로 이민을 온 한시대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작농을 하려고 본토로 왔다. 땅을 세를 얻어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여 일차 세계대전동안 쌀값이 오르자 그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농장지를 살 수 있었다. 약 4백 에이커가 되던 그의 농토는 1945년 말에는 50만 달러 가치가 되었다. 또한 그의 회사는 캘리포니아 잉글우드라는 곳에서 아파트공사를 하였다.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한인들이 그곳에서 일하였다. 한시대는 흥사단과 대한인국민회에서 리더로 일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그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여 고국으로 돌아왔다.

## 사회상

◆ 1908. 9.30: 증가주 Fresno에 사는 이재수씨를 환영하였는데 도미 후 5년 동안 그의 활동상을 듣고 모두 감격하였다.

◆ 1916. 8. 31: 복숭아 껍질 포도 따는 일 - “금년 다뉴바 포도는 만 근 10년 이래 처음으로 잘되어 일거리가 많다. 타운 근처에 노동주선소로 오시오.” Weddle Place R. F. D. No Box 90 B Dinuba 노동주선인 김병규

◆ 1917. 6. 14: 다뉴바지방회는 기부금 250원을 모집하여 다뉴바 한인국어학교를 설립하고 4일부터 생도 11인을 모집하여 3반을 나누어 국어를 교수한다.

◆ 1917. 9. 6: 다뉴바지방은 포도시기를 위하여 각처 동포가 모였고 중앙 총회장 안창호씨와 지방 총회장 이대위씨가 이곳을 심방한 때 8월 29일 국치일을 당하여 2백여 명의 동포가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 1919. 12. 7: 이순기 이범영이 주축이 되어 노동사회개진당이 결성되었다. 후에 ‘동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으며 구미위원부를 후원했다.

◆ 1942. 12. 3: 다뉴바 한인 꽃 자동차-휴전행렬에 일등상  
지난 11월 11일은 제1차 구주 전쟁의 휴전일이오 전미 각 도시에서 전시 애국심고취를 위하여 모다 대 행렬을 거행하는 가운데 다뉴바시에서 거행한 행렬에는 한인의 폴랴트 ‘미국의 헌법-이것이 전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꽃 자동차에 수만 명 군중의 대환영 중에 최고 1등 상을 받았으며 이 같은 최고상을 4개년을 계속하여 받았음으로 한인의 선전을 크게 성취하였는데.....

◆ 1946. 12. 19: 딜레노 지방회는 12월 9일 박충섭씨 여관에서 년중대회를 열었다.



1882 한미수호조약체결기념으로 출품한 꽃차 행진 (1920)

◆ 1948. 6. 10: 증가주 김형제 상회의 웨어하우스 재건축-“리들리 김형제 상회의 웨어 하우스는 작년 여름에 화재를 당하였고 최근에 다시 건축하여 불원간 낙성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일반 친우는 위하여 축하한다더라.”

◆ 1948. 6.17: 김형제 상회의 재건축 필역 - “재미 한인 중 실업가의 일원으로 중가주 리들리에 있는 김형제상회는 큼직한 지대에 패킹하우스를 7만 이상을 들여 건축하여 모든 바 거의 필역이 되어감으로 7월초에 팩킹을 개시할 예정이라 한다.”

## 유적지

딜라노, 리들리, 다뉴바, 프레즈노 등의 지역이 중가주에 속한다. 이곳에서는 초기 한인들이 과일 농장에서의 노동을 생업으로 삼으며 살았다. 더 이상 농장 일을 하는 한인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초기 이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유적지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딜라노 한인감리교회 - 1028 Clinton St, Delano (현재 New Hope Baptist Church); 딜라노 한인사회의 주요 활동지.

◆ 다뉴바 한인장로교회 - North O St. 과 Alta Ave. 의 교차로에 위치 (현재는 다뉴바 경찰국이 들어섬), 다뉴바 한인사회 주요 활동지.

◆ 리들리 한인장로교회 - 1408 J St, Reedley (현재 멕시코계의 United Pentecostal Church) 리들리 한인 사회의 주요 활동지

◆ 한인노동자 기숙사 및 양로원 터 - 1408 J St. Reedley (현재 옛 리들리 한인장로 교회의 바로 앞 공터); 김형제 상회를 운영하던 김형순이 갈 곳 없는 노인과 노동자, 그리고 한인유학생들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한인장로교회 바로 앞에 건립하였다.

◆ 리들리 공동묘지 - 2185 So. Reed, Reedley, CA 93654 (현재 Reedley Cemetery); 1862년에 건립된 캘리포니아 정부의 공동묘지로 189기의 한인묘지가 있다. 여기에 묻혀있던 김호의 묘는 2002년 2월 28일 이장되어 동년 10월 8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김형순과 그의 부인 한덕세의 묘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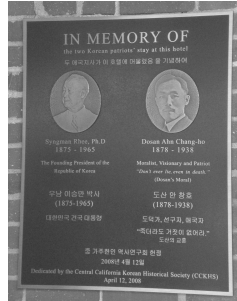


묘지



묘지

- ◆ 공동묘지 - 42088 Road, 100 Dinuba, CA93618  
(현재 Smith Mountain Cemetery) 1910년경 건립된 공동묘지로 현재 45기의 한인 묘지가 있다.
- ◆ 버지스 호텔 - 리들리 시내의 1720과 1722번지 건물로 G. St. 과 11Th 교차점. 이 호텔은 이승만, 안창호, 최진하, 김호 등 한인 지도자들이 리들리를 방문했을 때 묵었던 곳.




버지스 호텔의 현재 모습과 이승만과 안창호가 이 호텔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동판이 2008년 4월 호텔 입구에 부착됐다.

- ◆ 김형제 상회와 자택 - 1st와 7th가 만나는 삼거리의 281번지(김형순 자택), 1st와 7th가 만나는 삼거리의 755번지(김호 자택), 1st와 7th가 만나는 삼거리 (김형제 상회): 김호와 김형순은 사돈관계로 길 건너서 약 10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둘이 운영하던 회사도 같은 거리에 있었다. 지금은 일반 개인 주택과 회사가 있다.



교수를 중심으로 리들리와 다뉴바 시의 도움과 교민들이  
 힘으로 2008년 4월 다뉴바에 세운 한인 이민 기념비  
 (차만재 교수와 다뉴바 시장)



# 받은 서적 및 자료

- 앉아 울었노라(뉴욕한인교회 70년 사, 1992)  
국민회 역사-하와이 국민회의 성립과 활약상  
(John k. 현, 홍성찬 역 1985)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윤병석, 1990)  
근대한국민족운동의 사조(윤병석, 1996)  
나의 사랑 한반도야(장리옥, 주요한 1987)  
노백린의 생애와 독립운동(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3)  
대도(The Korean Evangel) 1권 1908, 2권 1910, 3권 1911  
대한민국 독립운동공훈사 (한국민족운동연구소 1971)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이현희, 1982)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계원 노백린장군 연구 (이현희, 2000)  
도산 안창호 (이광수, 1995)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신용하, 윤경로, 윤병석, 조동걸, 박의수, 유병용, 박명규, 김형찬 1995)  
도산 안창호 자료집(국회도서관 수서정리국, 1998)  
도산 안창호전집 14권(도산안창호선생전집 편찬위원회, 2000)



여록(이만근, 1986)  
 독립(이길상, 1992)  
 독립-재미 한인 사회의 역사적 고찰(백일규, 1943. 11.24)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3권 3.1 운동사 하권 1971)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4권 임시정부사 1972)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군 전투사 상 1973)  
 멕시코 이민사 (이자경, 1998)  
 미국 내 한국관련 기록 및 서류목록(영문판)(양기백-1991)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전, 2001)  
 미주 이민 90주년을 맞으며 ‘아리랑 그 슬픈 가락이여’  
 (선우학원, 1994)  
 미주 이민 100년-초기인맥을 쫓다 (민병용, 1986)  
 미주의 한인교회(안수훈, 1981)  
 미주 한인 70년사 (서광운, 1973)  
 미주 한인교회 100년의 발자취와 비전(윤사무엘, 2002)  
 미주한인 민족운동자료(국가보훈처, 1998)  
 방사경 평생일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북미시보(The Korean American Times 1943,44,45,46)  
 상향한국인감리교회 역사(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1989)  
 상향한국인감리교회 95년약사(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1999)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100년연혁(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2002)  
 서재필 생애와 민족운동(홍선표, 1997)  
 선교로 본 세계 한인 이민사(정석기, 2000)  
 신한민보 1권 1907년 4월26일-1909년 5월19일  
 신한민보 2권 1909년 5월26일-1914년 12월10일  
 신한민보 3권 1914년 12월17일-1917년 10월4일  
 신한민보 4권 1917년 10월11일-1942년 10월22일  
 신한민보 5권 1942년 10월29일-1946년 10월3일  
 신한민보 6권 1946년 10월17일-1961년 12월28일  
 이야기 한국사(이현희, 1994)

그 슬픈 가락이여(선우학원, 1994)  
 안도산(곽림대, 1995)  
 안도산전서 (주요한, 1963)  
 안창호선생(213)-(한국민족운동연구소, 1971)  
 안창호 일대기(윤병석, 윤경로, 1995)  
 이승만-신화에 가린 인물(로버트 올리버, 1960)  
 장인환 옥중기록과 사진(California State Archives at Sacramento)  
 장인환 전명운의 샌프란시스코의거 자료집 1. (윤병석, 2008)  
 장인환 전명운의 샌프란시스코의거 자료집 2. (윤병석, 2008)  
 재미 한인 50년사 (김원용, 1959)  
 재미 한인교회 75년사 (김택용, 1979)  
 재미한인사략(노재연, 1951)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방선주, 1989)  
 친미개화파연구(한철호, 1998)  
 태평양의 찬가(사무엘 김, 1979)  
 하와이의 한인과 교회 (유동식, 1988)  
 하와이 이민역사(신성려, 1988)  
 한미관계 50년사(선우학원, 1997)  
 한미 수교 백년사(1982)  
 한민족과 민족운동(홍윤정, 1998)  
 한민족 광복투쟁사 (이현희, 1989)  
 한국독립운동사(서대숙, 1989)  
 한국독립운동사론(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성수, 1996)  
 한국독립운동사 강의(한국근현대사 연구회, 1998)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연구(신용하, 1985)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일본외무성 육해군성, 1976)  
 한국 유이민사 하권(현규환, 1976)  
 한국 이민사 연구 (고승재, 1973)  
 한국 이민의 뿌리를 찾아서(최봉운, 중앙일보 연재1990)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국사 편찬 위원회(1965)

- 독립운동과 종교활동(박용옥, 2000)
- 한국 여성 항일 운동사 연구 (박용옥, 1996)
- 한민족과 민족운동 (홍윤정 한국민족운동사 연구회)
- 해방 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조규익, 1999)
- 홍사단운동(박현환, 단기 4288)
- 홍사단 50년사 (주요한, 1964)
- 홍사단 70년사(홍사단 70년사 편찬위원회, 1986)
- 
- A Condensed History of The Kungminhoe(Jonn K.Hyun 홍성걸 역)
- Asian in America (H. Brett M Elendy, 1977)
- A Short Sketch of My Life(양주삼, 1933)
- Doing What Had to be Done(Soo -young Chin, 1999)
- Field Work & Family Work (사진신부 노동 시간표)
- From Plantation Laborers To Ardent Nationalists (Young -Ho Son)
- Harvard Encyclopedia of American Ethnic Groups  
(Stephan Thernstrom - Editor)
- In The New World (Peter Hyun, 1991)
- Korean Americans(Lauren Lee, 1995)
- Korean Culture (2002년 Fall, Winter)
- Korean Diaspora (김형찬)
- Korea Journal (Son, Young -ho)
- Korea Kaleidoscope (Sonia Shinn Sunoo, 1982)
- Korean Liberty Conference (The United Korean Committe in America)
- Koreans in America (Warren y. Kim - 김원용, 1971)
- Koreans in America(Choy, Bong -youn - 최봉윤, 1979)
- Plantation Laborers to Ardent Nationalists(Young -Ho Son)
- The Golden Mountain (Easurk Emsen Charr, 1961)
- The Korean Immigrants in America(Hyung -June Moon, 1976)
- The Koreans in America(1882 - 1974)  
(Hyung -chan Kim & Wayne Patterson, 1974)

The Rebirth of Korea(Hugh heung - Wo Cynn, 1919)

Tosan Ahn Chang - Ho (Hyung - chan Kim, 1996)

Quite Odyssey (Sucheng Chan, 1990)

Redwood City Tribune(1970 8월 19일자)

[www.koamhistory.com](http://www.koamhistory.com)

본 도서는 한국학술정보(주)와 저작자 간에 전송권 및 출판권 계약이 체결된 도서로서, 당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 도서를 구매한 도서관은 대학(동일 캠퍼스) 내에서 정당한 이용자(재적학생 및 교직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송과 정당한 이용자 이외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초판 인쇄 2008년 10월 3일  
• 초판 발행 2008년 10월 3일

• 지 은 이 김영란  
• 펴 낸 이 김영란  
• 펴 낸 곳 북산책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3-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31-940-1022 0010-3292-9872  
미국 지사 전화 1-408-515-5628  
e-mail booksanchaek@gmail.com

• 등 록 제일산-115호(2000. 6. 19)  
• 가 격 18,000원

ISBN 978-89-960356-1-9 03800 (Paper Book)  
978-89-960356-3-3 03900 (e-Book)